

목 차

1. 橫城의 歷史와 沿革 / 3
 - 1) 橫城의 過去와 現在 / 3
 - 2) 橫城의 歷史와 沿革 / 6
 - 3) 「司馬榜目」의 分析과 橫城의 姓氏 / 22

2. 橫城의 人物 / 37
 - 1) 高麗時代의 人物 / 37
 - 2) 朝鮮時代의 人物 / 46
 - (1) 朝鮮時代 官職歷任者 / 46
 - (2) 儒行·文學 / 113
 - (3) 蔭仕·筮仕 / 119
 - (4) 壽職 / 131
 - (5) 「司馬試」 入格者 / 136
 - (6) 郡 先生案 / 151
 - (7) 寓居·謫居 / 187
 - (8) 기타인물 / 219
 - 3) 近·現代의 人物 / 222
 - (1) 韓末의 義兵運動 / 222
 - (2) 獨立運動 / 239
 - 4) 孝子·孝婦·烈女·기타 / 263
- [부록 1] 興성 사건자료 발췌목록(『조선왕조실록』) / 309
- [부록 2] 판결문(의병항쟁 · 3·1운동 재판기록) / 330
- 참고문헌 / 361
- 인물 총 색인 / 367

1. 橫城의 歷史와 沿革

1) 橫城의 過去와 現在

<地圖 1> 橫城의 過去, 『關東誌 六』

<地圖 2> 橫城의 過去, 『關東邑誌』

<地圖 3> 橫城의 現在

2) 橫城의 歷史와 沿革

(1) 橫城의 歷史

【고 대】 한민족(韓民族)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독특하고 독자적인 한문화(韓文化)를 형성하면서 살기 시작한 시기는 1940년대까지만 하여도 5,000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뒤 한반도에서 구·중신석기시대의 유물·유적이 발견됨으로써 한민족의 기원문제를 수십만년 전의 구석기시대를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내에서는 횡성군의 둔내면 현천리 구석기유적에서 발견된 석기가 그 형태나 제작수법에 있어서 시베리아 알단강(Aldan江)유역의 후기구석기 시대 유물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한반도의 후기구석기문화가 시베리아지역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 지역에 구석기시대부터 이미 인류가 생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접한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의 홍천강유역에서 5만-10만년 전의 중기구석기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출토되어, 횡성지역에서도 중기구석기시대에 인류가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시대는 횡천현(橫川縣) 또는 어사매(於斯買)라 하였고, 통일신라 경덕왕 때에 황천현(潢川縣)이라 고쳐 삭주(朔州)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 려】 고려시대에 다시 횡천현으로 고쳐 춘주(春州)의 속현(屬縣)으로 되었다가 뒤에 원주(原州)의 속현으로 바꾸었으며, 1389년(공양왕 1)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파견하였다. 횡천이라는 명칭은 군의 젖줄인 섬강이 남북으로 흐르지 않고 동서로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가로의 뜻인 ‘횡’자를 쓰게 된 데서 유래하였다.

【조 선】 1413년(태종 13)에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개칭하는 예에

따라 현감이 파견되었으며, 다음해에는 홍천(洪川)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여 횡성현(橫城縣)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근 대】 1895년(고종 32) 관례에 따라 횡성군으로 고치고 춘천부(春川府)의 관할이 되었으며, 이듬해에 다시 강원도에 소속되었다. 이 지역에는 한말 일제의 침략에 대해 의병으로 항거한 인물이 많고, 항일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의병들의 묘소가 강림면 월현리에 있다. 또한, 천주교의 수용과정에서 신유박해와 병인박해를 피하여 천주교인들이 이곳에 찾아들어 마을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다. 1910년 9월 1일 원주군 서원면(書院面)이 횡성군으로 편입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이 지역에서도 만세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1976년 8월 15일에 3.1운동기념비 협찬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횡성읍 읍하리 3.1공원에 3.1운동기념비를 건립하였다.

【현 대】 6.25 동란 때에는 국군과 북한군의 치열한 전투장이 되었다. 이때 희생된 이 고장의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1968년 6월 횡성읍 읍하리 3.1공원에 충혼탑을 건립하였고, 또한 갑천면에서 의용경찰을 조직하여 향토수호에 힘쓰다가 패주하는 북한군과 교전하던 중에 순국한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갑천면 민들의 힘으로 갑천면 매일리에 충혼탑을 건립하였다.

이곳은 6.25동란중 네덜란드군이 훌륭한 전과를 올린 곳으로, 1951년 2월 12일과 13일에 네덜란드군 오덴(Ouden, M.P.A.) 중령과 휘하장병들이 치열한 전투 끝에 장렬히 전사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횡성읍 읍하리 3.1공원에 현충비를 세웠으며, 우천면 우항리에는 네덜란드참전기념비를 건립하였다. 1963년 영월군 수주면의 강림리(講林里)·부곡리(釜谷里)·월현리(月峴里)가 안흥면에 편입되었고, 1973년 7월 1일 홍천군 및 횡성군내의 면간(面間) 경계가 조정되었다. 1979년 5월 1일 횡성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3년 2월 15

일 서원면 산현리(山峴里)·매호리(梅湖里)·압곡리(鴨谷里) 일부가 원주시로, 우천면 추동리·정암리 일부가 횡성읍에 편입되었다.

《횡성군 연표》

시 대	연 대	주 요 사 항
고 대		둔내면 현천리에서 후기구석기시대 유물 출토 고구려 때는 횡천현 또는 어사매라 함 신라 경덕왕 때, 황천으로 개칭되고 삭주의 영현이 됨
고 려	1389	고려초, 다시 횡천현으로 개칭되고 춘주의 속현이 됨 뒤에 원주의 속현이 됨 공양왕 1년, 감무 파견
조 선	1413 1414	태종 13년, 현감 파견 태종 14년, 횡성현으로 개칭
근 대	1895 1896 1919	고종 32년, 횡성군으로 개편되어 춘천부에 속함 강원도에 속함 3.1운동이 발발하자 만세시위가 일어남
현 대	1963 1979 1983	영월군 수주면 일부가 횡성군 안흥면에 편입 횡성면이 읍으로 승격 서원면 일부가 원성군에, 우천면 일부가 횡성읍에 편입

(2) 橫城의 沿革

【연 혁】 고구려때는 횡천군(橫川郡) 또는 어사매(於斯買)라 부르다가 신라때 한천(漢川)이라 고쳤다가 고려때 다시 횡천(橫川)으로 개칭하고 공양왕 원년(1389)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조 태종 14년(1414)에는 홍천(洪川)과의 발음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횡성(橫城)으로 개칭되었다. 고종 32년(1859) 현감이 관할하던 횡성현(橫城縣)이 횡성군(橫城郡)으로 되었다. 1914년 군내면(郡內面)과 청룡면(靑龍面)을 합하여 우천면(隅川面)으로 고치고, 1937년 비곡면(非谷面)을 안흥면(安興面), 군내면(郡內面)을 횡성면(橫城面), 고모곡면(古毛谷面)을 서원면(書院面)으로 고쳤다. 1963년에는 영월군(寧越郡) 수주면(水周面)의 강림(講林)·부곡(釜谷)·

월현(月峴)의 3리를 안흥면에 편입하였다. 1973년 홍천군(洪川郡) 남면(南面) 일부가 공근면(公根面)에 편입되고, 우천면과 공근면의 일부가 횡성면에, 안흥면의 일부가 우천면에, 둔내면(屯內面)의 일부가 갑천면(甲川面)에, 갑천면 일부가 청일면(晴日面)에 편입되었다. 1979년 횡성면이 읍(邑)으로 승격되어 현재 횡성읍과 우천면(隅川面, 鼎金출장소)·안흥면(講林출장소)·둔내면·청일면·공근면·서원면(山峴출장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다시 안흥면 강림출장소 관할의 강림리(講林里), 부곡리(釜谷里), 월현리(月峴里)가 강림면(講林面)으로 승격하였다. 군청소재지는 횡성읍 읍하리(邑下里) 57의 1번지에 있다. 1998년 10월 31일 현재 법정리 110개, 행정리 172개, 반 729개, 자연부락 621개에 달하며 면적은 997.69km²이다. 도합 14,844가구에 47,358명(남 24,199 여 23,159)이 거주하고 있다.

◆ 횡성읍(橫城邑) : 면적 72.42km², 인구 19,577명. 횡성군의 남서부에 위치한 군청소재지로서 동쪽은 갑천면(甲川面)·우천면(隅川面), 서쪽은 서원면(書院面), 남쪽은 원성군(原城郡, 원주시) 소초면(所草面), 호저면(好楮面), 북쪽은 공근면(公根面)과 접하고 있다. 본래 횡성현(橫城縣)의 소재지로 현내면(縣內面)이라 하다가 고종 32년(1895) 군내면(郡內面)이라 고쳤고, 1937년 횡성면(橫城面)으로 개칭하였다. 1979년 읍으로 승격되었고, 24법정리(32행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섬강과 이의 지류인 금계천(錦溪川)·전천(前川) 유역에 형성된 평지에서 쌀농사와 소채·과일 등의 원예농업이 성하고 한우와 더덕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강릉가도와 춘천~원주간 국도의 교차점에 자리잡은 교통의 요지로 일찍부터 상업이 발달되었다. 읍내에는 산천이 아름다운 운암정(雲岩亭)으로 이름이 높으며, 문화관 1, 문화원 1, 국민학교(초등학교) 6, 중학교 2, 고등학교 2개교가 있다.

△ 읍상리(邑上里) : 읍의 위쪽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 읍하리(邑下里) : 읍의 아래쪽에 위치한 마을이란 뜻이다.

△ 북천리(北川里) : 마을의 북쪽에 내가 흐른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북천리는 북천진(北川津)이란 나루가 있었다고 한다.

△ 마옥리(磨玉里) : 옥동리(玉洞里)에 있었던 옥석(玉石) 광산(鑛山)을 이곳에서 다듬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송전리(松田里) : 마을의 논과 밭 앞에 울창한 송림(松林)이 있었던 데에서 유래한 지명이라고 하며, '소(沼)앞이'가 '소랍이'로 되었다가 한자로 송전(松田)이 되었다고 한다.

△ 내지리(奈之里) : 예전에 벚나무가 많아 벚내(奈)자를 써서 내지리라고 불렀다. 또한 예전에는 '메지'라고도 했었는데 한자로 표기할 때 奈之라고 썼다고도 한다.

△ 옥동리(玉洞里) : 옥(玉) 광산(鑛山)이 있어 옥의 산지였다. 옥굴(玉洞)이란 이름으로도 불렀다.

△ 영영포리(永永浦里) : 일명 영영개라고도 불리며 마을 앞에 흐르는 긴 개울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시대에 영포리(永浦里)로 고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 개전리(介田里) : 마을에 흐르는 개울 앞에 밭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국어에서 '개'는 나루(浦)나 내(川)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로 표기할 때 비슷한 소리를 내는 介자를 사용하였다.

△ 마산리(馬山里) : 황장사(黃壯士)와 애마(愛馬)의 전설이 있으며 말무덤, 말무데미에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 조곡리(鳥谷里) : 새가 많이 서식해서 새골, 셋골이라 하다가 조곡(鳥谷)이 되었다고도 하고 지형이 새처럼 생겨서 라고도 하며, 강(江)의 사이에 있어 '사잇골'이 새골, 셋골로 되었다가 조곡(鳥谷)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한 조곡(鳥谷)은 신곡(新谷)과 같은 지명으로 '새실'이라는 우리말 지명과 통하는데 이는 '새로운 골짜기마을'이라는 의미이다.

△ 생운리(生雲里) : 일명 사문이라고도 한다.

△ 교항리(橋項里) : 앞내다리 다리목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지금도

‘다리목’이라 부른다.

△ 입석리(立石里) : ‘선돌’이라고도 부르는데 국도 근처 산 밑에 5미터 정도의 바위가 서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리(靑龍里) : 이 마을의 용수골에서 청룡이 나온 것에 유래하였다고도 하며, 본래 풍수적으로 횡성이 청룡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묵계리(墨溪里) : 일명 ‘퇴계’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이당(李塘)이란 사람이 반구정(伴鷗亭)이란 정자(亭子)를 지어 후학양성과 친교를 나누었는데, 그때 흘러나온 먹물로 인해 개울이 항상 검었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곡교리(曲橋里) : 굽은다리라고도 부르며 횡성과 원주의 접경이 되는 마을이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길은 구부러져 있었는데 이곳에 다리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갈풍리(葛豐里) : 겹(葛)이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주로 넘나드는 길목으로 조선시대에는 갈풍역(葛豐驛)이 있었다.

△ 학곡리(鶴谷里) : 학이 많이 날아온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이다.

△ 가담리(佳潭里) : 개납이, 개늪, 가담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 앞 개울가에 큰 늪이 있어서 개늪이 가담(佳潭)이라는 한자로 바뀌었다.

△ 모평리(茅坪里) : 이 마을에서 자리를 매는 풀인 띠(茅)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유래한 지명으로 띠뜰이라고도 부른다.

△ 추동리(楸洞里) : 가래울이라고도 불리며 이 마을 뒷산에 가래나무(楸)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정암리(正菴里) : 옛날 정암사(正菴寺)라는 절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했다.

△ 궁천리(弓川里) :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이 활처럼 휘어져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남산리(南山里) : 마을 뒷편의 남산사(南山寺)라는 절과 덕고산(德高山) 때문에 유래된 지명이다. 사찰이 많기로 유명하였는데 지금은 보

광사(普光寺)가 있다.

△ 반곡리(盤谷里) : 마을 생김새가 소반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반도독이라고도 한다.

▲ 갑천면(甲川面) : 면적 123.34km², 인구 2,365인. 군의 중북부에 위치하고, 동쪽은 청일면(淸日面), 서쪽은 횡성읍(橫城邑)·공근면(公根面), 남쪽은 우천면(隅川面)·둔내면(屯內面), 북쪽은 홍천군(洪川郡) 동면(東面)과 접하고 있다. 옛날 진한(辰韓)의 태기왕(泰岐王)이 신라에 패망한 후, 이곳으로 와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군사훈련을 하며 갑옷을 씻었다 하는 갑천(甲川)의 이름을 따서 갑천면이라 칭하게 되었다.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본면 일부가 둔내면과 청일면으로 이관되고 청일면 일부가 본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면소재지는 매일리(梅日里)에 있고, 추동(秋洞)출장소가 있다. 산지가 많아 밭농사가 중심이고 횡성댐 건설로 5개리가 수몰되었다. 중금리(中金里)에는 지방유형문화재 19호(三層石塔 2基)가 있고 면내에는 국민학교(초등학교) 2교, 중학교 1, 고등학교 1개교가 있다.

△ 부동리(釜洞里) : 가마골로 불렸는데 지명을 한자로 표기할 때 가마 부(釜)자와 마을 동(洞)자를 써서 부동리가 되었다.

△ 화전리(花田里) : 횡성군(橫城郡)의 옛 고을인 화전현(花田縣)이 있던 곳에서 유래하였다 한다.

△ 구방리(舊坊里) : 넓은 구방뜰을 기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포동리(浦洞里) : 옛날 작은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거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 한다.

△ 율동리(栗洞里) : 밤밭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예전에는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 삼거리(三巨里) : 세 갈래의 길이 있는 것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 전촌리(荃村里) : 전장군(荃將軍)의 성씨인 향풀 전(荃)자를 써서 전씨(荃氏)마을 이라는 데서 유래하였다.

△ 추동리(秋洞里) : 가래울이라 불렸으며 가래나무가 많다는 의미에서 유래하였다. 다만 다른 지명과의 차이점은 가래 추(楸)자가 아니라 가을 추(秋)자를 쓴다는 점이다.

△ 대관대리(大官垔里) : 옛날에는 개나라라 불렸는데 한자로 표기할 때 개인(晴) 날(日)로 변형되어 청일면(晴日面)의 유래가 된 곳이다. 지금도 외청일(外晴日)이라고 부른다.

△ 병지방리(兵之坊里) : 진한(辰韓)의 태기왕(泰岐王)이 박혁거세(朴赫居世)에게 쫓겨 태기산(泰岐山)으로 들어갈 때 북방의 방어를 위해 병사를 모아 방비하던 곳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 중금리(中金里)
- △ 매일리(梅日里)
- △ 하대리(下台里)
- △ 상대리(上台里)

▲ 공근면(公根面) : 면적 129.14km², 인구 4,399인. 군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갑천면(甲川面), 서쪽은 서원면(書院面), 남쪽은 횡성읍(橫城邑), 북쪽은 홍천군(洪川郡) 홍천읍(洪川邑)·동면(東面)·서면(西面)과 각각 접하였다. 본래는 서(西)공근면이라 부르다가 1914년 공근면으로 개칭하였다. 1973년 본면 학곡리(鶴谷里) 일부를 횡성면(橫城面)에, 홍천군 남면(南面) 상창봉리(上蒼峰里)를 본면에 편입시켰고, 현재 면소재지는 학담(鶴潭)에 있다. 밭농사가 중심이며, 담배·호프 등의 생산이 많다. 상동리(上洞里)에는 지방유형문화재 20호(石佛坐像)·동21호(三層石塔)가 있고, 신촌리(新村里)는 춘천~원주, 서울~강릉을 연결하는 국도가 교차하는 곳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면내에는 국민학교(초등학교) 3, 중학교 1개교가 있다.

△ 상동리(上洞里) : 공근면(公根面)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하여 윗토굴이라고 불렸고 이것이 상동리가 되었다.

△ 부창리(富蒼里) : 이곳의 백이벌(百二坪)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어둔리(於屯里) : 주위에 산이 많아 어둡다고 하여 어둔리가 되었다고 하며, 홍천(洪川)에서 횡성으로 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역졸(驛卒)들이 주둔(駐屯)하였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도 한다.

△ 공근리(公根里) : 곰굴이라 하였는데 삼원수가 살던 곳이라 하여 공근(公根)이 되었다고 한다.

△ 가곡리(佳谷里) : 가전리, 뱅이실, 백아곡(白牙谷)이라고도 불렀는데 가전과 유장곡의 이름을 따서 가곡리가 되었다 한다.

△ 삼배리(三培里) : 3개의 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마치 옥수수 포기를 3군데에 모아 놓은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청곡리(淸谷里) :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금계천(錦溪川)의 물이 맑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행정리(杏亭里) :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마을의 동서남북에 5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은 것에서 유래한다.

△ 상창봉리(上蒼峰里) : 창봉리(蒼峰里)의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창봉리(蒼峰里) : 창봉역(蒼峰驛)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높은 산이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도곡리(陶谷里) : 옹기점이 있었던 마을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도사곡리(陶沙谷里)하고도 하며, 도새울이라고도 한다.

△ 초원리(草院里) : 풀과 숲이 우거져 꽃이 많이 피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학담리(鶴潭里) : 깊은 못(沼)이 있었는데 이곳으로 학이 날아와 놀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매곡리(梅谷里) : 산세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서 말하는 매화낙지혈(梅花落地穴)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오산리(梧山里) : 외딴 산이 있어 오미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수백리(水白里) : 무리, 무리개라고 불렀는데 물이 희게 보이고, 특히 밤에는 달빛에 모래가 희게 보인다는 데서 수백이라 불렀다는 데서 유래했다 한다.

△ 덕촌리(德村里) : 도둑이 없고 덕(德)이 있는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신촌리(新村里) : 새말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유래했다고 한다.

▲ 둔내면(屯內面) : 면적 128.07km², 인구 5,582인. 군의 동부에 위치하여 동쪽은 평창군(平昌郡) 봉평면(蓬坪面)·방림면(芳林面), 서쪽은 갑천면(甲川面)·우천면(隅川面), 남쪽은 안흥면(安興面), 북쪽은 홍천군(洪川郡) 서석면(瑞石面)·본군 청일면(晴日面)에 접하고 있다. 둔방내(屯坊內) 창촌(倉村) 부락에 대어 양곡 저장창고인 둔고(屯庫)를 두었던 바 일반민이 둔창내(屯倉內)라 부르지 않고 둔내(屯內)라 부른데서 둔내면이라 칭하게 되었다. 1973년 영랑리(永浪里) 일부를 안흥면에 이관하고, 안흥면 궁종리(弓宗里)와 갑천면 태기리(泰岐里)·신대리(新垈里) 일부가 본관에 편입되었다. 현재 면소재지는 자포곡리(自浦谷里)에 있다. 태기리는 화전민 이주시책에 따라 전주민이 이주하여 무인리(無人里)가 됐다. 동쪽 군계에 차령산맥 속의 태기산(泰岐山, 1261m) 여맥이 남서 방향으로 달리고 있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다. 밭농사가 중심이고 고랭지 소채·약초·담배·옥수수·감자의 생산이 많다. 면의 중앙부를 영동고속도로가 동서로 달리고 있고, 성우리조트·자연 휴양림등 고원 레포츠타운으로 각광받고 있다.

△ 둔방내리(屯坊內里) : 조선시대 둔창(屯倉)이 있어 거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 영랑리(永浪里) : 한때는 영호리(永湖里)라고도 불렀는데 마을 앞을 흐르는 강이 길고 맑게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조항리(鳥項里) : 지형이 새의 형태를 가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우용리(右用里) : 지형이 우렁이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이전의 우렁이라 하던 것을 우용리로 바꿨다고 한다.

△ 두원리(斗元里) : 두태(斗太)가 잘되어 유래한 지명이라고 한다.

△ 자포리(自浦里) : 예전에는 이곳 개울의 물이 많아 상선이 드나들 정도였고, 배가 닿는 포구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유래한 지명이라고 한다.

△ 석문리(石門里) : 마을 뒷산이 모두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마을에서 마암리(馬岩里)로 넘어가는 고개가 깎아지른 듯한 돌로 되어 있어 그 형상이 돌문(石門)과 같다 하여 유래한 지명이다.

△ 삼교리(雪橋里) : 삼다리라고도 부르는데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관리였던 안석경(安錫敬)이 이 곳에 와서 살기 시작한 이래 그의 호인 삼교(雪橋)를 따서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 마암리(馬岩里) : 마을의 앞산 중턱 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말바위로 부르는데서 유래하였다.

△ 화동리(禾洞里) : 박혁거세(朴赫居世)에게 패한 진한(辰韓)의 태기왕(泰岐王)이 피난온 곳으로 식량이 부족할 때 골짜기에서 범씨가 나와 농사를 짓게 되었다고 하여 유래된 지명이다.

△ 궁종리(弓宗里) : 마을의 관문인 향아리재로 향하는 길의 모습이 활(弓)을 세워 놓은 형상인데 그 꼭지(宗)에 마을이 있어 유래한 지명이다.

△ 현천리(玄川里) : 가무내라고도 하는데 비가 자주 오지 않아 강물이 자주 마른 것에서 유래하였다고도 하고, 강의 모양이 현(玄)자 모양으로 여러 굽이로 꺾여 흐른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이라고도 한다.

▲ 서원면(書院面) : 면적 123.48km², 인구 2,572인. 군의 서단에 위치하여 동쪽은 공근면(公根面)·횡성읍(橫城邑), 서쪽은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청운면(靑雲面)·양동면(楊東面), 남쪽은 원주시(原州市) 원성군(原城郡) 지정면(地正

面)·호저면(好楮面), 북쪽은 홍천군(洪川郡) 남면(南面)과 접하고 있다. 본래 원주군 고모곡면(古毛谷面)으로 1914년 횡성군에서 편입되었고, 1937년 산현리(山峴里)의 칠봉서원(七峰書院)의 이름을 따서 서원면이라 개칭하였다. 현재 면소재지는 창촌리(倉村里)에 있고 산기(山岐)출장소가 있다. 밭농사가 중심이고, 특산물로 표고버섯과 옹기그릇이 있다. 압곡리(鴨谷里)에는 천연기념물 248호인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가 있고, 지방유형문화재 42호인 용운사지(龍雲寺址) 석조곤로사라불좌상(石造昆盧舍那佛坐像)과 동 43호인 유현리(楡峴里) 삼층석탑(三層石塔)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풍수원(豐水院) 성당은 유명하다. 면의 북부에 서울~강릉간의 국도가 지나고 있으며 국민학교(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

△ 창촌리(倉村里) : 조선시대에 공창(共倉)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구엇이라고도 하였고 군영촌(軍營村)이라고도 하였다. 공창이 있어 창말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서 창촌리가 되었다.

△ 압곡리(鴨谷里) : 압실(鴨室)마을과 용곡(龍谷)마을이 합쳐져 이뤄진 마을이라고 하여 두 지명에서 한 글자씩 따 압곡리가 되었다고 한다.

△ 옥계리(玉溪里) : 옥지기라는 마을의 옛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석화리(石花里) : 마을 내의 돌고지라는 돌꽃바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돌꽃바위를 한자로 옮겨 석화리가 되었다고도 하며, 돌꽃바위가 아니라 돌아가는 곳, 즉 돌곶이라 하던 것이 변해 돌꽃이 되고 다시 한자로 옮기면서 석화가 되었다고도 한다.

△ 유현리(楡峴里) : 느릅나무가 많아서 유래한 지명이라고 한다.

△ 금대리(琴垔里) : 검디, 검두, 검대라 하였는데 이곳의 검두굴에서 신선들의 거문고 소리가 들렸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지명이라고 한다.

▲ 안흥면(安興面) : 면적 96.38km², 인구 2,953인. 군의 남동부에 위치하여 동쪽은 평창군(平昌郡) 방림면(芳林面), 서쪽은 원주시(원성군) 소

초면(所草面), 남서쪽은 원주시(원성군) 관부면(板富面)-신림면(神林面), 남쪽은 영월군(寧越郡) 수주면(水周面), 북쪽은 둔내면(屯內面)-우천면(隅川面)에 접하고 있다. 본래 실미면(實味面)이라 불리다가 정곡면(井谷面)으로 고치고 1937년 안흥역(安興驛)의 이름을 따서 안흥면으로 고쳤다. 1963년 영월군 수주면의 일부를 편입하였고, 1973년에는 하궁리(下弓里)를 비롯한 7리를 우천면에, 궁종리(弓宗里)를 갑천면에 이관하고 둔내면 영랑리(永浪里)를 편입하였다. 현재 면소재지는 안흥리에 있고, 강림(講林)출장소가 있다. 강림출장소는 1989년 강림면으로 승격되었다. 남쪽으로 차령산맥이 남서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1000m 내외의 높은 산지가 많아 발농사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남서부가 치악산 국립공원의 일부로 되어 있어 이의 개발이 기대되고 강림의 태종대(太宗臺)는 이곳의 명소이다. 안흥리는 강릉가도의 교통의 요지였으나 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경강국도의 문재터널·전재터널공사등으로 옛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 면내에는 국민학교(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다.

△ 안흥리(安興里) : 안흥역(安興驛)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 이름으로 관촌(官村)이라는 이름과 역촌(驛村)이라는 이름도 있다.

△ 송한리(松寒里) : 마을에 큰 소나무 밭이 있어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려 많이 찾아왔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또한 산골짜기 안에 있다 하여 속안이라고도 하였는데 한자로 바꾸면서 송한(松寒)이 되었다고도 한다.

△ 가천리(佳川里) : 마을 앞을 흐르는 개울이 매우 맑고 아름다워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강가에 있다고 하여 가이내라고 하던 것이 변한 것이라고도 한다.

△ 상안리(上安里) : 과거에는 안흥면(安興面)의 일부였으나 절반을 갈라서 평창(平昌) 방향을 상안흥리(上安興里)라고 부르다가 안흥리가 되었다.

△ 지구리(池邱里) : 일명 못뚝, 목두둑이라고 부르는데 마을을 흐르는 내 가운데 못(池)이 있어 유래된 이름이다.

△ 소사리(所思里) : 마을 입구에 조선시대 당시 강릉현감(江陵縣監) 정우주(鄭宇柱)의 송덕비가 있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소사비리(所思碑里)라고 부르다가 소사리로 변화하였다.

△ 성산리(城山里) : 마을의 지형이 돌로 성(城)을 쌓은 것 같이 돌이 많고 삼태기 모양으로 생겨 유래한 지명이다.

▲ 우천면(隅川面) : 면적 94.78km², 인구 5,426인. 군의 중앙 남부에 위치하여 동쪽은 둔내면(屯內面)·안흥면(安興面), 서쪽은 횡성읍, 남쪽은 원주시(원성군) 소초면(所草面), 북쪽은 갑천면(甲川面)에 접하고 있다. 본래 우문면(隅門面)이라 불리어 오다가 1914년 우천면이라 개칭하였고, 1973년 조곡(鳥谷)·생운(生雲)·남산리(南山里)가 횡성면에 편입되었고, 안흥면 하궁(下弓)·정금(鼎金)·산전(山田)·용둔(龍屯)·상하가(上下佳)·하대(下大)·상대리(上大里)가 본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면소재지는 우항리(牛項里)에 있고 정금(鼎金)출장소가 있다. 대체로 구릉성 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전천(前川)·학곡천(鶴谷川) 연안에 평지를 형성하여 농업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쌀·과수·잎담배 등의 생산이 많고 영동고속도로의 새말 인터체인지와 서울~강릉간 국도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다. 면내에는 국민학교(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

△ 두곡리(杜谷里) :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 큰 독을 쌓아 독 안의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하여 독실이라 하였는데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서 두곡리가 되었다.

△ 문암리(文岩里) : 마을 한 가운데에 솟아있는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선비들이 학문을 논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법주리(法周里) : 이곳의 지명 유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온다. 첫째는 마을에 가뭄이 들어 물싸움이 크게 일어나자 현명한 원(元)이 공평한 판결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악산(雉岳山) 구룡사(龜龍寺)의 법사(法師)가 와서 불법을 폈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 백달리(白槎里) : 두루미가 많이 날아온다고 하여 흰달리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한자로 바꾸면서 백달리가 되었다.

△ 우항리(牛項里) : 쇠목 또는 소목이라고도 부르는데 산의 모양이 소가 드러누운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오원리(烏原里) : 옛부터 까마귀가 많이 날아들었다고 하여 비릇되었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오원역(烏原驛)이 있었다.

△ 양적리(陽赤里) : 중수남리(中水南里)로 불리던 곳으로 마을이 남쪽을 향해 있어 햇볕이 잘 드는 마을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

△ 상대리(上大里) : 옛이름은 대미원리(大美院里)였는데 대면, 데멘이라고도 불렀다. 언덕 위에 큰 숲이 있어 그 숲이 아름다워 대미원미라 불렀으며 세 곳으로 나누었는데 상대미원(上大美院), 하대미원(下大美院), 중대미원(中大美院)으로 부르다가 후에는 상·하대미원을 합하여 상대미원으로, 그리고 지명을 3자로 통일할 때 상대리로 고쳤다고 한다.

△ 하대리(下大里) : 위와 마찬가지로 대미원에서 상·하대원으로 분리될 때 하대미원으로 되었고 다시 하대리가 되었다.

△ 상하가리(上下佳里) : 본래 상가좌곡리(上佳佐谷里)와 하가좌곡리(下佳佐谷里)의 두 마을을 합한 것으로 가좌곡리(佳佐谷里), 가재울이라고 부른다. 예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하여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아름다울 가(佳)자와 도울 좌(佐)자를 써서 가좌곡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 용둔리(龍屯里) : 구룡사(龜龍寺)의 못에서 나온 한 마리의 용이 언덕을 넘어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산전리(山田里) : 타지역보다 산밭(山田)이 많아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이곳의 암곡산(岩谷山)과 저전동(楮田洞)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정금리(鼎金里) : 우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의 지형이 우물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우물 정(井)자와 금이 많이 난다고 하여 쇠 금(金)자를 써서 정금리(井金里)라고 부르다가 마을 앞산의 이름인

정금산(鼎金山)이 술을 걸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이 산의 이름을 따서 정금리로 개칭하였다.

△ 하궁리(下弓里) : 지명의 유래로 산세가 활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옛날 정금(鼎金)에 어가(御駕)가 머물 때 이곳에서 군사들이 활을 들고 어가를 수호하였다는 설이 있다.

▲ 청일면(晴日面) : 면적 133.75km², 인구 2,909인. 군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남동쪽은 둔내면(屯內面), 남서쪽은 갑천면(甲川面), 북쪽은 홍천군(洪川郡) 서석면(瑞石面)·동면(東面)과 각각 접하고 있다. 본래 대관대리(大官垔里)에 있는 개나리굴(狗出窟)의 이름을 따서 개나리라 하다가 그 음이 좋지 않다하여 청일(晴日)로 고쳐 청일면이 되었다. 1973년 본면의 울동(栗洞)을 비롯한 6개리가 갑천면으로 이관되었고, 갑천면의 유평(楡坪)을 비롯한 4개리가 본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면소재지는 유동리(柳洞里)에 있다. 유동천(柳洞川)과 갑천유역에 약간의 벼농사가 행해지나 밭농사가 중심이고 옥수수·호프의 생산이 많다. 신대리(新垔里)에는 지방유형문화재 60호인 삼층석탑(三層石塔)이 있고, 강원민속촌과 봉복사가 유명하다. 면내에는 국민학교(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개교가 있다.

△ 봉명리(鳳鳴里)

△ 속실리(粟實里)

△ 춘당리(春堂里) : 당고개라고 불리는 곳에 서낭당이 있었다는 데서 춘당(春堂)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 유동리(柳洞里) : 버드나무가 많아 버들골이라 불렀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 초현리(草峴里) : 지형이 새우처럼 생겨 새우개, 또는 오폭(鰲浦)라고 불렀는데 1914년에 초현리가 되었다.

△ 유평리(楡坪里) : 갑천(甲川)가에 늪이 많고 들이 열려 있어 늪두루라고 하였는데 느릅나무 유평(楡)자를 써서 한자로 고쳤다.

△ 갑천리(甲川里) : 갑천(甲川)이 발원하는 곳이라서 유래한 지명이

다.

△ 고시리(古時里) : 예전에 솟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솟대배기를 중심으로 잡귀(雜鬼)와 부정(不淨)을 쫓던 고시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 신대리(新垔里) :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새터 또는 신대(新垔)라고 하던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 강림면(講林面) : 면적 96.34km², 인구는 1,575명. 본래는 영월군(寧月郡) 수주면(水周面)의 지역이었으나 1963년 안흥면(安興面)에 이관되어 강림(講林)출장소가 되었고, 1989년 면(面)으로 승격되었다.

치악산국립공원은 부곡계곡과 태종대를 비롯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 부곡리(釜谷里) : 이 마을의 가마골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치악산(雉岳山) 정상인 시루봉이 가마솥을 덮어 놓은 형상으로 생기고 산골짜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하고, 가래나무가 많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 월현리(月峴里) : 이곳의 윗동네를 덕초현(德草峴)이라 하고, 아랫동네를 나루밭(月峴)이라 부르는데 여기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월현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 강림리(講林里) : 예전에 나옹이란 명승(名僧)이 세웠다는 각림사(覺林寺)가 있었던 데서 유래하였다.

3) 「司馬榜目」의 分析과 橫城의 姓氏

(1) 「司馬榜目」의 分析表

<朝鮮時代 橫城 居住 司馬試 及第者>

(1) 시대별 급제자수(王代별 급제자수)

	재위 년간	실시회수		형성		전국		비율 (A/B)
		전체	현전방목	급제자수(A)	비율 (A/78)	급제자수(B)	비율 (B/40649)	
태조	6	2						
정종	2	1						
태종	18	7	1			99	0.24	
세종	32	10	1			198	0.49	
문종	2	2						
단종	3	2						
세조	13	5						
예종	1	1	1			200	0.49	
성종	25	8	3	1	1.29	469	1.15	0.21
연산	12	5	4			780	1.92	
중종	38	13	10			2001	4.92	
명종	22	8	7			1397	3.44	
선조	41	17	14	2	2.59	3998	9.84	0.05
광해	15	9	7	2	2.59	190	0.47	1.05
인조	26	11	11	2	2.59	2189	5.39	0.09
효종	10	5	5	1	1.29	999	2.46	0.10
현종	15	7	7	3	3.89	1392	3.42	0.21
숙종	46	27	27	11	14.28	5401	13.29	0.20
경종	4	4	4	1	1.29	788	1.94	0.12
영조	52	25	24	8	10.38	4795	11.80	0.16
정조	24	11	11	6	7.79	2263	5.57	0.26
순조	34	18	18	16	22.07	3601	8.86	0.44
헌종	15	8	8	1	1.29	1601	3.94	0.06
철종	14	6	6	4	5.19	1261	3.10	0.31
고종	31	17	17	19	24.67	7027	17.29	0.27
계	502년	230회	186회	77명	100%	40,649명	100%	평균 0.25

* 위 표를 제작함에 있어 재위년간, 실시회수, 전국의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였음.

* 다만 형성부분의 급제자수와 그 비율을 계산하였고, 전체비율(A/B)도 따로 계산함.

(2) 반세기별 급제자수

	횡 성		강 원		전 국		비율 (A/C)
	급제자수(A)	비율 (A/77)	급제자수(B)	비율 (A/B)	급제자수(C)	비율 (C/38386)	
15C	1	1.29	29	3.44	575	1.5	0.17
16C전반	0	0	64	0	2652	6.9	0
16C후반	0	0	44	0	2594	6.8	0
17C전반	6	7.79	132	4.54	4331	11.3	0.13
17C후반	11	14.28	200	5.50	5377	14	0.20
18C전반	10	12.98	206	4.85	5173	13.5	0.19
18C후반	9	11.68	162	5.55	4455	11.6	0.20
19C전반	17	22.07	273	6.22	5399	14	0.31
19C후반	23	29.87	470	4.89	7830	20.4	0.29
	77	100%	1,580	3.88	38,386	100%	0.16

* 횡성부분만 계산하여 작성함.

(3) 성관별 급제자수(횡성거주자에 한하여)

초계 정	12	안동 권	6	전주 이	6	원주 이	5
강릉 김	5	남양 홍	4	밀양 박	4	청주 한	3
순흥 안	3	횡성 고	2	전의 이	2	우봉 이	2
전주 유	2	횡성 진	1	음성 박	1	횡성 조	1
문화 유	1	원주 원	1	청송 심	1	광산 김	1
원주 김	1	하동 정	1	고령 박	1	창원 황	1
광주 김	1	풍천 임	1	공산 이	1	초계 변	1
죽산 안	1	평산 신	1	진주 정	1	해주 오	1
여흥 민	1	경주 김	1				

* 빈도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함. 단, 같은 빈도수의 경우 순서없이 나열함.

(4) 왕대별 각 성관의 급제자수

성종대(1) : 횡성 고 1

선조대(2) : 강릉 김 2

- 광해군대(2) : 청주 한 1, 황성 진 1
 인조대(2) : 음성 박 1, 초계 정 1
 효종대(1) : 황성 조 1
 현종대(3) : 문화 유 1, 원주 이 1, 안동 권 1
 숙종대(11) : 강릉 김 2, 원주 원 1, 원주 이 2, 전주 유 1, 청송 심 1, 안동 권 1, 초계 정 1, 광산 김 1, 전주 이 1
 경종대(1) : 원주 김 1
 영조대(8) : 하동 정 1, 안동 권 1, 남양 홍 1, 전주 유 1, 청주 한 1, 고령 박 1, 창원 황 1, 밀양 박 1
 정조대(6) : 광주 김 1, 순흥 안 1, 풍천 임 1, 초계 정 1, 공산 이 1, 원주 이 1
 순조대(16) : 밀양 박 1, 남양 홍 2, 초계 정 3, 순흥 안 2, 초계 변 1, 청주 한 1, 전주 이 1, 밀양 박 1, 안동 권 3, 원주 이 1,
 헌종대(1) : 초계 정 1
 철종대(4) : 전의 이 1, 우봉 이 1, 밀양 박 1, 전주 이 1
 고종대(19) : 초계 정 5, 죽산 안 1, 우봉 이 1, 황성 고 1, 평산 신 1, 진주 정 1, 전주 이 3, 강릉 김 1, 남양 홍 1, 해주 오 1, 여흥 민 1, 경주 김 1, 전의 이 1

(5) 세기별 생원과 진사의 추이

	15c	16c	17c	18c	19c	계
생원	1	0	15	13	21	50
진사	0	0	2	6	19	27
계	1	0	17	19	40	77

2. 조선시대 생원·진사 합격자 명단(황성지역 거주자)

* 시대순으로 나열함.

姓名	合格年	科種	席次	生年	本貫	字	父名	備考
고형산 高荊山	1480 성종 11	生員 式年	3등 0055		橫城 高	정숙 靜叔	고사신 高思信	
김질백 金質白	1603 선조 36	生員 式年	2등 0006	1555 乙卯	江陵 金	문중 文中	김 기 金 玘	
김득룡 金得龍	1606 선조 39	生員 增廣	3등 0074	1565 乙丑	江陵 金	치운 致雲	김계민 金繼閔	
한 용 韓 鏞	1610 광해 02	生員 式年	3등 0057	1558 戊午	淸州 韓	응화 應和	한경윤 韓慶胤	
진홍일 陳興一	1613 광해 05	進士 增廣	3등 0048	1593 癸巳	橫城 陳	경중 敬仲	진여의 陳汝義	
박제원 朴濟遠	1633 인조 11	生員 增廣	3등 0075	1614 甲寅	陰城 朴	중읍 仲揖	박지함 朴至歟	
정석문 鄭錫文	1633 인조 11	生員 式年	2등 0015	1600 庚子	草溪 鄭	시경 時經	정기광 鄭基廣	
조성건 趙性乾	1652 효종 03	生員 增廣	2등 0006	1626 丙寅	橫城 趙	건중 健仲	조 흠 趙 宸	
유필상 柳必相	1660 현종 01	生員 增廣	2등 0026	1630 庚午	文化 柳	선휴 善休	유공한 柳公翰	
이 환 李 棚	1662 현종 03	生員 增廣	3등 0037	1633 癸酉	原州 李	백영 伯英	이홍석 李弘奭	
권성행 權聖行	1666 현종 07	生員 式年	3등 0090	1639 己卯	安東 權	행중 行中	권 익 權 韶	
김이행 金履行	1675 숙종 01	生員 式年	3등 0093	1620 庚申	江陵 金	덕화 德和	김우추 金遇秋	
원세준 元世俊	1682 숙종 08	生員 增廣	3등 0087	1639 己卯	原州 元	수경 秀卿	원자성 元子成	
이정규 李廷揆	1684 숙종 10	生員 式年	3등 0052	1656 丙申	原州 李	이서 而敍	이 환 李 棚	文科→甲戌 1694 別試
유 항 柳 沆	1691 숙종 17	生員 增廣	3등 0051	1652 壬辰	全州 柳	여치 汝治	유의창 柳宜昌	
심일관 沈一貫	1693 숙종 19	進士 式年	3등 0035	1665 乙巳	靑松 沈	도성 道成	심한필 沈漢弼	
권성보 權聖輔	1696 숙종 22	生員 式年	2등 0015	1658 戊戌	安東 權	필경 弼卿	권 색 權 穉	生父(權稷)
이정발 李廷撥	1699 숙종 25	生員 增廣	3등 0097	1676 丙辰	原州 李	사섭 士燮	이 환 李 萱	
정건주 鄭建柱	1702 숙종 28	生員 式年	1등 0003	1662 壬寅	草溪 鄭	입경 立卿	정수안 鄭洙顔	
김중만 金重萬	1702 숙종 28	進士 式年	3등 0062	1677 丁巳	江陵 金	여일 汝一	김학령 金鶴齡	
김계양 金啓陽	1705 숙종 31	進士 增廣	2등 0016	1681 辛酉	光山 金	동미 東美	김우정 金宇鼎	

姓名	合格年	科種	席次	生年	本貫	字	父名	備考
이흥주 李興胄	1708 숙종 34	生員 式年	2등 0008	1672 壬子	全州 李	완중 完仲	이형로 李馨老	
김몽좌 金夢佐	1721 경종 01	進士 增廣	3등 0065	1688 戊辰	原州 金	여필 汝弼	김병원 金炳遠	
권후상 權后相	1725 영조 01	生員 增廣	3등 0074	1674 甲寅	安東 權	광세 匡世	권성진 權聖軫	
정 집 鄭 洙	1740 영조 16	生員 增廣	3등 0081	1694 甲戌	河東 鄭	계심 季深	정수태 鄭壽泰	
유수규 柳秀奎	1740 영조 16	進士 增廣	3등 0042	1687 丁卯	全州 柳	광언 光彦	유 항 柳 沆	
홍호문 洪好問	1747 영조 23	生員 式年	3등 0067	1722 壬寅	南陽 洪	유경 裕卿	홍 현 洪 體	
박대유 朴大有	1747 영조 23	進士 式年	3등 0031	1712 壬辰	高靈 朴	강중 剛中	박지담 朴之覃	文科→壬申 1752 庭
한태회 韓泰會	1759 영조 35	生員 式年	3등 0074	1725 乙巳	淸州 韓	노침 魯瞻	한 익 韓 邵	
황익대 黃益大	1762 영조 38	生員 式年	3등 0083	1710 庚寅	昌原 黃	겸중 謙仲	황 숙 黃 塾	
박돈구 朴敦壽	1771 영조 47	進士 式年	3등 0055	1744 甲子	密陽 朴	수보 壽甫	박계희 朴啓熙	
김광려 金光礪	1777 정조 01	生員 增廣	3등 0079	1740 庚申	光州 金	겸숙 謙叔	김우성 金宇聲	生父(金日聲)
안도준 安道濬	1777 정조 01	生員 增廣	3등 0057	1734 甲寅	順興 安	수지 修之	안석현 安錫憲	生父(安錫佺)
정진양 鄭鎭暘	1786 정조 10	生員 式年	3등 0047	1760 庚辰	草溪 鄭	빈숙 賓叔	정성중 鄭成重	
임희호 任希昊	1790 정조 14	生員 增廣	3등 0079	1761 辛巳	豊川 任	현지 顯之	임경술 任景述	
이혜도 李惠道	1795 정조 19	生員 式年	3등 0065	1742 壬戌	公山 李	경행 景行	이형기 李馨基	
이홍철 李弘喆	1795 정조 19	生員 式年	3등 0093	1760 庚辰	原州 李	중길 重吉	이창조 李昌祚	
박종연 朴鍾淵	1803 순조 03	生員 增廣	3등 0086	1770 庚寅	密陽 朴	보경 普敬	박돈구 朴敦壽	
홍언구 洪彦九	1803 순조 03	生員 增廣	3등 0088	1754 甲戌	南陽 洪	석여 錫汝	홍 전 洪 魏	
홍세적 洪世迪	1803 순조 03	進士 增廣	2등 0030	1762 壬午	南陽 洪	혜백 惠伯	홍우범 洪禹範	
정홍사 鄭鴻師	1804 순조 04	生員 式年	3등 0075	1756 丙子	草溪 鄭	맹집 孟集	정진로 鄭鎭魯	
안병민 安秉民	1805 순조 05	生員 增廣	3등 0063	1772 壬辰	順興 安	이호 彝好	안도영 安道永	
변맹래 卞孟來	1805 순조 05	生員 增廣	3등 0091	1749 己巳	草溪 卞	순보 醇甫	변호성 卞浩性	

姓名	合格年	科種	席次	生年	本貫	字	父名	備考
한중리 韓重履	1805 순조 05	生員 增廣	3등 0093	1782 壬寅	淸州 韓	치안 釋安	한용길 韓用吉	
안홍영 安洪永	1805 순조 05	進士 增廣	3등 0088	1766 丙戌	順興 安	영지 永之	안석경 安錫敬	
이주범 李周範	1807 순조 07	生員 式年	3등 0039	1769 己丑	全州 李	수서 收敍	이계묵 李啓默	
박병연 朴秉淵	1807 순조 07	進士 式年	3등 0079	1776 丙申	密陽 朴	이직 釋直	박돈소 朴敦素	
권상운 權尙贊	1813 순조 13	生員 增廣	3등 0041	1779 己亥	安東 權	성현 誠懸	권환규 權煥奎	生父(權聚奎)
이종남 李鐘男	1814 순조 14	生員 式年	3등 0035	1785 乙巳	原州 李	청여 淸汝	이형철 李亨喆	
권영좌 權永佐	1822 순조 22	進士 式年	2등 0007	1782 壬寅	安東 權	좌형 左衡	권필전 權弼鎭	
권 합 權 颺	1827 순조 27	生員 增廣	3등 0031	1771 辛卯	安東 權	직부 直夫	권한위 權漢緯	
정준화 鄭駿和	1831 순조 31	生員 式年	3등 0047	1805 乙丑	草溪 鄭	문유 文有	정홍수 鄭鴻隨	
정기화 鄭夔和	1834 순조 34	生員 式年	2등 0026	1798 戊午	草溪 鄭	장일 章一	정홍사 鄭鴻師	生父(鄭鴻晉)
정홍제 鄭鴻濟	1835 현종 01	進士 增廣	3등 0083	1804 甲子	草溪 鄭	사규 士規	정원선 鄭元善	
이 탁 李 僞	1850 철종 01	進士 增廣	3등 0055	1803 癸亥	牛峯 李	성탁 聖卓	이광신 李光晨	生父(李光暹)
이종휘 李從輝	1852 철종 03	生員 式年	3등 0048	1781 辛丑	全義 李	이준 釋準	이단우 李端友	生父(李章友)
박수형 朴秀衡	1859 철종 10	進士 增廣	3등 0101	1790 庚戌	密陽 朴	경양 景仰	박주연 朴鑄淵	
이종화 李從和	1861 철종 12	生員 式年	3등 0051	1838 戊戌	全州 李	운룡 雲龍	이원교 李源敎	
정동시 鄭東時	1867 고종 04	進士 式年	3등 0087	1842 壬寅	草溪 鄭	원춘 元春	정현대 鄭顯大	
정극화 鄭克和	1867 고종 04	進士 式年	3등 0193	1797 丁巳	草溪 鄭	덕여 德汝	정홍잠 鄭鴻潛	生父(鄭鴻翔)
안 영 安 兩	1870 고종 07	進士 式年	2등 0016	1796 丙辰	竹山 安	경원 景源	안문흠 安文欽	
정창시 鄭昌時	1873 고종 10	進士 式年	3등 0032	1833 癸巳	草溪 鄭	공기 公期	정현구 鄭顯九	
이 창 李 雲	1876 고종 13	生員 式年	2등 0024	1845 乙巳	牛峯 李	원명 源明	이휘구 李輝九	
고윤택 高潤澤	1876 고종 13	進士 式年	3등 0077	1806 丙寅	橫城 高	덕여 德汝	고상선 高尙善	
신태하 申泰夏	1879 고종 16	進士 式年	3등 0077	1862 壬戌	平山 申	여행 汝行	신석준 申錫駿	

姓名	合格年	科種	席次	生年	本貫	字	父名	備考
정창식 鄭昌植	1880 고종 17	生員 增廣	2등 0025	1862 壬戌	晉州 鄭	현재 顯哉	정원영 鄭元永	
이익배 李益培	1885 고종 22	進士 式年	1등 0002	1814 甲戌	全州 李	운삼 允三	이규형 李奎亨	
이능배 李能培	1885 고종 22	生員 增廣	2등 0022	1862 壬戌	全州 李	달지 達之	이규상 李奎常	
김영하 金永夏	1885 고종 22	生員 增廣	3등 0096	1814 甲戌	江陵 金	헌서 軒瑞	김계옥 金啓沃	초명(學鳳)
홍용섭 洪龍燮	1888 고종 25	生員 式年	3등 0033	1842 壬寅	南陽 洪		홍병의 洪秉義	
오치익 吳致翊	1888 고종 25	生員 式年	3등 0140	1852 壬子	海州 吳	준명 峻明	오경상 吳慶常	
정준시 鄭駿時	1888 고종 25	進士 式年	2등 0011	1857 丁巳	草溪 鄭	성락 聖樂	정현유 鄭顯裕	生父(鄭顯兢)
김동규 金東奎	1888 고종 25	進士 式年	3등 0058	1872 壬申	慶州 金		김제상 金濟祥	
민영관 閔泳寬	1894 고종 31	生員 式年	3등 0051	1878 戊寅	驪興 閔		민일호 閔日鎬	
정민시 鄭敏時	1894 고종 31	進士 式年	2등 0015	1850 庚戌	草溪 鄭	성무 聖懋	정현보 鄭顯輔	
이희세 李熙世	1894 고종 31	進士 式年	3등 0759	1874 甲戌	全義 李		이두로 李斗魯	
이금우 李鏡宇	1894 고종 31	進士 式年	3등 0799	1874 甲戌	全州 李	공림 公臨	이희필 李會弼	

* 한글과 한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마방목 원문을 그대로 옮김.
예) 고종 13년 생원에 합격한 이창이李裳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김

(2) 橫城의 姓氏

◎ 성씨 정리 유형 1

▲ 본관성씨(本貫姓氏)

○ 橫城趙氏

시조는 조익(趙翌), 혹은 조욱(趙昱)이라고도 했는데 ‘고려사(高麗史)’ 연표에는 趙翌으로 적혀 있다. 고려조에서 문하시중(門下侍中) 횡성군(橫城君)에 봉해져 득관(得貫)하게 되었다.

광종 9년에 고려에서 처음 실시한 科擧에 趙翬이 장원급제, 벼슬이 翰林學士에 올라 광종이 그의 淸德을 높이 橫城君에 봉하였다. 그리하여 후손들은 그를 1세조로 삼아 본관을 橫城으로 하게 되었다.

▲ 세거성씨(世居姓氏)

- 1450년대의 주요 거주성씨(居住姓氏)

<橫城縣>

土 姓 秋氏·高氏·趙氏·尹氏·黃氏
續 姓 金氏(←原州)·朴氏(←密陽)

- 1550년대의 세거성씨

<橫城縣>

本 縣 秋氏·高氏·趙氏·尹氏·黃氏·金氏(原州)·朴氏(密陽)

- 1750년대의 세거성씨

<橫城>

秋氏·高氏·趙氏·尹氏·橫城黃氏·原州金氏·密陽朴氏·草溪卞氏·驪陽陳氏·草溪鄭氏

▲ 姓氏別 世居연원

- 玄風(苞山)郭氏

12세 郭宗의 자손 일부가 橫城에 世居했다.

- 慶州金氏

10세 金履振은 橫城에 거주했다.

- 咸悅南宮氏

11세 南宮豈의 자손 일부는 12세 南宮涉의 대 이래로 橫城에 터를 잡았다.

- 南平文氏

13세 文中庸의 후손 일부가 16세 文尙孝 이래로 橫城에 세거했다.

○ 高靈朴氏

7세 朴還을 中祖로 하는 副倉正公派의 일부가 20세 朴自英의 대 이래 橫城에 세거했다.

○ 草溪(密陽)卞氏

卞孝文의 후손은 橫城에 세거했다.

○ 忠州·洪州石氏

8세 石汝明의 후손은 17세 石天原 이래로 橫城에 세거했다.

○ 平海孫氏

通津縣監公派의 후손은 29세손 孫景禧의 대 이래로 橫城에 세거했다.

○ 礪山宋氏

元尹公派의 5대손인 宋文의 후손은 橫城에 세거했다.

○ 恩津宋氏

8세 宋順年의 후손은 橫城에 세거했다.

○ 原州元氏

10세 元孝矣의 후손은 12세 元自謙의 대 이래 橫城에 세거했고, 10세 元孝而의 후손은 20세 元景五·元得亨의 대 이래 橫城에 세거했다. 또한 11세 元仲稜의 후손도 14세 元亨의 대 이래 橫城에 세거했다.

○ 坡平尹氏

尹恃의 후손은 17세 尹復興의 대 이래 橫城에 세거했다.

○ 碧珍李氏

李輪의 후손 일부는 橫城에 세거했다.

○ 驪州李氏

16세 李尙毅의 후손은 橫城에 세거했다.

○ 寧海李氏

13세 李光式의 대 이래 4대에 걸쳐 橫城에 세거했다.

○ 原州李氏(舊)

平川公派의 일부는 橫城에 세거했고, 隱士公派는 16세 李希蕓 이래로

후손이 橫城에 세거했다.

○ 眞寶(眞城)李氏

11세 李友益 이래로 후손 일부가 橫城에 세거하였다.

○ 奉化鄭氏

22세손 鄭在弼의 후손은 橫城에 세거했다.

○ 迎日鄭氏(知奏事公派)

15세 鄭澄의 대 이래 橫城에 세거했다.

○ 草溪鄭氏

11세 鄭便이 고려가 망하자 原州로 퇴거한 이래 후손이 橫城에 세거했다.

○ 河東鄭氏

14세 鄭維의 후손은 橫城에 세거했다.

○ 漢陽趙氏

6세 趙師의 후손은 9세 趙文琳의 대 이래 橫城에 세거했다.

○ 驪陽陳氏

梅湖公派인 8세 陳千佑의 후손은 橫城에 세거했다.

9세 陳幼誠과 10세 陳致常의 후손은 橫城에 세거했다.

○ 淸州韓氏

14세 韓明潛과 韓仲孫의 후손 일부는 橫城에 세거했다.

○ 江陵·楊根咸氏

15세 咸禹功의 후손이 橫城에 세거했으며 定平公派는 20세 이래로 후손이 橫城에 세거했다.

○ 金海許氏

11세 許希溫의 후손은 橫城에 세거했다.

○ 豐山洪氏

6세 洪倣의 후손은 13세 洪萬海 이래로 橫城에 세거했다.

○ 昌原黃氏

3세 黃孝恭의 후손은 5세 黃長孫黃茂의 대 이래로 橫城에 세거했다.

◎ 성씨 정리 유형 2

1. 횡성에 본관(本貫)을 둔 성씨

○ 횡성 조씨(橫城趙氏)

시조(始祖)의 휘(諱)는 옥(昱)이며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내고 횡성군(橫城郡)에 봉(封)해진 조익(趙翌)이다. 조충(趙冲), 조영인(趙永仁), 조계순(趙季珣) 등이 횡성 조씨의 인물들이다. 횡성군 공근면(公根面) 상동리(上洞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횡성읍(橫城邑) 정암리(正菴里)에 세거(世居)해 살고 있다.

○ 횡성 고씨(橫城高氏)

시조(始祖)는 고인비(高仁庇)이다. 고인비는 상장군(上將軍)으로 화전군(花田君)에 봉해졌으며 둔내면(屯內面) 궁종리(弓宗里)에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 왔으며 횡성읍(橫城邑) 정암리(正菴里)에도 세거(世居)하여 살았다. 찬성(贊成)을 지낸 고흥산(高荊山)과 중익부단사(中翼部團使)를 지낸 고희(高旒)와 고향산(高恒山), 고태지(高泰之) 등이 있다.

2. 세거성씨(世居姓氏)

1) 횡성읍(橫城邑)

○ 횡성 조씨(橫城趙氏) : 정암리(正菴里) 망백(望白)마을에 살고 있다.

○ 나주 임씨(羅州林氏) : 학곡리(鶴谷里) 쇠판이 마을에 살고 있으며 300여년 전에 이곳으로 부임한 현감을 따라 나주(羅州)에서 연천(蓮川)을 거쳐 이주했다.

김해 허씨(金海許氏) : 홍천군(洪川郡) 동면(東面)에서 고려 말에 모평리(茅坪里)로 이주했다.

○ 밀양 박씨(密陽朴氏) : 약 500년 전에 반곡리(盤谷里)와 가담리(佳潭里)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생운리(生雲里)에도 많이 살고 있다.

○ 우봉 이씨(牛峯李氏) : 묵계리(墨溪里)와 반곡리(盤谷里)에 살고 있다.

김해 김씨(金海金氏) : 마산리(馬山里)에 약 200년 전부터 정착해 살고 있으며 옥동리(玉洞里)에도 살고 있다.

- 원주 원씨(原州元氏) : 남산리(南山里)에 살고 있다.
- 진주 정씨(晉州鄭氏) : 반곡리(盤谷里)
- 여양 진씨(驪陽陳氏) : 개전리(介田里)
- 성주 도씨(星州都氏) : 정암리(正菴里)

2) 우천면(隅川面)

- 횡성 조씨(橫城趙氏) : 산전리(山田里)
- 원주 원씨(原州元氏) : 우항리(牛項里)

3) 안흥면(安興面)

○ 경주 이씨(慶州李氏) : 지구리(池邱里) 아랫동네에 약 500년 전부터 살고 있다.

○ 전주 이씨(全州李氏) : 지구리(池邱里) 윗마을에 경주 이씨보다 약 180년 후에 들어와 살고 있다.

○ 정선 전씨(旌善全氏) : 지구리(池邱里)에 약 500년 전부터 살고 있다.

- 강릉 김씨(江陵金氏) : 가천리(佳川里)

4) 둔내면(屯內面)

○ 경주 김씨(慶州金氏) : 자포곡리(自浦谷里) 둔방내리(屯防內里) 석문리(石門里)

○ 밀양 박씨(密陽朴氏) : 둔방리(屯防里) 조항리(鳥項里) 마암리(馬岩里)

○ 강릉 김씨(江陵金氏) : 두원리(斗元里) 마암리(馬岩里) 화동리(禾洞里)

- 원주 이씨(原州李氏) : 석문리(石門里)

- 횡성 고씨(橫城高氏) : 궁종리(弓宗里)

- 죽산 안씨(竹山安氏) : 현천리(玄川里)
- 청천 김씨(淸川金氏) : 석문리(石門里)

5) 갑천면(甲川面)

- 청주 김씨(淸州金氏) : 대관대리(大官垓里)
- 기계 유씨(杞溪俞氏) : 화전리(花田里)
- 연일 정씨(연일鄭氏) : 포동리(浦洞里)
- 김해 김씨(金海金氏) : 병지방리(兵之坊里) 추동리(秋洞里)

6) 청일면(淸日面)

- 청산 정씨(淸山鄭氏) : 초현리(草峴里)
- 경주 김씨(慶州金氏) : 춘당1리(春堂1里)
- 안동 권씨(安東權氏) : 유동3리(柳洞3里)
- 연일 정씨(연일鄭氏) : 갑천1리(甲川1里)

7) 공근면(公根面)

○ 전주 유씨(全州柳氏) : 상동리(上洞里)와 부창리(富倉里)에 300년전부터 정착하였다.

○ 초계 정씨(草溪鄭氏) : 초계정씨관동파 (팔계군)의 증손이 초당부락에 살고있으며 팔계군의 묘소가 공근리에 있다. 학담리(鶴潭里) 공근리(公根里)가곡리(佳谷里)에 대성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다.

○ 청송 심씨(靑松沈氏) : 여주 홍천에서 약 200년 전에 매곡리(梅谷里)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절충부호군 심계문의 후손이다.

○ 전주 이씨(全州李氏) : 서울에서 홍천(洪川) 서석(瑞石)과 매곡리(梅谷里) 안담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 이천 서씨(利川徐氏) : 진주부사(晉州府使) 서예원(徐禮元)의 후손으로 매곡리(梅谷里) 산디골에 살고 있다.

○ 김해 김씨(金海金氏) : 경기도 여주에서 학담리(鶴潭里) 노루미에 200여년 전에 이주하였다.

○ 한산 이씨(韓山李氏) : 300여년 전 수백리(水白里)와 청곡리(淸谷

里)로 이주하였다.

○ 횡성 고씨(橫城高氏) : 갑천면(甲川面) 화전(花田)에서 왕자의 난을 피하여 덕촌리(德村里) 회진부락으로 옮겼다.

○ 원주 이씨(原州李氏) : 오산리(梧山里) 매곡리(梅谷里) 덕촌리(德村里)에 300여년 전 이희빈(李希蘋)이 낙향하면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 원주 원씨(原州元氏) : 삼배리(三倍里)

8) 서원면(書院面)

○ 김해 김씨(金海金氏) : 산현리(山峴里) 금태리(琴台里)

○ 청주 한씨(淸州韓氏) : 옥계리(玉溪里)

○ 강릉 최씨(江陵崔氏) : 압곡리(鴨谷里)

○ 안동 김씨(安東金氏) : 옥계리(玉溪里)

○ 김해 허씨(金海許氏) : 금태리(琴台里)

2. 橫城의 人物

1) 高麗時代의 人物

김학모 (金學模)

고려 고종 21년(1234)에 급제하였으며 주서(注書)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조계순 (趙季珣)

고려시대의 문신으로 본관은 횡천(橫川= 橫城)이다. 시중(時中) 영인(永仁)의 손자로 조충(趙冲)의 아들이다. 숙창(叔昌)은 형이며, 변(抃)은 아들이다. 1215년(고종 2년) 3월(丁亥)에 중랑장 추밀원부사(中郎將樞密院副使)를 거쳐서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에 올랐으며 남주(南州)에 침입한 황건적(黃巾賊)을 물리쳐서 그 용맹성을 널리 떨치고 후설(候舌:임금의 말을 아래로 전하는 일, 즉 재상을 이름)을 겸하였다. 그는 문신으로서의 활동도 눈부셨지만 무신으로서의 활약이 더 훌륭하여 상장군(上將軍)으로 무신의 벼슬에 올랐다. 1250년(고종 37)에는 좌승선(左承宣)에 있었는데 당시 무인집정자인 최항(崔沆)에게 딸을 출가시켰다. 이해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오른 뒤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시호는 광정(光正)이다. 조계순의 처는 우봉(牛峯) 최씨(崔氏)로 진강공(晉康公) 최충헌(崔忠獻)의 딸이다.

『고려사 高麗史』 /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

조 변 (趙 抃)

조계순(趙季珣)의 아들이다. 조변은 가음(家蔭)과 처부(妻父) 김방

경의 세력에 힘입어 낭장 겸 감찰사(郎將 兼 監察使)에 제배(除拜)되었다. 일찍이 행수(行首)로서 숙위(宿衛)하였는데 하루는 늦게 입직(入直)하니 문이 닫혀 있었다. 이때 원종(元宗)이 그것을 듣고 틈으로 쫓아 들어오라 명하니 변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인신(人臣)은 마땅히 틈을 쫓아 들어갈 수 없나이다.”라 하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를 가지고 유사(有司)가 궐직(闕直)하여 탄핵하고 파면시키니 사람들이 그 곧음을 칭찬하였다.

김방경이 진도(珍島)를 칠 때에 왕에게 아뢰어 조변을 기용하여 장군을 삼았고 방경을 따라 일본을 정벌한 공이 있다. 그리고 이후에 원(元)이 일본을 칠 때에 충열왕(忠烈王)이 제(帝)에게 청하여 소신교위관군총파(昭信校尉管軍總把)를 제수하여 은패(銀牌)와 인(印)을 내려주었다. 이에 방경을 따라 부정(赴征)하였고 우부승지(右副承旨)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를 역임하였으며, 그 뒤 병으로 인해 면관(免官)되었다. 그리고 왕이 그의 서(壻) 유서(庾瑞)를 초배(超拜)하여 낭장(郎將)을 삼아 조변을 위로(慰勞)하였는데 곧이어 생을 마감하였다.

조변은 용의(容儀)가 위려(偉麗)하고 자못 전고(典故)에 정통하였다. 그리고 성품이 관평(寬平)하니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들은 문간(文簡)과 문근(文瑾)인데 문간의 자는 경지(敬之)요 관(官)은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이르렀다. 또한 풍의(風儀)가 아름답고 예도(禮度)에 숙련(熟練)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문근은 참지정사집현전대학사(參知政事集賢殿大學士)가 되었다.

『고려사 高麗史』

조영인 (趙永仁, 1133 ~ 1202)

고려 명종 때의 재상으로 시호는 문경(文景)이고 본관은 횡성(橫城)이다. 상서(尙書) 시언(時彦)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비범하여 재상의 기량이 있었고, 박학하여 글을 잘하였다. 의종 때에 문과에 급제한 후 출사하여 전주의 서기(書記)가 되어 선정(善政)으로 명성을 떨치고, 명종

이 즉위하자 태자의 보도(輔導)를 맡았으며, 1174년(명종 4)에 좌사원의랑(左司員外郎)으로 하정사(賀正使)가 되어 금나라에 다녀왔다. 뒤에 승선이 되어서 잘못을 바로잡은 일이 많아 주위의 칭찬을 받았다. 1185년에 우승선으로 국자감시(國子監試)의 시원(試員)이 되어 시·부(詩·賦)로 최문목(崔文牧) 등, 십운시(拾韻詩)로 정광우(丁光祐) 등을 선발하고 그밖에 명경(明經) 5인을 뽑았다. 1190년에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가 되었고, 이듬해 참지정사(參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한림학사(翰林學士) 승지(承旨)가 되었다. 1192년에 동지공거(同知貢舉)가 되어 손희작(孫希緯) 등 29인을 진사로 선발하였다. 1194년에 수태위상주국(守太尉上柱國)이 되어 임금을 도와 국사를 돌보니 세상의 여론이 그를 존경하였으며, 1196년에 권판이부사(權判吏部事)가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판이부사(判吏部事)가 되었고, 뒤이어 개부의동삼사 수태사 문하시랑평장사 감수국사(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郎平章事監修國史)가 되었다.

1198년(신종 1)에는 금나라 사신이 와서 전왕(명종)이 양위한 사유를 묻고 직접 만나보려 하는 것을 “전왕은 남주(南州)에서 요양중이나 노정이 30일 걸리는 거리로 만나보려면 2,3개월이나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여 금나라 사신을 되돌려 보내서 왕의 폐립으로 야기된 금나라와의 외교문제를 무난히 해결하였다.

1199년(신종 2)에는 전주사록(全州司錄)을 보수하였는데 동료들과의 불화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1201년(신종 4)에는 노쇠하여 눈이 어두어 정사를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 권력이나 관직을 탐하지 않는 고결함을 보였다. 1204년에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치사(致仕)하였으며, 이듬해인 1202년(신종 5) 9월에 생을 마감하였다. 신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횡성의 세덕사(世德祠)에 배향되었다.

조영인의 아들중 장남 준(準)은 신종 3년에 호부시랑우간의대부(戶部侍郎右諫議大夫)가 되었다. 그는 충수(忠粹)의 여서(女婿)인데, 충헌

(忠獻)이 청요(淸要)함을 알고 시직(是職)에 제수하게 했다.

『고려사 高麗史』 / 『고려사 高麗史節要』

조익문 (趙翌文)

횡성조씨(橫城趙氏)로 고려 光宗 戊午年에 등과하여 그 관직이 翰林學士에 이르렀다.

조 충 (趙 冲, 1171 ~ 1220)

고려시대의 무장(武將)·문신(文臣)이며 자는 담약(湛若)이고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본관은 횡성(橫城)이고 조영인(趙永仁)의 아들이다. 부친인 조영인, 아들 조계순과 더불어 3대가 원수(元帥)를 지냈다 하여 삼원수(三元帥)라 부르며 공근면 상동리(公根面上洞里)에 후손들이 사당(祠堂)을 지어 매년 봄, 가을에 제향(祭享)을 올려 왔고, 이에 이곳 지명을 '삼원수굴'이라 부른다.

『고려사 高麗史』 열전(列傳) 제 16권에 보면 조충은 생후 1개월만에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어릴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여서 효동(孝童)이라 불리웠다고 한다. 또한 횡성조씨(橫城趙氏) 족보에 의하면 그는 상동리 자지봉(上洞里紫之峰) 아래 있는 굴바위(石窟)에서 태어났으며, 그 까닭에 이곳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의 마을이 조촌(趙村)이라 불렀다는 것과 다시 이곳에서 300m 아래쪽에 있었다는 선강정(仙降亭)에서 이들 부자가 시를 읊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조충은 음서(蔭敍)를 받아 간정도독판관(刊定都監判官)에 나아가게 되는데 아버지 조영인(趙永仁)으로 인한 입사(入仕) 즉, 부음(父蔭)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태학(太學)에 들어가는 고예시(考藝試)에서 여러번 우등을 차지하여 드디어는 상사(上舍)에 오르게 된다. 1190년(명종 20)에 진사과(進士科)에 급제하였는데 같이 급제한 인물은 모두 30인이었다. 그 가운데 이규보(李奎報)는 조충 집안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한 듯 하다. 이는 이규보가 30세때 조영인에게 수령직을 구하는 시(詩)가 있고 조충의 뇌서(誄書)를 쓴 것에 알 수 있다. 조충은 급제

후 내시부(內侍府)에 속적(屬籍)되었다가 이어 각문지후(閣門祇候), 상식국봉어(尙食局奉御)에 오르고 다시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郎), 공부랑중(工部郎中)이 된다. 1196년(명종 26)에는 금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1209년(희종 5)에 국자제주(國子祭酒)로서 추영수(秋穎秀) 등 66인을 시취(試取)하였다. 1211년에는 대사성 한림학사(大司成翰林學士)로서 동지공거(同知貢舉)를 겸임하고 있으면서 진사과(進士科)의 강창서(姜昌瑞) 등 28인을 선발하였다. 그 후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예부상서(禮部尙書)를 거쳐 1216년(고종 3)에는 추밀부사 한림학사승지(樞密副使翰林學士承旨)로서 상장군(上將軍)을 겸임하였다. 문신으로서 상장군을 겸한 예는 문극겸(文克謙)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폐지되었다가 조충이 문무를 겸한 인재라 하여 특별히 제수하였다고 한다.

고려 고종 즉위 후 북방 대륙에서는 몽고가 흥기(興起)하여 여진족인 금(金)을 제압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 만주에서는 거란유종(契丹遺種)이 일어나 대요수국(大遼收國)을 세웠다. 거란의 절노(乞奴)는 금산(金山) 등과 더불어 1216년(고종 3)에 고려를 침입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참지정사(參知政事) 정숙첨(鄭叔瞻)을 행영중군원수(行營中軍元帥)로 하고 조충을 부원수로 삼아 경도인(京都人) 가운데 중군가능자와 승군(僧軍)을 모아 출정하였다. 그러나 정숙첨은 퇴패하고 오직 조충만 군사를 독려하여 정숙(整肅)시켰다.

고려군은 1217년 초기의 부진을 씻고 7월부터의 황려현(黃驪縣:지금의 경기도 여주)전투와 제주(堤州:지금의 충청북도 제천)의 박달현전투(朴達峴戰鬪)의 대승과 명주(溟州:지금의 강원도 강릉)에서의 혈전을 통하여 거란족을 여진(女眞)지역으로 몰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진의 갈라전지방(曷懶甸地方)에 들어갔던 거란족은 여진의 군사를 얻어 세력을 회복하고, 다시 1217년 10월에 장성을 넘어 침입하여 전군병마사(前軍兵馬使)였던 김취려(金就礪)와 예주(豫州:지금의 함경북도 정평)의 생천(生川)에서 교전하고 일단 물러갔다.

이때 김취려는 갑자기 병이 위독하여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고려는 김취려가 없는 상황에서 거란의 강력한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에게 철령(鐵嶺) 이북의 땅 대부분을 내주고 말았다.

1218년 3·4월이 되자 거란족은 함경·평안 2도의 분수령을 넘어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의 지역에까지 이르렀다. 드디어 고려 조정에서는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김군수(金君綏)를 조충에 대신하여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삼아 거란족에 대처하려 하였으나, 몇 차례의 승리에 그쳤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 이에 고려 조정은 7월 다시 군을 정비하여 수사공 상서좌복야(守司空尙書左僕射) 조충을 다시 기용하여 서북면원수(西北面元帥)로 삼고, 병에서 회복한 김취려를 다시 병마사로 삼았으며, 정통보(鄭通寶)를 전군으로, 오수기(吳壽祺)를 좌군으로, 신선주(申宣胄)를 우군으로, 이림(李霖)을 후군으로, 이적유(李迪遺)를 지병마사(知兵馬事)로 각각 삼아 거란족 토벌에 나가게 하고, 또 여러 도의 안찰사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돕도록 하였다. 드디어 조충 등은 1218년 9월 6일에 군사를 발하여 동주에 이르러 동곡(東谷)에서 거란족을 물리쳐, 그들의 모국(毛克, 또는 謀克:百夫長) 고연(高延)과 맹안(猛安:千夫長) 아로(阿老)를 사로잡고, 성주(成州:지금의 평안남도 성천)로 나아갔다. 동주전투에서 거듭 패배한 거란족은 그들의 최후 보루였던 강동성(江東城:지금의 평안남도 강동)으로 들어가 거칠게 저항하게 하였다.

이때에 1만인의 몽고군과 2만의 동진(東眞:大眞)군이 거란족을 토벌한다고 성언(聲言)하면서 함경도지방을 거쳐 성천(成川)·강동 등지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몽고의 원수 합진(哈眞)은 태조(太祖:成吉思汗)의 명을 받아 동진을 쳐 신종(臣從)케 한 다음, 지금의 간도지방으로부터 함흥평야를 거쳐 정평의 장성(長城)을 넘고 화주(和州:지금의 永興)·맹주(孟州:지금의 孟山)·덕주(德州:지금의 평안남도 德川)·순주(順州:지금의 평안남도 順川) 등 4성을 공격한 뒤 강동성 방

면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그런데 폭설로 군량의 보급로가 끊기고 거란족이 굳게 성을 지키자 몽고 원수 합진은 고려의 서북면원수 조충에게 사람을 보내 충분한 군량미의 보급과 형제의 맹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에서는 몽고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눈앞의 거란족을 토벌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중군관관 김양경(金良鏡 : 뒤에 仁鏡)에게 정병(精兵) 1천을 거느리고 쌀 1천석을 호송하게 하였다. 이듬해 정월 몽고 원수 합진은 강동성의 공격을 위해 다시 고려군의 증파를 요구해 왔다. 이에 병마사 김취려는 지병마사 한광연(韓光衍)과 함께 십장군(十將軍)의 군사와 신기(神騎)·대각(大角)·내상(內廂)의 정병을 거느리고 몽고군에 합세했으며, 뒤에 서북면원수 조충도 가세하였다.

이리하여 고려의 정병을 비롯하여 몽고·동진의 연합군이 거란족이 웅거한 강동성을 총공격하게 되었다. 당시 취한 전략으로는 우선 적이 도망쳐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 아래에 너비와 깊이 각 10척의 못을 팠으며, 성의 남문에서 동남문까지는 동진의 완안자연(完顔子淵)이 맡고, 동문 이북은 김취려가 맡았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궁지에 몰린 거란족 40여명은 성을 넘어와 몽고군에 항복하고 괴수 함사왕자(賊舍王子)는 목매어 자살하였다. 그 뒤를 따라 적의 관인·군졸·부녀자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였는데, 그 수가 5만여 명에 달하였다. 이때 합진과 조충이 함께 적이 항복하는 상황을 순시하여, 거란족 왕자의 처자와 승상·평장 이하 주요인물 1백여 명의 목을 베고 나머지는 용서하여 군사의 보호를 받게 하였다. 이리하여 마침내 1219년에 연합군에 의해 강동성의 거란족은 완전히 소탕되어 3년 동안 고려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던 거란의 난은 일단락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려는 몽고와 비로소 접촉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맹약으로 인해 몇 년 뒤 고려는 정치적·경제적으로 몽고의 간섭을 받는 굴욕적인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한편, 강화 직후 합진은 거란인의 부녀와 동남(童男) 7백명만을 고

려에 남기고 소수는 전공의 대가로 조충과 김취려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내몽고의 파림(巴林)에 이주시켰다. 이에 조충과 김취려는 거란인 포로를 모두 고려의 백성으로 삼아 각 도의 주현에 토지를 나누어 주어 농사를 지으며 모여 살게 하였는데, 이를 시속(時俗)에 거란장(契丹場)이라 불렀다. 조충은 개선하여 정당문학 판예부사(政堂文學判禮部事)에 오르고, 곧이어 수태위 동중서문하시랑평장사 수국사(守太尉同中書門下侍郎平章事修國史)가 더해졌다. 末年에는 독락원(獨樂園)을 만들어 사대부들과 금주(琴酒)로써 즐기다가 1220년에 50세로 생을 마쳤다. 그가 죽자 3일간 조회를 철하였으며, 개부의동삼사 문하시중(開府儀同三司門下侍中)이 추증되고, 고종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조선조에 이르러 고려 태조(太祖), 고종(顯宗), 문종(文宗), (원종)元宗과 함께 고려 충신 16인 열위(列位)의 한분으로 숭의전에 배향되었다.

그의 묘소는 지금 북한땅인 개성군 상도면 연동(開城郡 上道面 蓮洞)의 太祖王妃齊陵(太祖王妃齊陵)서편 언덕에 있었던 것을 6.25 동란 전인 1948년 지금의 황성군 정암리(橫城郡 正菴里)의 망백(望白)으로 옮겨 왔다.

조충과 연관된 지명을 살펴보면, 공근면 부창리(公根面 富蒼里)에 있는 망제(望祭)머리는 그의 부음(訃音)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 제사드린 곳이고, 배행(拜行)고개는 3원수가 떠날 때 배웅을 하던 곳이다. 그리고 정암의 망백은 벼슬에 오른 후손들이 조상께 사된다는 뜻이라고 전해 진다.

조충이 부원수(副元帥)로 출정했다가 패하여 면직된 뒤에 읊은 시에서 그의恨과 애국심이 잘 나타나 있다.

萬里霜蹄容一蹶 만리 길 서리굽이 한번 미끄러 졌으니
 悲鳴不覺換時節 병마의 비명소리에 시절 바뀐 줄 몰랐노라
 倘教祖父更加鞭 아마도 조부의 본을 받아 다시 주마에 가편하고

踏躡沙場摧古月 모래톱에 유린하는 오랑캐를 격어나 보자

<조충의 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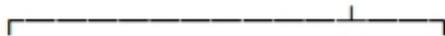
정신(正臣)

|

시언(時彦)

|

영인(永仁, 1133 ~ 1202) = 유자고(尹子固)의 딸



준(準) = 최충수(崔忠粹)의 딸 충(冲, 1171 ~ 1220)=최선(崔洗)의 딸



백기 (伯琪) 숙창 (叔昌) 계순=(최씨 기씨) (季珣)=(崔氏 寄氏) 딸=임효순 (任孝順) 딸=안씨 (安氏) 딸=서씨 (徐氏)



변 = 김방경의 딸 (朴) (金方慶) ↳.....딸 = (최자) (崔滋)

『고려사 高麗史』 /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 / 『진단학회 震檀學會』 / 『韓國史』-中世篇-(乙酉文化社), 1961 /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 『횡성군지 橫城郡誌』 / 『趙冲墓地銘』 『江原史學』 제4집

2) 朝鮮時代의 人物

(1) 朝鮮時代 官職 歷任者

권국형 (權國衡)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부친명은 태래(泰來)이며 순조년간 병과(兵科)에 급제하였다.

권 섭 (權 燮)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부친명은 국규(國圭)이며 횡성사람이다. 순조갑자(1804년) 식년시(式年試)에 급제(兵科)에 병과하였다.

김광창 (金光昌)

강릉김씨(江陵金氏)이며 호는 연사(連史)이고 선조(宣祖) 기유년(己酉年)에 문과에 등제하여 북청부사(北靑府使)를 역임하였다.

김몽좌 (金夢佐, 1688 ~ 1728)

1688년(戊辰)생으로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여필(汝弼)이며, 부친은 김병원(金炳遠)이다. 1721년(경종 1)에 진사(進士)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김몽좌(金夢佐)의 죽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영조 4년에 김몽좌는 무장(茂長)의 수령이 되어 박필몽이 반역하고 달아날때에 관례(官隸) 30명을 내어 병장(兵仗)을 가지고 호송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서, 대간에서 계청하여 나국(拿鞠)하였는데, 완강히 저항하고 형장을 맞다가 죽었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 『영조실록 英祖實錄』

김성발 (金聲發)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부친명은 태려(泰礪)이고 숙종 신묘(辛卯 1711)식년시에 병과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참의(參議)에 올랐다

고형산 (高荊山, 1453 ~ 1528)

횡성고씨(橫城高氏)의 대표적인 인물인 고형산은 1453년 단종(端宗) 1년에 태어나 1528년 중종(中宗) 23년까지 살았으며, 조선조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정숙(靜叔)이었으며 사신(思信)의 아들이다.

그는 1483년(성종 14년)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하였다. 성종 25년에는 지평 현감(砥平縣監)으로 있다가 승훈랑(承訓郎)에 제수되었으며, 연산군 5년에는 종사관, 연산군 6년에는 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이 되었다가 잠시 함경도 경차관(咸鏡道 敬差官)을 지냈으며, 연산군 7년에는 사간원 사간(司諫院 司諫)이 되었다. 그해에 한치형 등이 고형산을 포상할 것을 청하여 두 품계가 오른 종사관(從事官)이 되었으며, 연산군 8년에는 사헌부 집의(司憲府 執義)를 겸직하게 되었다. 그 후 연산군 9년에는 두 품계가 더 올라 해주목사(海州牧使)가 되었으며, 연산군 10년에는 함경북도 절도사(咸鏡北道 節度使)로 재직하면서 가선(嘉善)을 특가(特加)받게 되었다.

중종 2년에는 함경도 관찰사(咸鏡道 觀察使)에 제수되었다. 그는 함경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경흥부(慶興府)와 무이보 등에 창고 설치를 추진하였다. 중종 6년 대간(臺諫)에서 그가 함경도가 농사를 그르쳐서 춘하등(春夏等)의 포핍을 물려서 정하기를 청했다고 하여 이를 추고(推考)하고 등제(等第)하여 계문(啓聞)할 것을 청하였으나, 중종은 포핍(褒貶)의 시기가 법령에 있으므로 등제하여 계문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윤택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중종 11년에 왜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올리기도 하였고, 사창법(社倉法)을 써서 구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행해지지 않았다. 중종 5년에는 함경도 관찰사직을 마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으며, 그해 10월에는 형조참판(刑曹參判)이 되었다가

바로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었다. 중종 6년에는 고흥산이 계모의 나이가 79세가 되어 쇠질(衰疾)한 사실과 자신의 신병을 칭하며 사직하고 돌아가 봉양하면서 병을 조심하기를 청하였으나, 중종은 고향 근처 관찰사직에 결원이 있으면 차견(差遣)하겠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고, 그해 11월에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를 제수하였다. 그는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강릉진(江陵鎭)·삼척진(三陟鎭)·동포(同浦)·울진포(蔚珍浦)·대포(大浦) 등의 다섯 진포(鎭浦)의 성 쌓는 일에 대한 방법을 보고하기도 하였고, 백성들에게의 쌓여있는 행정상의 불만을 정리하여 상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든 고을의 옛 현리(縣吏)들이 진봉(進奉)에 참여하여 생기는 폐단을 아뢰어 이를 중지시켰다. 중종 7년에는 전운사(轉運使)로 재직하다가 계모의 상사(喪事)로 인해서 사직하였다. 이후 횡성으로 내려가 있다가 병을 얻었는데 중종이 친히 약물을 내리고 개소(開素)하기도 하였다.

중종 9년에는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제수 받았으며, 곧이어 호조판서가 되었다. 그해 11월에는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이 되었다. 그러나 간원(諫院)의 논핵으로 인해 대사헌에서 체직되었다. 이에 대해서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간원에서 고흥산은 강직한 기풍(氣風)이 없어서 사헌부의 장관(長官)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외모는 비록 순박하고 진실하여 문식(文飾)은 적지만 기국(氣局)이 평위(宏偉)하고 심지(心志)가 견직(堅直)하며, 처결할 때 임해서는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일에 따라 치밀하게 다스렸으므로, 그때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중하게 여겼다고 하였다. 그해 12월에는 공조판서(工曹判書)가 되었으며 바로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후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거치면서 벼슬이 우찬성(右贊成)에 이르렀다.

그는 조광조(趙光祖) 일파의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한 사람으로 현량과(賢良科)의 실시 등을 극력 반대하였으며, 1519년 남곤(南袞) 일파와 함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켜 신진세력을 축출하였다.

고형산은 함경도 도사(都事), 함경도 경차관(京差官), 해주목사(牧使),

함경북도 절도사(節度使),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북방(北方)의 일에 능통해 있었고, 평소 성질이 질박하고 정직하며 매우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또한 오랫동안 군의 병사와 금전(金錢)과 양곡(糧穀)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아 처리가 매우 정밀하였으며, 일을 정비한 것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도로를 개통한 그의 업적은 높이 살만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주문진에 상륙한 적군이 이 도로를 따라 한양을 함락시켰다 하여, 국왕이 대노하였고 고희산은 무거운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 후 그에 의한 경강선(京江船) 개통에 대한 재평가로 무고함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업적의 지대함에 대한 보상으로 나라에서는 고관서 묘가 있는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망백 마을의 사방(四方) 십리(十里)의 땅을 하사 하였다.

시호는 위열공(威烈公)이었다.

『연산군일기 燕山君日記』 / 『중종실록 中宗實錄』 /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 / 『朝鮮前期畿湖士林派研究』 (一潮閣), 1984./ 『高荊山の 상소문』

고 휴 (高 休)

횡성고씨(橫城高氏)로 고려말에 무과에 등제하여 평안도 중익부단사(中翼部團使)를 역임하고 조선초기에 개국공신(開國功臣)이 되었다. 고휴는 대호군(大護軍)으로 있으면서 이무(李茂)의 여러 아들에 대한 형 집행 감독관이 되기도 하였고, 태종 10년에는 기장(機張)에 가서 이간(李揆)을 체포하라는 명을 받들기도 하였다.

『태종실록 太宗實錄』

권 위 (權 偉)

충헌공(忠憲公) 권근(權近)의 후인(后人)으로 인조(仁祖) 때에 벼슬이 좌랑(佐郎)에 올랐다.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 1637년, 인조14 ~

15년)이 일어나자 소임과 충성을 다하여 남한산성을 사수하다가 아깝게도 호군(胡軍)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으나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충신으로서의 절개를 지키며 항거하였다.

호장(胡將)은 권위를 회유하고 또 협박도 했지만 절개를 굽히지 않아 살해하고 말았다.

김광규 (金光奎)

김해김씨(金海金氏)로 철종년간 무과에 등제하였다. 성격이 후덕하고 겸양하였으며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하였다.

김구정 (金九鼎)

안동김씨(安東金氏)로 무과에 등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을 역임하였다. 단종 2년 2월에 김구정의 고신(告身)을 환급(還給)하게 하였으나, 성종 6년 12월에 충의위(忠義衛) 김구정이 양부(養父) 좌명공신(佐命功臣) 김덕생(金德生)의 상중에 고기를 먹은 죄로 고신을 빼앗아 공신의 후계가 되는 것을 꾀하였다. 그리고 성종 7년에는 김덕생의 제사는 김구정의 아들로 하여금 지내도록 하였다. 성종 14년에는 형조에서 마도만호(馬島萬戶) 김구정이 경내에 왜적이 침입하여 인명을 살상하는데도 추포하지 못한 죄를 물어 장 4백대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정창손 등이 논의하여 용서할 것을 간언하였다.

『성종실록 成宗實錄』

김세권 (金世權)

김해김씨(金海金氏)로 중종때에 등과하여 영변판관(寧邊判官)을 역임하였다.

『강원도사 江原道史』

김현문 (金顯文)

김해김씨(金海金氏)로 고종때 등과하여 첨사(僉使)를 역임하였다.
『강원도사 江原道史』

박 열 (朴 說, 1464 ~ 1517)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이다. 자는 열지(說之)이며, 시호는 이정(夷靖)이고, 본관은 밀양이다. 사옹원첨정(司饗院僉正) 사동(思東)의 아들이다. 1489년(성종 20) 문과에 급제하였다. 승문원(承文院)의 정자(正字)·저작(著作)·박사(博士)로 시작하여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이조좌랑(吏曹佐郎)·이조판서(吏曹判書) 등을 거쳐, 1516년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을 역임하였다.

특히 청렴결백한 그의 행적을 높이 사 국가에서 청백리상(清白吏賞)을 내렸다. 또한 박열의 4대손인 박권(朴權)은 규엄공으로 육조판서(六曹判書)를 모두 거친 인물로 병조판서 당시 중국 수신사로 다녀오던 중 유명한 백두산 경계비를 세웠다.

「人物考」

박 혼 (朴 渾)

조선시대의 무관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춘천지방의 전투에 참전하여 선봉에 서서 수많은 왜적을 사살하는 큰 공훈을 세우며 힘을 다해 싸웠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끝내 전사하였다. 후에 조정에서 벼슬을 내렸다.

서예원 (徐禮元, ? ~ 1593)

조선 중기의 무신이며,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무과에 등과(登科)하여 나주판관(羅州判官)을 거쳐 곽산(郭山) 김해목(金海牧) 부사(府使)를 지내고 진주목(晉州牧) 부사에 이르렀다. 1585년(선조 18) 회령(會靈)의 보을하진첨절제사(浦乙下鎭僉節制使)로 정탐의 임무를 띠고 두만강을 건너 오랑캐 땅에 깊이 들어갔으나 80여명의 부하를 모두

있고 돌아와 종성(鐘城)에 수감된 적이 있다. 그 뒤 김해부사로 있을 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성을 수비하던 중 적의 공격에 밀려서 일단 후퇴했으며, 그 뒤 의병장 김면(金沔)과 협력하여 왜적을 격퇴하고, 1차 진주성싸움에 목사 김시민(金時敏)을 도와 왜적과 항전하였다. 김시민이 병으로 죽자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겸 순찰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兼巡察使)인 김성일(金誠一)에게 발탁되어 진주목사가 되었으나 이듬해 왜적이 재차 진주성을 공격해오자 중과부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전하다 살해당하였다. 그의 부인 이씨(李氏)도 왜적에 대항하다 순국하였고, 뒤이어 장남 계성(繼聖)과 자부(子婦)인 노씨(盧氏) 등 일가족과 노비 김성길(金聖吉) 등 여섯명이 항복 권유와 회유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했다. 이같은 사실은 불모로 일본에 잡혀갔던 이들이 환국하자 밝혀졌고, 숙종(肅宗) 4년에 서예원에게 태의명족여관서(泰議名族閩判書)의 직이 내렸었으며 그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橫城郡 公根面 梅谷里)에 1692년(숙종 18년)에 여섯사람의 뜻을 기리는 여섯 개의 위패가 모셔진 육절여(六節閭)를 세우고 서예원의 충절(忠節)과 의열녀(義烈女)인 부인 등 고결한 일가의 유덕과 한낫 노비에 불과했던 김씨(金氏) 등의 충성심을 기리게 했다. 육절여는 그 후손들과 뜻있는 유림들에 의해 보존되고 있고 1981년도에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65호로 지정되었다.

서예원의 형 인원(仁元)은 당시 명사(名士)로 칭해지고 있었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 『선조수정실록 宣祖修正實錄』 / 『징비록 懲毖錄』 / 『쇄미록 瑣尾錄』

신광악 (申光岳)

횡성사람으로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정조 병오(丙午 1786)식년시에 을과(乙科)에 급제하였다.

신재연 (申在淵)

평산신씨(平山申氏)로 정조때에 등과하여 선략장군(宣略將軍)을 역임하였다.

『강원도사 江原道史』

원천석 (元天錫, 1330 ~ ?)

고려 말기의 은사(隱士)이며, 본관은 원주이다. 자는 자정(子正)이고, 호는 운곡(耘谷)이다. 고려의 정치가 문란함을 보고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부모 봉양에 힘쓰는 한편, 이색(李穡) 등과 사귀면서 시사(時事)를 개탄하였다. 일찍이 태종(太宗)을 왕자 시절에 가르친 적이 있어 그가 즉위하자 자주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태종이 그 집을 찾아갔으나 피하므로 계석(溪石)에 올라 집 지키는 할머니를 불러 선물을 후히 주고 돌아가면서 아들 형(洞)을 기천현감(基川縣監)에 임명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계석을 태종대(太宗臺)라 하였으며, 지금도 치악산 각림사(覺林寺)곁에 있다. 야사(野史) 6권을 저술하였으나 증손 때에 이르러 국사와 저축되는 점이 많아 화가 두려워 불살랐다고 한다.

〈원천석의 가계도〉

1세(世) : 시조 극부(克富-戶長) - 2세 : 종유(宗儒) ----- 3세 : 보령(寶齡:倉正) -- 4세 : 시준(時俊:倉正) --- 5세 : 열(悅:精勇別將) --- 6세 : 윤적(允迪:宗簿寺令) ---- 7세 : 천상(天常: 進士)
 ----- 천석(天錫: 進士)
 ----- 천우(天佑: 縣令)

* 『운곡시사 耘谷詩史』 「석경묘소사적 石類墓所事蹟」에 의거.

시조인 극부(克富)는 원주의 호장(戶長)이었고 고조(高祖)와 증조(曾祖)는 창정(倉正)이었다. 호장과 창정은 모두 지방향리직(地方鄉吏職)으로, 호장은 향리(鄉吏)의 수장(首長)으로 지방민을 다스렸고, 창정은 미

수(徵收)된 조세(租稅)를 보관·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의 조부는 정용별장(精勇別將)을 지냈는데, 정용이란 주현군부대(州縣軍部隊)의 별칭이었으며, 별장(別將)은 그 부대장이었다. 따라서 원천석의 조부때까지는 아직 그 활동영역이 원주지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인 윤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관말직인 종부사령(宗簿寺令)으로서 중앙관직에 진출하였다. 원천석의 3형제 모두 과거에 응시하여 형 천상(天常)과 천석이 진사(進士), 천우(天佑)는 현령직(縣令職)을 취득하였다.

원천석의 생애는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유년기(1330~1351, 충숙왕 17년~충정왕 3년): 원(元)의 지배력이 고려의 정치·법률·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던 시기였다.

둘째, 청년기(1352~1374, 공민왕 1~23): 고려왕조가 원의 지배아래에서 벗어나 자주국(自主國)의 면모를 갖추고 부원세력(附元勢力)을 중심으로 하는 권문세족(權門勢族)들에 의해 빚어진 폐단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때였다. 그러나 개혁운동이 번번히 실패하면서 당시의 정치적 모순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셋째, 장년기(1375~1389, 우왕 1년~창왕 2년): 당시 원·명 교체기라는 국제적 정세에 편승하여 우왕 14년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을 단행한 이성계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우왕과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恭讓王)을 옹립(擁立)하는 등 고려왕조의 몰락시기였다.

넷째, 노년기(1390~?, 공양왕 1년~?): 고려왕조의 완전한 몰락과 새로운 조선왕조가 출현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이루어지고 조선왕조의 기틀이 잡혀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를 보내면서 원천석은 중앙관계에 진출하지 않았다. 그는 어릴적부터 재명(才名)이 뛰어났고, 점차 성장하면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문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원천석은 초기에는 과거에 응시하여 중앙관직에 진출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내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는데, 이것은 막연하나마 그의 눈에 비친 당시의 부조리한 세태에 대해 심각한 환멸을 느꼈고, 또한 고려왕조에 참여하여 당시의 극심한 모

순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원천석은 26세 때 병무(兵務)를 담당한 안부(按部)에 의해 군적(軍籍)에 등록되고, 이에 국자감시(國子監試)에 응시해 합격하여 국자진사(國子進士)가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高麗史』 권74, 지(志) 권제(卷第)28, 선거(選舉) 2. 국자감사(國子監試)에 의하면 ‘恭愍王 四年 正月 右代言 柳淑取 金翊等九十五人’이라고 되어있다. 원천석과 동년(同年)으로서 『운곡시사 耘谷詩史』에 보이는 사람으로는 정도전(鄭道傳), 이승인(李崇仁), 이여충(李汝忠), 안중온(安仲溫), 허중원(許仲遠), 권종의(權從義), 김우(金偶), 심방철(沈方哲) 등이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관계(官界)로 진출할 것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벼슬길에 대한 동경을 단념하고 인간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富貴(부귀)는 일시적이고, 인심(人心)은 순박하지 않음을 한탄하면서 자연을 벗하여 시가(詩歌)나 읊조리면서 살아가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자연을 즐긴 도연명(陶淵明)과 같이 될 것을 바라기도 하고, 도(道)에 통달하여 이백(李白)과 같이 되기를 원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원천석은 취관의욕(就官意慾)을 보이는 시를 읊었는데, 세상을 근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항상 고려왕조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백성들의 질고를 목도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해 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상산사호(商山四皓)의 행적을 본받아 중앙관직에 진출하고자 도모했었다. 그러나 자신의 뜻과는 달리 원천석이 바라는 때는 오지 않고, 도리어 고려왕조의 개혁정치는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그는 다시 인정이 바라는 출세에 대한 욕구나 부귀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오직 도를 구하는 것이 가치있는 일로 여겼다.

한편 원천석은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영위하였는데 1360년(31세)때 딸을 잃었다. 1365년(36세)때에 아들과 1366년(37세)때 상처(喪妻)하였다. 그후 1375년에는 형인 천상이 병을 앓다 생을 마감했고, 그 자신도 말년에 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천석은 불교(佛敎)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당대의 신진사류(新進士類)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도입된 성리학을 수용하여 유학자로서 명성을 얻고자 하였으며, 정주(程朱)와 말고삐를 나란히한다는 칭송을 듣기도 하였다.

원천석은 조선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기도 했는데, 그는 이성계 부자와 정치적 관계를 맺지 않았고, 이들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후 조선왕조가 건국되고 이방원이 왕위에 올라 원천석을 대관(大官)으로 소환하였지만 불응하였다.

원천석은 이색(李穡), 이승인, 정도전 등과 교유관계를 맺었는데 특히 이색과는 같은 연배로서 친밀했고, 당시의 정치적·사상적 흐름에 같은 입장이었다. 이색과 원천석의 사상적 동질성은 불교관(佛敎觀)에서 알 수 있는데, 이색은 불교가 이교(異敎)로서 혼자만을 위하지만 부모에도 효도하고 세상을 교화시키는 바가 크다고 하였으며, 불교가 강상(綱常)을 회복하고 교화(敎化)를 실현하는 바가 유교와 같다고 보았다. 한편 원천석은 불교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았고, 삼교일이론(三敎一理論)을 주장하여 신유학의 전래 이후 고려사회에 노정된 불교대립을 원리적인 면에서 극복하고자 하였다.

『화해사전 華海師全』 元天錫·范世東(朝鮮) 共編.

고려말의 유자(儒者)인 불원재(不諛齋) 신현(申賢, 1298 ~ 1377)의 언행을 수록한 7권 4책의 필사본으로 조선초에 범세동(范世東)과 원천석이 공편(共編)한 것이다. 목차는 권①: 본조주대(本朝奏對), 원주문답(元主問答), 권②: 명조주대(明朝奏對) 간재홀서주대(簡齋笏書奏對), 권③: 비모(備耗), 출처(出處), 권④: 제자문답(諸子問答), 언행(言行), 가범(家範), 발미(跋尾), 권⑤: 제자습유(諸子拾遺), 세헌(世獻), 권⑥: 계술(繼述), 운곡거의(耘谷居義), 권⑦: 동방연원(東方淵源), 부려년사(附麗季事)의 순이나 실제로는 운곡거의가 제자습유 다음에 실리는데다가 권⑤ 세헌과 권⑥ 계술 대신에 사전계사(師全繼辭), 가학(家學), 동양세헌(東陽世獻)이 차례로 실려있어 권⑤⑥의 일부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이는 필사와 제본시의

잘못으로 보인다. 내용은 주로 신현을 중심으로 그 후손, 문인들의 언행, 출처에 관한 기록인데 당시의 유학(儒學)관계 기록이나 평산(平山) 신씨(申氏) 일문(一文)에 관계되는 기록도 산견된다. 본서의 편자나 작성시기 등을 아울러 검토해 볼 때 내용상 무리가 있어 그 신빙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자료라 하겠다.

*운곡 시의 특징은 첫째로 애민의식(愛民意識)에 기초한 현실비판성(現實批判性)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고통받는 농민들에 대한 연민과 권신들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민현실에 대한 사실적 표출을 위해 농민의 말을 시와 제목에서 직접인용하기도 하고, 농민을 서정적 자아로 하여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농민들과 밀착된 삶을 통한 체화된 애민의식의 소산으로, 고려후기 이규보(李奎報), 이곡(李穀), 윤여형(尹汝衡)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주의적 한시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破屋烏相呼 무너진 집에 새들만 지저귀고
 民逃吏亦無 백성은 도망가고 아전도 보이지 않네.
 每年加弊瘼 해마다 폐단만 더해가니
 何日得難娛 어느날에야 즐거움을 얻으리오.
 田屬權豪宅 토지란 토지, 권세가에게 빼앗겼는데도
 門連暴虐徒 문 앞엔 포악한 무리들 줄지었네.
 子遺殊可惜 남아있는 자들 더욱 가엾구나.
 辛苦竟何辜 이 고통 결국 누구의 허물인고? (『耘谷詩史』 卷之一)

이 시는 운곡의 나이 25세(1354년, 공민왕 3)에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양구군(楊口郡)에 이르러 탐관오리의 수탈로 텅빈 마을을 보고 지은 것이다.

둘째, 자주적(自主的) 민족의식(民族意識)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운곡은 고려의 정치문화적 종속성을 비판하고, 혼미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려가 다시 국운(國運)을 회복하여 천하의 대세를 주도하기를 기대하는 문명의식(文明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요동정벌(遼東征伐)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近聞有朝旨	근래 듣건대 조정의 명령으로
除年號改服	年號를 없애고 의복을 개정했다네.
抽兵盡丁數	병사를 뽑음에 장정 수를 다하고
上下事馳逐	상하가 일에 바빠 치달리네.
貔貅十餘萬	용맹한 군사 십여만
欲渡鴨綠江	압록강을 건너려했네.
方期遼海路	바야흐로 요동 길에 오르고자 하여
壯氣浮旗幟	씩씩한 기운 깃발에 넘쳤네.
虎威振中原	무서운 위세 중원에 떨치면
誰敢不畏犬	누가 감히 두려워 복종하지 않으리오.
應當凱旋日	응당 개선하는 날엔
四夷皆附屬	四夷가 다 귀속되리라. (『松谷詩史』, 卷之三)

이 시는 운곡이 59세(1388, 우왕 14)에 지은 것으로 요동정벌에 대한 그의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연호를 없애고 의복을 우리 제도로 다시 고친 것과, 군대를 일으켜 요동정벌을 시도한 우왕(禑王)을 칭찬 것은 강한 민족주체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행도적(行道的 出處觀)과 상고순풍(上古淳風)의 회구(希求)를 들 수 있다. 도(道)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과 고려의 국운을 염려한 운곡은 세속적 명리(名利)에 얽매이지 않고 은거하면서도 결신망세(潔身

忘世)하지 않고, 종신토록 선비로서의 도를 행하며 청렴한 절개를 지켰다. 그는 궁달(窮達)을 명에 맡기고 솔성수도(率性修道)와 후진양성에 전념하였고,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한 통찰을 통해 상고순풍의 회복을 기원하면서 세상과 멀어진 자신의 고독감을 시로 형상화했다.

枉謀謬筭百無效	계획이 그릇되어 모두 효과없이 되었으니
孑然行止何涼涼	외로운 나의 행지 어찌 이리 쓸쓸한가.
曾知窮達在于命	일찍이 窮達이 命에 있음을 알았으니
倚樓休復嗟行藏	누에 기대 다시는 行藏을 한탄치 않으리.
早作乾坤一閑物	일찍이 천지간에 한가로운 것이 되어
獨携蓑笠遊滄浪	홀로 도롱이에 삿갓으로 滄浪에서 노니네.

(中略)

回看世路幾翻覆	世路를 돌아보니 번복이 심해
似聞人海波瀾狂	마치 人海의 미친 물결 소리 들리는 듯하네.
爭名求利日分競	名利를 구하려고 날마다 다투니
甍蟻燈蛾難可防	양고기의 개미와 등불의 나방 막기 어렵네.
駢頭進步却忘返	머리 맞대고, 나아가고 돌아올 줄 모르니
未省前路危機當	앞길에 危機 당한 것 살피지 못하네.
廉讓風衰世以變	청렴하고 사양하던 풍속 쇠하여 세상 변하니
挽回古道知何方	古道를 만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魴魚鱗尾法令弛	지칠대로 지쳐 법령은 느슨해지고
瘡痍滿眼堪悲傷	백성들의 질고가 눈에 가득하니 슬프도다.
儒冠自古多誤己	선비는 옛부터 자기를 그르침이 많은데
況子材智元無良	하물며 나의 재주와 지혜 원래 변변치 못함에라.

(『운곡시사』 권3)

넷째, 의리정신(義理精神)으로, 운곡은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걸쳐 일관되게 의리정신을 견지하였다. 특히 우창왕(禑·昌王) 신씨설(辛氏說)에

내포된 고려왕조 전복(顛覆)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운곡의 직필(直筆)은 후대에 동고지필(董孤之筆)이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당시를 증언하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섯째, 자연친화(自然親和)로서, 그의 삶의 공간인 전원(田園)은 부정과 부조화의 정치현실과는 대립적인 순수와 조화의 공간이며, 그가 염원하는 이상적인 세계상이다.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은일사상(隱逸思想)의 영향으로 많은 문인들이 도연명을 흠모하여 은일적 성향의 작품을 남겼으나, 대부분이 현실정치를 떠나지 못했다. 그러나 운곡의 도연명에 대한 호상(好尙)은 관념적,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여섯째, 원융회통적 사상(圓融會通的思想)에 기초한 선·선(仙·禪)적 취향이다. 운곡의 삶의 공간이었던 전원은 현실정치를 멀리한 것이지만, 속세 자체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혼탁한 현실정치로부터 정신적·물질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또한 속세에 대한 회구는 그의 원융회통적 사상과 결합되면서 선계와 선인의 초세(超世)적 은일을 동경하는 도교적 성향과, 불승(佛僧)의 높은 정신경계·불사(佛寺)의 청결한 분위기를 동경하는 불교적 성향의 시로 형상화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운곡이 유불도(儒佛道) 삼교일리론(三教一理論)을 주장하고, 삼소도(三笑圖)를 시제로 언급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원천석에 대한 후인의 평가:

①정범조(1723-1801)는 원천석의 시작품 속에 초동목부(樵童牧夫)들이 읊조리는 노래가락이 스며 있다고 하여 그의 문학속에 평민들의 우리말가락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실을 지적하였다.

②정량흠은 삼은으로 불리는 이색과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의 절의와 비교하였다. 그는 원천석의 경우 고려 왕조에서는 일개 진사의 신분으로 왕조에 충의를 보이고, 절의를 굽히지 않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정량흠은 절개(節概)의 운용(運用)과 사필(史筆)의 깨끗함이 그의

문학 속에 전래되고 있으므로 역사에 당당할 이는 삼은(三隱)보다 운곡이라고 지적하였다.

③원은은 “도에 대한 믿음이 돈독하고 스스로의 앎이 밝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원천석이 은둔한 사실부터 변호함. 또한 높고 바르며 큰 학문에서 그의 문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경전·역사(經典·歷史)로서 가치를 논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한다.

④허목(許穆)은 원천석이 군자(君子)의 자세를 몸으로 보여준 인물임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그의 행적이 무슨 이유로 백이와 숙제에 비견될 수 있는가를 ‘청’(淸)의 논리로서 설명하였다.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 『조선금석총람 朝鮮金石總覽』 / 柳柱姬, 「元天錫의 生涯와 現實意識」(中央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 1990./ 『華海師全』 / 林鍾旭, 「耘谷 元天錫의 詩文學 研究」(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耘谷詩史』 / 朴敬子, 「高麗 鄉吏制度의 成立」, 『歷史學報』 63, 1974./ 柳浩錫, 「高麗時代 進士의 개념에 대한 檢討」, 『歷史學報』 121, 1989./ 梁銀容, 「元天錫의 三教一理論에 대하여」, 『韓國宗教』 11·12집, 1987.

이경조 (李景祚)

원주이씨(原州李氏)이고 영조(英祖) 정묘년(丁卯年)에 문과에 등제하여 그 직이 예조정랑(禮曹正郎)에 이르렀다. 이경조와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경조는 인평군(仁平君) 이보혁(李普赫)의 아들인데 나중에 이름을 경호(景祐)로 고치었다. 그에 대하여 난잡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평이 있었다. 영조(英祖) 26년에는 목릉(穆陵)의 별검(別檢)의 직을 수행하였는데, 태거와 사치를 일삼는다고 하여 탄핵되었다. 그후 다시 영조 28년에 충주목사(忠州牧使)로 복직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단지 부사(府使)의 이력이 있다고 하여 목사로 복직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논박이 있었다. 영조 29년에는 승지(承旨)로 임명되었다

가 30년에 파면되었고 다시 31년에 승지로 복직되었다가 31년 6월에 체직되었다.

『영조실록 英祖實錄』

이공량 (李公亮)

조선시대의 사람으로 사후에 좌의정(左議政)을 제수받았다.

이도남 (李權男)

이도남은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조카이고, 시호는 의정(毅靖)이다. 그는 무관으로서 원주목사 홍보(原州牧使 洪寶)의 휘하에 장졸로 있을 때, 횡성(橫城)에서 이인거(李仁居)가 난을 일으켜 횡성현을 점령하고 난동을 부리자 홍보와 함께 횡성에 주둔하여 이인거를 사로잡고 난을 평정하여 서울로 압송시킨 후 목베어 처벌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신으로 은소무 2등훈(銀昭武 二等勳)에 책록되었고 오산군(鰲山君)에 봉하여 졌으며 사후에 판서(判書)의 벼슬이 증직(贈職)되었다.

이진기 (李震箕)

횡성사람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며 명로(命老)의 아들이다. 영조 정미(丁未, 1727)증광시(增廣試) 병과에 합격하였고 지사(知事)를 역임하였다.

이태령 (李泰齡)

횡성사람으로 본관은 원주(原州) 영조 갑자(甲子, 1744) 식년시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지평(持平)을 역임했다.

정곤수 (鄭崐壽, 1538 ~ 1602)

조선 선조 때의 명신이다. 초명(初名)은 규(逵), 자는 여인(汝仁), 호는 백곡(栢谷)·경음(慶陰)·조은(朝隱)이다. 시호는 충익(忠翼)이고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아버지는 부사맹(副司猛) 사중(思中)이며 어머니는 부사과(副司果) 정희수(鄭希壽)의 딸이다. 큰아버지인 대호군(大護軍) 승문(承門)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1554년(명종 9) 남상(南庠: 太學)에 들어가고, 이듬해 별거초시(別舉初試)에 급제, 1565년(명종 20)에 예안(禮安)의 도산정사(陶山精舍)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을 찾아 『심경 心經』을 배웠으며, 김한현(金寒暄)의 세계사적(世系事蹟)과 저서를 모아 퇴계에게 보내어 퇴계로 하여금 『경현록 景賢錄』을 수찬하게 했다. 선조(宣祖)가 즉위한 1568년 진사에 합격, 1572년(선조 5)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고, 경력(經歷)을 거쳐 1576년 괴과(魁科)에 급제, 부사과(副司果)·상주목사(尙州牧使)·공주목사(公州牧使)를 거쳐 1583년(선조 16) 호인(胡人)들이 난을 피하여 국사가 어려울 무렵에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3로(路)가 잇닿아 있는 강원도를 잘 다스리고 돌아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우승지(右承旨)를 지냈다.

1587년 해주(海西)지방에 대흥년이 들자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임명되어 크게 혜정(惠政)을 베풀고 돌아와서, 세습으로 서천군(西川君)이 되고 병조(兵曹)·형조참판(刑曹參判)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서행(西行)하였다. 대사간(大司諫)이 되어서는 명나라에 원병을 청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청병진주사(請兵陳奏使)로 중국에 파견되었다. 1593년 원병을 얻어온 공로로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오르고 판돈녕 부사(判敦寧府事)가 되었다. 이즈음 영위사(迎慰使)·접반사(接伴使)를 맡아 명나라 장수와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같은해 거듭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오르는 상을 받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 1595년 도총관예조판서(都總管禮曹判書), 1596년 좌찬성(左贊成)을 역임하고, 1597에는 사은 겸 변무진주사(謝恩兼辨誣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1년 선조를 호종한 원훈(元勳)으로 이항복(李恒福)과 함께 녹훈되었다. 일찍이 수령을 지낼 때는 학문을 진흥시키고 사풍(士風)을 진작시키는 데에 힘썼으며, 임진왜란 당시의 대명외교에 큰 역할을 하였다. 죽은 뒤인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1 등에 녹훈되었으며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추록되었다. 성주(星州)의 유계서원(柳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백곡집 栢谷集』 4권 4책이 규장각도서(奎章閣圖書)에 전한다.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민(忠愍)이었는데 충익(忠翼)으로 바뀌었다.

『금강록(金剛錄)』 : 정곤수의 금강산 기행견문록이다. 『와유록 臥游錄』 8권에 실려 있으며, 최철(崔喆)이 번역한 『동국산수기 東國山水記』에도 실려 있다.

여정은 1605년(선조 38) 8월 정묘일에 고성군 백천교(百川橋)에서 출발하여 유점사 승려 10여인의 안내로 이대래(李大來)·유해종(柳海宗)과 함께 구령(狗嶺)을 넘어 유점사에 도착한다.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남여를 타고 축수굴(蹴水窟)까지 이르렀는데, 험한 바윗돌 때문에 남여를 버리고 나무뿌리를 잡고 절벽에 오른 뒤, 좁은 길을 찾아 천천히 걸어 은선대(銀仙臺)를 지나서 푸른 돌에 걸터앉아 12폭포와 그 곳의 경치를 감상한다. 그리고 승려들이 전해주는 청학(靑鶴)과 폭포에 얽힌 사연을 기록한다. 해가 저물자 다시 남여를 타고 비로봉에 이르러, 허봉(許篈)이 8월 16일 밤에 비로봉 정상에서 지은 시를 읊고 이허대(李許臺)에 이른다. 이어 마하연(摩訶衍)에서는 그곳의 노승들과 문답하고, 만폭동에 가서는 양사언(楊士彦)이 반석에 써놓은 ‘봉래남악원화통천(蓬萊嵐嶽元化洞天)’이라는 여덟 글자를 보고, 교룡(蛟龍)이 뛰어나오는 형상과 같다고 칭찬한다. 표훈사(表訓寺)에서 장안사(長安寺)를 향해 갈 무렵, 그곳 군수 이자교(李子喬)를 만나 밤늦도록 승방에서 잡담을 나누기도 한다. 사흘째 되는 날 남여로 표훈사로 돌아와 유해종과 함께 정양사(正陽寺)를 오르기 시작하

여, 천일대(天逸臺)를 지나 혈성루에서 쉬면서 난간에 의지하여 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에 눈길을 빼앗긴다. 이때 작자는 ‘저렇게 많은 봉우리들이 제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의심하면서 곁에 있는 승려에게 물어보며, 마침내 그곳의 경치가 아까워서 혈성루에서 이틀 동안 머물게 된다. 그때, “만폭동을 뛰어난 경승지라 하지만 혈성루 밑의 광정보다는 못하다”고 하였다. 곁에 있던 이계현(李啓賢)이 자기는 40년간이나 금강산을 드나든다고 하면서 “금강산을 보고자 할진대 곧 정양사를 가야 한다”고 말하자, 작자는 그 말에 동의한다.

작자는 끝까지 승려들이 메고 다니는 남여를 이용했고, 곁에 호종하는 관리가 있어 주목된다. 김창협(金昌協)의 『동유기 東游記』, 이정구(李廷龜)의 『유금강산기 유금강산기』, 이경석(李景奭)의 『풍악록 楓嶽錄』, 이명한(李明漢)의 『유풍악기 游楓嶽記』 등과 함께 대표적인 금강산 기행록의 하나이다.

『보학(譜學)』: 모든 집안의 족보에 통달하여 어느 누가 와서 파계(派系)에 관한 것을 물어보아도 막히는 데가 없이 즉석에서 설명하였다고 하는 이가 바로 정곤수(鄭崑壽)였다. 특히 『서천씨족보 西川氏族譜』라는 종합보를 편찬하기도 한 정곤수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육보(肉譜)’라는 칭호를 받았다.

보학의 연구목적은 일차적으로 족보에 관한 지식추구에 두고 있지만, 족보란 결국 씨족제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인만큼 그 족보를 통하여 씨족제도의 발달과정, 그리고 씨족제도가 우리 전통사회에서 차지하는 구실 내지 영향 등의 문제를 규명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인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즉, 보학은 우리의 전통사회구조와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소외될 수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 특히 족보가 크게 발전하였던 조선시대에는 가문배경에 관한 요건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대체되거나 상쇄될 수

없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것은 이른바 양반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교양을 갖춘 웬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족보에 관심이 깊었으며,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의 족보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족보를 통해서 해당 가문의 내력을 알고 어느 인물의 가계 배경을 안다는 것은 사대부(士大夫)의 기본 교양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유학자(儒學者)가 동시에 또 보학자(譜學者)였다. 당시 보학이라는 학문이 정식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은 아주 널리 쓰여졌다. 자기 집안의 내력은 물론 남의 집안의 족보까지도 통달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보학에 밝다’고 하였다. 이렇듯이 조선시대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당시 교양인이라면 누구나 다 각 씨족보의 내용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이른바 보학이 크게 발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또 만성보(萬姓譜)니 대동보(大同譜)니 또는 잠영보(簪纓譜)니 동국세보(東國世譜)니 하는 이름의 각종 종합보가 일찍부터 발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밖에도 팔세보(八世譜)니 십세보(十世譜)니 하는 일종의 종합보에 해당하는 가계보가 일찍부터 크게 발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과 같은 종합보나 특수형태의 가계보는 일본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며 중국에서도 전혀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다. 보학의 발달과 함께 보학의 대가도 많이 출현하였으며, 정곤수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다.

『백곡집(栢谷集)』 :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정곤수의 시문집이다. 4권 4책이며 목판본이다. 1675년 그의 외증손 심역(沈櫟)이 편집, 간행하다 중단된 것을 1710년 세계보(世系譜)와 연보를 추가하여 현손 건(鍵)과 심역의 아들 정희(廷熙)에 의하여 다시 간행되었다. 권두에 민진후(閔鎭厚)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현손 건의 발문이 있다. 권 1은 시 36수, 표(表) 2편, 찬(贊)·사(辭)·서(序) 4편, 발(跋)·설(

說)·제문(祭文) 각 3편, 권2는 소차(소차) 8편, 계 13편, 장계(狀啓) 4편, 정문(呈文) 15편과 계첩(揭帖) 등, 권3은 부경일록(赴京日錄)과 서(書) 8편, 비지(碑誌) 8편, 권4는 부록으로 교지(교지) 1편, 사제문(賜祭文) 2편, 제문 9편, 충현사봉안제문(忠賢祠奉安祭文)·만사(輓詞)·행장(行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경일록 赴京日錄』은 그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 가서 활동한 사실을 적은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다. 『연보』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황(李滉)을 만나 문답한 사실을 비롯하여 특히 그가 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의주로 호종한 사실과, 진주사가 되어 명나라에 가서 활동한 사실, 이때의 공로로 선조로부터 원훈(元勳)에 녹훈되는 과정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 『국조인물고 國朝人物考』 / 『백곡집 栢谷集』 / 『한강집 寒岡集』 『국조명신록 國朝名臣錄』 / 崔喆, 『기행문학의 한 고찰』 『人文科學』42輯(延世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979./

정 구 (鄭 逵, 1543 ~ 1620)

정구는 1543년 경상도 성주(星州) 유촌(柳村)에서 태어났으며 1620년 (광해군 12)에 팔거현(八莒縣) 사양정사(泗陽精舍 : 지금의 칠곡군 칠곡면 사수동)에서 세상을 떠났다. 자는 도가(道可), 호는 한강(寒岡)이고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김굉필(金宏弼)의 외증손이다.

한강은 유년시절부터 영민하고 재주가 뛰어나 신동이라 불리었으며, 9세 때 부친상을 당하였고, 그후 그의 백씨(伯氏)의 충고가 한강에게 교육적 힘을 발휘하여 학문에 뜻을 두고 발분독서(發憤讀書)하여 『대학 大學』·『논어 論語』를 읽고 그 대의(大義)를 통달하였다.

12세 때에는 공자의 화상(畫像)을 벽에 붙여 놓고 매일 보며 절을 하였으며, 어릴때부터 과거보다는 성현의 도를 후대에 전하는 것이 더욱 값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3세에 성주 향교에 교수로 와 있던 덕계(德溪) 오건(吳健)에게 주역을 배우면서 건곤이괘(乾坤二卦)를 읽고는 나머지는 모두 유추하여 통달했다고 한다. 1563년 21세에 이황에게서 성리학을 배웠다. 22세에 과거응시를 위해 상경했으나 느낀 바 있어, 과장(科場)에 들지 않은 채 귀향하여 그 길로 과거를 포기하고 오직 구도(求道)의 일념으로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1566년 24세 때 두류산(頭流山)에서 일생을 야인(野人)으로 보낸 남명(南冥) 조식(曹植)을 찾아가 그 학문의 깊이를 본받고자 하였다. 31세때 조정에서 예빈시참봉(禮賓寺參奉)으로 부름이 있었고 이로부터 7년 동안에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과 의흥(義興)·삼가(三嘉)·지례(知禮) 등의 현감으로 발령되었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으며, 창평산(蒼坪山) 선영(先塋) 곁에 집을 지어 한강정사(寒岡精舍)라 이름하고 거기에서 거처하면서 학도를 모아 글을 가르쳤다. 38세에 다시 창녕현감(昌寧縣監)으로 발령이 났을 때 비로소 부임하여 1년 반 동안 지방 행정에 종사하였는데 선정(善政)을 베풀어 그곳에 생사당(生祠堂)이 세워졌다. 그는 내직(內職)인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발령된 것을 기회로, 다시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왔다.

그 뒤에 외직(外職)으로 동복(同福)·함안(咸安)·통천(通川) 등 고을을 거쳐 임진왜란 중에 강릉부사(江陵府使)·강원감사(江原監司)·성천부사(成川府司), 그리고 왜란 후에 충주목사(忠州牧使)·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를 역임하였고 내직으로 동부승지(同副承旨)·좌승지(左承旨)·형조참판(刑曹參判)을 거쳐 광해군 초에 대사헌(大司憲)으로 특진되었으나 임해군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이에 관련된 사람을 모두 용서하라고 상소한 뒤 고향인 횡성으로 돌아갔다.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나자 상소하여 영창대군(永昌大君)을 구하려 했으며 1618년에는 무오폐모(戊午廢母)의 일이 결정되자 누차 상소하였다.

1618년에는 향리에 백매원(百梅園)을 세워 유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횡성을 목계리에 자신의 호를 따 한강대라는 정자를 짓고 유생들

과 더불어 시를 읊으며 여생을 보내다가 78세를 일기로 일생을 마쳤다.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년) 후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追贈)되었다.

한강은 내직은 항상 사퇴를 일삼았으나 외직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임하였다. 이는 중앙 정부에서보다 지방에서 전성(專城)의 장(長)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보려는 의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진왜란 중에 외직을 통하여 국사와 민정(民政)에 진력하는 한편 각 지방의 전몰장병을 매장·추도하고 나아가 역사상 외적을 격퇴한 최춘명(崔椿命)·원충갑(元冲甲) 등 민족 영웅들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여 당시 군민(軍民)의 사기를 높여 주었던 것은 참으로 훌륭한 공적으로 꼽힌다.

그는 경학(經學)을 비롯하여 산수(算數), 병진(兵陣), 의약(醫藥), 풍수(風水)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에 정통했으며, 특히 예학(禮學)에 뛰어나 이 방면에 관한 저술을 많이 내었다. 또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써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으며, 당대의 명문장가로서 글씨도 잘 썼었다.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우천리에 있었던 관산서원(冠山書院), 경상북도 달성군 도동리와 충청남도 천원군 목천면 서리에 있었던 도동서원(道東書院),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대산리에 있었던 도림서원(道林書院),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에 있었던 도연서원(道淵書院),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연월리에 있는 도원서원(道源書院), 경상남도 울산군에 있었던 반고서원(槃阜書院),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에 있는 사양서원(泗陽書院),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연경리에 있었던 연경서원(研經書院),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해평리에 있었던 천곡서원(川谷書院),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 하부리 용천동에 있었던 학령서원(鶴翎書院), 경상남도 마산시 교방동에 있었던 회원서원(檜原書院)에서 한강의 위패를 모셨거나 모시고 있다.

이 서원들 이외에 한강이 충주목사(忠州牧使)로 부임했을 당시 지방유

림들의 건의로 기존의 백운서당을 개편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에 있는 운곡서원(雲谷書院)과 자신이 직접 중심이 되어 창건한 경상북도 달성군 하빈면 사동에 있는 낙빈서원(洛濱書院)도 있다.

시호는 문목공(文穆公)이며 그의 저서로는 총 21권 9책으로 되어 있는 『한강집 寒岡集』, 『무이지 武夷志』, 『와룡지 臥龍誌』, 『오선생예설 吳先生禮說』, 『성현풍범 聖賢風範』, 『태극문변 太極問辨』, 『고금충모 古今忠謨』, 『수사언인록 洙泗言仁錄』, 『오복연혁도 五服沿革圖』 등의 많은 저서가 있다.

* 한강의 학통

한강이 조선 5백년 유학사에 뚜렷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천품(天稟)으로 일찍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했던 때문이었겠지만 당시 영남(嶺南) 상·하도(上下道)에 자리하고 있던 퇴계(退溪)와 남명(南冥) 두 사문(師門)을 찾아 배움을 청했던 것이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즉 21세때 퇴계에게, 그리고 24세때 남명에게 제자의 예를 닦게 된 것은 한강의 일생에 있어서 학문적·정신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시 퇴계와 남명은 영남(嶺南)의 상·하도(上下道)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모습을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퇴계로 인하여 영남 상도는 인을 위주로 하고 남명에 의하여 하도는 의를 위주로 했는데, 퇴계의 유화(儒化)를 넓은 바다에 비기면 남명의 기절은 높은 산에 견줄 만한 것이며 이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유교 문명은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뛰어난 두 사문(師門)으로부터 흡수하여 영남 상·하도의 학문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킨 이가 바로 한강이었다. 그러나 한강은 두 스승의 장점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명하였지만 남명에 비해서 퇴계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한강의 천성이 호매(豪邁)하여 체질적으로 남명에 유사하였고 남명의 저려명행(砥礪名行)과 출처의리(出處義理)를 본받았지만 학문태도 내지 수양방법에 있어서는 퇴계를 따랐다. 결국 한강은 남명적 체질 위에서 퇴

계적 함양(涵養)을 가졌던 것이고, 후일 퇴계학의 탁월한 계승자로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영남의 학문을 종합 성취한 한강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맥을 이루었고, 또한 그의 학맥이 근기지방(近畿地方)으로 전해져서 본고장인 영남을 벗어나 근기의 학문으로 발전하게 된 것 또한 이채로운 일이다. 한강은 전국에 걸쳐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며 특히 당시 영남 인사들 대부분이 그의 문도들이었다. 한편 근기 출신의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따로이 한강의 의발(衣鉢)을 물려받아 근기학통(近畿學統)을 형성하게 되었다.

미수가 고시서(古時書)의 고학(古學)을 창도(倡導)하였고 뒤를 이어, 성호 이익과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이 나왔으며, 하려(下廬) 황덕길(黃德吉)을 거쳐 성재(性齋) 허전(許傳)에 이르렀다. 성호 우파(右派)인 순암·하려 계열뿐만 아니라 녹암(鹿庵) 권철신(權哲身),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형제 등, 성호 좌파(左派)들이 모두 근기학통의 주요 인물들이다. 한강을 연원(淵源)으로 한 근기학통의 계보는 곧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경세치용파(經世致用派) 그것이었다.

* 한강의 저술

엄밀하게 이야기 한다면 한강을 근기학통의 연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기학통은 그의 의발(衣鉢)을 물려받았던 허목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한강으로부터 학문을 배웠던 허목이 한강의 학문에서 근기학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었기 때문에 하나의 학맥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강의 학문과 근기의 학문과의 관련을 찾아낸다면 이 설명의 혼란함은 충분히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한강이 학문이 지닌 평대(宏大)하고 박흡(博洽)함의 일면을 들 수 있다. 한강의 저술과 편찬에 속한 서적만 하더라도 대단히 방대한 양이다. 자고로 우리 나라의 선유(先儒)들은 대체로 저술과 편찬이 그리 많지 않았고 특히 영남의 학문은 주로 인간의 내면세계에 침잠하였고 저술이나 편찬에 힘쓰지 않았다. 그러나 한강은 심성(心性) 공부에 주력하면

서도 저술과 편찬에 적극적 노력을 보였다. 연보와 그의 행장에 의거하여 저술한 책들을 계통에 따라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성리학(性理學)

「개정주자서절요총목(改定朱子書節要總目)」 「중화집설(中和集說)」
「성현풍절(聖賢風節)」 「심경발휘(心經發揮)」 「수사언인록(洙泗言仁錄)」
「염락갱장록(濂洛羹牆錄)」 「곡산동암지(谷山洞庵志)」

예학(禮學)

「가례집람보주(家禮輯覽補註)」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예기상례분류(禮記喪禮分類)」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

역사(歷史)·전기(傳記)

「역대기년(歷代紀年)」 「고금충모(古今忠謨)」 「경현속록(景賢續錄)」
「와룡암지(臥龍岩志)」 「무이지(武夷志)」 「고금치란제요(古今治亂提要)」
「고금인물지(古今人物志)」 「유선속록(儒先續錄)」 「일두실기(一蠹實紀)」
「고금명환록(古今名宦錄)」

지지(地志 : 지방지)

「창산지(昌山志)」 「동복지(同福志)」 「함주지(咸州志)」 「통천지(通川志)」
「임영지(臨瀛志)」 「관동지(關東志)」 「충주지(忠州志)」(미완성) 「복주지(福州志)」

의학(醫學)

「의안집방(醫眼集方)」 「광사속집(廣嗣續集)」

문학(文學)

「고금문수(古今文粹)」 「낙천한적(樂天閒適)」 「주자시분류(朱子時分類)」

31세때부터 75세에 이르는 기간동안 끊임없이 책을 쓴 그의 정력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의 저술이 한 부분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양한 부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책을 펴냈다는 점에서 그의 학문이 그만큼 깊고 넓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둘째로 한강의 학문의 응용구시(應用救時), 즉 경세치용적 성격을 들 수 있다. 특히 그가 각 지방에 외직으로 가는 곳마다 만든 지지(地志)는 그의 학문의 경세치용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의학관계의 책 역시 그러한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한강의 학문의 팽박함과 응용구시적 경향은 이후 미수를 통하여 근기학통에 속한 학자들에게 발전적으로 계승되었고 성호·순안·다산 등에 의한 저술 편찬의 사조(思潮)가 상행되면서 경세치용적 이론의 심화 확대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한강의 저서>

『한강문집(寒岡文集)』: 조선 중기의 학자 정구(鄭逑)의 시문집. 24권 9책(본집 12권, 속집 9권, 별집 3권). 이 책은 그가 죽은 지 60년이 지난 1680년(숙종 6) 허목에 의해 편찬, 간행되었다. 허목의 서문에 편찬 경위가 잘 나타나 있다

허목은 한강의 문인으로 직접 문집을 편찬하였고 내용 글자를 하나하나 교정하여 간행하는 데 몸소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런 본집의 편찬 경위와 달리 속집과 별집은 허목의 참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본집을 편찬한 뒤에 다시 수집되는 자료를 그때그때 정리하여 따로 간행한 듯하다. 이러한 사정은 내용구성의 체계성이나 서지사항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내용구성면에서 보면 본집·속집·별집의 항목 가운데 시·서·잡저의 항목표제가 중복하여 제시되고 있어 전체의 통합된 편찬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서지사항면에서 본다면 본집과 속집·별집의 판식이 다른데, 4주쌍변(四周雙邊)·유계(有界)·상하화문어미(上下花文魚尾) 등은 모두 꼭 같은데, 글의 행(行)과 한 행의 자수는 조금 다른 점이

다. 즉, 본집의 반엽(半葉)에 12행이며 1행에 22자인 데 반하여 속집·별집은 10행 20자의 판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속집에는 본집·별집과 달리 다음과 같은 간기사항을 부기하고 있어 각 편의 독자적 산행사실을 추측하게 한다. 즉 권말에 부기된 '신축동중간(辛丑冬重刊)'이라는 간기는 본집보다 40년 뒤인 1721년(경종 1)이나, 100년 뒤인 1781년(정조 5)에 다시 간행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볼 때 본집·속집·별집의 편찬과 그 간행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편찬 차례에 따라 본집·속집·별집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집은 허목의 서문과 총목차 그리고 본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은 시 41수, 만(挽) 26수, 권2는 소(疏) 8편, 차(筵) 10편, 계사(啓事) 9편, 권3~6은 서(書) 149편, 권7은 잡저(雜著) 23편, 권8은 서(序) 10편, 기(記) 5편, 발(跋) 2편, 권9는 축문(祝文) 41편, 제문(祭文) 60편, 권10은 묘표(墓表)·묘지명(墓地名) 13편, 권11·12는 행장(行狀) 2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집 권2의 「계축차자 癸丑筵子」에는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유폐와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3차에 걸쳐 기초하고 있으며, 「대사헌숙배후피혐계사 大司憲肅拜後避嫌啓辭」에는 대사헌으로 있을 때 임해군(臨海君)을 구하려다 호역(護逆)의 지목을 받고 사직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3의 「여조사경 與趙士敬」, 권4의 「상의예조계목 商議禮曹啓目」, 권5의 「답예조판서 答禮曹判書」 등은 예설에 관한 문의에 답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복제(服制)와 예설에 관한 그의 해박한 고증과 이론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권7의 「서수사언 인록후 書洙泗言仁錄後」·「서경현숙록후 書景賢續錄後」·「천손하고 칠석회변 天孫河鼓七夕會辯」·「월조약회의 月朝約會議」·「야복 野服」, 권8의 「오선생예설분류 五先生禮說分類」·「심경발휘서 心經發揮序」·「함안사직단기 咸安社稷壇記」 등은 전문적인 전적에 대한 논평과 향리의 습속에 대한 자세한 기록으로 평가된다. 권11의 「서천부원군정공행장 西川府院君鄭公行狀」은 선조 때의 문신 정곤수(鄭峴壽)의

행장인데, 모두 20장에 달하는 장문으로, 그의 문장력을 엿볼 수 있는 예이다. 권12에는 그의 외증조부 김굉필(金宏弼)을 비롯하여 김종직(金宗直)·남효온(南孝溫)·조광조(趙光祖) 등 30여명의 전기를 저술하여 놓았으므로 사우관계를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속집은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은 시(詩) 16수, 부(賦) 1수, 논(論) 1편, 소(疏) 1편, 권2·3은 서(書) 45편, 권4는 잡저(雜著) 6편, 권5는 문(文) 3편, 서(序) 3편, 묘제문(墓祭文) 8편, 권6은 행장(行狀) 1편, 권7은 시(詩) 3수, 명(銘) 4편, 서(書) 48편, 권8·9는 서(書) 38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집의 특기사항으로는 권4의 「도동서원원규 道東書院院規」·「양호첩 養浩帖」·「독서첩 讀書帖」·「강법 講法」 등 서원의 제도와 규약 그리고 학문하는 자세 및 독서태도 등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별집은 모두 3권으로 권1은 서 25편, 권2는 서 12편, 잡저 7편, 시 11수, 권3은 답문(答問)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집의 특기사항을 보면, 권3의 「답김희원문 答金希元問」·「답장행원문 答張行原問」·「답임탁이문 答任卓爾問」 등에서 「태극도설 太極圖說」에 관한 해석의 문제와 한글 현토에 관한 세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문장가로서의 치밀성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학적 성과나 업적은 단행본으로 전해지는 다음의 문헌자료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태극문변 太極問辨」·「수사언인록 洙泗言仁錄」·「오복연혁도 五服沿革圖」·「심의회도 深衣制度」·「관의 冠儀」·「혼의 婚儀」·「고문회수 古文會粹」·「성현풍 聖賢風」·「정현속록 景賢續錄」 등은 그의 대표적 저술이다.

『태극문변(太極問辨)』: 조선 중기의 학자 정구(鄭逵)가 이언적(李彦迪)과 주돈이(周敦頤)·주희(朱熹) 등의 태극에 대한 학설을 모아 그 이론을 정리한 책. 2권 1책. 목판본. 처음 이언적이 손숙돈(孫叔暉)과 조한보(曹漢輔)에게 태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일이 있는데, 그 손자 준(浚)이 이것을 이황(李滉)에게 질정을 구하여 이황의 찬탄을 받은 일이 있고, 그 뒤 이황의 문인인 정구에게 비평을 청하였다. 정구는 이 글이 태극에

대한 학설로는 진수가 된다고 확신하고, 여기에 주돈이의 『태극도설』과 주희가 육구소(陸九韶)·구연(九淵) 형제에게 보낸 왕복서찰을 첨가하여 이 책을 간행한 것이다. 초간본은 화산부(花山府)에서, 중간본은 옥산서원(玉山書院)에서 나왔으나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것을 보충하고 체제를 바꾸면서 개간한 것이다. 첫머리에 이정구(李廷龜)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초간자인 김지남(金止男)과 장현광(張顯光)의 발문과 후지, 고정십일칙(考訂十一則)이 있다. 권수는 태극문변목록·주자태극도, 권상(卷上)은 답육자미구소서(答陸子美九韶書) 2편, 여주원회서(與朱元晦書)·답육자정구연서(答陸子靜九淵書) 각 1편, 권하는 서망제망기당무극태극설후(書忘齋忘機堂無極太極說後)·답망기당제일서(答忘機堂第一書)·답망기당제이서·답망기당제삼서·답망기당제사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는 주돈이의 학설을 수록한 것이고, 권상은 주희와 육구소 형제간의 왕복 서한, 권하(卷下)는 이언적과 손숙돈과 조한보 사이에 있었던 왕복서간을 수록하여 태극설에 대한 맥락을 분명히 하였다. 이 책의 간행으로 태극설의 체제가 주돈이-주희-이언적으로 이어져 이 학설이 정통임이 밝혀지고, 반면에 육구소·구연 형제와 손숙돈·조한보의 학설은 이단으로 폄억(貶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논변에 주요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주돈이가 『태극도설』에서 말한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은 육구소·구연 형제가 유가의 정통이 아니고 노자(老子)의 학설에서 따온 것이라고 반박한 데서부터 비롯된다. 육구소·구연 형제는 이 글이 『태극도설』과는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여 이것이 주돈이의 설이 아닌 아닌 타인의 설임을 강조하면서, 주희가 주석한 내용을 포함시켜 공격하였다. 그리고 조한보와 손숙돈도 육구소·구연 형제와 견해가 비슷한데 대한 이언적의 해명이 돋보인다.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 조선 중기의 학자 정구(鄭逵)가 지은 기행문. 그의 문집인 『한강문집 寒岡文集』 권9에 수록되어 있다. 이 글은 1579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약 15일에 걸쳐 이루어진 가야산 등반노

정을 기록한 것이다. 작자는 한 차례 가야산을 유람한 경험이 있었으나, 이백유(李伯愾)·공숙(恭叔) 형제는 글을 같이 읽고 있었지만 가야산에 가본 적이 없기에 함께 좋은 계절에 동반하자고 권유한다. 이들의 동반 경로는 먼저 홍류동(紅流洞)에 이르러 바위에 앉아 쉬노라니, 산봉우리는 우뚝하고 골짜기는 깊숙하여 산세가 험함을 걱정하게 된다. 그들은 최치원(崔致遠)이 바윗돌에 새겨놓은 「진농산시 盡籠山時」를 읽어보기도 하고, 홍하문(紅霞門)을 지나 학사대(學士臺)에 오르기도 한다. 다시 내원사(內院寺)·득검지(得劍池)의 아담한 경치를 완상한다. 정각암(淨覺菴)·성불사(成佛寺)·심원암(深源菴)·원명사(圓明寺) 등을 두루 구경한 뒤 봉천대(奉天臺)에 올라 수많은 골짜기와 봉우리들을 살펴보고 나니 회미한 인간세상이 재미집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여기에서 금오산(金烏山)과 비슬봉(琵琶峰), 그리고 그 아래의 쌍계사(雙溪寺), 공산(公山) 아래의 임고(臨阜) 등을 바라본다. 득검지에 다시 들러 한동안 거닐어 지족암(知足菴)을 찾아가 자고 제월담(霽月潭)에 이르니,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깨끗한 단풍나무의 경치에 매료되기도 한다. 중을 시켜 길을 인도하게 하여 백운대(白雲臺)를 찾아보고 연석암(軟石巖)을 거쳐 주암(舟巖)에도착한다. 마지막으로 혁림재(赫臨齋)에 들러 친구들과 과일을 나누어 먹는다. 저자는 우정을 다 나누지 못하고 각기 헤어지게 되어 못내 섭섭한 마음을 달래지 못한다. 이 글은 일기체로 된 기행문으로, 다른 어떤 가야산 기행문보다도 자세한 묘사와 치밀한 사실기록이 돋보인다. 이 글에서 엿볼 수 있는 또다른 특징은 저자가 성리학자로서 여행의 시작에서 끝까지 줄곧 「근사록 近思錄」과 「남악창수지 南嶽唱酬誌」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읽고 노래하고 있는 점이다. 여행중에도 거경(居敬) 공부를 폐하지 않고 있음도 그의 학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심경발휘(心經發揮)』 :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정구(鄭逵)가 진덕수(眞德秀)의 『심경 心經』에 제가의 설을 첨가하여 그 뜻을 적은 책. 4

권 2책. 고활자본. 1603년(선조 30)에 동주자본(銅鑄字本)으로 간행되었다. 편자는 『심경부주 心經附註』의 예에 따라 편장을 동일하게 배열하고, 주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으며, 부록에는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 太極圖說」, 정호(鄭顥)의 「정성서 定性書」, 정이(鄭頤)의 「호학론 好學論」, 장재(張載)의 「서명 西銘」, 주희(朱熹)의 「인설 仁說」 외에 정호와 주희의 「행장략 行狀略」 등이 각 1편씩 수록되어 있다. 자서에서 이 책의 구성경위와 용도를 밝혔는데 “범부(凡夫)가 발심하여 성학(聖學)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 말하고, “성인이 천지와 함께 삼재(三才)에 참찬(參贊)하는 뜻이 정연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정민정(程敏政)의 주석이 불명확하여 학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집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성의장(誠意章)의 자겸(自謙)에 대해서 “겸(謙)은 겸(慊)으로 읽는다.”는 등으로 보충하여 설명하였고, 경(敬)의 한자에 대해서도 진덕수의 예를 모방하여 상세하게 주석을 붙였다. 부록은 원문에는 없지만 내용이 소중한 송나라 학자들의 학설을 참고가 되게 하고자 뽑아 실었고, 송학의 주종인 정주의 행장을 소개하여 학자들의 학문정진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한 것이 특기할만하다.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 조선시대 인조 때의 학자 정구(鄭述)가 다섯가지의 상복(喪服)에 관한 연혁도를 작성한 책. 1책. 주자의 『가례 家禮』의 보급과 함께 관혼상제의 사례(四禮) 중에서 예로부터 상례(喪禮)가 특히 중심이 됨에 따라 복(服)의 등급을 상복의 종류, 상기(喪期)의 장단(長短), 곡장(哭杖)의 유무로 정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상복은 참취(斬衰)·자취(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總麻)라 하였다. 편자는 의례오복도(儀禮五服圖)를 취하여, 예로부터 그대로 내려오던 것과 후세에 와서 바뀐 연혁을 참작하여 정리하고, 그의 문인 이윤우(李潤雨)가 이를 도표로 작성하였는데 모두 20첩(帖), 35세목(細目)이었다. 이윤우가 담양부사로 있던 1629년(인조 7)에 간행되었다.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자(天子)·제후(諸侯)의 정통(正統)·방기(旁期)의 상복에 관한 도표, 임금이 신하를 위하여 입는 상복도,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입는 상복도, 신하가 임금을 좇아서 입는 상복도, 공자(公子)에게 입히는 상복도, 군현(郡縣)의 아전[吏] 이 수령을 위하여 입는 상복도, 대부가 상복을 한 단계 낮추는가 또는 낮추지 않는가에 대한 도표, 자기가 본종(本宗)을 위하여 입는 상복도, 아내가 남편 일가를 위하여 입는 상복도, 아내가 남편의 외가를 위하여 입는 상복도, 자기가 아내의 일가를 위하여 입는 상복도, 아내의 일가가 자기를 위하여 입는 상복도, 첩이 입는 상복도, 첩을 위하여 입는 상복도, 첩의 아들이 입는 상복도, 서자로서 남의 집 후계자가 된 자가 자기의 친어버이를 위하여 입는 상복도, 계부가 입는 상복도, 남의 집 후계자가 된 자의 아내가 남편의 본종을 위하여 입는 상복도, 고자매(姑姊妹) 여자들의 자식들 및 안팎의 형제들이 서로를 위하여 입는 상복도, 고자매 여자들의 시집간 자식을 위하여 입는 상복도, 대부 부인이 대종을 위하여 입는 상복도, 자기가 어머니 일가를 위하여 입는 상복도, 군모(군모)·서모(서모)·계모(계모)·유모(유모)·자모(자모) 등 열어머니[十母]를 위하여 입는 상복도, 일찍 죽은 자식을 위하여 입는 상복도(殯服圖), 어린이에게 입히는 상복도, 사우(師友)가 입는 상복도, 태복도(稅服圖), 상복을 입지 않고 위패만 위한 도표, 조복도(弔服圖), 복술도(服術圖), 개장 때 입는 상복도로 되어 있다. 이 책의 간행은 뒷날 복제를 둘러싼 예송(禮訟)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상복에 관한 선비들의 인식을 높여주었다. 널리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본조차 일실되어 복간하지 못하다가 1664년(현종 5) 겨울 편자의 필사본으로 정만화(鄭萬和)와 홍석(洪錫)이 힘을 합하여 다시 간행하였으며, 용담현(龍潭縣)에 판이 보관되었다.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정구(鄭逵)의 편저. 전집 8권 3책, 후집 12권 4책, 합 20권 7책. 목판본. 1629년(인조 7) 담양부사 이윤우(李潤雨)의 주선과 관찰사 권태일(權泰一)의

도움으로 간행되었다. 권두에 편저자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장현광(張顯光)·이윤우의 발문이 있다. 전집 권1은 예총론(禮總論)·천자제후관혼례(天子諸侯冠婚禮), 권2·3은 천자제후상례, 권4~7은 천자제후제례, 권8은 천자제후잡례로 구성되어 있다. 후집 권1은 관혼총론(冠婚總論), 권2~6은 상례, 권7~9는 제례, 권10은 제례부록, 권11은 접저, 권12는 편례(編禮)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송대 성리학자인 정호(程灝)·정이(程頤)·사마광(司馬光)·장재(張載)·주희(朱熹) 등의 예설을 모아 관혼·상제와 잡례 등으로 체계 있게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전집은 주로 천자와 제후에 관한 예를 다루었고, 후집은 일반 사대부에 관한 예를 다루어 수록하였다. 이는 단순한 예설만이 아니고 유교를 중심으로 한 모든 법질서에 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으로 난해한 내용들이 해박하게 규명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규모와 범위가 많았다. 특히, 잡례 속의 천자·제후의 거복(車服), 책명(冊命)·궁실(宮室)·신민례(臣民禮) 등 봉건질서와 제도, 그리고 사대부의 문생(門生)·부시(赴試) 등은 동양 고대 및 중세의 법제사 연구에 자료가 된다.

<정구(鄭述)의 예학연구> : 정구의 예학연구의 업적은 『오선생예설분류 五先生禮說分類』이다. 이 저술은 전편·후편으로 되었는데, 전편은 8권 3책으로 되었고, 후편은 12권 4책으로 편찬되었다. 오선생이란 정호(程灝)·정이(程頤)·사마광(司馬光)·장재(張載)·주희(朱熹)를 가리킨다. 이 저술의 내용은 예의 여러가지 항목에 관한 상기 다섯 학자들의 설을 분류, 편찬한 것이다. 전편에서는 천자(天子)·제후(諸侯)의 예를 다루고, 후편에서는 사대부(士大夫)의 예를 다루었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면, 전편 권1에서는 예총론과 천자·제후의 관례와 혼례, 권2·3에서는 상례, 권4~7에서는 제례, 권8에서는 잡례(雜禮)를 다루었다. 후편의 권1에서는 관혼총론과 관례·혼례를, 권2~6까지는 상례, 권7~10까지는 제례, 권11은 잡례, 권12는 편례(編禮)를 다루었다. 책머리에 오선생의 예설을 인용한 서책명을 인용한 서책명을 기록해두었는데 이를 옮

거보면 다음과 같다. 『정씨유서 程氏遺書』·『정씨외서 程氏外書』·
 『경설 經說』·『이천문집 伊川文集』·『횡거리굴 橫渠理窟』·『정몽
 正蒙』·『가례』·『주자대전』·『주자어류』·『회암어록 晦菴語
 錄』·『주자행장』·『주자연보』·『송조명신언행록 宋朝名臣言行
 錄』·『이락연원록 伊洛淵源錄』·『성리대전』·『문헌통고』·『역
 전』·『서전』·『시전』·『춘추공양전』·『춘추호전 春秋胡傳』·
 『예기』·『주례』·『대대례 大戴禮』·『의례경전통해 儀禮經傳通
 解』·『의례경전통해속 儀禮經傳通解續』·『논어집주』·『맹자집
 주』·『중용장구』·『중용혹문』·『통전 通典』·『대학연의보 大學
 衍義補』·『자치통감강목』·『강감대성 綱鑑大成』·『가례의절 家禮
 儀節』·『가례회통 家禮會通』·『안씨가훈 顏氏家訓』·『한창려집 韓
 昌黎集』·『유선생집 柳先生集』·『소학집해』·『한위공제식 韓魏公
 祭式』·『사문유취 事文類聚』·『학림옥로 鶴林玉露』·『향교예집 鄉
 校禮輯』·『역본의 易本義』·『여씨종법 呂氏宗法』·『장남헌집 張南
 軒集』 등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사마광의 서의(書儀)와 본집(本集)을 얻
 어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한 시골에서 다른 많은 서적을 참
 소하지 못하였음을 한스럽다고 기술하였다. 이상의 서목의 나열을 통해
 서 당시에 있어서의 예학연구의 기본 전적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서적을 두루 섭렵하고 그 가운데에서 예설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빠뜨림없이 분류한 사실은 높이 평가받을 업적이다. 정구가 이 『오선생
 예설분류』를 저술한 의도는 그의 서문에서 엿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 책의 편집에 즈음하여 주자의 『가례』를 왜 수록하지 않느냐는 질문
 에 답하기를 “『가례』는 집집마다 비치되어 있고, 사람마다 배우지 않
 는 사람이 없으니 거듭 수록할 필요가 없고, 여러 서책에 산재하여 있는
 예설을 갑자기 이용할 수 없으므로 그 편의를 위하여 이를 편집했다.”고
 하였다. 당시 절대적인 준칙이 되어 있었던 『가례』의 미비점을 보충하
 려는 의도가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견해를 다각도
 로 제시함으로써 예에 대한 보다 원만한 이해를 돕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전술한 편자의 순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총론에서 먼저 그 예의 근본 뜻을 밝히고 이어서 각론에 들어가 세부적인 의미를 밝혔다.

이 저술은 그 제명(題名)이 밝히고 있듯이, 오선생의 예설을 분류, 정리한 것이므로 이 저술을 통하여 정구 자신의 예사상을 자세히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서문이나 총론의 서두에서 밝힌 예에 대한 규정 또는 인용문 등을 통하여 정구의 예사상을 어느 정도 추리할 수가 있다. 그는 서문에서 “천리(天理)에 따르고 인사(人事)를 본떠서 확산하면 300-3000 가지로 전개되고, 거두어들이면 한 몸과 한 마음의 근간으로서 군자가 잡시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도덕과 인의가 이로써 성립되고, 군신과 부자와 형제가 이로써 안정되나니, 옛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까운 것에서부터 가정과 향리와 국가 등 먼 곳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誠敬)을 다하는 원리가 바로 이 예인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곧 예에 대한 정구 자신의 견해를 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예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술의 첫머리에 기재된 예총론(禮總論)의 규정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곡례(曲禮)에 예는 마땅함을 좇되 세속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예란 친소(親疏)를 정하고, 혐의(嫌疑)를 결정하고 동이(同異)를 판별하고, 시비(是非)를 밝히는 것이다. 도덕과 인의가 예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가르침과 바른 풍속이 예가 아니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 쟁송(爭訟)을 분별함에 있어 예가 아니면 판결되지 아니하고, 학문을 익히고 스승을 섬기는 것도 예가 아니면 친절하지 아니하고, 조정의 반열과 군대의 조련과 관작에 나아가고 법률을 행하는 것도 예가 아니면 위엄이 서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제사지내고 귀신을 받드는 데도 예가 아니면 정성스럽지 못하며 장엄하지 못한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공경하고 절도에 맞게 행동하여 예를 밝혀야 한다. 사람이 예가 있으면 평안하고 예가 없으면 위태한 법이다. 그러므로 예는 배우지 아니할 수 없다. 군자가 예를 행함은 풍속을 바꾸고자 함이 아니니 제사지내는 예와 초상치르는 복(服)과 곡읍(哭泣)

하는 위치가 모두 그 나라의 옛 법대로 하는 것이니 비록 성왕 때에 없었던 일일지라도 가히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선왕이 예를 정함에 근본[本]도 있고 문채[文]도 있게 하였던 것이니, 충신(忠信)은 예의 근본이고 의리(義理)는 예의 문채이다. 근본이 없으면 설 수 없고 문채가 없으면 행하여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의 총론으로서 이상의 규정을 열거한 것을 통하여 정구의 예에 대한 견해를 짐작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내포된 예의 정신을 다음의 몇 가지로 다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예는 세속적인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예는 다양한 인간사회를 차등짓고 질서짓는 원리이다. 셋째, 예는 인간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배우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예는 형식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정신(義)이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창조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예는 정신과 형식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고 두가지가 잘 조화되어야 한다. 이상의 원리에 입각하여 여러 전적에 수록된 오선생의 예설이 취사선택되고 분류된 것이 『오선생예설분류』이다.

『함주지(咸州誌)』 : 1587년(선조 20) 정구(鄭逵)가 편찬한 경상도 함안군 읍지. 1책. 필사본. 군수 정구의 주관으로 군인(郡人) 박여선(朴汝宣)·박제인(朴齊仁)·이정(李澣)·오운(吳濬) 등이 편찬하였다. 현존하는 읍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뒤에 다른 읍지편찬에 모범이 되었다. 함안읍지는 이 읍지가 편찬된 이후 한말까지 누차 속찬되어 각지에 이본(異本)인 인본(印本)과 사본(寫本)이 전하여지고 있다. 사림출신의 수령과 향중인사의 합작으로 편찬된 이 읍지는 치읍(治邑)에 참고하려는 의도와 자기 고장의 문화를 정리하겠다는 재향인사들의 목적이 합치되어 완성된 것으로서, 그 편찬체제는 『동국여지승람』을 모방하였으나 항목 설정이 훨씬 상세하다. 내용구성은 경사상거(京師相距)·사린강계(四隣疆界)·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형승(形勝)·풍속(風俗)·각리(各里)·호구(戶口)·전결(田結)·산천(山川)·토산(土産)·관우(館宇)·성곽

(城郭)·단묘(壇廟)·학교(學校)·서원(書院)·역원(驛院)·군기(軍器)·봉수(烽燧)·제언(堤堰)·관개(灌溉)·정사(亭榭)·교량(橋梁)·불우(佛宇)·고적(古蹟)·임관(任官)·명환(明宦)·성씨(姓氏)·인물(人物)·선행(善行)·규행(閨行)·견행(見行)·문과(文科)·무과(武科)·사마(司馬)·총묘(塚墓)·정표(旌表)·책판(冊板)·제영(題詠)·총담(叢談) 등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정구의 서문이 있고, 특히 여러 항목 중 각기 단묘·정사·임관·인물·총묘조가 가장 상세한 것은 하나의 시대적 반영이다. 권말에는 오운과 임훈(任訥)의 발문이 있다.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발간되지 못하다가 1603년(선조 36)에 오운에 의하여 재등사되었고, 영조 때 군수 이휘진(李彙晉)에 의하여 증집(增輯)되었다. 다시 100여년 후인 현종 때 군수 이덕희(李德熙)에 의하여 계수(繼修)되었는데, 전자를 제1권, 후자를 제2권으로 하였다. 2권의 내용 가운데, 1권에 없는 것으로 전부(田賦)·조적(糶糶)·진공(進貢)·봉름(俸廩)·군병(軍兵)·임수(林藪)·시장(市場)·목장(牧場) 등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없는 경사상거·각리·호구·전결·군기·제언·관개·임관·문과·무과·사마·정표·책판·총담 등의 항목이 첨가되었다. 이 항목들은 정치적인 면의 안민(安民)과 유교도덕을 선양하는 선속(善俗)에 관계되는 것이다. 특히, 각리조는 사방경계, 동서남북의 거리 및 이의 크기, 속방(屬坊)의 수와 명칭, 토지의 비척, 수한(水旱)의 정도, 거민(居民)의 신분·풍속 등이 기재되어 있어, 조선시대 중기의 촌락편성과 주민의 신분구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이다. 호구조와 전결조도 각리를 단위로 거민의 남녀수와 전결수가 기록되어 있어 지방사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된다.

※教育思想의 중심개념- ‘경(敬)·의(義)’와 ‘주인(做人)’. ① 정구는 경과 의를 실천하기 위해 퇴계(退溪)와 남명(南冥)의 양문(兩門)에 출입하면서 경·의의 묘합성을 발견하였다. ‘경’은 인간의 마음을 올바르게 주재(主宰)하는 것이고, ‘의’는 경이 주재한 올바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주인’은 사람됨을 일컫는 것으로 즉, 경을

거울에 비유한다면, 의는 거울을 가지고 비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교학목적(敎學目的)을 위해 일용후생(日用厚生)을 위한 애민사상(愛民思想)으로서 嶺南學派(영남학파)의 맥을 이어가며 근기지방(近畿地方)으로 그의 학문을 전수하여 퇴계학파의 3대 계보 가운데에서 근기실학파(近畿實學派)의 연원이 되었다.

③ 학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에 대해 마음으로 깨달아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이에 제자들에게는 발분입지(發憤立志), 용맹독실(勇猛篤實), 심체력행(心體力行)으로 학문을 통한 지식이 아닌 그 실천을 중요시하였다. 즉 그는 각인기재(各因其材)로 개성별(個性別), 능력별(能力別) 교육을 시도하였다. 또한 실천성, 성실성, 주체성, 실용성을 강조하였고, 지(知)와 행동(行動)을 동시에 병행하고자 했다.

『寒岡集』/ 『咸州誌』/ 裴永煥, 『寒岡 鄭述의 敎育實踐』(영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1992.

정기광 (鄭基廣)

조선시대의 관리로서 문과에 등과(等科)하여 종 2품의 벼슬인 한성부 부윤(漢城府府尹)의 벼슬을 지냈으며 팔천군(八川君)에 봉해 졌으나 광해군(光海君)때에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학문을 즐기며 살았다. 그의 아들 정석문(鄭錫文)은 관직에 나가 도사(都事)를 지냈고, 그의 손자이자 석문의 아들인 정수명(鄭洙明)은 부사(府使)를 지냈다.

정기화 (鄭琦和, 1786 ~ 1840)

조선 후기의 문인이다.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남중(南仲), 호는 혈오재(歇五齋)이다. 고려 현종 때에 십이공도(十二公徒)의 하나였던 배걸(倍傑)의 26대손으로 청은군(淸隱君) 진로(鎭魯)의 손자이고, 첨지중추(僉知中樞) 홍진(鴻晉)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경주이씨(慶州李氏)로 기만(淇萬)의 딸이다. 숙부 홍관(鴻觀)에게 입양되었다. 41세가 되던 1827년

(순조 27)에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 등 삼사의 청환직(淸宦職)을 역임하였으며 세사지강원필선에 이르렀다. 그는 사서(史書)의 체계를 충실하게 본뜬 「천군본기 天君本紀」를 지어 일명 「심사 心史」라 하였다. 이 작품은 인간의性情(性情)을 의인화하여, 사람이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의 심상의 변화과정을 기년식(紀年式)으로 그린 우화소설(寓話小說)이다. 작품의 총론과 내용으로 보아 그는 당시 유학사상, 특히 심성론에 대하여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남인계열의 학자로 재질과 인품을 갖추었으나 당파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일생을 시문과 학문에 헌신하였다. 이조참판(吏曹參判)-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이 증직되었다.

『천군본기 天君本紀』: 조선 순조 때 학자인 鄭琦和가 지은 고전소설로 1책이고 한문필사본이다. 의인소설로 천군소설(天君小說)의 일종이다. 필사본은 아들 현석(顯奭)의 교정을 거쳐 손자 헌시(憲時)가 편집하여 1885년(고종 22) 간행한 것을 후인이 베껴낸 것으로 표지에 '심사(心史)'라고 쓰여 있다. 1917년 백두용(白斗鏞)이 토를 달아 한남서림(翰南書林)에서 간행한 활자본 1책도 있다. 이 작품의 저작연대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작자의 생애로 보아 19세기 초반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내용은 사람이 태어난 해부터 30세까지의 심성(心性)의 변화과정을 제왕의 치란(治亂)과 성쇠(盛衰)의 근본원리로써 설명한 것이다. 마음속이 갈등을 충신형과 간신형의 인물의 대립·갈등으로 사건을 진행시켜 나간다. 권두에 작자의 자서(自序)와 본서의 입언(立言)한 법을 논술한 총론이 실려 있다. 본기(本紀)에서는 먼저 천군(心)의 시호를 명원(明元)이라 명명하고, 천군의 내력을 중국의 역사와 혼용하여 설명하였다. 그 연조(年條)의 끝에는 반드시 사신(史臣)의 평을 첨부하여 설명을 보충하고 있다.

원년(元年)에 천군이 즉위하여 연호를 중화(中和)라 하고, 강자(腔子:가슴속)를 태상황(太上皇)으로 삼고 섬겼다. 2년에 도읍을 제주(濟

州:배꼽)로 정하고 별호를 허명계(虛明界)라 하였다. 3년에는 공(恭)·종(從)·명(明)·총(聰)·예(容)로 오사(五事)의 벼슬을 삼았다. 5년에는 인(仁)·의(義)·예(禮)·지(智) 등의 사사(四司)를 설치하고 신(信)으로 사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6년에는 칠규(七竅)를 파고 비간묘(比干墓)를 봉하여 사당을 세웠다. 7년에는 방당반묘(方塘半畝)를 조성하였다. 8년에는 단전(丹田)의 경계를 정하고, 9년에는 의마(意馬)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니고자 하는데, 수보(收父)가 간하나 듣지 않는다. 10년에 이(彝)·편(編)·기(枝)로 후작을 삼고 각기 봉하였다. 11년에 천축국(天竺國)으로부터 원숭이를 헌상받았다. 12년에는 사두(四蠹)·오구(五寇)·이호(二豪)·칠탕(七蕩) 등의 유혹을 받아. 13년에 천군이 이들과 어울려 방탕해졌다. 14년에는 천군의 방탕이 심해져 제물응(齊物應)이 난을 일으키고, 사사와 신감(信監)이 경계하여 노래를 지어 부른다. 15년에 더욱 방탕하고 유혹이 심해져 16년에는 애애(艾艾)라는 미녀에게 혹한다. 17년에 사성자허(司星子虛)가 간하나 듣지 않고, 사성자허는 이에 낙담하여 은둔해버린다. 18년에 천군이 나가 노니려 하는데 좌우상이 간하자 돌아와 군신상열지대(君臣相悅之臺)를 지으라고 하고 이름을 영대(靈臺)라 하였다. 19년에는 성옹(惺翁)으로 태사(太師)를 삼았다. 20년에는 간신을 귀양보내고, 21년에는 애애를 내치고 신씨(愼氏)를 황후로 맞아들였다. 22년에 무형구(無形寇)가 침범하자 지수(志帥)를 보내 물리쳤다. 23년에 진무망(眞無妄)을 성의백(誠意伯)에 봉하고 중용(中庸)의 문을 세웠다. 24년에는 편과 기 등이 난을 일으켰으나 천군이 크게 깨달아 평정하였다. 25년에 진경(眞經)을 강하고, 26년에는 오대부(五大夫) 사(思)가 근록(近錄)을 찬하였다. 27년에는 경부(敬夫)를 시켜 활수(活水)의 피해를 막고, 28년에는 아들 양(良)을 황태자로 삼았다. 29년에는 순수(巡守)의 예를 하고, 30년에 병이 들었으나 성찰(省察)·극치(克治)·존양(存養)의 법으로 다스려 낫게 하였다.

이상 30년간의 성장과정을 나이에 따른 심경 변화와 빠지기 쉬운

유혹 등을 기술하여 유교적인 도덕물로써 부단히 수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작품 끝에 논평부(論評部)를 첨부하여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史記』의 형식을 답습하였고, 각 연조 끝에 사평(史評)을 붙여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교훈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화사 花史』에서 형식을 모방한 것이며, 내용은 「수성지 愁城誌」와 「천군연의 天君演義」를 모방하여 소설화한 것인데, 작자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의 논리를 소설화하면서 『사기』·『춘추 春秋』·『자치통감 資治通鑑』 등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소설의 형식으로서는 오히려 흥미의 격감을 초래하였다고 하겠다.

필사본은 규장각도서관에 있다. 1917년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현토본이 있다. 그 뒤 이를 대본으로 하여 주석을 붙여 번역, 출판한 김광순(金光淳)의 『천군본기 天君本紀』가 있다.

白斗鏞編, 『天君演義 附心史』, (翰南書林), 1917. / 金光淳譯註, 『愁城誌·天君本紀』, (螢雪出版社), 1979. / 林明德編, 「心史」 『韓國漢文小說全集』 6, (中國文化大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金光淳, 『天君小說研究』, (螢雪出版社), 1980. / 金鉉龍, 「李朝天君關係小說의 研究」, 『상명여자사범대학 논문집』 4, 1975.

정 온 (鄭 溫, 1434 ~ 1508)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직지(直之)이며, 광정대부문하평리(匡靖大夫門下評理) 광계(光繼)의 4세손이다. 증조부(曾祖父) 수(修)는 봉정대부사재부령(奉正大夫司宰副令)이고, 조부(祖父) 편(便)은 선무랑통예문봉예(宣務郎通禮文奉禮)이다. 부친(父親)은 흥(興)이고 모친(母親)은 훈도(訓導) 조발(趙發)의 딸이다. 그는 2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첫번째 부인은 생원(生員) 원자민(元自敏)의 딸이며, 두번째 부인은 자헌대부예조판서(資憲大夫禮曹判書) 박사동(朴思東)의 딸이다. 정윤겸(鄭允謙)은 원자민의 외손자이다.

정온은 성격이 간묵(簡默)하고 거짓이 없었다. 항상 최선을 다하였고, 남에게 신의가 있어 세상사람들이 그를 보고 언행이 바르고 어질다 하였

다.

그는 광릉조(光陵朝)에 등제출신(登第出身)하여 훈련원(訓練院)에 들어갔고, 1472년(성종 3)에는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지냈으며, 성종조(成宗朝)에 조정의 신하들이 특별히 천거하여 감찰 겸 삼도해운판관(監察兼三道海運判官)이 되었다. 외직(外職)에 있을 때는 민(民)들이 우러러보고, 내직(內職)에 있을 때에는 소실(所失)하는 것이 없었다. 후(後)에 병(病)을 칭(稱)하여 사직(辭職)하였으나, 계속되는 추천으로 다시 관직에 나갔다.

『초계정씨종사 草溪鄭氏宗史』

정원선 (鄭元善)

횡성사람으로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부친 명은 경(炯)이다

임금이 관동 사람들을 등용하기 위하여 경공(經工)에 밝은 자 몇 명, 공령문(功令文)에 밝은 자 몇 명, 오죽헌 주인(烏竹軒主人)의 후손 몇 명을 찾아내서 조목별로 나열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령생 74인, 경공생 8인, 오죽헌주인의 후손 권한위(權漢緯) 등 12인을 보고하였다.

이에 임금이 어제(御題)한 시(詩)·부(賦)·책(策)·의(義) 네 가지를 내려보내면서 도신과 도내 문신(文臣) 출신의 수령 2인에게 3일에 나누어 공령생(功令生)에게 시험을 보게 하여서 역말에 시권(試券)을 올려보내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이 직접 점수를 매겨 40인을 뽑고 이들을 다시 춘당대에서 부(賦)와 책(策) 두 제목을 나누어 시험을 보게 하였다. 이 시험에서 횡성생원(橫城生員) 정원선(鄭元善)이 책(策)에서 1등을 하였다. 그리하여 급제를 받았고, 순조조(純祖朝)에서는 장령(掌令)을 지냈다.

『정조실록 正祖實錄』

정윤겸 (鄭允謙, 1463 ~ 1536)

조선 전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초계(草系)이며, 자는 익부(益夫)이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副事) 온(溫)의 아들이다. 일찍부터 병법을 익혔

고, 1491년(성종 22) 변경을 문란시킨 야인(野人)을 토벌할 때 원수 허종(許琮)의 막하에서 활약하였다. 이듬해 무과(武科)에 급제, 훈련원(訓練院)에 보직되고 이어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군자시주부(軍資寺主簿)·사복시판관(司僕寺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1506년의 중종반정에 참여 그 공으로 삼등공신인 병충분의정국공신(秉忠奮義靖國功臣)에 녹훈되고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에 발탁되었다. 이듬해 공신에게 특별히 품계를 주는 예에 따라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당상관(堂上官)에 오르고, 간성군수(杆城郡守)에 임명되었으며, 4년 뒤 웅천부사(熊川府使)로 옮겨 삼포왜란(三浦倭亂) 이후의 민심수습과 복구에 힘썼다. 다시 충청도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를 거쳐 함경도병마절도사(咸慶道兵馬節度使)로 임명되자 북청(北靑)에 성을 쌓아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였고, 1518년(중종 13)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전보(轉補)되었다가 이듬해 가선(嘉善)으로 승진, 청계군(淸溪君)에 봉하여지고 특별히 회령부사(會寧府使)에 제수되었다. 1522년 전라도수군절도사(全羅道水軍節度使)로 기용됨에 병선과 무기를 수리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다가 명나라를 약탈하고 돌아가는 왜구를 격멸, 그 공로로 품계가 더하여지고 조정으로부터는 궁시(弓矢)와 의대(衣帶)가, 그리고 명나라로부터도 백금이 하사되었다. 이어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이 되었다가 1525년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평안도병마사(平安道兵馬使)가 되고, 상호군(上護軍)을 거쳐 충청도병마사(忠淸道兵馬使)로 있을 때 무고로 인하여 횡성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곧 죄가 풀려 부총관에 서용되고,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거쳐 삼척부사(三陟府使)가 되었다. 1536년에 생을 마감하니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청렴하며 장재(將材)로 손꼽혀 30여년간 남북 변경의 장수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장양(莊襄)이다.

그의 사후에 왕의 부조묘(父祖墓)에 향사(享祀)되었으며 불천지위(不遷之位)로서 자자손손 대대로 장손에게 기제사(忌祭祀)를 지내라 명하니 그의 17대손 병하(秉夏)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부

조묘의 사당은 공근면 학담리 초당동에 있다.

『성종실록 成宗實錄』 / 『연산군일기 燕山君日記』 / 『중종실록 中宗實錄』 / 『국조인물고 國朝人物考』

정종영 (鄭宗榮, 1513 ~ 1589)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자는 인길(仁吉)이고 호는 항재(恒齋)이고 시호는 정헌(靖憲)이다. 아버지는 현감 숙(淑)이며, 어머니는 충의위(忠義衛) 김계훈(金季勳)의 딸이다.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시조는 초계군의 고려시중(高麗侍中) 광유휴(光儒侯) 홍문공(弘文公) 배걸(倍傑)이다. 홍문공의 아들 정간공(貞簡公) 문(文)이 유명한 유학자로서 여러차례 지공거(知貢舉)가 되었으며, 후손 윤기(允耆)와 선(善)이 그 가문을 이어받아 두사람 모두 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이 되었다. 증조(曾祖)에 이르러 온이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이 통정(通政)에 이르렀고 순충보조공신(純忠補助功臣)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참판(工曹參判) 초계군(草溪君)에 증직되었다. 성종(成宗)조에 관직에서 일찍 사퇴해서 덕을 쌓고 선을 행하여 그 자손들에게 덕업의 터전을 만들어 주었다. 조부 윤겸(允謙)은 무과에 급제하여 정국(靖國) 훈공(勳功)에 참여해서 관직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청계군(淸溪君)에 이르렀고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증직되었다. 공이 서사(書史)를 섭렵하고 관직에 있을 때 청렴하고 근면하여서 삼십년동안 변방 수비의 책임을 다하시니 세상사람들은 어진 장군이라고 칭찬하였다. 아버지의 이름은 숙(淑)이니 음사(蔭仕)로 현감의 관직에 이르렀고 숭정대부(崇政大夫)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초계군(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 草溪君)에 증직되었는데 차후 팔계군(八溪君) 때에 추은되었다. 어머니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 김씨(金氏)는 경주의 망족(望族)이니 충의위 선략장군(忠義衛 宣略將軍) 휘 계훈(季勳)의 딸이고, 개국공신 계림군(鷄林君) 곤(耑)의 후손이다.

정종영은 1513년(중종 8년) 11월 16일에 원주 봉산동 <배말>에서 태어나 1589년(선조 22)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신도비(神道碑)가 공근면 공근리에 있다. 나면서부터 영리하였는데 8세때 어머니를 여의고 하늘을 부르짖으면서 발을 굴러 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나이 15세에 이르러 모재(慕齋) 선생을 따라 유학(遊學)하였다. 이때는 기묘사화가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리학을 세상사람들이 꺼려하였으나 그는 홀로 깊이 탐구하고 궁리하였다고 한다. 1530년(중종 25)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43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이듬해 검열(檢閱)이 되었다. 1545년에는 봉교(奉敎)에 승차(陞差) 되었는데 마침 사화(土禍)가 크게 일어나자, 곧 붓을 잡아 삼대신의 죽음에 대하여 동료와 함께 살해된 사실을 숨김없이 기록하였다. 당시 동참한 사관들은 화를 당하였으나 그는 화를 면하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에 올랐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배명(拜命)되었다가 1547년(明宗 2)에 호조좌랑(戶曹左郎)에 옮겨갔으며 가을에 평안도 평사(平安道評事)로 나아갔다. 당시 처숙인 유관(柳灌)이 화를 입게 되어 그 화가 유족(친척들)들에게 까지 미치게 되었고, 정종영은 외지에 나가 한직(閑職)에 머무르게 되었다. 막부(幕府)에 부임해서는 부중의 오래된 폐습을 일체 혁신하였다. 그해 겨울에 호조정랑(戶曹正郎)·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등을 거쳤다. 1548년 봄에 예조정랑 겸 춘추관 기주관(禮曹正郎兼春秋館記注官)에 제수되었으며 이듬해 봄에는 헌납(獻納)으로 갔다가 얼마 아니되어 옥당(玉堂)으로 옮겨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초가을에는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고 겨울에 부사직(副司直)에 체배(遞拜)되었다가 예조정랑(禮曹正郎)에 선배(旋拜)되었다. 1550년 봄에 재차 옥당에 들어가 부교리(副校理)가 되었으며 1551년에는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체배되어 교리에 올랐고 또 지평(持平)과 장령(掌令)에 천제(薦除)되었다. 이조좌랑(吏曹佐郎)의 자리가 비어 있어 모두 의논하여 공을 천거하였으나 윤원형(팔계군의 서고모부)의 배척으로 끝내 제수 받지 못하고 다시 옥당에 들어가 부교리가 되었으며 곧 부응교(副應敎)가 되었다. 또한 경기

도 지방에 어사(御史)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1552년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1553년(명종 8) 윤삼월에 찬성공(贊成公 : 팔계군의 아버지)이 당진(唐津) 임소에서 병환으로 눕자 이에 시성(侍省)하러 갔는데 왕께서 약물을 하사하시고 상(喪)을 당해서는 왕명으로 제상과 쌀, 콩 등을 하사하였다. 팔계군은 예법에 따라 시묘살이를 극진히 하여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한번도 집안에 이르지 않았다. 명종 10년에는 시독관(侍讀官)으로 있으면서 “어려서 익히지 않고 자라서 배우지 않으니 인제가 나지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어릴 때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과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를 역임하였다. 1556년 봄 응교(應敎)에 승차되었으며 여름에는 직제학(直提學)에 승직(陞職)되었다. 그가 교리가 되었고 진복창(陳復昌)이 부제학이 되었다. 사헌부에 있을 때 충주사람 최하손(崔賀孫)이 권간(權奸)과 은밀히 결탁하고 사화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자 충주에서 죄를 입었던 잔당들이 남아있다고 제소하였다. 복창이 대헌(大憲)이 되어 그 소송을 도우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니 좌우 사람들은 감히 일을 열지 못하였다. 그러나 홀로 창의하여 말하기를 이일은 사헌부에서는 알바 아니라고 하니 조장령(趙掌令) 광옥(光玉)이 말하기를 사헌부의 직책은 규찰만 할 따름이니 정공의 말이 옳다하고 다함께 입을 모아 물리치니 사화는 이에 힘입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복창이 이에 정종영을 혐오하여 중상(中傷)코자 하였으나 오래지 않아 죄를 입게되었다. 명종 12년에는 직제학과 형조참의(刑曹參議),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를 역임하였다. 명종 13년에는 우승지(右承旨)로 있다가 도승지(都承旨)가 되었다. 명종 14년에는 헌부의 탄핵을 받아 도승지에서 물러나 대호군(大護軍)으로 있다가 여름에 호조참의(戶曹參議)가 되었다. 그리고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가 그 해 말에 다시 도승지가 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가선대부 공조참판(嘉善大夫工曹參判)이 되었으며 바로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다. 그는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때 도민들을 안무(安撫)하였다.

벼슬의 임기가 다하고 돌아오자 가전승습(家傳承襲)으로 팔계군(八溪君)에 봉군되었다.

그후 명종 16년에는 한성부 좌윤을 지내다가 명종 17년(1562년)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윤원형(尹元衡)에게 아부하여 부정행위를 자행하는 수령들을 응징하고, 내전의 힘을 빌려 발호하는 요승(妖僧)을 제거하였다. 이에 내전(문정왕후)이 진노하고 권간들이 분을 참지 못하여 곧 관찰사 정종영을 교체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그러나 삼사(三司 : 司憲府, 司諫院, 弘文館)가 합세하여 간쟁하고 태학생(太學生 : 홍문관 유생)들도 상소를 올려 그대로 유임되었다. 명종 18년에는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을 거쳐 공조참판 겸 동지 의금부사(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로 있었다. 또한 조묘도감 제조(祖廟都監提調)로 있으면서 세자의 장지(葬地)를 경릉(敬陵) 선릉(宣陵) 현릉(顯陵) 헌릉(獻陵) 등 네곳에 잡아놓고 와서 품하니 왕께서 경릉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부임한 후 서북지방 사람들이 무예를 좋아하고 문교(文教)를 싫어하는 지방이라는 형세를 감안하여 평양에 서원(書院)과 서적포(書籍鋪)를 설립하여 학문의 진흥에 기여하였다. 명종 20년에는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있다가 이조참판(吏曹參判)이 되었다. 그러나 간원에서 이조의 관리들이 인사관리에서의 구습을 혁파하고 공정한 길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이조당상(吏曹堂上)과 색낭청(色郎廳)에 허물을 물어 벌할 것을 청하였다. 1567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해 겨울에 형조판서(刑曹判書)에 배명되었고 원접사(遠接使)로 의주(義州)에 가서 조사(詔使 : 국서를 가지고 오는 사신)를 영접하다가 중로(中路)에서 병이 나서 직위가 교체되었고, 그 대신 전위사(錢慰使 : 외국 사신을 전송하는 사신)로 관서(關西)에 체류하여 1568년 봄에 이르렀다. 1569년(선조 3) 봄에 형조판서에서 교체되어 겸 지춘추관사(兼知春秋館事)가 되었다.

이때에 남쪽지방에 우환이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중신의 재목으로 문무를 겸한 사람을 발탁하여 서남백(西南伯 : 전라감사)으로 삼고자하

니 정종영이 천거되어 전라 관찰사 겸 순찰사(全羅觀察使兼巡察使)가 되었다. 부임해서는 동정을 안찰케 하여 청명하게 다스리고 변방일에 힘을 쓰니 군비는 변함없이 확고하였다. 선조 4년에 임기가 다하자 다시 형조판서에 배명되었다. 선조 5년 봄에 죄수를 구생함에 법집행을 굽히지 아니하여 당로자(當路者 : 상급관청의 감독관)가 와서 크게 노하니 동료들은 자못 어려워했으나, 그는 법은이란 한번 굽히게 되면 폐해가 장차 무궁할 것이라 하면서 끝까지 고집하다가 파면되었다. 가을에 다시 형조판서에 제수되어 지경연(知經筵)을 겸하였는데 겨울에 병으로 교체되었다. 선조 6년에는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있으면서 “일체 가공(家供)하면 벼슬이 낮은 관원과 여환(旅宦)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영전(迎錢) 등의 공판은 각별히 통렬하게 금하고 횡간(橫看)대로만 먹을 것이요 과외(科外)의 것은 털끝만큼도 더하지 않는다면 고치는 것을 일삼지 않아도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여 부정과 폐단을 금지하였다. 가을에 예조에서 교체되어 호조판서로 배명되어 비변사(備邊司)의 당상관을 겸하였다. 선조 7년에는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역임하고, 선조 8년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었다. 그런데 헌부(憲府)가 탄핵하자 왕이 윤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병으로 면직하였다. 1576년 가을에 다시 이조판서에 배명되었다. 1577년(선조 10) 여름에 이조에서 교체되어 예조판서(禮曹判書)에 배명되었다. 가을에 인성왕후(仁聖王后)가 병이 나자 그는 내의원(內醫院)의 제조(提調)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병이 점차 회복되었고 이에 상을 더하여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승차되었다. 8월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교체되었고 또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이배되었다. 1578년(선조 11) 봄에 의정의 우참찬(議政義右參贊)에 제수되었고 여름에 다시 예조판서에 제수되었다가 1579년(선조 12) 봄에 또 병조판서가 되었다. 1580년(선조 13) 봄에 병조에서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또 우참찬(右參贊)에 옮겼고 승정대부(承政大夫)에 승차되어 우찬성(右贊成)에 탁발되었다. 먼저 찬성에 승차되었을 때 임금 대신 정 2품중에서 가함(可

습)한 사람을 선택하여 천거하라는 명을 내리었는데 대신들은 두사람을 추천해 올렸는데 그가 수망(首望 : 첫번째망)에 올랐기에 탁배되었다. 이후 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가 곧 공조판서에 배명되었다.

1581년(선조 15년)가을에 병으로 사임하고 지경연(知經筵) 및 제조(提調)직으로 교체되었다. 겨울에 의금부 판사(義禁府判事)에 배명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사퇴하였다. 그는 1582년(선조 16) 4월에 향리(鄕里)로 돌아가고자 치사(致仕 : 나이 70세가되면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예기』에 있음)를 청하였다. 이를 거듭하여 계청(啓請)하였으나 왕은 쉽게 결단하지 못하다가 끝내 허락할 수 없다고 비답하였다. 겨울에 또 다시 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로 교체되었다. 이후부터 오직 훈직(勳職)을 유지하며 집에 머물렀다. 일찌기 지은 시에 이르기를 ‘주류육부금성노(周流六部今成老) 단합전원퇴성건(團合田園退省愆), 두루 육부를 돌다보니 이제는 늙었으니 전원에 돌아가서 허물이나 반성하여 보리라’ 하였다. 또 소주인(蘇州人 옛 소주에 어진 사람)에게 시를 화답하여 좌우명으로 걸어 놓은 글에 이르기를 ‘몸은 많이 병들었으니 사퇴하고 전리로 돌아가려는데 길에는 유망(流亡)하는 사람이 있으니 받는 녹봉도 부끄러워라’ 또 편안함을 말하야 이르기를 ‘녹은 많이 기대하지 말라’ ‘방만하면 그만 멈추고’ ‘나이 늙을때를 기다리지 않네’ ‘빨리, 사퇴하고 돌아가 편히 지내리라’. 그知足(知足: 절도있게 행동하여 멈출때는 멈추고 즉 행지의 뜻)의 뜻을 이처럼 표현하였던 것이다.

1589년(선조 22)에 장차 고향인 원주로 돌아가려 할 때 여름 녹봉이 당도하였다. 집사람에게 명하여 받지 말라 하고 평생 국은을 심중하게 입었는데 어찌 가히 돌아갈 임시에 또 녹을 받겠는가라고 하며 차자(笱子)를 올려 결퇴(乞退)하였다. 당시 전교(傳敎)에서 조종조(祖宗朝)에 구재상(舊宰相)이 퇴로 할 때 이에 대한 은전(恩典 : 사퇴수리에 관한 범전)이 있었는지를 상고해서 아뢰라고 하였다. 퇴계선생이 사퇴하고 돌아간 예에 의거하여 아뢰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당대의 조종조에 구규(舊規)를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해조(該曹)에서 여러날 동안 널리 상고

하여 보았으나 또한 얻지 못하였다. 이미 윤택하신 은총을 입으시니 사람들은 다함께 이르기를 그의 퇴거는 세상에 드문 일이라고 하였다. 말(馬)을 하사하고 본도(강원도)에 유시를 내려 식물을 하사하게 했다.

사퇴하던 날에 또 차자를 올려 사은하고 임금께서 주신 말(馬)을 사양하였다. 임금이 인견(引見)코자 하였으나 행보가 어려움을 듣고 비단 1부(一部)와 후추 1두를 하사하시고 또 중사(中使)를 파견하여 어주(御酒)를 내리시어 한강루에 잔치를 베푸시고 일행자체와 친족 및 전승인원이 함께 입참토록 명하시고 그들 성명을 기록하여 올리라고 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후 8월 11에 정침(正寢)하여 수명을 다하였는데, 춘추는 77세였다. 부음을 들은 임금은 애도하여 이틀 동안 조정의 정무를 철폐하고 특별히 물건을 내려 부조(扶助)하고 예관을 파견하여 치제(治祭)하였으며 강원도에 영을 내려 관에서 장사를 도와 지내도록 하였다. 이해 10월 23일에 횡성현 북면 공근리 자좌 오향원에 매장하였다. 팔계군은 서예에 뛰어났으며, 저서로는 『항재집 恒齋集』이 있다.

정종영은 김안국(金安國)의 문하생이다. 김안국은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서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김굉필(金宏弼)의 학통을 이은 정통 사립이다. 정종영이 김안국의 문하생이었다는 데서 그의 관풍이 도학(道學)을 펴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은 학문인 동시에 그 학문을 통하여 경세하려는 행동 철학이다. 때문에 시문(時文)에 능한 문장가의 의도와는 다르다. 도학에 심취했던 그는 모든 일에 한계를 분명히 하여 국사를 돌볼 때 왕실이나 그 친척들에 휩쓸리지 않았고 언제나 국가관을 뚜렷이 가지고 행동하여 왕실 친척간의 싸움인 을사사화(乙巳士禍)나 동서분당(東西分黨)의 파란을 극복하고 사왕대(四王代)의 관계를 겪을 수 있었다. 그가 당쟁에 초연했을 뿐 아니라 청렴한 관리였다는 점이 돋보이는데 강직한 문장가에 의해 편찬되는 『중종실록 中宗實錄』과 『명종실록 明宗實錄』에 가담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관직에서 물러난 그가 만년에 원주에 은거해 있을 때 나라에서 연금

(年金)을 보냈으나 관직을 떠난 사람이 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돌려보낸 이야기는 행장을 쓴 영의정(領議政) 심수경(沈守慶)이나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쓴 좌의정(左議政) 이단하(李端夏)가 함께 찬양하고 있다. 또한 호조정랑(戶曹政郎) 재임시 농촌에 유랑민이 속출하고 있는 문제를 놓고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삼공(三公)의 실정을 통렬히 비판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는데서 그의 강직성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러한 성품으로 인해 지방으로 여러번 쫓겨 나기도 했다고 왕조실록에 적혀있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로 재임시 문정황후와 그의 동생 윤원형에 맞서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왕후의 명을 직접 받았다는 승려들이 인종의 태봉(胎峰)이 있는 산의 나무를 벌채하는 것을 모조리 차단하였던 것이다.

인종은 명종의 이복 형으로 모두 중종의 아들인데 인종은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아들이고 명종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아들로서 배후에는 의척 윤임(尹任)과 윤원형이 있어서 전자를 大尹派(대윤파) 후자를 小尹派(소윤파)라 불렀다. 두 파의 대립은 심각하여 결국 대윤파를 숙청한 을사사화까지로 번졌으며 그 후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권세가 전국을 완전히 지배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정황후는 정종영을 잡아 숙청하려 했지만 성균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그의 행위를 옹호하는 시위를 벌였고 삼사에서도 성균관의 편을 들어서 할 수 없이 숙청하지 못했다. 이것은 당시의 모든 문헌에 기록되어 있고 숙종 때 대제학(大提學)과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민묵(閔默)이 쓴 시기(諡記)에도 잘 밝혀져 있다.

그의 사후 대표적인 만장(輓章) 중의 하나가 좌찬성(左贊成) 한준겸(韓浚謙)이 쓴 것인데, 주목을 끄는 내용은 동서당(東西黨)의 인물이 함께 분당될 때 이조판서인 정종영에 대해서는 찬양하고 있는 점이다. 정철(鄭澈) 등의 예외 인물도 있었지만 양파에서 모두 그의 정치적 수단이나 공정한 관리에 대해 찬양하고 있었다.

을사사화때 김안국의 문하인이면서, 난국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

은 그 이면에 정종영과 윤원형에게 얽힌 서계(庶系) 혼척(婚戚)관계가 있다. 정종영의 조부 윤겸에게 서출로서 딸 난정(蘭貞)이 있었는데, 난정은 첩의 딸이어서 윤원형의 첩이 되었다. 윤원형 집권시 배후 여인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누이 문정왕후(文定王后)요 하나는 첩 난정이었다. 그리고 난정에게는 생모인 윤겸의 첩 남씨(南氏)도 생존하여 있었는데 이때에 정종영이 관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정종영이 명종조에 숙청되지 않았던 것을 심수경이나 이단하는 천운이라고 말했지만 서조모(庶祖母)인 남씨나 서고모(庶姑母)인 난정의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종 20년 문정왕후 별세와 동시에 윤원형이 실각한 이후부터 정종영의 관운(官運)도 빛을 받아 중앙 요직을 연임하였다.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사이에 이조정랑(吏曹正郎)의 자리를 두고 동서 분당(分黨)이 시작되었다. 이 때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을 외적으로 보내어 수습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했고 당시 이조판서이던 정종영은 무반의 인물로 이조정랑(吏曹正郎) 자리에 보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결국 그는 어느 한 쪽편도 들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동서인이 다 불편해 했다는 것이다.

그의 유연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후손에게 “고향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횡성지방에 많이 살고 있으니 뜻이 지켜졌다고 보겠으며 다음은 “시문을 탐하지 말라”는 것으로 유몽인(柳夢寅)의 「어간기 於干記」에 실려 있는데 그것은 유학자로서 시문을 즐기면 도학을 경술하기 쉽다는 뜻이라고 하니 사실 시문은 미를 추구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나 선을 추구하는 도덕과 다름을 볼 때 그의 고결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원주 호저면 산현리의 칠봉서원(七峰書院)에 봉향되었으나 그후 서원은 철폐되었다. 시호는 정헌(靖憲)이다.

『중종실록 中宗實錄』 / 『명종실록 明宗實錄』 / 『선조실록 宣祖實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 『국조공사 國朝故事』 /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정진국 (鄭鎭國)

형성사람으로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부친의 명은 형중(衡重)이다. 영조 갑오년 함오경증관정시(合五慶增廣庭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정태정 (鄭泰庭)

정태정은 조선시대의 인물로 천거로 피천(被薦)되어 장릉참봉(莊陵參奉)을 지냈다.

정현덕 (鄭顯德, 1810~1883)

조선 말기의 대신이다. 본관은 동래(東萊)이고 자는 백순(伯純)이며, 호는 우전(愚田)이다. 1850년(철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1862년(철종 13) 부사과(副司果)로 되었으며, 고종(高宗)초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정사 서형순(徐衡淳)을 따라 청나라에 다녀왔다. 대원군(大院君)이 집권하자 그의 심복인물로서 동래부사가 되어 일본과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대원군의 뜻을 받들어 일본 메이지신정부(明治新政府)의 국교재개의 교섭을 서계문제(書契問題)를 이유로 끝내 거부하였다. 일본과의 암거래를 하는 무리를 엄중단속하여 박승달(朴承達)을 외화소지혐의로 참형에 처하였다. 그 뒤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었다가 대원군이 실각하자 민씨척족정권에 의하여 파면되어 유배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자 형조참판(刑曹參判)으로 기용되었으나 대원군이 물러남으로써 이에 다시 파면되어 원악도(遠惡島)로 유배된 뒤 그곳에서 사사(賜死)되었다. 그가 지은 「봉래별곡 蓬萊別曲」이라는 가사가 전해지고 있다.

『철종실록 哲宗實錄』 /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 『동산일기 東山日記』 / 『용호한록 龍湖閑錄』

「봉래별곡 蓬萊別曲」: 조선 말기 고종연간(高宗年間)에 정현덕(鄭顯德)이 지은 가사이고 국한문 필사본이다. 작자가 동래부사를 지내고 버

슬이 갈리어 서울로 올라오던 해인 1869년(고종 6) 12월에 동래부내의 명승지와 사적지를 두루 구경하고 지은 작품이다.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전체 117구이다. 음수율은 3·4조가 주조를, 4·4조가 부주조를 이루며, 3·3조가 한번 나온다. 내용은 4단으로 짜여져 있다. 제1단인 서사(序詞)에서는 신선세계를 뜻하는 봉래라는 지명과 연관시켜 창작동기를 밝혔으며, 제2단인 승사(承詞)에서는 장부의 강개(慷慨)를 이기지 못하여 봉래의 승지인 동래부 관아에서 금정산성-범어사-유선대-영가대-초량포-다대진-절영도-태종대 등지를 두루 구경하고 경치를 노래하였다. 제3단인 전사(轉詞)에서는 지은이가 선경을 두루 밟아 구경하였으나, 불사약은 구하지도 못하고 어느 사이에 3년 세월이 꿈처럼 지나버렸다는 느낌을 표출하였으며, 마지막 결사(結詞)에서는 이 좋은 고장을 떠나고 싶지 않으나, 성은을 갚기 위해 부득이 떠나야만 하니, 봉래의 벗님들은 가는 나를 잡지 말라고 이별의 동기를 담았다.

조선시대 기행가사 중에서 경상도지방만을 여행하고 지은 가사로는 유일하게 전해지는 작품이다. 작자는 일본과의 국교 그 자체까지 못마땅히 생각하던 인물로, 항왜의식(抗倭意識)을 작품에서 노골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志社), 1982. / 朴智弘, 「蓬萊別曲의 研究」, 『港都釜山』 4, (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64. (蓬萊別曲)

정현오 (鄭顯五)

황성사람으로 본관은 초계(草溪)이며 자는 경규(景奎) 호는 수산(壽山)이다. 기화(夔和)의 아들이다. 고종 무자년(1888)경과(慶科)별시에 병과로 등제하여 교리(校理)를 역임하였다.

정홍순 (鄭鴻淳, 1784 ~ ?)

1784년(정조 8)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임종(林宗)이다. 부친은 정원선(鄭元善)이고 1845(헌종 11)에 친정시(親庭試)

에서 급제하였다.

『문과방목 文科榜目』

정희동 (鄭熙東)

횡성사람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부친명은 민식(敏植)이다. 고종 경진년(1880) 을과에 급제하였다.

조공립 (趙恭立)

조공립은 인조(仁祖) 때에 음사(蔭仕)로 양성(陽城), 홍천현감(洪川縣監)을 지냈고, 봉정대부 호조좌랑(奉正大夫 戶曹佐郎)에 이르렀으나 당시의 문란한 정세에 염증을 느끼고 병자년(丙子年)에 횡성으로 내려와 은둔하였다.

증손자인 조식(趙湜)은 후에 등과하여 승지(承旨)에 까지 올랐으며 이 밖에 조명립(趙命立)의 아들과 그의 아들 성건(性乾)이 각각 현감을 지냈다.

조 린 (趙 遴, 1542 ~ 162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횡성(橫城)이다. 자는 중겸(仲謙)이고 호는 은은당(隱隱堂)이다. 제용감(濟用監) 부정(副正) 응세(應世)의 아들이다. 1568년(선조 1)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87년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를 거쳐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연천현감(漣川縣監) 등을 지냈다. 1614년(광해군 6) 간신들의 전횡이 심하고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 이원익(李元翼)·홍무적(洪茂績) 등이 쫓겨나 귀양가게 되자 섬강(蟾江)에 은퇴하였는데, 서울을 떠날 때 배에다 서책과 기르던 학을 싣고 가므로 사람들은 그를 신선처럼 여겼다고 한다.

1623년 인조반정 뒤 평시서영(平市署令)에 등용되고 이어 장악원첨정(掌樂院僉正)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 80이 넘었으므로 통정계(通政階)에 올랐다. 김효원(金孝元)·이경중(李敬中)과 한 동리에 살며 깊

이 사귀었다.

『은은당문집(隱隱堂文集)』: 조린의 시문집이다. 2권 2책이며 필사본이다. 12대손 기황(基璜)·창렬(昌烈)·종묵(鍾默) 등이 편집, 필사하였다. 권두에 배진환(裴縉煥)·목대흠(睦大欽)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기택의 발문이 있다. 권1은 시 18수, 서(書) 4편, 설(說) 3편, 기(記) 3편, 잡저 6편, 권2는 부록으로 서(書), 묘지·묘갈명(墓地·墓碣銘), 행장(行狀), 기(記), 아계서원실록(丫溪書院實錄), 통문(通文), 제행고문, 발(跋)·상량문(上樑文) 각 1편, 제문(祭文)·독서·제사(題辭) 각 2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시에는 우주의 섭리를 인간 생활에 결부시켜 자연의 혜택을 찬미하는 것과 동지와 후손을 훈교하는 내용이 많다. 「답학사질 答學士姪」은 도기설(道器說)을 문답식으로 전개한 글이다. 「송호공도설 松湖公圖說」은 태극도가 아니라 음양동정설로 체(體)와 용(用)을 구분한 학설이다. 주자의 학설을 들어서 태극은 도요, 도는 이와 기를 합하여서 말하고 도는 체와 용을 총칭하였으며, 도는 이기(理氣)를 말하고 이로 보면 도는 태극의 전체가 되고, 기로 보면 태극의 대용(大用)이 되니 체도 도요, 용도 도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형도기설 形道器說」에서는 도의 이발이 기가 되고 기의 이발이 도가 된다고 하여, 한 물건의 가운데 형태로 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경자효(仁敬慈孝)가 군신부자간에 행동할 때 도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부족설 不足說」은 모든 우주만물과 인간은 장단점이 서로 상대적으로 견제·보완관계로 유지, 발전하는데, 남을 원망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기의 도리에 맞게 성심껏 행동하기를 권고하는 내용이다. 「독춘추론 讀春秋論」에서는 독서취미에 따라 책을 선택하는 것과 양서를 선택하여 사상과 정신을 배우며 실천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춘추 春秋』의 대의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읽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밖에 「책문 策問」·「일월성신

설 日月星辰說」·「성정형기설 性情形氣說」 등의 글이 있다.

『명종실록 明宗實錄』 / 『국조인물고 國朝人物考』 / 『국조인물지 國朝人物志』

조 목 (趙 穆, 1524 ~ 1606)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다. 본관은 횡성(橫城)이다. 자는 사경(士敬), 호는 월천(月川), 동고산인(東阜散人), 부용산인(芙蓉山人)이다. 아버지는 참판(參判) 대춘(大椿)이며, 어머니는 안동권씨(安東權氏)로 수익(受益)의 딸이다. 3세에 글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다섯 살에 구두로 『대학 大學』을 배우고, 12세에 『사서삼경 四書三經』을 다 읽었다. 15세 때에 이황(李滉)의 문하생으로 들어가서 학업에 더욱 정진하였다. 이때 퇴계는 38세로 정 6품의 지위인 좌랑(佐郎)의 직임에 있던 중앙관인이었다. 당시 퇴계는 모친 박씨의 상을 당해 고향에 돌아와 집상중(執喪中)이었다. 이때부터 조목과 퇴계와의 단절없는 만남이 계속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조목은 성리학을 연찬(研鑽)하는 처사형(處士形) 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21세에는 풍기군수(豐基郡守)로 재직하면서 백운동 서원(白雲洞書院)을 창건한 주세붕(周世鵬)을 찾아가서 그 고을의 향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23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효심이 지극하여 이황은 대성할 그릇이 약관으로 몸을 상하지나 않을까 염려할 정도였다. 26세에 참봉 군개세의 딸과 결혼한 다음 당시 풍기군수로 재직중이던 이황을 찾아가 수업하였다. 1552년(명종 7)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며, 대과(大科)는 포기하고 독선일신(獨善一身)에만 매진하였다. 1566년 공릉참봉(恭陵參奉)에 봉직되었으나 학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이황을 가까이 모시면서 경전연구에 주력하였다. 그 뒤 성균관수찬(成均館首薦)에 피선되고, 집경전참봉(集慶殿參奉)에 제수되었으며, 1572년(선조 5) 이후 동몽교관(童蒙教官)·종부시주부(宗簿寺主簿)·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공조좌랑(工曹佐郎)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1576년 봉화현감(奉化縣監)

에 제수되자 사직소를 올렸으나 허락되지 않아 봉직하면서 향교를 중수하였다. 1580년 이후 전라도도사(全羅道都事)·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충청도도사(忠淸道都事)·형조좌랑(刑曹佐郎)·신녕현감(신녕縣監)·영덕현령(盈德縣令)·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공조정랑(工曹正郎)·상서원판관(尙瑞院判官) 및 금산(錦山)·단양(丹陽)·합천(陝川) 등의 군수(郡守), 장원서장원(掌苑署掌苑)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1594년 군자금주부(軍資監主簿)로 잠시 있으면서 일본과의 강화를 극력 반대하였다. 그 뒤 장악원정(掌樂院正)·사재감정(司宰監正)·예빈시정(禮賓寺正)·공조참의(工曹參議)·공조참판(工曹參判) 등을 제수받았으나 모두 재덕과 노병을 이유로 사직소를 올려 사퇴하였다.

그는 이황과 동향인 예안(禮安)에서 성장하여 일찍 그의 문하생이 된 이후로 일생 동안 가장 가까이 스승을 모신 팔고제(八高弟)의 한 사람이다. 이황이 죽은 뒤 문집의 편간, 사원(祠院)의 건립 및 봉안 등에 있어서 항상 성의를 다하였고, 마침내 도산서원 상덕사(尙德祠)의 유일한 배향자가 되었다.

그는 신민(新民)보다 명덕(明德)을 중시하여 벼슬은 사양하고 현사사(玄沙寺)·광흥사(廣興寺)에 들어가 독서를 즐겼으며, 이황을 수행하며 명산대천을 주유하면서 심신을 수양하였고, 경학을 연찬하되 이기설(理氣說)보다는 훈고(訓詁)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심학(心學)에 심취하여 『심경 心經』에 관한 논설이 많다. 또, 외직에 부임하면 향교를 중수하고 서당을 신설하는 등 고을의 교육진흥에 이바지하였으며, 귀향하여서는 매년 역동서원(易東書院)·도산서원(陶山書院)을 참배하여 현인의 넋을 기리고 자신의 몸가짐을 더욱 돈독히 닦아나갔다. 그의 일생의 주된 업적은 이황에 대한 소술(紹述)과 존봉(尊奉)에 있다 하겠다. 그의 문집에 이황에 관계된 글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평생을 청빈하게 지내면서 온후, 겸양, 독실한 실천을 지향하였다. 제자로는 김중칭(金中淸)·이광윤(李光胤)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월천집』과 『곤지잡록 困知雜錄』이 있다.

<퇴계와의 교류양상>

1555년: 퇴계와 서한(書翰)을 통해 「연평답문」과 「호연지설」에 대해 강론하였다.

1556년: 퇴계의 청에 따라 주서(朱書)를 필사하였다.

1558년: 12월에 다시 퇴계를 찾아 뵙고 『심경』 부주와 『대학』 장구에 대해 문의하였다.

1559년(36세): 정월에 권대기 등 여러 사람과 부용산(芙蓉山)에 올라가 집 뒤 3리쯤되는 독중에다 정사를 세울 것을 의논하고 3월에 독조동에 청원대를 축조하였다.

1560년(37세): 3월 퇴계를 모시고 부용산에 올라 정사터를 정하고, 4월에 월난사에서 독서한 뒤 다시 퇴계를 모시고 고산의 승경을 유람하였다.

1561년(38세): 퇴계에게 글을 올려 「부용산대(芙蓉山臺)」로 자호(自號)하였음을 알렸다.

1562년: 퇴계를 모시고 취미봉에 오르고 5월에는 퇴계에게 글을 올려 『심경』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 대해 강론하였다.

1563년: 8월에는 퇴계를 도산서당에 가서 뵙고 며칠을 유숙하면서 경학을 논하였다.

1564년: 7월에도 퇴계를 모시고 퇴계동 입구에 있는 자하봉에 올랐다.

1565년: 6월 퇴계에게 글을 올려 『심경』을 논하면서 「인심도심정일집중도 人心道心精一執中圖」를 고칠 것을 제의하고, 8월에는 퇴계에게 글을 올려 「심경심학도구방심(心經心學圖求放心)」 일절과 여러 장의 주설(註說)을 논하였다.

1566년: 5월에 퇴계에게 「논심경정임은심통성정도 論心經程林隱心統性情圖」를 올리고 또 「정황돈사실(程篋墩事實)」을 논한다. 7월에는 퇴계를 찾아 뵙고 『심경』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처럼 30여년동안 지속된 퇴계 이항과의 사제관계가 1570년 퇴계의

죽음으로 인해 마감되면서 조목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고 유업을 빛내는 일에 열중하였다.

조목의 두드러진 행공사적으로는 첫째, 역동서원(易東書院)을 창설하였다. 1565년 9월에 퇴계와 함께 서원의 설립을 의논하기 위해 능운대와 오담 등을 유력하였다. 그는 1557년 정월 초이틀 우탁(禹卓)족보를 베껴서 퇴계에게 보내고, 1558년 3월 26일 퇴계는 답장을 보내 금난수와 조목이 역동서원 지을터를 지정해 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1567년 12월에 역동서원사적(易東書院事蹟)을 짓고 1568년 정월 퇴계에게 글을 올려 鄉中序齒의 마땅함과 부당함을 논하였고, 1570년 7월 퇴계를 초빙하여 저생(諸生)과 함께 역동서원에 모여 ‘심경’을 강론하였다. 8월에 제주 우탁선생을 역동서원에 봉안, 「역동서원춘추향용축문 易東書院春秋恒用祝文」을 초하였다.

둘째로 1579년 봉화향교를 중수하였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12년 12월 6일조에 보면

“향교가 옛터를 잃고 고을 서북의 궁벽한 곳에 있었는데 매우 누추하고 체제도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향교의 옛터에는 이미 향서당을 세웠기 때문에 형세가 움직이기 어렵게 된 지 오래였다. 그런데 조목이 부임하자마자 즉시 향인들을 모아놓고 향교를 옛터에 회복시키라는 명을 알리고 나서 향서당을 헐고 성묘(聖廟)를 옮겨 지었다. 이보다 앞서 성전(聖殿)안의 송현(宋賢)의 위치가 동현(東賢)과 함께 남쪽 모퉁이에 병렬되어 있었는데, 조목이 이에 대해 늘 미안하게 여겨왔었다. 그래서 봉안할 때에 상달하여 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제(殿制)를 특별히 넓혔는데 계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체직되어 돌아왔다. 그 뒤 이 뜻을 조정의 진신들에게 말해서 계청하여 개정하게 했다. 각 고을 성전의 송현들의 위치를 바로잡은 것은 모두 이때부터 시작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봉화향교 중수는 향교사당 전제의 개편을 가져왔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월천집(月川集)』 : 조목(趙穆)의 시문집이다. 6권 3책으로 목활자본이다. 1666년(현종 7)에 아들 석명(錫明)이 유고를 편집하고, 예안현감 이석관(李碩寬)이 간행한 것으로, 권두에는 허목(許穆)의 서문, 저자의 세계도(世系圖)·연보(年譜) 등이 있고, 권말에는 김응조(金應祖)의 跋文이 있다. 권1은 시(詩) 118수, 권2는 소(疏) 6편, 권3은 서(書) 21편, 권4는 심경품질(心經稟質)·주서절요품질(朱書節要稟質)·상서의의(尙書疑義)·가례의의(家禮疑義), 권5는 잡저(雜著) 4편, 권6은 발(跋) 3편, 축문(祝文) 2편, 묘갈(墓碣) 2편, 묘지(墓地) 1편, 논(論) 2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는 6편 중 사직소(辭職疏)가 5편인데, 이 중 「갑신사직소 甲申辭職疏」는 당시의 민력(民力)의 피폐와 민심의 이반(離反)을 강조하였고, 정부가 변방의 충실한 국방력을 강구함에 있어서 저자는 먼저 민본(民本)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임진왜란 8년 전에 나라의 실정이 어떠한가를 짐작하게 하는 좋은 자료이다. 또 「갑오진정소 甲午陳情疏」는 왜구와의 강화를 극력 반대하는 상소문인데, 국왕은 오로지 덕을 닦아서 하늘에 이르게 하고, 인정을 베풀어 백성을 무마하고 사직을 안정하게 하며, 국운을 새롭게 하여 외적을 섬멸하는 일을 으뜸으로 여길 것을 간곡히 원하였다. 「심경품질」·「주서절요품질」·「상서의의」·「가례의의」 등은 이황에게 질문한 것과 그 대답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사제간의 배우고 지도하는 형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잡저 중 「퇴계선생언행총록 退溪先生言行總錄」은 이황의 인품과 학문하는 태도, 동정기거하는 절도에서 일생 동안 처신·처세한 것 등을 소상히 밝혀주었고, 「역동서원사실 易東書院事實」은 서원설립에 있어서 대지·임목(林木)·인부·재정의 소요 및 지방사림의 협조와 관청의 후원에 관한 구체적 기록으로, 서원형성의 실례의 하나를 제공하여주고 있다. 논 중 「순욱론 荀彧論」은 순욱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힌 것이고, 「삭촉락삼당론 朔蜀洛三黨論」은 붕(朋)과 당(黨)의 다른 점을 경전과 사문(史文)에 근거하여 구별하였다. 붕은 군자 사이

에 존재할 수 있는 선한 집단으로 도덕과 의리를 주로 삼는 데 반하여, 당은 소인들 사이에서 자생하는 이익집단으로서 서로 비리를 감싸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집단이라 배격하고 있다.

저자는 일생 동안 가장 가까이 스승을 모시고 충실한 제자가 된 관계로 그의 문집에 이황과 관계된 글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국조방명록 國朝榜名錄』 / 『월천집 月川集』 / 張浩重, 「月川 趙穆의 現實認識과 詩世界」 (안동대 대학원석사학위), 1993.

조성립 (趙誠立)

형성사람으로 조성립은 호가 일소헌(一笑軒), 졸옹(拙翁)이며 선조(宣祖) 22년인 1589년에 세자입학별시을과(世子入學別試乙科)에 급제하고 공주목사(恭州牧使),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와 사간원 대사간지제교(司諫院 大司諫知製敎)를 역임하였고,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을 거쳐서 선조 36~37년인 1602~1603년간 제주 구황어사(濟州救荒御使)를 역임했다. 그는 구황어사로 있으면서 방물(方物)의 경감을 요청하였고, 국둔마(國屯馬)의 점열(點列)과 군관의 폐단에 관해서 보고하였다. 그 후 울산 판관을 역임하다가 1606년(선조 39)에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이 되었다. 1607년(선조 40)에는 예조좌랑(禮曹佐郎), 병조좌랑(兵曹佐郎)이 되었다가 1609년(광해군 1)에 다시 수찬이 되었다. 1623년(인조 1)에는 사간이 되어 외척·내인등의 문제를 아뢰었고, 원자의 위호를 정할 것을 아뢰었으며, 미납된 공물들의 문서를 불사를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 그 후 1624년(인조 2)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와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으며 1630년(인조 8)에는 정삼품인 사간원(司諫院) 최고의 벼슬인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광해군 폐모사건에 항거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은둔하니 그를 다시 중용하고자 했다.

조성립은 1638년(인조 16) 2월 24일에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청년

하고 대범하였으며, 스스로 지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저서로는 일소헌(一笑軒) 유고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조 오 (趙 梧)

본관은 횡성으로 세종(世宗)때 급제하여, 벼슬이 수문전 제학(修文殿 提學)에 이르렀다. 성정이 청렴하고, 개결하여 맑은 절조가 비할 자 없었다.

일찍이 협천(陝川)의 수령(守令)으로 있을 때, 군에 은어(銀魚)가 나는데 여름에 비록 썩는다 하더라도 그 처자에게 맛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들 사위 노복 등 왕래하는 자가 모두 자기 양식을 싸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천성이 청렴하고 근엄하여 후에 늙어 촌장(村庄)에 물러나 살 때에도 집안이 텅비어 아무 것도 없었으나 털끝만치도 남에게 요청한 바가 없으니 참으로 독실한 군자였다. 집이 지극히 가난하여 일찍이 예조랑(禮曹郎)으로 있을 때, 방세(房費)에 몰려 다녔으며, 나무와 쌀을 이어대지 못하였다. 이에 동료가 쌀 3말을 가지고 방문했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후에 공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자랑하니 사람들이 억지로 한 짓이라고 조소하기도 하였다.

『필원잡기 筆苑雜記』 / 『대동야승 大東野乘』

조정립 (趙正立, 1560 ~ 161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횡성(橫城)이다. 자는 여직(汝直), 호는 송호(松湖).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 진(進)의 아들이다. 1589년(선조 22) 진사(進士)가 되고, 1591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를 거쳐 박사(博士)에 이르렀으며, 그 뒤 전적(典籍)·정언(正言)·예조좌랑(禮曹佐郎)·수찬(修撰)·지평(持平)·보덕(輔德)·사간(司諫)·사인(舍人) 등을 역임하였다. 광해군 때에는 응교(應

敎)·집의(執義)·사성(司成)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1598년 진주사(陳奏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광해군초 사간(司諫)에 임명되어 사직하면서는 8조의 소(疏)를 올려 시무(始務)를 논하기도 하였다. 1612년(광해군 4) 김직재(金直哉)의 옥사가 일어나자, 관직에 나가지 않은 것이 그의 일당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받자 부득이 직제학(直提學)에 취임하였으나 곧 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정경세(鄭經世)·한백겸(韓百謙) 등과 친교를 맺고 학문을 닦았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 『광해군일기 光海君日記』 / 『국조방목 國朝榜目』 / 『국조인물고 國朝人物考』

조중립 (趙中立, 1557 ~ ?)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횡성(橫城)이고 자는 여시(汝時)이다. 아버지는 별좌(別坐) 진(進)이며, 어머니는 임해군(臨海君)의 사위 김진(金鎭)의 딸이다. 1582년(선조 15)에 생원에 뽑혔고, 1597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이조좌랑(吏曹佐郎)·지제교 겸 춘추관기사관(知製敎兼春秋館記事官)을 역임했으며,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때 사관(史官)으로서 상하번(上下番)시에 무단 출거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봉교(奉敎)·검열(檢閱)·예조좌랑(禮曹佐郎)·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병조정랑(兵曹正郎)·사서(司書)·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찬의(贊儀)를 거쳐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인협(引嫌)해서 물러났다고하여 체차(遞差)되었다. 교리(校理)·이조좌랑(吏曹佐郎)을 거쳐 1605년에 홍문록(弘文錄)에 간택되고, 안악현감(安岳縣監)·병조정랑(兵曹正郎)을 역임하였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 『광해군일기 光海君日記』 / 『국조방목 國朝榜目』

진극일 (陳克一)

조선중기 무신으로 진극일은 본관은 여양(驪陽)이며 호는 백헌(柏

軒)이고, 여양군(驪陽君) 여의(汝義)의 아들이다. 성격이 강의(剛毅)하고 충효(忠孝)로 이름났으며, 문장에 뛰어났다. 선조(宣祖)때에 무과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승경역(陞經歷)으로 예안(禮安)현감을 지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원주목사(原州牧使) 홍진(洪震)과 함께 홍보(洪寶)의 이인거(李仁居)의 난을 토평(討平)하는 데에 참여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녹소무공신(錄昭武功臣)이 되고 제안성(除安城)에 승호(陞戶)로 봉하여졌고 여평군(驪平郡)에 봉해졌으며 임금으로부터 사필(賜筆)을 받았다. 상을 당하자 유관(遺官)들이 모여 상을 치르고 조정에서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증직하였다. 내원(涑原), 용호(龍湖), 신제(臣濟) 등 제주(諸州) 정충서원(靖忠書院)에 종향(從享)하였다.

『강원도사 江原道史』

진여의 (陳汝義)

세조때에 무과에 등제하여 주부(主簿)를 역임하였다.

『강원도사 江原道史』

진오기 (陳五紀)

조선조 명종(明宗)때 문신으로 진복수(陳福壽)의 아들이었으며 지조(志操)가 청아하고 과거를 거치지 않고 재용관(宰龍官)이 되었으며 백성들을 고무하여 학문을 일으키고 문화를 장려하였으며 벼슬은 좌승지(左承旨)에 이르렀다.

그는 벼슬을 그만 두고 낙향하여 횡성읍 입석리(橫城邑立石里)에 기거하였는데 꿈속에 화선이라는 기생과 즐겼던 일을 생각하여 지은 화몽정의 아름다운 얘기가 오늘날까지 전하여지고 있다.

『江原道史 강원도사』

진치상 (陳致常)

조선시대의 관리였던 진치상은 관직이 별좌(別坐)에 있었다.

허택 (許澤)

김해(金海) 허씨(許氏)로 조선시대 사람이다. 형조참판(刑曹參判), 오위도총부 부총관(五衛都總府副總官)을 역임했다.

(2) 儒行·文學

고환기 (高煥基)

호는 동은(東隱)이고 횡성고씨(橫城高氏)이다. 소윤(小尹)의 후인으로 풍모가 영민하고 문학에 박식하였다.

수직(壽職)로서 통정(通政)이 되었다가 가선(嘉善)에 올랐으며 유고(遺稿)가 있다.

김병길 (金炳吉)

경주김씨(慶州金氏)로 첨추(僉樞) 광고(光敎)의 현손이다.

재예가 밝고 뛰어났으며 문학에 숙취(夙就)하여 사림(士林)들로부터 많은 아낌과 귀함을 받았으나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나므로 모든 사람들이 애통히 여겼다.

김사준 (金思竣)

호는 삼송(三松)이고 연안김씨(延安金氏)이다. 판서(判書) 효성(孝誠)의 후인(後人)으로 성품이 심중하여 말이 적었다.

학문을 탐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또한 명리를 구하지 않는 고결한 성품으로서 문학(文學)으로 여러번 천거되었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벼슬에 오르지 않아 단지 수(壽)에 의하여 통정(通政)이 되고 다시 가선(嘉善)에 올랐다.

김완경 (金完卿)

호는 동호(東湖)이며 강릉김씨(江陵金氏)이다. 찰방(察訪) 석견(石堅)의 후인(後人)으로 성품이 단정 정아하고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였다.

문사에 정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향시(鄉試)에 합격하였다. 또한 만년에는 임천(林泉)에 은거하여 도리(道理)를 연마하며 경론함에 많은 제자들이 모여 수업하여 존경과 숭배를 받는 사표가 되었고 유고(遺稿)도 남겼다.

김주욱 (金周郁)

호는 하암(荷庵)이고 진사(進士) 득신(得臣)의 후인이며 호군(護軍) 두만(斗萬)의 자손으로 성품이 순박하고 어질며 관용이 있었으며 효행 또한 지극하였다. 일찍이 선친(先親)의 교훈을 받아 문학과 공리학(工理學)에 정통하여 한때 이름이 높았으나 봉오산(鳳鳴山)에 은거하여 소일하였으며 유고(遺稿)가 있다.

김학용 (金學龍)

강릉김씨(江陵金氏)이고 부사(府使)를 지낸 김광백(金光白)의 후인(後人)이고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경향 각지에 날렸다.

호는 취운(翠雲)이며 정시(庭試)에 합격하여 들어갈 때, 전운(全韻)을 다 알아 통달하였다.

김학봉 (金學鳳)

강릉김씨(江陵金氏)이고 부사(府使)를 지낸 김광백(金光白)의 후인(後人)이고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경향 각지에 날렸다.

호가 예은(藝隱)이며 고종(高宗) 갑술(甲戌)년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관직은 부호군(副護軍)에 이르렀다.

김학구 (金學龜)

강릉김씨(江陵金氏)이고 부사(府使)를 지낸 김광백(金光白)의 후인(後人)이며 김학용, 김학봉과 형제이다. 호가 운초(雲樵)이며 글에 능통하고 명필로 이름이 높았다.

그는 학용, 학봉과 함께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경향 각지에 날렸다. 이들 삼형제를 세인(世人)들은 일컬어 삼학사(三學士)라고 하였다.

박인희 (朴仁熙)

호는 슬탄(瑟灘)이고 밀양박씨(密陽朴氏)이다. 일마(洗馬) 원충(元忠)의 후손으로 성품이 인자하고 후박할 뿐만 아니라 단아하였고, 문학이 탁월하여 의롭게 행하였으므로 그 문중에서 많은 사림(士林)들을 배출하였으며 그의 문집(文集)이 있다.

변영환 (卞榮煥)

호는 후당(後堂)이며 초계변씨(草溪卞氏)이다. 춘당(春堂) 중랑(仲郎)의 후인(後人)으로 기도(氣度)가 현양(軒昂)하고 문예가 숙취(夙就)하여 한때 이름이 높았다.

송 석 (宋 奭)

호는 청계(聽溪)이며 여산인(礪山人)이다. 대헌(大憲) 권기(權琪)의 후인(後人)으로 8세 때에 이미 어른들 못지 않는 예절까지 갖추었다.

문예가 범인을 초월하였으며 경의(經義)에 능통하여 역리학(易理學)에 뛰어나 수차에 걸쳐 관에 등용하고자 천거하였으나 사양하였다. 그리고 선비로서 오로지 문하생(門下生)들에게 강론하였고 통사(通史) 등 수백편의 저서를 남겼다.

신 변 (申 抃, 1470 ~ 1521)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낙천(樂天)·낙옹(樂翁)이다. 호는 글우정(橋字亭)이고 정랑(正郎) 수복(守福)의 손자이며 감찰(監察) 영화(永和)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1515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곧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가 되었는데, 왕이 유능한 인재를 탁용(擢用)하려 하자 병조판서 고흥산(高荊山)이 변방관리의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1517년에 이조판서 남곤(南袞) 등이 그를 정자 유용(柳庸)과 함께 재능이 있다 하여 6품직에 승급시켰다. 1519년에 지평을 거쳐 황해도도사가 되었으나 사직하고 지평(砥平)에 일시 은거하였다가 병조좌랑(兵曹佐郎)이 되었는데,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파직되어 다시 지평에 은거하였다. 1521년에 동생 생원 철(哲)이 송사련(宋祀連)의 무고에 의하여 일어난 신사무옥에 연루되었을 때, 지란불고죄(知亂不告罪)와 교결역신죄(交結逆臣罪)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였다. 후일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지평의 운계서원(雲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정신(貞信)이다.

『중종실록 中宗實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 『대동운부군옥 大東韻府群玉』 /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운계서원 雲谿書院」: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에 있는 서원이다. 1594년(선조 27)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조욱(趙昱)과 조성(趙晟)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713년(숙종 39)에 '운계(雲谿)'라는 사액을 받았다. 1714년에 신변(申抃)·조형생(趙亨生)·조문형(趙門衡)을 추가 배향하여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왔다. 1871년(고종 8)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훼손되어 위패를 서원터에 매안(埋安)하고 향사만 지내왔다. 그 뒤 1932년에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건물로는 6칸의 사우(祠宇), 6칸의 강당, 신문(神門), 동서 협문(夾門) 등이 있다. 사우에는 조

옥을 주벽(主壁)으로 조성·조형생·신변·조문형의 위패가 봉인되어 있다. 이 서원은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음력 8월 21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재산으로는 전답 3,600평 등이 있다.

『태학지 太學志』 / 『서원등록 書院騰錄』 / 『전고대방 典故大方』 / 『운계서원지 雲谿書院誌』 / 『경기도사 京畿道史』(京畿道) 1982.

원길상 (元吉常)

호는 매헌(梅軒)이며 병리(兵吏) 적(績)의 후인으로 성품이 강직하고 고상하며 예술에 특출한 재능이 뛰어나므로 많은 학자들이 배우러 찾아갔었다.

또한 후학(後學)의 육성에 힘써 왔으므로 그 문중(門中)에서 많은 홍유석사(鴻儒碩士)들을 배출하였고 그의 유고(遺稿)가 있다.

원득성 (元得成)

원득성(元得成)은 원주원씨(原州元氏)이며 참판(參判)을 지낸 효이(孝而)의 후손이다. 성품이 깨끗하고 의지가 강한지라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학문을 즐겼으며 정주학(程朱學)을 탐구(探究)하여 많은 사림(士林)들로부터 흠모를 받았다.

원주(原州)에서 살다가 횡성(橫城)에 옮겨와 살았고 후에 그의 관직을 책참(冊參)에 증직하였다.

원봉의 (元鳳儀)

호는 둔촌(澗村)이며 진사(進士) 세준(世俊)의 후손이다. 가훈을 이어 받은지라 효성이 지극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려 일을 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예서(禮書)에 밝아 향리의 학자들로부터 흠모를 받았다.

원사모 (元師模)

호는 대은(垓隱), 봉의(鳳儀)의 증손자이다. 효성이 지극하기를 하

늘에 닿았다.

문학에 정진하였고 후손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한때 많은 문사(文士)들이 그의 문중(門中)에서 배출된지라 향리에서 그의 인품을 중히 여겼다.

유 은 (柳 殷)

호는 소암(小庵)이고, 전주유씨(全州柳氏)로 승지(承旨)를 지낸 의창(宜昌)의 아들이다. 천재적이어서 8살 때에 능히 소학(小學)을 해석하고 문장이 뛰어났으며 성리학(性理學)이 밝았다.

현종(顯宗) 때에 예소시(禮疏時)에 부문소청(陪文疏廳)하다가 화(禍)를 입어 관계(官界)를 떠나 군내의 치북송종(治北松終) 산아래 숨어서 2세 교육에 전심전력하였다. 항상 자연을 즐기며 유유자적하며 많은 유고(遺稿)를 남겼다.

이상열 (李相說)

호는 괴은(槐隱)이며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혜정공(惠貞公) 간(揀)의 후인으로 성품이 깊고 정숙하며 충효(忠孝)로서도 가풍을 이어왔다.

조기락 (趙基洛)

호는 은암(隱庵)이며 은은당(隱隱堂) 조린(趙遴)의 후인으로 집안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였고, 시예(詩禮)에 능통하였다. 만년에는 임천(林泉)에서 점술을 보면서 은거하였고 후학을 육성하기에 힘썼던 그 문중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향리에서는 모두를 그를 사표로 우러러보았다. 그의 유집(遺集)이 있었다.

조병준 (曹秉駿)

호는 석하(石荷)이며 창녕조씨(昌寧曹氏)이다. 정제(靜齋) 상치(尙治)의 후인(後人)이며 성품이 온순 청아하고 지혜가 총명하였고 특히 재예에

비범하였다. 또한 일찍이 백가어(百家語)와 필법에 정통하여 많은 선배들이 모여 함께 수학하였으며 옷소매를 걷어가면서 조금도 피로함을 모르고 강론에만 전념하였다. 유고(遺稿)가 있다.

조수옥 (趙秀玉)

호는 석연(石蓮)이고 은은당(隱隱堂) 조린(趙濂)의 후인으로 성품이 심중(沈重)하여 말이 적었으며 경학(經學)에 전념하였고 역리(易理)에 능통(能通)하였으며 「효제우애 孝悌友愛」라고 4자를 써서 벽에다 붙이고 자손들에게 훈계하였다. 그의 문집(文集)이 있었다.

조수익 (趙秀翼)

호는 기산(岐山)이며 횡성조씨(橫城趙氏)이다. 은은당(隱隱堂) 조린(趙濂)의 후인으로 성품이 겸허하고 용모가 단아하여 문장에 능통하였으며, 예서(禮書)에 특히 밝았다.

그의 관직(官職)은 수(壽)로서 통정(通政)이 되었고 유고(遺稿)가 있다.

허 용 (許 橐)

호는 남파(南波)이며 김해 허씨(金海許氏)로 생원(生員) 희온(希溫)의 후인으로 성품이 청아하였고 글 배우기를 좋아하여 일찍이 문장(文章)으로 이름이 높았다. 또한 후학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그의 문중(門中)에서 많은 인사들을 배출하였으며 유고(遺稿)가 있다.

(3) 蔭仕·筮仕

蔭仕는 과거를 보지않고 官界에 진출함을 뜻하고 筮仕는 司馬試에 입격한 후 다시 大科(文科)를 보지 않고 관계에 나가 봉직하는 것을 말한다.

고태지 (高泰之)

횡성고씨(橫城高氏)로 절도사(節度使) 고휴(高休)의 자이며 태종조(太宗朝)에 생원(生員)이 되었다가 음(蔭)으로 예빈사소윤(禮賓寺小尹)이 되었다.

고항산 (高恒山)

호는 지음(之陰)이며 형산(荊山)의 형이다. 중종(中宗) 때에 안릉참봉(安陵參奉)이 되었다.

권 목 (權 穆, 1614 ~ 1663)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태화(泰和)이며 아버지는 종길(宗吉)이다. 1639년(인조 17) 진사시(進士試)에 합격, 1649년 빙고별검(氷庫別檢)이 되었다. 그 뒤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이어 함흥판관이 되어 외직에 나갔다. 재임기간에 농상(農桑)·군정·송사 등에 혜정(惠政)을 베풀어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특히 부결(部決)에 유능하여 일반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곧 돌아와 호조정랑(戶曹正郎)을 역임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착하고 후덕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론(談論)을 잘하여 그가 사귀어 사람들은 당대의 유명한 인사들이었고, 현명한 인품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었다.

『기언 記言』

권성중 (權聖中)

진사(進士) 성행(聖行)의 동생으로 진사(進士)가 되었다가 금부(禁部)에 올랐고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문인(門人)이다.

권순구 (權純九)

진사(進士) 상윤(尙贇)의 현손(玄孫)으로 성품이 순직하고 학문(學

問)에 능통하였으며 울진군수(蔚珍郡守)를 역임하였고 공적이 많았다.

권 직 (權 稷)

권목(權穆)의 아우로서 인조(仁祖) 때에 벼슬이 참봉(奉事)에 이르렀다.

권후평 (權后平)

진사(進士) 성행(聖行)의 아들로 숙종(肅宗) 때에 참봉(參奉)에 올랐다.

김교일 (金教一)

경주김씨(慶州金氏)이고 관윤(判尹) 증시(仲誠)의 후손으로서 벼슬은 통사랑(通仕郎)이 되었다가 다시 선혜랑청(宣惠郎廳)에 올랐다.

김득룡 (金得龍)

호는 하봉(荷峰)이며 용려(用礪)의 자손으로 사원(沙潁) 김장생(金長生)의 문인(門人)이다. 생원(生員)이 되었으며 벼슬은 풍여창직장(豊餘倉直長)에 이르렀으며 그의 문집이 남아있다.

김상기 (金相夔)

진사(進士) 중만(重萬)의 아들로 음(蔭)으로서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김수검 (金守儉)

김해김씨(金海金氏)이며 안경공(安敬公) 영하(永夏)의 후인으로 광해군(光海君) 때에 시직(侍直)이 되었다가 금화현감(金化縣監)에 이르렀고 특히 효자로서 이름이 높았다. 그의 동생 선무랑(宣務郎) 후온(後溫)과 더불어 우애가 남달리 돈독하였다.

김영서 (金永瑞)

음(蔭)으로서 김해부사(金海府使)에 이르렀다.

김영제 (金英濟)

경주김씨(慶州金氏)이며 문간공(文簡公) 세필(世弼)의 후손으로 성품이 순후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효행이 지극하였고 순조(純祖) 때에 참봉(參奉)에 올랐다.

김용배 (金庸培)

김해김씨(金海金氏)이며 참의(參議) 탄조(坦祚)의 후손으로 참봉(參奉)이 되었다.

김우룡 (金遇龍)

김영김씨(金寧金氏)로 도사(都事) 여민(汝民)의 손으로서 벼슬은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 되었다가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올랐다.

김재려 (金再礪)

찰방(察訪) 석견(石堅)의 손자이다. 중종(中宗) 때에 음(蔭)으로 감찰(監察)이 되었으며, 양구(楊口), 덕산(德山)현감으로 부임하면서 치적이 훌륭하였다.

문학이 훌륭하였고 지기(志氣)가 고상하고 청백하였다.

김정배 (金貞培)

김해김씨(金海金氏)이고 현감(縣監)을 지낸 영순(永純)의 후손으로 효행(孝行)이 지극하였으며 벼슬은 주사(主事)가 되었다.

김춘식 (金春植)

경주김씨(慶州金氏)로 둔암(遯庵) 지(址)의 후손(後孫)이며 의관(義官)이 되었다가 후에 벼슬이 통정(通政)에 올랐다.

김치강 (金致剛)

연안김씨(延安金氏)이며 공부전서(工部典書) 일(佚)의 후인으로 성품이 단아하고 문장이 풍부하였다. 영조(英祖) 갑인년(甲寅年)에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그의 벼슬은 참봉(參奉)에 이르렀다. 다시 수(壽)로서 통정(通政)에 이르렀다.

김학빈 (金學斌)

강릉김씨(江陵金氏)이며 주서(注書) 학모(學模)의 동생으로서 고종(高宗) 때에 순강원수봉(順康園守奉)을 제수(除受)하였으며 벼슬이 참봉(參奉)에 이르렀다.

김한징 (金漢澄)

안동김씨(安東金氏)이며 참의(參議) 자선(自善)의 손자로서 헌릉참봉(獻陵參奉)에 이르렀다.

김현경 (金顯慶)

수검(守儉)의 후손으로서 호군(護軍) 제용(濟龍)의 아들로서 그 성품이 돈후하고 중엄하였으며 그의 벼슬은 주사(主事)에서 경릉참봉(敬陵參奉)에 올랐다.

남상기 (南相箕)

호는 난호(蘭湖)이며 의령남씨(宜寧南氏)로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였고 독서를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고 읊풍영월(吟風咏月)하며 산수(山水)와 함께 소일하며 살았다. 그의 벼슬은 장릉참봉(莊陵參奉)에 이르렀으며 유고(遺稿)가 남아 있다.

도원종 (都元宗)

성주도씨(星州都氏)로 부호군(副護軍) 봉업(鳳業)의 증손자이며 벼슬은 충훈부(忠勳府) 도사(都事)가 되었고 아들 현경(顯敬)은 효행이 돈후하여 벼슬이 감찰에 이르렀다.

도현구 (都顯九)

성주도씨(星州都氏)로 부호군(副護軍) 봉업(鳳業)의 현손으로 춘추관(春秋館)이 되어 「오대산 사고 五臺山 史庫」를 지었으며 벼슬은 참봉(參奉)에 이르렀다.

도현성 (都顯成)

봉업(鳳業)의 현손(玄孫)으로 효행이 지극하며 벼슬은 정릉참봉(貞陵參奉)이 되었다.

박관혁 (朴寬熾)

밀양박씨(密陽朴氏)이며 밀원군(密原君) 건(楨)의 후인으로 성품(性品)이 순후하고 효행이 지극하여 철종(哲宗) 때에 벼슬이 참봉(參奉)에 이르렀다.

박기일 (朴基一)

관혁(寬熾)의 아들로서 효성이 지극하였고 벼슬은 내부주사(內部主事)에 이르렀다.

박기현 (朴基鉉)

이천박씨(伊川朴氏)이고 강릉군수(江陵郡守)를 역임하였다.

신 택 (辛 澤)

본 이름은 기화(氣和)이고 영월신씨(寧越辛氏)이며 통정(通政) 석준(錫俊)의 아들로서 벼슬은 감찰(監察)에 이르렀고 아들 구집(龜集)은 무과(武科) 부사과(副司科)가 되었다.

신현구 (申鉉玖)

판관(判官) 사식(思植)의 후손으로 성품이 근검하고 결백하며 선조의 교훈을 이어 받아 효덕(孝德)이 지극(至極)하여 벼슬은 참봉(參奉)을 지냈다.

심기섭 (沈箕燮)

삼척심씨(三陟沈氏)이며 절제사(節制使) 원달(原達)의 후손으로 그 벼슬이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이르렀다.

심상준 (沈相俊)

군수(郡守) 흥택(興澤)의 아들로써 횡성군수(橫城郡守)를 지냈다.

심상진 (沈相鎭)

호는 농산(農山)이며 삼척심씨(三陟沈氏)로 좌랑(佐郎) 지영(志英)의 손자이다. 문사(文詞)에 박통(博通)하였다. 통신사원외랑(通信司員外郎)이 되었다가 비서원승(秘書院丞)에 올랐으며 만년에는 전원생활을 즐기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유집(遺集)이 남아 있다.

안석임 (安錫任)

임금이 관동 사람들을 등용하기 위하여 경공(經工)에 밝은 자 몇 명, 공령문(功令文)에 밝은 자 몇 명, 오죽헌 주인(烏竹軒主人)의 후손 몇 명을 찾아내서 조목별로 나열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공령생 74인, 경공생 8인, 오죽헌주인의 후손 권한위(權漢緯) 등 12인을 보고하였다. 이에 임금이 경공생으로 초계(抄啓)된 사람들은 오직 경학만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뽑혀졌다 하여, 다시 명해서 경서를 탐구하고 글을 많이 읽어 의의(疑義)를 통달해서 한 지방의 추증을 받는 자들을 성심껏 찾아내서 장문(狀聞)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횡성(橫城)의 전 참봉 안석임(安錫任) 등 6인을 뽑아 아뢰었다.

안석임이 가장 우수하였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 벼슬을 맡기기 어려워

서 특별히 돈녕도정(敦寧都正)에 올려 제수하고 분교관(分敎官)에 임명하였다.

또한 임금이 내각에 명하여 전후의 전교(傳敎)·주계(奏啓)·방안(榜眼)·괴권(魁券)을 가져다가 차례를 매기고, 경서의 뜻을 조목별로 대답한 것들을 간추려 조문(條問) 아래에 붙여서 강원 감영에 내려 보내어 인쇄해 올리게 한 다음 이를 『관동빈흥록 關東賓興錄』이라 명명하여 입학한 제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판각(板刻)은 원주목(原州牧)의 관아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정조실록 正祖實錄』

안중겸 (安重謙)

순흥안씨(順興安氏)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문인(門人)으로 벼슬은 직장(直長)에 이르렀다.

원현석 (元顯碩)

운곡(耘谷) 천석(天錫)의 후인으로 성품이 순후하고 명민하여 벼슬은 참봉(參奉)에 이르렀다.

이시용 (李時容)

호는 몽호(夢湖)이며 공주이씨(公州李氏)이고 공숙공(恭肅公)의 후인으로서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고 지극하였으며 선문사(善文詞)하여 벼슬이 화릉참봉(和陵參奉)이 되었다가 통정(通政)이 되었다.

이인집 (李仁集)

효령대군(孝寧大君) 보(補)의 후인(後人)으로 인조(仁祖) 갑자년(甲子年)에 흥덕구감(興德區監)을 역임하였으며 후(後)에 통정(通政)에 올랐다.

이종한 (李鍾漢)

경주이씨(慶州李氏)이며 문충공(文忠公) 재현(齋賢)의 후손으로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지냈다.

임필순 (任弼淳)

풍천임씨(豊川任氏)로서 문간공(文簡公) 덕유(德儒)의 후손으로서 성품이 근검 소박하였으며 벼슬은 참봉(參奉)에 이르렀다.

전병기 (全炳基)

정선전씨(旌善全氏)로 통정(通政)이었던 일립(日立)의 후손으로 효성이 지극하고 인척간에 화목하였으며 벼슬은 참봉(參奉)에 이르렀다.

정기화 (鄭夔和, 1798 ~ ?)

1798년(戊午)생으로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장일(章一)이다. 부친은 정홍사(鄭鴻師)이고 생부(生父)는 정홍진(鄭鴻晉)이다. 1834년(순조 34)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룡기 (鄭龍基)

연일정씨(延日鄭氏)이며 벼슬은 고부군수(古阜郡守)에 이르렀다.

정륜 (鄭倫)

호는 사유제(四留齊)이고 팔계군(八溪君) 종영(宗榮)이 사자(嗣子)로 명종(明宗) 정묘년(丁卯年)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벼슬은 양주목사(楊州牧使)에 올랐다가 후에 좌찬성(左贊成), 판서윤(判書尹)에 올랐다.

정석문 (鄭錫文, 1600 ~ ?)

1600년(庚子)생으로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시경(時經)이며, 부친은 정기광(鄭基廣)이다. 1633년(인조 11)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그는 1642년(인조 20)에 금부도사(禁府都

事)로 있으면서 역적 이계(李据)의 감형관(監刑官)으로 명을 어기고 즉시 형을 시행하지 않고 천천히 치계하여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점으로인해 추고당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 『인조실록 仁祖實錄』

정세건 (鄭世健)

연일정씨(延日鄭氏)이고 영양공(榮陽公) 습명(襲明)의 후인으로서 중종(中宗) 때에 부사직(副司直)이 되었고, 손자인 선귀(善貴)는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올랐고, 아들 진(震)은 주부(主簿)가 되었다가 다시 좌승지(左承旨)가 되었다.

정수명 (鄭洙明)

정석문(鄭錫文)의 아들로써 숙종(肅宗) 을묘년(乙卯年)에 생원(生員)이 되었으며 음(蔭)으로 부사(府使)가 되었고 후(後)에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정종선 (鄭從善)

회승(膺承) 지진(旨震)의 아들로 명종(明宗) 신해년(辛亥年)에 음(蔭)으로서 포천현감(抱川縣監)이 되었고 그의 증손자인 정귀(徵貴)는 그 직(職)이 집의(執義)에 이르렀다.

정창시 (鄭昌時)

호는 난옥(蘭屋)이며 만수(晩守) 제현(齊賢)의 9사자(九嗣子)로 고종(高宗) 계유년(癸酉年)에 진사(進士)가 되어 참봉(參奉)이 되었다가 통정(通政)에 올랐으며 관찰사(觀察使)를 역임하였다. 12세에 칠서(七書)를 통달했다고 할만큼 문학(文學)에 힘썼고 행실이 분명하였으며 그의 문집이 있었다.

정호준 (鄭鎬駿)

난옥(蘭屋) 창시(昌時)의 아들로써 성품이 온후하고 겸양하며 마음가짐이 고상함으로써 음(蔭)으로서 벼슬이 군수(郡守)에 이르렀으며 공적(功蹟)이 많다.

조수명 (趙壽明)

호는 팔우당(八友堂)이고, 월천(月川) 목(穆)의 아들로 가훈을 이어 받은 바 있어 경학에 정통하였으며 선조(宣祖) 때에 생원(生員)이 되었다가 찰방(察訪)을 역임(歷任)하였다.

진복수 (陳福壽)

여양인(驪陽人)이며 현감(縣監) 회(誨)의 아들로써 세종(世宗) 때에 음(蔭)으로서 태안군수(泰安郡守)가 되었다.

한성리 (韓成履)

호는 송암(松岩)이며 청주한씨(淸州韓氏)이다. 가선(嘉善) 대상(垓相)의 자손으로 문사(文詞)로 유명하였고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였다. 벼슬은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가 되었다가 통정(通政)에 올랐다. 그의 시문집 『소운미정고 少雲未定稿』가 전한다.

* 『소운미정고 少雲未定稿』: 조선 후기의 학자 한성리(韓成履)의 시문집으로 2책이며 필사본이다. 서·발(序跋)이 없어 편집경위와 필사연도는 알 수 없으나, 저자가 생전에 편집해둔 것인 듯 하다. 표지명은 '가헌미정고(可軒未定稿)'로 되어 있고, 저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유인석(柳麟錫)에게 올린 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말기에 충청도지역에 생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831년에 쓴 「여우당민상서서 與藕堂閔尙書書」라는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나이가 42세라고 하였으며, 어려서 정주서(程朱書)를 읽고 선유(先儒)의 학문을 대략 들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대부의 수업을 받은 한사(寒士)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상책은 소(疏) 9편, 상언(上言) 1편, 장(狀) 1편, 서(書) 41편, 서(序) 17편, 기(記) 10

편, 발(跋) 1편, 하책은 논(論) 18편, 설(說) 17편, 변(辨) 1편, 해(解) 1편, 전(傳)·의(義)·훈(訓)·잠(箴) 각 2편, 명(銘) 6편, 송(頌) 5편, 찬(贊) 3편, 계(啓) 4편, 조(詔) 4편, 전문(箋文) 4편, 격문(檄文)·노포문(露布文)·반사문(頒賜文)·상량문·전책문(殿策文)·행장·묘갈명 각 1편, 제문 2편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는 한 수도 없으며, 문도 대부분 의작(擬作)과 대작(代作)이 많다. 「견학사퇴폐청수선진후학소 見學舍頽廢請修繕進後學疏」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학교를 보수하여 교육여건을 마련하여줄 것을 임금에게 청한 글이다. 「상창의대장유의암서 上愼意大將柳毅庵書」는 1896년 유인석에게 올린 글이다. 삼천리의 문물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 이때, 다시 예양(禮讓)의 처지로 문물을 복귀시키려 하니, 그 의(義)는 일월로 빛을 다룬다 하며 흠양하는 자세를 나타내었다. 「여심대상목서 與沈臺相穆書」·「답연기사림원단설단서 答燕岐士林院壇設壇書」 등은 지방인사들과 향토의 일로 주고받은 편지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의작이다. 예컨대, 동주(東周)의 무공(武公)이 초나라의 영윤(令尹) 소자(昭子)를 꾸짖는 내용, 자양진인(紫陽眞人)이 범증(范增)이 약을 구걸한 것을 꾸짖는 일을 대신한 내용 등 역사상의 한 사건을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쓴 글이다. 서(序)도 문집의 서발류가 아니고 의작·대작이 많다. 논은 한고조가 유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논한 글 등 주로 사론이 중심을 이룬다. 「규구설 規矩說」은 어떤 사람이 규구를 읊은 시축을 보고 자신의 규구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글이다. 곧 규구를 유형·무형으로 나누고 그것을 기와 이로 설명하였다. 「씨족설 氏族說」은 씨와 족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씨와 족은 고금이 같다고 전제하고, 씨는 사는 곳에 따라 부르는 것, 족은 그 낳은 곳에 따라 붙인 것이라 하고 씨족은 인륜을 밝히고 분명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관성자전 管城子傳」은 붓을 주제로 한 가전으로, 당나라 한유(韓愈)의 「모영전 毛穎傳」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다. 문방사우 가운데 붓의 공이 제일 커서 사람들이 ‘우리 관성’이라 사랑하여 마지않는다. 그러나 정작

관성이 누구이며, 어느 곳에 사는가 하는 사실은 전혀 모른다.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사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물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음을 풍자한 내용이다.

『소운미정고 少雲未定稿』

허희량 (許希良)

김해허씨(金海許氏)로 증성군(甌城君) 구년(龜年)의 후손으로 성품이 강직하고 학문에 박통하여 그 이름이 높았고 벼슬은 계공랑(啓功郎)에 이르렀다.

(4) 壽 職

김광교 (金光敎)

통정(通政) 재희(載熙)의 아들로서 성품이 공손하고 소박하였고 첨중추(僉中樞)가 되었다.

김성룡 (金聖龍)

김해김씨(金海金氏)로 야수(野叟) 승만(承萬)의 증손자로서 글 배우기에 오로지 전념하였으며 통정(通政)이 되었다가 동추(同樞)에 올랐다.

김영식 (金英植)

김해김씨(金海金氏)로 세마(洗馬) 희일(希逸)의 후인으로 동추(同樞)가 되었다.

김영희 (金領熙)

쌍행당(雙杏堂) 성(誠)의 후손으로 효성이 지극하고 친구간에 우애가 돈독하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다. 영조(英祖) 때에 가선(嘉

善)이 되었다.

김용집 (金龍集)

경주김씨(慶州金氏)로 판윤(判尹) 중성(仲誠)의 후손으로 철종(哲宗) 때에 벼슬이 부호군(副護軍)에 이르고 동추(同樞)가 되었다.

김조영 (金祖榮)

강릉김씨(江陵金氏)로 감찰(監察) 병정(秉鼎)의 아들로써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가훈을 이어 받아 절도가 있었으며 규칙적인 행동을 하였다. 벼슬은 부호군(副護軍)을 지냈다.

김중식 (金仲植)

경주김씨(慶州金氏)로 진사(進士) 지(址)의 후손으로 통정(通政)이 되었다.

김진승 (金晉承)

김해김씨(金海金氏)이며 판관(判官) 세권(世權)의 현손(玄孫)으로 성품이 강직하고 인조(仁祖) 때에 좌윤(左尹)이 되었다.

김태연 (金泰淵)

경주김씨(慶州金氏)로 진사(進士) 지(址)의 후손으로 형 태화(泰華), 태인(泰仁), 태현(泰賢)과 더불어 우애가 돈독하며 가선(嘉善)이 되었다.

김한섬 (金漢暹)

안동김씨(安東金氏)로 호참(戶參) 자선(自宣)의 후손으로 선조(宣祖) 때에 동추(同樞)가 되었다.

도봉업 (都鳳業)

성주도씨(星州都氏)이며 참의(參議) 수선(壽善)의 자손으로서 선조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각별히 준수(遵守)하였다. 영조(英祖) 때에 부호군(副護軍)이 되었다.

도현건 (都顯健)

호군(護軍) 봉업(鳳業)의 현손(玄孫)으로 성품이 청후(淸厚)하다. 철종 때에 통정(通政)이 되었다.

박수옥 (朴秀玉)

밀양 박씨(密陽朴氏)로 공관(恭官) 공건(公健)의 후인으로 통정(通政)이 되었다가 가선(嘉善)에 올랐다.

박주헌 (朴周憲, 1829 ~ 1916)

조선 후기의 문신(文臣)으로 자는 길포(吉甫) 호는 설초(雪樵)이며 고령 박씨(高靈朴氏)로 승지(承旨) 준우(浚愚)의 아들이며 1864년(고종 1)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교하현감(交河縣監)과 횡성군수(橫城郡守)를 지냈다. 1908년 음성군수(陰城郡守)로 부임했으나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鄉里)에서 은거하였는데, 특히 생활이 청렴하여 집 한칸 없이 살았다고 한다. 그가 횡성군수를 면할 때 횡성 유지들이 집을 마련할 돈을 보냈으나 사양하였다는 일화가 있으며 끝내 생질의 집 뒷방에서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 교하(交河)사람들은 사당(祠堂)을 짓고 그를 기렸으며 횡성(橫城)에는 각 면마다 송덕비(頌德碑)를 세웠고 횡성읍(橫城邑) 읍하리(邑下里) 비석거리에도 그의 비석이 있었다.

신석준 (辛錫俊)

영월 신씨(寧越辛氏)로 통정(通政) 의복(義復)의 손자로서 가세가 극히 빈한하였으나 효도는 남달리 더 지극하였다.

심득영 (沈得榮)

판서(判書) 동로(東老)의 후손으로 벼슬은 동추(同樞)에 이르렀다.

안 적 (安 積)

죽산 안씨(竹山安氏)로 부호군(副護軍) 대송(大松)의 후인으로 효행이 지극하였다. 벼슬은 통정(通政)에 이르렀다.

엄이기 (嚴以基)

영월 엄씨(寧越嚴氏)이며 생원(生員) 용한(龍漢)의 아들이로서 벼슬은 호참(戶參)에 이르렀다.

원복명 (元復明)

운곡(耘谷) 천석(天錫)의 후손으로 선조(宣祖) 때에 집서(執徐)의 난에 의해 아버지는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다행히도 모자(母子)만이 죽음을 면하였으며 외로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중 어머니가 병환을 얻어 자리에 눕자 갖은 약을 다 구하여다 드리고 회복되기를 신령하게 정성을 다해 빌었다. 벼슬은 첨중추(僉中樞)가 되었다가 정헌(正憲)에 올랐으며 다시 이판(吏判)에까지 올랐다. 그의 筆帖(筆帖)이 있다.

원 섭 (元 燮)

원주 원씨(原州元氏)로 대은(垞隱) 사모(師模)의 아들이로서 성품이 순후하고 가훈을 그대로 이어 받았으며 벼슬은 통정(通政)에 이르렀다.

이광채 (李光彩)

경주 이씨(慶州李氏)로 봉사(奉事) 유경(惟景)의 후인으로 영조 때에 공의(工議)가 되었다가 다시 공참(工參)에 이르렀다.

이 옥 (李沃)

조선시대의 무관으로 무과에 등과하였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박훈(朴渾)과 함께 춘천 전투에 참가하여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유청 (李惟淸)

원주 원씨(原州原氏)이며 전적(典籍) 명백(命伯)의 후손으로 성품이 강직하고 올바른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여 불의에 대하여 조금도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산림 속에서 자연과 벗삼으며 열심히 수양을 하였다. 효종조(孝宗朝)에 동중추(同中樞)가 되었다가 다음에 사판(士判)에 올랐다.

장호익 (張虎翼)

단양 장씨(丹陽張氏)이며 선조 때에 호판(戶判)이 되었다가 동추(同樞)가 되었다.

한대상 (韓垚相)

청주 한씨(淸州韓氏)이며 계신(繼愼)의 후손으로 부모를 효성을 다하여 섬기며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선영(先塋)을 바라보며 참배를 하였다고 하며 벼슬은 가선(嘉善)에 이르렀다.

허 형 (許炯)

김해 허씨(金海許氏)로 생원(生員) 희온(希溫)의 후인으로 가훈을 이어 받아 근면 검소하였다.

(5) 司馬試 合格者

고운택 (高潤澤, 1806 ~ ?)

1806년(丙寅)생으로 본관은 횡성(橫城)이고 자는 덕여(德汝)이며 부친은 고상선(高尚善)이다. 1876년(고종 13)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권려 (權礪, 1771 ~ ?)

1771년(辛卯)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직부(直夫)이다. 부친은 권한위(權漢緯)이고, 1827년(순조 27)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권상운 (權尙贊, 1779 ~ ?)

1779년(己亥)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성현(誠懸)이다. 부친은 권환규(權煥奎)이고, 생부(生父)는 권취규(權聚奎)이다. 1813년(순조 13)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권성보 (權聖輔, 1658 ~ ?)

1658년(戊午)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필경(弼卿)이다. 부친은 한경운(韓慶胤)이고, 생부(生父)는 권직(權稷)이다. 1696년(숙종 22)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권성행 (權聖行, 1639 ~ ?)

1639년(己卯)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행중(行中)이다. 부친은 권익(權韶?)이고 1666년(현종 7)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권영좌 (權永佐, 1782 ~ ?)

1782년(壬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좌형(左衡)이다. 부친은 권필전(權弼銓)이고, 1822년(순조 22)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권후상 (權后相, 1674 ~ ?)

1674년(甲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광세(匡世)이다. 부친은 권성진(權聖軫)이고 1725년(영조 1)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김계양 (金啓陽, 1681 ~ ?)

1681년(辛酉)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자는 동미(東美)이다. 부친은 김우정(金字鼎)이고, 1705년(숙종 31)에 진사(進士) 증광(增廣)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김광려 (金光礪, 1740 ~ ?)

1740년(庚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광주(光州)이고 자는 겸숙(謙叔)이다. 부친은 김우성(金字聲)이고, 생부(生父)는 김일성(金日聲)이다. 1777년(정조 1)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김동규 (金東奎, 1872 ~ ?)

1872년(壬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부친은 김제상(金濟祥)이고, 1888년(고종 25)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김득룡 (金得龍, 1565 ~ ?)

1565년(乙丑)생으로 본관은 강릉(江陵)이고 자는 치운(致雲)이며 부친은 김계민(金繼閔)이다. 1606년(선조 39)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김영하 (金永夏, 1814 ~ ?)

1814년(甲戌)생으로 본관은 강릉(江陵)이고 자는 현서(軒瑞)이며, 초명은 학봉(學鳳)이었다. 부친은 김계옥(金啓沃)이고, 1885년(고종 22)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김이행 (金履行, 1620 ~ ?)

1620년(庚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강릉(江陵)이고 자는 덕화(德和)이다. 부친은 김우추(金遇秋)이고, 1675년(숙종 1)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김중만 (金重萬, 1677 ~ ?)

1677년(丁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강릉(江陵)이고 자는 여일(汝一)이다. 부친은 김학령(金鶴齡)이며, 1702년(숙종 28)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김질백 (金質白, 1555 ~ ?)

1555년(乙卯)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강릉(江陵)이고 자는 문중(文中)이다. 부친은 김 기(金玜)이며 1603년(선조 36)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민영관 (閔泳寬, 1878 ~ ?)

1878년(戊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부친은 민일호(閔日鎬)이고, 1894년(고종 31)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박대유 (朴大有, 1712 ~ ?)

1712년(壬辰)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자는 강중(剛中)이다. 부친은 박지담(朴之覃)이고, 1747년(영조 23)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으며, 1752년(영조 28) 정시(庭試)에서 문과 급제를 하였다. 그 후 1763년(영조 39) 1월에 박대유는 지평(持平)으로 있다가 동(同) 4월에는 정언(正言)으로 동 5월에 지평(持平)이 되었다. 1769년(영조 45)에는 장령을 거쳐 同 11월에 승지(承旨)가 되었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 『문과방목 文科榜目』 / 『영조실록 英祖實錄』

박돈구 (朴敦壽, 1744 ~ ?)

1744년(甲子)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수보(壽甫)이다. 부친은 박계희(朴啓熙)이고, 1771년(영조 47)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박병연 (朴秉淵, 1776 ~ ?)

1776년(丙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이직(彝直)이다. 부친은 박돈소(朴敦素)이고, 1807년(순조 7)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박수형 (朴秀衡, 1790 ~ ?)

1790년(庚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경양(景仰)이다. 부친은 박주연(朴籌淵)이고, 1859년(철종 10)에 진사(進士)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박제원 (朴濟遠, 1614 ~ ?)

1614년(甲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음성(陰城)이고 자는 중읍(仲揖)이다. 부친은 박지함(朴至歟?)이고, 1633년(인조 11)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박종연 (朴鍾淵, 1770 ~ ?)

1770년(庚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密陽)이고 자는 보경(普敬)이다. 부친은 박돈구(朴敦壽)이고, 1803년(순조 3)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신태하 (申泰夏, 1862 ~ ?)

1862년(壬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여행(汝行)이다. 부친은 신석준(申錫駿)이고, 1879년(고종 16)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심일관 (沈一貫, 1665 ~ ?)

1665년(乙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도성(道成)이다. 부친은 심한필(沈漢弼)이고, 1693년(숙종 19)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안도준 (安道濬, 1734 ~ ?)

1734년(戊午)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자는 수지(修之)이다. 부친은 안석헌(安錫憲)이고, 생부(生父)는 안석전(安錫佺)이다. 1777년(정조 1)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안병민 (安秉民, 1772 ~ ?)

1772년(壬辰)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자는 이호(彝好)이다. 부친은 안도영(安道永)이고, 1805년(순조 5)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안영 (安 嶺, 1796 ~ ?)

1796년(丙辰)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죽산(竹山)이고 자는 경원(景源)이다. 부친은 안문흠(安文欽)이고, 1870년(고종 7)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안홍영 (安洪永, 1766 ~ ?)

1766년(丙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자는 영지(永之)이다. 부친은 안석경(安錫敬)이고, 1805년(순조 5)에 진사(進士)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오치익 (吳致翊, 1852 ~ ?)

1852년(壬子)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준명(峻明)이다. 부친은 오경상(吳慶常)이고, 1888년(고종 25)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원세준 (元世俊, 1639 ~ ?)

1639년(己卯)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자는 수경(秀卿)이고 부친은 원자성(元子成)이다. 1682년(숙종 8)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유수규 (柳秀奎, 1687 ~ ?)

1687년(丁卯)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광언(光彦)이다. 부친은 유항(柳沆)이고, 1740년(영조 16)에 진사(進士)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유필상 (柳必相, 1630 ~ ?)

1630년(庚午)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자는 선휴(善

休)이다. 부친은 유공한(柳公翰)이고, 1660년(현종 1)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유 항 (柳 沆, 1652 ~ ?)

1652년(壬辰)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여치(汝治)이다. 부친은 유의창(柳宜昌)이고, 1691년(숙종 17)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금우 (李 競宇, 1874 ~ ?)

1874년(甲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공림(公臨)이다. 부친은 이회필(李會弼)이고, 1894년(고종 31)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능배 (李能培, 1862 ~ ?)

1862년(壬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달지(達之)이다. 부친은 이규상(李奎常)이고, 1885년(고종 22)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 봉 (李 棚, 1633 ~ ?)

1633년(癸酉)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백영(伯英)이다. 부친은 이홍석(李弘奭)이고, 1662년(현종 3)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익배 (李益培, 1814 ~ ?)

1814년(甲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윤삼(允三)이다. 부친은 이규형(李奎亨)이고, 1885년(고종 22)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1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정규 (李廷揆, 1656 ~ ?)

1656년(丙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이서(而絃)이다. 부친은 이 현(李 棚)이고, 1684년(숙종 10)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으며, 1694년(숙종 20) 별시(別試)에서 문과 급제하였다. 그 후 1701년(숙종 27)에 강원도사(江原都事)로 있으면서 횡성의 사인(士人)을 데리고 같이 산을 유람하면서 보안(保安)에 속한 역마(驛馬)를 내어서 짐바리를 실었다고 하여 파직당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 『문과방목 文科榜目』 / 『숙종실록 肅宗實錄』

이정발 (李廷撥, 1676 ~ ?)

1676년(丙辰)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사섭(士燮)이다. 부친은 이현(李萱)이고, 1699년(숙종 25)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종남 (李鍾男, 1785 ~ ?)

1785년(乙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청여(淸汝)이다. 부친은 이형철(李亨喆)이고, 1814년(순조 14)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종화 (李從和, 1838 ~ ?)

1838년(戊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운룡(雲龍)이다. 부친은 이원교(李源教)이고, 1861년(철종 12)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종휘 (李從輝, 1781 ~ ?)

1781년(辛丑)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자는 이준(彝準)이다. 부친은 이단우(李端友)이고, 생부(生父)는 이장우(李章友)이다. 1852년(철종 3)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주범 (李周範, 1769 ~ ?)

1769년(己丑)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수서(收鉞)이다. 부친은 이계묵(李啓默)이고, 1807년(순조 7)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 창 (李 雲, 1845 ~ ?)

1845년(乙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우봉(牛峯)이고 자는 원명(源明)이다. 부친은 이휘구(李輝九)이고, 1876년(고종 13)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 탁 (李 卓, 1803 ~ ?)

1803년(癸亥)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우봉(牛峯)이고 자는 성탁(聖卓)이다. 부친은 이광신(李光辰)이고, 생부(生父)는 이광섭(李光濬)이다. 1850년(철종 1)에 진사(進士)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홍철 (李弘喆, 1760 ~ ?)

1760년(庚辰)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중길(重吉)이다. 부친은 이창조(李昌祚)이고, 1795년(정조 19)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흥주 (李興胄, 1672 ~ ?)

1672년(壬子)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완중(完仲)이다. 부친은 이형로(李馨老)이고, 1708년(숙종 34)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희세 (李熙世, 1874 ~ ?)

1874년(甲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의(全義)이다. 부친은 이두로(李斗魯)이고, 1894년(고종 31)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임희호 (任希昊, 1761 ~ ?)

1761년(辛巳)생으로 본관은 豊川이고 자는 현지(顯之)이며 부친은 임경술(任景述)이다. 1790년(정조 14)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건주 (鄭建柱, 1662 ~ ?)

1662년(壬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입경(立

卿)이다. 부친은 정수안(鄭洙顔)이고, 1702년(숙종 28)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1등으로 합격하였다. 그 후 금천현감(衿川縣監)을 지내다가 1723년(경종 3)에 헌부(憲府)에서 칙사(勅使)의 지공(支貢)을 빙자해 백성들에게서 돈을 징렴하였다고 하여 정건주를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고, 금천현감 정건주에 대한 계달(啓達)을 정지시켰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 『경종실록 景宗實錄』

정극화 (鄭克和, 1797 ~ ?)

1797년(丁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덕여(德汝)이다. 부친은 정홍잠(鄭鴻潛)이고, 생부(生父)는 정홍상(鄭鴻翔)이다. 1867년(고종 4)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동시 (鄭東時, 1842 ~ ?)

1842년(壬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원춘(元春)이다. 부친은 정현대(鄭顯大)이고 1867년(고종 4)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민시 (鄭敏時, 1850 ~ ?)

1850년(庚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성무(聖懋)이다. 부친은 정현보(鄭顯輔)이고, 1894년(고종 31)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준시 (鄭駿時, 1857 ~ ?)

1857년(丁巳)생으로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성락(聖樂)이다.

부친은 정현유(鄭顯裕)이고 생부(生父)는 정현궁(鄭顯兢)이다. 1888년(고종 25)에 진사(進士) 식년(式年)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준화 (鄭駿和, 1805 ~ ?)

1805년(乙丑)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문유(文有)이다. 부친은 정홍수(鄭鴻隨)이고 1831년(순조 31)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진양 (鄭鎭暘, 1760 ~ ?)

1760년(庚辰)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빈숙(賓叔)이다. 부친은 정성중(鄭成重)이고, 1786년(정조 10)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 집 (鄭 濶, 1694 ~ ?)

1694년(甲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하동(河東)이고 자는 계심(季深)이다. 부친은 정수태(鄭壽泰)이고, 1740년(영조 16)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창식 (鄭昌植, 1862 ~ ?)

1862년(壬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진주(晋州)이고 자는 현재(顯哉)이다. 부친은 정원영(鄭元永)이고, 1880년(고종 17)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홍사 (鄭鴻師, 1756 ~ ?)

1756년(丙子)생으로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맹집(孟集)이며 부친은 정진로(鄭鎭魯)이다. 1804년(순조 4)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정홍제 (鄭鴻濟, 1804 ~ ?)

1804년(甲子)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초계(草溪)이고 자는 사규(士規)이다. 부친은 정원선(鄭元善)이고, 1835년(헌종 1)에 진사(進士)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조성건 (趙性乾, 1626 ~ ?)

1626년(丙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횡성(橫城)이고 자는 건중(健仲)이다. 부친은 조 흡(趙翁)이고, 1652년(효종 3)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진흥일 (陳興一, 1593 ~ ?)

1593년(癸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횡성(橫城)이고 자는 경중(敬仲)이다. 부친은 진여의(陳汝義)이고, 1613년(광해군 5년)에 진사(進士)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한 용 (韓鏞, 1558 ~ ?)

1558년(戊午)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응화(應和)이다. 부친은 한경윤(韓慶胤)이고, 1610년(광해군 2)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한중리 (韓重履, 1782 ~ ?)

1782년(壬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치안(穉安)이다. 부친은 한용길(韓用吉)이고, 1805년(순조 5)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한태회 (韓泰會, 1725 ~ ?)

1725년(乙巳)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노침(魯瞻)이다. 부친은 한 익(韓諡)이고, 1759년(영조 35)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홍세적 (洪世迪, 1762 ~ ?)

1762년(壬午)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자는 혜백(惠伯)이다. 부친은 홍우범(洪禹範)이고, 1803년(순조 3)에 진사(進士) 증광(增廣)에서 2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홍언구 (洪彦九, 1754 ~ ?)

1754년(甲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자는 석여(錫汝)이다. 부친은 홍 전(洪栓)이고, 1803년(순조 3)에 생원(生員) 증광(增廣)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홍호문 (洪好問, 1722 ~ ?)

1722년(壬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자는 유경(裕卿)이다. 부친은 홍 현(洪顯)이고, 1747년(영조 23)에 생원(生員) 식

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홍용섭 (洪龍燮, 1842 ~ ?)

1842년(壬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부친은 홍병의(洪秉義)이고, 1888년(고종 25)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황익대 (黃益大, 1710 ~ ?)

1710년(庚寅)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창원(昌原)이고 자는 겸중(謙仲)이다. 부친은 황 숙(黃 塾)이고, 1762년(영조 38)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그밖에 「사마방목」 입격자는 다음과 같다.

강석삼 (康錫三) 고태원 (高泰元) 권규보 (權圭輔) 권사중 (權查中)
권 환 (權 禎) 김광석 (金光石) 김상행 (金尙行) 김이득 (金履得)
김지백 (金知白) 서계사 (徐繼查) 안 기 (安 玓) 원혁연 (元赫然)
정릉화 (鄭菱和) 정민화 (鄭敏和) 정봉시 (鄭鳳時) 정성시 (鄭聲時)
정현왕 (鄭顯王) 정현유 (鄭顯裕) 정희우 (鄭熙佑) 조중연 (趙鍾然)
진 회 (陳 誨) 한규교 (韓圭教)

(6) 郡 先生案

<朝鮮時代>

구 일 (具 鎰, 1620 ~ 1695)

조선 중기의 무신이다. 본관은 능성(綾城)이고 자는 중경(重卿)이다. 증조부는 사맹(思孟)이고, 할아버지는 평(宏)이며, 아버지는 인기(仁埜)이다. 1642년(인조 20) 진사(進士)가 되고, 1644년 세마(洗馬)를 거쳐, 1646년 공신의 적장자(嫡長子)라 하여 품계가 올라 와서별제(瓦署別堤)가 되었다. 1656년(효종 7) 금부도사(禁府都事)가 되고, 1658년에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나가 묵은 땅을 개간하는 등 치적이 있어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으며, 4품직을 제수받았다. 1664년(현종 5) 남평현감(南平縣監)을 거쳐, 1667년에 사재감첨정(司宰監僉正)이 되었다. 1668년 무과별시(武科別試)에 급제하여 도총부경력(都總府經歷)·훈련원부정(訓練院副正)을 역임하고 이듬해 홍양영장(洪陽營將)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여 왕의 특령으로 해직을 허락받았다. 1670년에 장단부사(長湍副使)가 되고 얼마 후 황해도 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를 거쳐, 1672년에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가 되었으나 병으로 그만두었다. 1674년 금군별장(禁軍別將)을 거쳐 1675년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으로 승진되고 총관(總管)이 포도대장을 겸하였다. 1678년(숙종 4) 능평군(綾平君)으로 봉해지고, 이듬해 당시 영의정(領議政) 허적(許積)의 아들 견(堅)이 세력을 믿고 양가의 규수를 겁간한 일이 있었는데, 그 죄를 다스렸다가 오히려 무고(誣告)를 입어 김해(金海)에 유배되었다. 1680년에는 특별히 한성부판윤 겸 총융사(漢城府判尹兼總戎使)에 임명되고, 1688년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가 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아 삭직당하여 송추(松楸)에 은거하였다.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지훈련원사(知訓練院事) 등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현종실록 顯宗實錄』 / 『숙종실록 肅宗實錄』 / 『국조인물고 國朝人物考』 /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구효연 (具孝淵)

구효연(具孝淵)은 선조조(宣祖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선조(宣祖) 기축년(己丑年)의 역적 박연령(朴延齡)을 체포하는 공을 세웠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공으로 단지 당상으로만 올랐고 녹훈되지는 못하였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김광국 (金光國, 1685~?)

조선 후기의 문신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대관(大觀)이다. 승지(承旨) 준원(俊元)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담(湛)이다. 1735년(영조 1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1741년 지평(持平)이 되었다. 이듬해 정언(正言)을 거쳐 장령(장령)·필선(필선)·헌납(헌납)을 역임하고 1755년에 승지(承旨)를 지냈으며, 여러 청요직(淸要職)을 지내고 1760년에는 황주목사(黃州牧使), 1766년에 회양부사(淮陽府使)가 되었다. 1769년 도승지(都承旨)가 되고 이어 병조참판(兵曹參判)이 되었다. 1779년(정조 3) 내의원(內醫院)의관(醫官)이 되었다.

김광국의 편저로는 『간독(簡牘)』이 있다. 이것은 김광국(金光國)이 조선시대 연산군에서 영조까지 명현들의 필적을 10여년간 모아 1750년(영조 26)에 차서(次序)를 정하여 8첩(帖)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 규장각에는 4첩이 있는데 이는 후에 다시 표구(表具)한 것으로 여기 4첩에는 '고간찰(古簡札) 71편이 실려있는데(목록상으로는 99편), 이것이 김광국이 편한 8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지 또는 없어지고 4첩만 남은 것인지 미상이다. 구체적으로 卷頭에는 1750년에 김광국 자신이 쓴 소서(小叙)가 실려있다. 제1첩에는 용재(容齋) 이행(李荇)의 서찰(書札)을 비롯하여 24명 즉, 이황(李滉), 성혼(成渾), 김성일(金誠一), 김상용(金尙容), 한준겸(韓浚謙), 이정구(李廷龜), 김류(金瑬), 심집(沈誦), 김상헌(金尙憲), 권필(權鐸), 장유(張維), 이명한(李明漢), 한호(韓濩), 강석기(姜碩期), 오준(吳浚), 심지원(沈之源), 이조한(李照漢), 김장생(金長生), 원두표(元斗杓), 이

경석(李景奭), 채유후(蔡裕後), 김옥(金瑄), 강백년(姜栢年)의 서찰이 차례로 실려있다. 서찰 옆에 그의 관등(官等) 성명(姓名) 등 필자의 약전을 실었는데 이 약전(略傳)은 김광국이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 실린 24명은 대개 유명한 명현(名賢)과 경상(卿相)들로서 그 서찰의 내용 보다는 필적을 보는데 더욱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은 대부분 문안(問安)·시사(時事)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필체는 초서(草書)가 대부분이고 행서(行書)도 있다. 그리고 첫째장 책머리에 주황묵(朱黃墨)으로 서찰의 순서대로 호(號)와 인명(人名)이 실려있고 여기에는 26명의 이름이 실렸는데 실제 내용에는 인촌(仁村) 정홍익(鄭弘翼) 등 2명의 서찰이 실려있지 않다.

제2첩의 권두(卷頭) 목록에는 역시 붉은 글씨와 노란 글씨로 20명의 이름이 실려있는데 실제로는 15명 즉, 허목(許穆), 이유태(李維泰), 이유상(李有相), 이단하(李端夏), 박세채(朴世采), 윤지완(尹趾完), 조사석(趙師錫), 이선(李選), 유상운(柳尙運), 이유(李濡), 조지겸(趙持謙), 임영(林泳), 윤증(尹拯), 최석정(崔錫鼎), 유명천(柳命天)의 서찰만이 실려있다.

제3첩에는 23명의 목록이 권두에 실려있는데 실제의 서찰에는 11편만이 즉, 이인엽(李寅燁), 권중경(權重經), 권업(權業), 이인병(李寅炳), 윤두서(尹斗緒), 최창대(崔昌大), 이선고(李宣顯), 이만성(李晩成), 심택현(沈宅賢), 이태좌(李台佐), 김흥경(金興慶)만이 있고, 민진원(閔鎭遠), 윤지인(尹趾仁), 이관명(李觀命), 김무(金楮), 등의 것은 없다. 그 외의 5명 김신겸(金信謙), 조도빈(趙道彬), 임방(任瑒), 이재(李緯), 김동필(金東弼)의 서찰은 제4첩에 실려 있다. 제4첩에는 위의 5명의 서찰이 먼저 있고, 다음 20명의 목록이 잘려진 채로 실려 있다. 20편은 심수현(沈壽賢), 오명항(吳命恒), 홍치중(洪致中), 어유구(魚有龜), 이하곤(李夏坤), 서명균(徐命均), 김재로(金在魯), 이진망(李眞望), 김진상(金鎭商), 조문명(趙文命), 이덕수(李德壽), 조관빈(趙觀彬), 유탁기(兪拓基), 이성룡(李聖龍), 정석오(鄭錫五), 송인명(宋寅明), 조현명(趙顯命), 이유(李瑜), 홍세태(洪世泰), 오원(吳瑗)의 것으로 목록과 일치하나 목록이 잘려져서 여기 저기에 붙여 놓

았으므로 본래의 서찰 수요는 알 수 없다. 범례에 「문이홍, 무이청, 남이황 文以紅, 武以靑, 南以黃」이라 하여 문관(文官)은 붉은, 무관(武官)은 푸른, 남대(南臺)는 노랑 글씨로 목록이 되어 있다.

『영조실록 英祖實錄』 / 『정조실록 正祖實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 『선배수간 先輩手束』

김군석 (金君錫)

『동각산록(東閣散錄)』 : 1602년(선조 35) 7월부터 1709년(숙종 35) 9월까지의 108년 사이에 국조(國朝)에서 있었던 일들을 발췌하여 일기식으로 꾸며 놓은 책이다. 12책으로 필사본이다. 김군석(金君錫)이 엮은 것으로 되어 있다. 1602년 7월 김제남(金悌男)의 딸을 계비(繼妃)로 맞은 일에서 시작하여 선조의 죽음, 광해군 4년(1612)까지 그간에 있었던 수많은 우여곡절과 각 관의 상소문(上疏文),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기록들로 제1~5책을 이루고 있고, 제6~9책까지의 4책은 영창대군(永昌大君)의 폐위, 김제남 등의 사사(賜死), 폐모론(廢母論) 대두 등 주로 광해군 때의 사건들을 발의(發意) 내지 동조한 사람들과 그 사건의 전말을 담고 있다. 거기에는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이첨(李爾瞻)에서 시작하여 심지어 치중교수(治腫教授)·응패두(鷹牌頭)·상궁(尙宮)·나인(內人)에 이르기까지 무려 500여명에 달하는 동조자들의 소문(疏文)과 지방유생들의 상소문까지 수십편이 곁들여 있어 당시 그 논의가 얼마나 주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가를 알 수 있다. 제10책은 이이첨과 유희분(柳希奮)과의 치열한 상소문 공방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제11책은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관하여 그 준비에서 성사 뒤 책훈(策勳)까지의 기록들을 모은 것이고, 제12책은 인조(仁祖) 이후 숙종(肅宗) 때까지 주로 광해군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논급한 기록들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논평하는 데 인용한 기록으로는 『서궁일기 西宮日記』·『완평일기 完平日記』·『연평일기 延平日記』·『응천일록 凝川日錄』·『국조기사 國朝紀事』·『하담파적록 荷潭破寂錄』 등이 있다.

『인조실록 仁祖實錄』 / 『광해군일기 光海君日記』

김만채 (金萬採, 1644 ~ ?)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자는 자봉(子封)이다. 어영대장(禦營大將) 익훈(益勳)의 아들이다. 1680년(숙종 6) 주부(主簿)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정언(正言)이 되어 대사헌(大司憲) 홍만용(洪萬容) 등과 우의정(右議政) 오시수(吳始壽)의 처벌을 청하였다. 이어서 지평(持平)·부수찬(副修撰)·남한시재어사(南漢試才御史)를 지내고, 1684년 수찬(修撰)이 되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다. 1689년 세자문제로 남인이 세력을 잡은 후 다시 아버지가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장살(杖殺)되자 그 억울함을 진정하다 유배되었다.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남인이 몰락하자 그의 아버지의 관작이 복관되고 그도 풀려나와 호조참의(戶曹參議)로 기용되었으며, 이어서 승지(承旨)를 거쳐 1703년에는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되고, 병조판서(兵曹判書)·승지를 역임한 후 1708년 부사직(副司直)에 임명되었으며,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등을 역임하고, 1712년에는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가 되었다.

『숙종실록 肅宗實錄』 /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 『국조방목 國朝榜目』 / 『승정원일기 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 備邊司騰錄』 / 『송자대전 宋子大全』 / 『정재집 定齋集』

김석홍 (金錫弘)

<도동서원(道東書院)>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에 있었던 서원이다. 1534년(중종 29)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구(金丘)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位牌)를 모셨다. 그 뒤 김여맹(金汝孟)·최수손(崔秀孫)·성중엄(成重淹)·최필성(崔弼成)을 추가 배향하였으며, 1718년(숙종 44)에 김석홍(金錫弘), 그뒤 홍익한(洪翼漢)·김

계(金啓)를, 순조(純祖) 때에 김해(金垓)를 추가 배향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손(毀撤)된 뒤 복원되지 못하였으며, 지금은 유허지(遺墟地)만 남아 있다.

『전고대방 典故大方』 / 『邊山の 堊』 (부안군), 1982.

김중성 (金仲誠)

조선 세종(世宗) 7년 때의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써 순량(醇良)하다는 명성이 있었다.

『세종실록 世宗實錄』

김 지 (金漬)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개성(個性)이고, 자는 군택(君澤)이다. 아버지는 창원부사(昌原副使) 자양(自陽)이다. 1561년(명종 16)에 진사(進士)가 되고, 1569년(宣祖 2)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삼사(三司)를 비롯한 내외의 관직을 두루 거쳤다.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있을 때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김포(金浦)로 돌아와 상을 치르는 중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났다. 선조가 몽진(蒙塵)한다는 말을 듣고 형제인 황(滄)·유(濡)와 함께 거병하기를 결심하였다. 평양(平壤)에서 선조(宣祖)를 알현한 뒤 소모관(召募官)에 제수되어 의용장(義勇將) 박내성(朴乃成) 등 1천여명을 모집하여 삭녕(朔寧)에 주둔하면서 기계(奇計)를 많이 사용하여 가까운 읍에 있는 적을 많이 섬멸하였다. 처음에 삭령에 이르러 왕위를 세자에게 전하여 인심을 수습할 것을 상소하자, 선조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교서(敎書)를 내려 자리를 옮기도록 하였으나 여러 신하들의 간청으로 그만두게 되었다. 한양(漢陽)으로 환궁한 뒤 조정에서 망언을 허물로 삼자, 화를 당할까 염려하여 어머니의 종상(終喪)을 청하여 김포로 돌아갔다. 뒤에 개성의 송남사(崧南祠)에 향사되었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 『송양기구전 崧陽耆舊傳』

김 호 (金 鎬)

김호(金鎬)는 선조조(宣祖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그가 횡성현감으로 있던 1579년(선조 12)에 사간원(司諫院)에서 임금에게 “횡성에 절개를 지키는 과부가 있는데 훈도(訓導) 이희연(李希延)이 첩으로 삼으려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그 여인이 집에 있지 않았는데 그는 그 집에 들어가 자고는 이미 장가를 들었다고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집에 돌아와 그 연유를 알고는 의리상 내 집으로 여길 수 없다하고 집을 불지르고 죽음으로써 맹세했으니 그 절행(節行)은 능연하여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감 김호는 훈도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여러 가지로 위협해서 수절하는 여인으로 하여금 처소를 잃고 떠돌게 만들었으니, 김호는 파직시켜 서용하지 말고 이희연은 잡아다가 추고하소서”라고 아뢰었다. 이 일로 인하여 김호는 추고당하였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민 후 (閔 煦)

민후는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있으면서 시녀(侍女)를 보냈는데 그 시녀의 아버지가 내노(內奴)라는 사실이 밝혀져 본도(本道) 감사(監司)로 하여금 영문(營門)에 결장(決杖)하도록 하였으며, 추고(推考)당하였다.

『備邊司謄錄』 효종 1년 4월 2일

박안도 (朴安道)

횡성현감(橫城縣監)인 박안도는 숙종 26년 12월 22일 횡성 향교(鄕校) 부근에서 임의로 장사지낸 것을 목인한 것 때문에 사간원(司諫院)에 의해서 논핵되었다.

『초와일고(草窩逸稿)』 : 조선 후기의 학자 박안도(朴安道, 1651 ~ 1710)의 시문집이다. 2권 1책. 석인본(石印本). 1965년에 9대손 찬주(贊周)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박난서(朴蘭緒)의 서문이, 권말에 찬주의 발문이 있다. 권1은 부(賦) 4편, 시 40수, 서(書) 2편, 축문(祝文) 1편, 잠(箴) 4편, 명(銘) 2편, 책(策) 1편, 의(疑) 2편, 논(論) 1편, 표(表) 3편, 권2는 부록으로 유묵(遺墨) 1편, 너사(誄詞) 1편, 만사(輓詞) 15수, 후지(後識) 1편, 가장(家狀) 1편, 묘갈명(墓碣銘)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책은 안민(安民)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술한 것으로, 먼저 도적을 없애야 하고 도적을 없애려면 인정을 베풀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의는 경전 중에서 어려운 대목을 풀이한 것으로, 『논어 論語』에서는 안연(顔淵)이 3개월 동안 인을 어기지 않았다는 내용, 『중용 中庸』에서는 남의 뜻을 잘 이으며 남의 일을 잘 짓는다는 부분 등이 언급되었다. 논(論)인 「중용불언신론 中庸不言信論」은 「중용」에 심자(心字)가 없음을 문답식으로 해설한 것으로, 물이 가득차게 흐르는 것을 보면 그 원류가 깊은 것임을 알듯이 성인의 말에 따라 그 뜻을 알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중용」이란 원래 심법(心法)이 전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만든 것이며 전체 내용이 심법의 묘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간언에 따르면 성인이 된다는 「종간즉성잠 從諫則聖箴」과, 사람의 마음수양을 탕반(湯盤)에 비유하여 지은 「탕반명 湯盤銘」이 있다.

『비변사등록 備邊使謄錄』 / 『초와일고(草窩逸稿)』

석지형 (石之珩, 1610 ~ ?)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화원(花園)이고 자는 숙진(叔珍)이다. 호는 수현(壽峴)이고 경하(擎廈)의 아들이다. 1633년(인조 11) 진사(進士)가 되고 이듬해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뒤에 형조좌랑(刑曹佐郎)이 되었다.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재직중 김해(金海)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와 오랫동안 강화부교수(江華府敎

授)를 지냈다. 1653년(효종 4) 시사(時事)를 소론(疏論)하고 『주역 周易』을 추연(推演)한 『오행귀감 五行龜鑑』을 왕에게 바쳐 『역경 易經』·『심경 心經』과 호피(虎皮)를 하사받았다. 현종(顯宗) 때 개성부교수(開城府教授)를 지냈다. 저서로는 『수현집 壽峴集』 2권, 『남한일기 南漢日記』 4권 등이 있다.

『남한일기(南漢日記)』: 조선시대 석지형(石之珩)이 1636년(인조 14)의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겪은 사실을 일기체로 쓴 저술로 4권 4책이며 필사본이다.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위협을 가하던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45일간의 방어 사실과 피침상황(被侵狀況) 등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한일기』가 알려져 있지 않다가 1753년(영조 29)에 당시 유수(留守) 이기진(李箕鎭)이 이를 발견하고 사료적 가치를 인정한 뒤에 등사하여 배포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다. 병자호란 때 저자 자신이 직접 남한산성에 들어가 전란방어책(戰亂防禦策)과 용전(勇戰), 격퇴상황(擊退狀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록하였다. 또한 청(淸)나라가 조선에 침입하였을 때의 청군의 군비 상황과 부대배치, 적장(敵將)의 인적사항 등을 담고 있어 병자호란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귀한 자료가 된다.

수록된 각 책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 1636년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로 인조(仁祖)가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던 날로부터 피위(被圍)된지 7일째까지이다.

제2책: 12월 20일 이시(巳時)부터 26일까지로 피위된 속에서의 주화파(主和派)와 척화파(斥和派)의 대립 및 물자부족(物資不足)의 상황을 기재하였다.

제3책: 상동(上同) 27일부터 1637년 1월 5일까지로 세찬(歲饑)의 부족과 대신(大臣)끼리의 갈등 그리고 소규모의 근왕병(勤王兵)의 전투들이 기재되어 있다.

제4책: 상동(上同) 6일부터 30일까지로 강화(江華)가 실함(失陷)되고 김상용(金尙容) 등이 자분(自焚), 이어 인조(仁祖)가 항복(降服)하고 환도(還都)할 때까지의 기록이다.

발문(跋文) 이외에 끝에 영의정(領議政) 김류(金瑬) 이하 시원임관(時原任官)으로 호종한 347명의 관직(官職)과 성명(姓名)을 적은 「호종록 扈從錄」이 있다. 김상헌(金尙憲)의 『남한기략 南漢紀略』은 척화파 위주의 기술로 평가되나 본서는 양파(兩派)의 언동을 모두 편중없이 기술하면서 저자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아 더욱 객관성을 띠고 있는 전적(典籍)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석지형이 쓴 「남한해위록 南漢解圍錄」·「남한산성기 南漢山城記」 및 김상헌(金尙憲)이 쓴 「남한기략 南漢紀略」, 법흥(法興)이 쓴 「남한가람지 南漢伽藍誌」 등과 함께 남한산성에 대한 연구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현집(壽峴集)』: 석지형(石之珩)의 시문집. 2권 2책. 목판본. 1709년(숙종 35) 아들 규서(奎瑞)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정두경(鄭斗經)·허목(許穆)의 서문과 권말에 김성호(金性豪)·규서의 발문이 있다. 권1-2에 시 126수, 부(賦) 7편, 계(啓) 1편 잡저(雜著) 3편, 상량문(上樑文) 1편, 계수부(稽首賦) 1편, 소(疏) 2편, 오위귀감(五位龜鑑) 2편, 기(記)·비문(碑文)·서(書)·서(序)·묘지명(墓地銘)·설(說)·가장(家狀)·묘갈명(墓碣銘)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저자의 생애가 평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감상의 풍이 있다. 「고열행 古熱行」·「화성 火城」은 장편서사시의 성격을 띠고 있고 종이장막의 덕을 읊은 「지장 紙帳」은 김택영(金澤榮)이 높이 평가한 가작이다. 부에는 편당(偏黨)·빈부·귀천을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한 「백발공도부 白髮公道賦」가 돋보인다. 상소문에는 「진오위귀감소 進五位龜鑑疏」가 있는데, 강화부교수로 있을 때 군덕(君德)을 권장하기 위하여 「오위귀감」을 지어올리게 된 동기를 적은 것이다. 「오위귀감」은 『주역 周易』 64괘 가운데 오위에 관한

효사(爻辭)를 뽑고 자신의 의견을 붙여 군왕의 처신을 그 효사에 맞추어 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목은 서문에서 이 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진영자도단소 進永字圖短疏」가 있는데, 왕도의 시행을 위하여 '영(永)'자의 획에 태극·음양·사상(四象)이 들어 있음을 그림으로 그려 인조에게 바치면서 그 해설을 적은 것이다. 그 밖에 성(姓)은 원래 두 본이 없다는 내용의 「성무이본설 性無二本說」이 있다.

『오위구감(五位龜鑑)』: 1653년(효종 4) 석지형이 강화부교수(江華府教授)로 있을 때 『주역』 64괘 중 군도(君道)에 가장 절고(切固)한 오효(五爻)에 관하여 「신근안 臣謹按」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왕에게 진헌한 상·하편 1책이다. 총론(總論), 상·하편, 발(跋)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론에서 복희(伏羲)가 음양(陰陽)의 변화를 보아 일일(一一)로 성괘(成卦)한 다음 삼성(三聖)의 계사(繫辭)가 있는 연후에 육위(六位)의 쓰임을 볼 수 있는데 초(初)·상은 무위(無位), 2·3은 신위(臣位), 4는 대신(大臣), 5는 인군(人君)에 각각 응하는 한편, 일괘(一卦)의 덕(德)은 오효(五爻)에서 이루어지니 인주(人主)가 마땅히 이에 그 쓰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오효로써 자감(自鑑)하고 그 덕을 내성(內省)하여 완길(完吉)한 바를 구하여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하여 오위(五位)가 군도(君道)에 귀감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상, 하편은 각각 64괘 중 상편에 건(乾)부터 이(離)까지 30괘, 하편은 함(咸)부터 말제(末濟)까지 34괘를 대상으로 하여 「신근안」으로 시작, 주내(註內)의 요지를 모으고 언외(言外)의 여의(餘意)를 넓히며 당세지사(當世之事)를 덧붙여 놓고 있다. 끝으로 발(跋)에는 이상의 본서 편찬의 의의를 밝힌 다음 왕에게 진헌하여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인조실록 仁祖實錄』 / 『효종실록 孝宗實錄』 / 『현종실록 顯宗實錄』 / 『현종개수실록 顯宗改修實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 『송양기구전 松陽耆舊傳』

성세평 (成世平, 1516 ~ 159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정중(正仲)이다. 종부시정(宗簿寺正) 회주(希周)의 아들이다. 나이 10여세에 이미 경사(經史)에 통달하였으나 20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예에 지나칠 만큼 극진히 상사(喪事)를 돌보았으므로 학업은 거의 중단하였고, 따라서 과거에 늦게 응시하게 되었다. 1546년(명종 1)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61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으나, 상(喪)을 당하여 3년을 지내게 되니 이미 나이는 50세가 되었고 이때 비로소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되고, 전적(典籍)·공조좌랑(工曹佐郎)을 거쳐 어천도찰방(魚川道察訪)으로 나갔다가 병으로 돌아왔다. 그 뒤 여러 벼슬을 역임한 뒤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副事)에 이르고, 1590년(선조 23)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에 임명되었으나 부임 전에 병사(病死)하였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 『국조인물고 國祖人物考』 / 『국조방목 國朝榜目』

송광순 (宋光洵)

송광순(宋光洵)은 현종조(顯宗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1671년(현종 12) 9월 13일에 강원감사(江原監司) 김익경(金益旻)이 도내에서 진휼(賑恤)을 잘한 수령을 계문하였는데 그 중에 횡성현감 송광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표리(表裏)를 받았다.

『현종실록 顯宗實錄』

송문재 (宋文載, 1711 ~ ?)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고 자는 사안(士安)이다. 호는 행수(幸叟)이고 아버지는 익장(翼長)이며, 예조참의(禮曹參議) 익보(翼輔)에게 입양되었다. 1746년(영조 22)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가주서(假注書)가 되었다. 이듬해 검열(檢閱)

을 거쳐 1751년 정언(正言)에 이어 지평(持平)이 되고, 1754년 교리(校理)를 지냈다. 1757년 보덕(輔德)으로 문과중시(文科重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승지(承旨)가 되고, 1760년 대사간(大司諫)이 되었으나 1763년 공초(供招)의 문서를 잘못 기록한 죄로 대정(大靜)에 유배되었다. 곧 풀려나 대사간·승지 등을 거쳐, 이듬해 동래부사(東萊副使)로 재임하던 중 다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767년 다시 대사간이 되고, 1770년 좌승지(左承旨)를 거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대사헌(大司憲)이 되고, 1779년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은퇴하였다.

『영조실록 英祖實錄』 / 『정조실록 正祖實錄』 / 『조선명신록 朝鮮名臣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심대복 (沈大復)

심대복(沈大復)은 선조조(宣祖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1597년(선조 30)에 헌납(獻納) 김대래(金大來)가 임금에게 “횡성현감 심대복은 일을 겪어보지 않은 연소한 사람으로 정령(政令)이 전도되고 부역(賦役)이 고르지 않아 온 경내가 시끄럽게 되고 그나마도 소생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아뢰면서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그로 인하여 심대복은 횡성현감에서 파직되었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안세징 (安世徵, 1639 ~ ?)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자는 자원(子遠)이다. 호는 환성재(喚醒齋)이고 아버지는 여종(汝宗)이다. 송준길(宋浚吉)의 문인이다. 1675년(숙종 1) 진사(進士)가 되고, 그 이듬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학유(學諭)로 기용되어 송준길의 복작(復爵)·추증(追贈)을 상소하였다. 지평(持平)을 거쳐 1684년 장령(掌令)이 되어 허견(許堅) 등 남인들이 복선군남(福善君楠)을 추대, 반역

을 피한다고 무고하여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을 일으키게 한 김환(金喚)의 추국을 주장하였다. 정언(正言)·필선(弼善) 등을 거쳐 1694년 다시 장령이 되어 민비(閔妃)의 폐비를 주장한 장희빈(張禧嬪)의 오빠 장희재(張希載)를 규탄하였다. 그 뒤 진주목사(晉州牧使)를 거쳐, 1700년 중성부사(鍾城副使)가 되고 이어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역임하였다.

『숙종실록 肅宗實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 『국조인물지 國朝人物志』

안윤복 (安允福)

안윤복(安允福)은 영조조(英祖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그에 대해서 1743년(영조 19)에 장령(掌令) 허채(許采)가 “횡성현감 안윤복은 도살의 금법을 범하여 여러 사람에게 공궤(供饋)하였으니 파직하게 하소서”라고 상소를 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영조실록 英祖實錄』

오경지 (吳敬之)

세종 7년에 오경지는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있으면서 지금산군사(知錦山郡事)·신창(新昌)·덕산(德山)·맹산현감(孟山縣監) 등과 함께 임금을 알현(謁見)하여, “수령은 임금의 근심하는 마음을 나누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 그 임무가 지극히 중대하다. 그대들은 나의 회포(懷抱)에 부응(副應)하여 백성을 어루만지고 폐해를 제거하는데 힘쓰라”는 명(命)을 받았다.

『세종실록 世宗實錄』

우서규 (禹瑞圭)

우서규는 진휼청(賑恤廳)의 낭청(郎廳)으로 있다가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제수되었는데, 진휼청 당상(堂上) 오정위(吳挺緯)는 ‘횡성은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이 아니고, 지금 진휼의 정사가 시급하니 우서
규처럼 근면하게 직임을 거행하는 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여 우서
규는 횡성현감에서 진휼청 낭청으로 직임이 바뀌었다.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숙종 3년 7월 14일조

원진해 (元振海, 1594 ~ 1651)

조선 효종 때의 학자로 자는 윤보(潤甫)이고 호는 장육당(藏六堂)이다.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운곡(耘谷) 천석(天錫)의 9세손이이며, 구정(龜亭)
황(幌)의 아들이다. 1616년(광해군 8) 진사(進士)에 합격, 효종이 잠저(潛
邸)할 때 사부(師傅)를 지내고 만년에 횡성현감(橫城縣監)에 이르렀다.
5·6세에 벌써 글씨로 이름을 날렸으며 관아(官衙)와 궁중(宮中)의 문액
(門額)을 쓴 것이 많았는데 모두 명필이라 칭하였다. 다시 과거에 나가지
않고 경전(經傳)에 몰두하였고 성학(聖學)에 힘써 건문이 넓고 조예가
깊어 당세에 추앙을 받았다.

『조선명신록 朝鮮名臣錄』 『원주원씨세보 原州元氏世譜』

유담 (柳潭)

세종조(世宗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1425년(세종
7)에 횡성현감 유담(柳潭)이 하직하니, 임금의 불려서 “가서 직사(職事)
에 나아가 농상(農桑)의 권과(勸課)를 힘쓰고, 또 환자(還上)를 거두고
흠어 주는 것은 나라를 유족하게 하자는 것인데, 각박(刻迫)하게 이를 정
수하면 백성들이 원망이 많고, 백성을 편하게 하려 하여 받아들이는 것
이 시기를 잃으면, 나라가 비고 고갈되니, 각기 마음을 다하여 내 뜻에
맞게 하라”고 명(命) 하였다.

『세종실록 世宗實錄』

이광영 (李光英)

이광영(李光英)은 횡성 훈도(橫城訓導)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늙은 나
이에 급제(及第)하였는데, 임금이 이조(吏曹)에 전교(傳敎)하기를 “노쇠하

고 다른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백수(白首)로 등제(登第)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하다 경관(京官)에 먼저 서임(敍任)하게 하라”고 하였다.

『성종실록 成宗實錄』

유시보 (柳時輔)

광해군(光海君)때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냈다. 특히 횡성현감에 제수(除授)된 후 욕심을 부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어, 잔약한 고을의 백성들을 보존할 수 없게 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광해군일기 光海君日記』

유언민 (兪彦民, 1709 ~ 1773)

조선 영조(英祖) 때의 문신이다. 자는 이천(伊天), 호는 석은(石隱)이고,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1732년(영조 8)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도사(道士)·좌랑(佐郎) 등을 지냈고, 1743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고부터는 승지(承旨)까지 벼슬이 올랐으나 1758년에 삭직(削職)되었다가 그후 복관되어 예조참판(禮曹參判)·도승지(都承旨)·강화부유수(江華府留守)가 되었다. 시문(詩文)에 뛰어났다.

『영조실록 英祖實錄』

유 필 (柳 苾)

유필(柳苾)은 유후성의 아들인데, 후성의 가자(加資)를 거둔 뒤에 임금이 다른 상을 다시 품정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1662년(현종 3) 11월 12일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이 되었다.

『현종실록 顯宗實錄』

윤면구 (尹勉矩)

강원도 암행어사 김상집(金尙集)의 복명에 의하여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있던 윤면구(尹勉矩)는 상을 받았다.

『영조실록 英祖實錄』

윤 식 (尹 植)

윤식(尹植)은 숙종조(肅宗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1717년(숙종 43)에 사헌부(司憲府)에서 “횡성현감 윤식은 관직에 있는지 오래인데 수단이 점점 교활하여져서 민간의 별통을 법금(法禁)을 무시하고 강제로 받아들이고, 화전(火田)의 세금 징수는 지나치게 힘쓰는가 하면 읍비(邑婢)를 미혹(迷惑)되어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파직을 건의하였으나 세자(世子)가 따르지 않아서 횡성현감을 계속할 수 있었다.

『숙종실록 肅宗實錄』

이경화 (李景華, 1629 ~ 1706)

조선 정조 때의 명의(名醫)로써, 자는 여하(汝夏)이고, 호는 풍계(楓溪)이다. 본관은 진위(振威)이고 좌랑(佐郎) 증(贈)의 아들이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평안남도(平安南道) 성천(成川)에서 살았고, 1660년(현종 1) 진사(進士)에 합격, 침구(鍼灸)에 능하고 경사백가(經史百家)에도 정통하였으며, 특히 의학(醫學)에 밝았다. 저서로는 『광제비급 廣濟秘笈』과 『풍계집 楓溪集』이 있다.

『풍계집(楓溪集)』: 조선 후기의 학자 이경화의 시문집이다. 3권 1책의 목활자본이다. 1868년(고종 5) 6대손 동규(東奎)가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송근수(宋近洙)의 서문과 연보가 있고, 권말에 이민덕(李敏德)·동규 등의 발문이 있다. 권1-2는 시 12수, 소(疏) 6편, 권3은 부록으로 선덕록(先德錄) 1편, 서(書) 5편, 자설(字說) 1편, 잡록(雜錄)·어록(語錄)·육후별기(六候別記)·황강문답(黃江問答) 각 1편, 만사 5수, 행록(行錄)·사실(事實)·묘갈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소의 「표충사청개액소 表忠祠請改額疏」는 조헌(趙憲)의 사절(死節)을 기리기 위하여 옥천(沃川) 군민이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사액(賜額)을 청하여 표충이라는 액호를 하사받았는데, 그 뒤 서원의 형식으로 확장하고 김집(金集)을 배

향하게 되니 표충이란 액호가 걸맞지 않으므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청하는 글이다. 이 상소문에 의하여 창주서원(滄州書院)이라는 액호를 하사받았다. 또한 「율곡우암양선생피무변명소 栗谷尤菴兩先生被誣卞明疏」에서는 윤증(尹拯)이 이이(李珥)는 진실로 입산(入山)한 실수가 있었고 자신의 선조 윤선거(尹宣舉)는 애초부터 죽어야 할 대의(大義)가 없었다고 한 것은, 비록 아버지를 위하여 애써 수식하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아버지를 윤리가 없는 입장에 둔 것이 되어 이이를 무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를 무함한 것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 몇 편의 소들을 통하여 효종 당시 청서파(淸西派)와 공서파(功西派) 간의 대립과 북벌문제(北伐問題) 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광제비급 廣濟秘笈』: 1790년(정조 14)에 이경화(李景華)가 간행한 의서(醫書)로써 4권 4책이다. 정조 때 함경도관찰사인 이병모(李秉模)가 이 지방 사람들이 너무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구료(救療)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경화에게 이 책을 편술하게 하였다.

내용을 보면, 권1은 중풍을 비롯하여 제궤(諸厥)·오절(吳絶)·칠규(七竅)·오발(五發)·옹저(癰疽)·제상(諸傷)·인후(咽喉) 등의 질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권2는 잡병 약 250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처방과 함께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권3은 부인과질환인 부인문(婦人門)·임부잡병(孕婦雜病)·부인잡병·소아문(小兒門)·두진(痘疹)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권4는 저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자연야생약초·무기약품(백반)·재배식용식물 등의 단방치험(單方治驗)에 대하여 폭넓게 기술하고 있고, 특히 개개 생약에 대한 수치방법(修治方法)·제조방법·복용량·적응증 등이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권4에 수재된 단방치험 약초나 무기약품·식용식물은 인삼을 비롯하여 향부자·동과·석창포·향유·대산·쑥·당귀 등 누구나 쉽게 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40여종을 수록하고

있다. 다른 의서와 다른 점은 어려운 병리설을 줄이고 주로 임상과 직결되는 구급·잡병·부인병·소아병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단방생약에서는 함경도 산야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쑥·황경피나무·승엽초·장군풀·쇠비름·도독놈의갈고리·으아리 등을 수록한 것이라 하겠다. 지금도 이 책에 기재되어 있는 생약은 질병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속종실록 肅宗實錄』 / 『楓溪集』 /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66.

이단하 (李端夏, 1625 ~ 1689)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계주(季周)이다. 호는 외재(畏齋)·송간(松澗)이고 관서 식(植)의 아들이다. 음보(蔭補)로 벼슬에 나아가 공조좌랑(工曹佐郎)으로 재직중 1662년(현종 3)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 뒤 정언·부교리·용안현감·헌납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북평사로 있을 때 감사 민정중(閔鼎重)과 함께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정문부(鄭文孚)의 사적(史蹟)을 조사하여 조정에 알려 관직을 추증시키고, 사당을 세워 충렬사(忠烈祠)라는 사액을 내리게 하였으며, 부교리(副校理)로 있을 때에는 귀양중의 제신(諸臣)들을 속히 사면할 것을 주청하기도 하였다. 1669년 이조정랑이 되어 각사(各司) 노비의 공안(貢案)을 정리할 것을 청하여 신공(身貢)을 반 필씩 감하게 하였다. 이어 교리로 경서교정청(經書校正廳)의 교정관이 되고, 양전(量田)의 실시와 훈련별대(訓練別隊)의 창설을 주청하여 시행하게 하였으며, 솔잎으로 기민(飢民) 구제 등을 청하여 솔잎을 빈민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그 뒤 응교·사간·사인 등을 역임하고, 1671년 동부승지가 되고 다음해 이조참의가 되어 중종의 폐비 신씨(愼氏)의 신주를 신씨 본손의 집으로 옮기게 하였고, 1674년 대사성으로 대제학을 겸임하였다. 이어 숙종이 즉위한 뒤 서인으로서 제2차 북상문제로 숙청당한 의례제신(議禮諸臣) 처벌의 부당성을 상소하다가 파직, 이듬해 삭직당하였다. 1680년(숙종 6) 경

신대출척으로 풀려나와 이듬해 홍문관제학이 되어 『현종개수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82년 대사헌으로 각릉(各陵) 기신(忌辰) 제사에 유과(油果) 및 과일 위에 덮는 채색꽃을 감하여 제사비용을 줄이도록 하였고, 1684년 예조판서가 되어 「사창절목 社倉節目」과 「선묘보감 宣廟寶鑑」을 지어올렸다. 1686년 우의정이 되어 사창설치의 다섯 가지 이익을 건의하였고, 죽을 죄인에 대하여 삼복(三覆:三審制)을 실시할 것을 청하였다. 다음해 좌의정에 올랐으나 병으로 사직하고, 행판돈녕부사로 있다가 죽었다. 무력해진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비변사를 의정부의 직방(直房)으로 만들고, 그 곁에 한 방(房)을 비변사로 만들어 의정부와 함께 통하게 하고, 좌우찬성의 자리를 비워두지 말고 참찬과 함께 상공을 도와 정치를 의논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창제도를 철저히 실시하여 굶주리는 백성을 돌볼 것을 역설하였다. 송시열의 문하에서 자라나 조선 후기 경학에 있어서 대표할만한 학자이다. 용안(龍安)에 영당이 있다. 저서로는 문집인 『외재집』과 편서로 『북관지 北關誌』가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현종실록 顯宗實錄』 / 『현종개수실록 顯宗改修實錄』 / 『숙종실록 肅宗實錄』 / 『영조실록 英祖實錄』 /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 『국조방목 國朝榜目』

『외재집 畏齋集』: 이단하의 시문집이다. 11권 6책의 목판본이고, 간행연대는 미상이다. 이 문집 가운데에는 소차(疏筭)가 많은데, 이것은 그의 현실참여적이고 사회철학적인 면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창(社倉)설치가 이익이 되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든지, 사형시킬 죄인에 대하여 삼핵(三覈)을 주장한 것들은 매우 진보적인 탁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책의 특징은 서문이나 발문이 없고 맨 앞에 총목록이 있으며, 각 권마다 개별목록이 붙어있는 것이다.

권①②에는 시집(詩集)으로써, 15세 때에 지은 「영독송 詠獨松」을 비

못 「정구구택유감 貞舊舊宅有感」, 「청음김선생상헌만 淸陰金先生尙憲挽」, 「봉기청호이상서일상 奉寄靑湖李尙書一相」, 「기동춘선생 器同春先生」, 「인선왕후만사 仁宣王后挽詞」, 「이사창사진소후우음 以社倉事陳疏後偶吟」 등 235수가 수록되어 있다. 각체(各體)의 시가 섞여 있으나 편차(編次)는 지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

권③④에는 소차(疏筭) 20편 (「사부수선겸진북사소 辭副修撰兼陳北事疏」, 「사부교리겸진소회소 辭副校理兼陳所懷疏」, 「논호남사소 論湖南事疏」, 「대북유청중성부계서원사액소 代北儒請鍾城浮溪書院賜額疏」, 「전유회덕후명후사직급진연로소문소 傳諭懷德後命後辭職級陳沿路所聞疏」, 「진선묘조보감차 進宣廟朝寶鑑筭」, 「논사창사소 論社倉事疏」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연대순으로 섞여 있다. 「사부수선겸진북사소 辭副修撰兼陳北事疏」는 북도(北道)의 피폐상을 지적하고 변장(邊將)을 격려하기 위해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북도(北道)에서 공을 세운 정문부(鄭文孚)를 포증(褒贈)할 것, 사공(土貢) 수성군향(輸城軍餉) 등에 관한 폐단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논호남사소 論湖南事疏」는 이 지방의 군정(軍政)의 문란, 면지공납(綿紙貢納)의 폐단, 대동목(大同木)의 과납(過納), 「논사창사소 論社倉事疏」는 그가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있을 적에 사창사목(社倉事目)을 지어 올리고서 그 이의(異議)가 일어나자 이에 그 혁신책(革新策)에 대한 이익된 점을 논해 올린 소(疏)이다. ①사책(私債)에 있어서 수식(收息)은 적절히 할 것. ②사창(社倉)은 리중(里中)에 두어 이서(吏胥)가 침탈(侵奪)하는 폐단이 없게 할 것. 그 환상(還償)에 있어서 민(民)의 사정을 참작하여 융통성을 둘 것 등이다.

권⑤에는 疏筭 4편(「청정부변통소 請政府變通疏」 「진소회 陳所懷」 등)과 응제문(應制文) 23편(「인경왕비익책문 仁敬王妃諡冊文」, 「선유제주삼읍기노군관서 宣諭濟州三邑耆老軍官書」, 「우의정홍명하불윤비답 右議政洪命夏不允批答」, 「장열왕후휘릉지 莊烈王后徽陵誌」, 「상주전망장사사제문 尙州戰亡將士賜祭文」 등), 序 4편, 記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진소회소 陳所懷疏」는 공주(公主)의 묘를 금역(禁域)에 쓴 것에 대해 항의한 신하들이 죄를 받자 이의 부당함을 항의하여 올린 상소이다.

「선유제주삼읍기노군민서 宣諭濟州三邑耆老軍民書」는 1671년(현종 12) 제주도에 큰 기근이 있자 그들을 위로하고 종자(鍾子) 등 구호곡을 보내 주면서 쓴 유서(諭書)이다.

「이조랑요계회서 吏曹郎僚稷會序」는 이조낭관(吏曹郎官)들이 계회(稷會)를 만든 일에 대해 쓴 글이다. 최초의 이조낭관(吏曹郎官)들의 계회(稷會)라는 점이 주목을 끄는 내용이다.

권⑥에는 서(書) 36편(「상중씨 上仲氏」, 「상우재 上尤齋」, 「여김기 지수여 與金起之壽與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안부 편지가 대다수이며 우재(尤齋)에게 보낸 것이 13편 있다. 간혹 복제(服制) 시사(時事)에 관한 문답(問答)이 있다.

권⑦은 서(書)와 묘지명(墓誌銘)에 관한 것이다. 서(書)로는 「여운숙린 지완 與尹叔麟趾完」, 「답이월보회조여모인별지 答李月甫喜朝與某人別紙」 등 10편이 있고, 묘지명(墓誌銘)에는 「선백씨묘지 先伯氏墓誌」, 「공조좌랑안공묘지명병서 工曹佐郎安公墓誌銘并序」 등 10편 수록되어 있다.

권⑧은 묘시명(墓詩銘) 6편, 비명(碑銘) 2편, 묘갈명(墓碣銘) 1편, 묘표(墓表) 6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 「횡성현감구후일관민전비명 橫城縣監具侯鑑灌民田碑銘」은 횡성현감(橫城縣監)인 구일(具鑑)이 민전(民田)에 수리사업(水利事業)을 벌인 데 대한 공적비의 명(銘)으로 지방관의 치적을 상탄한 것이다. 그 외의 것은 일반적인 형식문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

권⑨는 행장(行狀)으로 선부군행장(先府君行狀) 1편이다. 택당(澤堂) 이식(李植)에 대한 행장(行狀)으로 이식(李植)의 전기적(傳記的) 자료로서 완벽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책을 차지하는 장문(長文)이다.

권⑩에는 언행록(言行錄) 2편이 수록되어 있다. 「선부군언행록 先府君言行錄」은 택당(澤堂)의 언행(言行) 중에서 행장에서 중복되지 않는 것

을 뽑은 것으로 그의 전기적 자료가 된다. 유사(遺事)로 조현주찬한유사(趙玄洲撰韓遺事) 1편, 제문(祭文)으로 제주소김참찬문(祭竹所金參贊文), 광주창강사우봉안제문(廣州滄江祠宇奉安祭文) 등 6편, 잡저(雜著)로 갑을논예변부답아서(甲乙論禮辨附答兒書), 책제(策題) 등 3편이 있다. 「갑을논예변 甲乙論禮辨」은 복제(服制)에 관해 주자가례(朱子家禮) 등을 인용, 자기의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뒤에 이 전말을 간단히 적은 부답아서(附答兒書)가 첨부되어 있다. 책제(策題)는 북도(北道)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전제(田制)·관방(關防) 등에 관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그가 사회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건의했던 이력대로 이런점이 소차(疏劄) 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노론(老論)으로서 예송(禮訟)에 참여하여 송우암(宋尤庵)의 예송(禮說)을 지지한 일면도 엿볼 수 있다.

李端夏(朝鮮)著. 『畏齋集』

『북관지 北關誌』: 함경도(咸鏡道) 10부(十府)의 읍지(邑誌)를 개괄한 책이다.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광해(光海)년간 함경도북평사(咸鏡道北評事)로 있으면서 북로(北路)의 사실과 형요(形要)를 모아 북관지(北關誌)라 이름하여 기술했었다. 택당(澤堂)이 채 완성하지 못한 것을 그의 아들 이단하가 평사(評事)로 가 있으면서 완성하였지만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신여철(申汝哲)이 이를 보고 책이 완성된지 30년이 지나서 연혁이 바뀌어진 것이 많으므로 이를 증수하고 1693년(숙종 19) 간행하였다. 그 후 신여철의 4대손 신대겸(申大謙)이 1784년 중간하였다. 이 『북관지 北關誌』는 중간본(重刊本)을 필사한 것이다.

권①에서는 경성(鏡城), 길주(吉州), 명천(明川), 부영(富寧)을, 권②에서는 회녕(會寧), 무산(茂山), 종성(鍾城), 온성(穩城), 경원(慶源), 경흥(慶興) 등 10부(十府)에 관한 모든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각 부(府)의 향엔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관원(官員), 강계(疆界), 산천(山川), 관방(關防), 해진(海津), 성곽(城郭), 봉수(烽燧), 관우(館宇), 학교(學校), 리

사(里社), 역원(驛院), 사묘(祠廟), 불우(佛宇), 고적(古蹟), 성씨(姓氏), 인물(人物), 토산(土産), 풍속(風俗), 관안(官案), 호액(戶額), 전안(田案), 재곡(財穀), 공안(貢案), 진상(進上), 약재(藥材), 병안(兵案), 이안(吏案), 천안(賤案), 제영(題詠), 잡기(雜記) 등으로 나누어 내역이 기재되었다. 이 중에서 「관방 關防」, 「해진 海津」, 「성곽 城郭」, 「봉수 烽燧」 조 등은 변경방비책에 관한 것으로 다른 항목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물 人物」 조에는 그 지방에서 나온 효자(孝子), 열녀(烈女), 충신(忠臣), 유생(儒生), 문과(文科) 등으로 세분하여 기록되었고, 「토산 土産」 조에는 농산(農産)·해산(海産) 등 중요 생산품명이 기록되어 있다. 「관안 官案」 조에는 이곳을 거쳐간 도순문찰리사(都巡問察理使)·도절제사(道節制使)에서부터 도사(都事)·판관(判官)에 이르기까지 기재되었고, 「병안 兵案」 조에는 우청군(右廳軍)·무학(武學)·갑사(甲士)·보병(步兵)·봉군(烽軍)·일수차비나장(日守差備羅將)·장인(匠人)·속오군(束伍軍)·위군(衛軍)·병영군(兵營軍)·수성역군(輸城驛軍)·친기위(親騎衛) 등에 대해 내력과 숫자가 밝혀져 있다. 「제영 題詠」 조에는 이곳의 사정과 풍물(風物)을 읊은 병사들의 시를 모았고, 「잡기 雜記」 조에는 각 부(府)에서 일어난 고사(故事)·일사(逸事) 그리고 외적의 침입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함경북도 일대의 각 부(府)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으로는 『북로기략 北路紀略』, 『북관기사 北關紀事』, 『북여요선 北輿要選』, 『북정일기 北征日記』 등이 있다. 북로(北路)관계 자료가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 책이 지니고 있는 자료적 가치는 크며 동시에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북로정책(北路政策)에 관해 참고할 수 있다.

李端夏(朝鮮)編. 『北關誌』

이 로 (李 櫓)

1547년(명종 2) 9월 부제학 정언각(鄭彦愨)과 선전관 이로(李櫓)가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서 ‘위로는 여주(女主), 아래에는 간신 이기(李芑)가 있어 권력을 휘두르니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된 익명의 벽서를 발견하여 임금에게 바친 일이 있다. 이는 조선 전기 명종 때의 정치적 옥사(獄事)로써, 당시 외척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尹元衡)세력이 반대파 인물들을 숙청한 사건이며, 정미사화(丁未士禍)라고도 불린다.

『명종실록 明宗實錄』 / 『선조실록 宣祖實錄』

이만림 (李萬林, 1627 ~ ?)

1627년(인조 5)생으로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수경(秀卿)이다. 부친은 이극순(李克淳)이고 1673년(숙종 4)에 증광시(增廣試)에서 병광(丙科)에 급제하였다.

『문과방목 文科榜目』

이성령 (李星齡, 1632 ~ ?)

조선 후기의 학자로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자는 문옹(文翁)이고 호는 춘파(春坡)이다. 판서(判書) 기조(基祚)의 아들이다. 1652년(효종 3)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으며, 뒤에 음보(蔭補)로 출사(出仕)하여 벼슬이 서윤(庶尹)에 이르렀다. 역사에 밝았으며 조선 태조가 개국한 이래 1638년(인조 16)까지의 정사 및 야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그의 저서 『춘파당일월록 春坡堂日月錄』이 현재 규장각도서에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다.

『춘파당일월록 春坡堂日月錄』 : 이성령(李星齡)이 조선 초기와 중기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사서로 16책이고 필사본이다. 이 책의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으나 현종(顯宗)·숙종(肅宗)연간(年間)에 이루어진 듯하다. 각 왕대별로 '○○대왕실록'이라는 표제하에 먼저 이름·존호·탄생연도 등 해당임금과 그 왕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수록한 뒤, 연대별 혹은 일자별로 국정 및 왕실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표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술형식과 내용이 국왕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중요한 인물이 나올 때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주요 상소문 등 관계되는 문헌을 옮겨 실기도 하였다. 시

기준으로 서술하되 일의 전후 맥락이나 여론의 동향 등을 간단히 해설한 경우도 많으며, 부분적으로는 ‘고이(考異)’라 하여 참고될 내용을 정리하거나 전거를 밝히기도 하였다. 정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일반행정에 관한 내용도 적지 않게 수록하여 ‘실록’이라는 표제에 어울리도록 하였다. 제1책에 태조·정종·태종, 제2책에 세종, 제3책에 세종·문종·단종·세조·예종·성종·연산군·중종, 제4책에 중종·인종·명종, 제5책에 명종·선조, 제6-12책에 선조, 제13책에 선조·광해군, 제14책에 광해군, 제15-16책에 인조대의 기록이 실려있다. 태조대 이래 1631년(인조 9)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광해군대에 대해서만 ‘실록 폐왕광해군(廢王光海君)’이라는 표제를 붙였다. 권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시기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구분기준을 찾기 어렵다. 특기할만한 역사의식이나 서술체제는 발견하기 힘들며, 17세기 사료들의 일반적인 사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조대에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것은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한 선조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비롯된 것인 듯하다.

『조선도서해제 朝鮮圖書解題』

이 순 (李 淳, 1530 ~ 1606)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철성(鐵城)이고 자는 자진(子眞)이며 호는 야로(野老)이다. 아버지는 참판 언명(彦明)이며, 어머니는 밀양박씨(密陽朴氏)로 승지 박훈(朴薰)의 딸이다. 일찍이 이황(李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김우옹(金宇顛)·정구(鄭逵) 등과 도의(道義)로 교우관계를 맺었다. 일찍이 보우(普雨)의 인심혹란(人心惑亂)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으며, 1580년 어사 송언신(宋言愼)의 천거로 광릉참봉(光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10년 뒤 다시 강릉참봉(康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취임하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소모장(召募將)으로 의병을 모집, 왜적과 싸웠다. 만년에는 견곡촌(堅谷村)에 별장을 짓고 둔세(遁世)의 뜻을 지켰다. 성주의 유계서원(柳溪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

로 『야로당문집 野老堂文集』이 있다.

『野老堂文集』

『야로당문집 野老堂文集』: 조선 중기의 학자 이순의 시문집으로 2권 1책의 석인본이다. 1934년 후손 창화(昶和)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만규(李晩奎)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장희원(張熹遠)·박익래(朴翼來)·이창화(李昶和) 등의 발문이 있다. 권수에 「가세원류 家世源流」가 있고, 권1은 시11편, 서(書) 4편, 잡저 2편, 제문 4편, 서(書) 7편, 행록·가장·행장·묘갈명·묘표·묘지명 각 1편, 문(文) 4편, 녹(錄) 3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詩)는 대개 정구(鄭述)를 비롯한 동문간의 증시와 만시이다. 「등가야산 登伽倻山」은 자연경관에 대한 서경(叙景)의 표현기교가 높으며, 「유감 有感」은 자기 부인이 늙고 병들어 죽음에 대한 고뇌를 표현한 감상적인 내용이다. 서(書)에 있어서 이황(李滉)에게 보낸 문목(問目)에는 상례(喪禮)·제례(祭禮) 등에 관한 11항목의 질문과 이에 대하여 이황이 답변한 내용까지를 수록하고 있어 예론(禮論)연구의 참고자료가 되며, 방백(方伯)에 올린 서찰에서는 성주가 경상우도의 번병(藩屏)으로 군사적 요충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잡저의 통유문(通諭文)은 그가 소모장(召募將)으로서 도민들에게 창의하여 각기 요새를 근거삼아 왜적과 싸울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며, 「세중문 誓衆文」은 사군사친(死君死親)의 충절로 왜적을 물리쳐 국치를 설욕하자는 맹세의 글이다. 보록에는 정구·장현광(張顯光)으로부터 온 서찰 7편이 포함되어 있다.

이언좌 (李彦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이언좌(李彦佐)는 성품이 어질고 곧은 사람이었다. 그의 성품과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1603년(선조 36)에 강원도 암행어사 조탁(曹倬)은 횡성현(橫城縣)에 대하여 횡성현감(橫城縣監) 이언좌(李彦佐)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고

있다고 서계(書啓)하였다. 또한 1604년(선조 37)에는 자신의 처형인 최영경의 처를 데리고 와 있었는데 이는 영경이 옥중에서 억울하게 죽자 언좌에게 와 얹혀 있던 것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언좌의 성품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이유룡 (李儒龍)

1851년(철종 2) 4월 12일에 강원도 암행 어사 이계선(李啓善)이 전횡성현감(橫城縣監) 이유룡(李儒龍)을 포장하여 승서(承叙)할 것을 청하였다.

『철종실록 哲宗實錄』

이정회 (李廷檜)

이정회(李廷檜)는 선조조(宣祖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1593년(선조 26) 6월 6일에 각진에서 승첩과 노획 보고를 경략에게 이자(移咨)하였다. 그 내용 중에 “횡성현감 이정회는 파문장(把門將) 진여익(陳汝翼) 등으로 하여금 수급(首級) 23과를 베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이준종 (李俊宗)

1578년(선조 11) 3월 20일에 횡성현감(橫城縣監) 이준종(李俊宗)은 잔열(殘劣)하므로 현감(縣監)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간원(司諫院)의 체직 요구가 있었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이탁남 (李擢男, 1572~1645)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자는 근숙(根叔)이다.

좌참찬 몽량(夢亮)의 손자이다. 1600년(선조 33) 문음으로 등용되어 청단도찰방(靑丹道察訪)을 거쳐 전설사별제(典設司別提)·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를 역임하고, 충청도 덕산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그의 공덕을 칭송하였다. 1627년(인조 5) 강원도(江原道)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있었으며, 이때 이인거(李仁居)가 광해군(光海君)을 몰아내고 인조(仁祖)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공을 세운 정사공신(靖社功臣)들이 나라를 그르친다는 명분으로 난을 일으켜 관부(官府)에 돌입하여 군기(軍器)를 약탈하고 죄수를 풀어주는 등 난동을 피워 군대와 백성을 위협하였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감히 제압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횡성(橫城)을 빠져나와 원주(原州)로 가서 목사 홍보(洪寶)와 함께 싸워, 이인거와 그의 아들 성지(姓支) 일당을 생포하여 서울로 압송하였다. 그 공으로 소무공신(昭武功臣) 2등이 되어 오산군(鰲山君)에 봉하여졌다. 호조판서(戶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의정(毅靖)이다.

『인조실록 仁祖實錄』 /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 『소재집 疏齋集』

장세량 (張世良, 1627 ~ ?)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언경(彦卿), 호는 화암(和庵)이다. 아버지는 운상(雲翔)이며, 어머니는 박응물(朴應物)의 딸이다. 1651년(효종 2) 생원으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 공조좌랑(工曹佐郎)을 거쳐 여러 지방관을 역임하고 화천군수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평양의 외성에 복거하였으며 자손들도 대대로 이곳에서 살게 되었다. 일찌기 선우 협(鮮于浹)으로부터 학업을 배워 성리학에 정통하였으며, 특히 역학에 밝아 세상사람들이 우역동(禹易東:禹倬)이라고 칭하였다.

『국조방목 國朝榜目』 / 『조선유교연원 朝鮮儒教淵源』

정귀년 (鄭龜年)

정귀년(鄭龜年)은 중종조(中宗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일설에는 근무태도가 성실치 못했고, 번거롭고 소란스

레 작폐를 일삼아 백성이 무척 고통에 시달렸다고 언급되기도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사를 잘한 것으로 평가되어 6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

『중종실록 中宗實錄』 6월 25일 조

정익도 (鄭益燾)

정익도(鄭益燾)는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있으면서 횡성지역에 장길산의 도당이 나타나자 친히 군병을 거느리고 70리나 동떨어진 곳으로 깊이 들어가 7명의 도적을 체포하였다.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숙종 18년 2월 13일

정존겸 (鄭存謙, 1722 ~ 1794)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동래(東萊)이며, 자는 대수(大受), 호는 양암(陽庵)·양재(陽齋)·원촌(源村)이다. 좌의정 유길(楡吉)의 8대손으로, 우의정 치화(致和)의 5대손이며, 문상(文祥)의 아들이다. 이재(李緯)의 문인이다. 1750년(영조 26) 생원시에 합격하고, 다음해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부제학을 역임하였다. 1754년(영조 30)에는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있으면서 관동의 상정(詳定)에 대하여 차원(差員)으로 올라와서 보고하였다. 다시 내직으로 교리·승지를 지냈다. 승지(承旨)로 있을 때 1761년 4월 장헌세자(莊獻世子)가 영조(英祖) 모르게 관서지방을 유람, 순행하고 돌아오자 영조는 세자의 서유(西遊)에 관여한 심벌(沈機)·유한소(兪漢簫)·이수득(李秀得)을 파면시켰는데 그때 그도 파면되었다. 그 뒤 다시 등용되었으나 1772년 당론을 주장하였다 하여 복청으로 정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 관계에 복귀,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냈다. 1775년 홍인한(洪麟漢)을 탄핵하는 소를 올려 세손(世孫)을 보호하였다. 1776년 『영조실록 英祖實錄』과 『경종수정실록 景宗修正實錄』 편찬의 실록청 총재관(實錄廳總裁官)을 겸직하였고, 다음해 동지사(冬至使)로 부연(赴燕),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다시 우의정으로 세자사부(世子師傅)를 겸하였다. 1791년 영의정에 이어 영중추부사로 치사(致仕)하고, 봉조하

(奉朝賀)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철저한 시파로서 정조(正祖)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영조실록 英祖實錄』 / 『정조실록 正祖實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 『국조인물고 國朝人物考』 / 『일성록 日省錄』 / 『상신고략록 相臣考略錄』

조운구 (趙雲衢)

1791년(정조 15)에 임금이 정언(正言) 이명연(李明淵)과 김달순(金達淳)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처음 대성(臺省)에 올랐으니 새로 수령에 임명될 사람 가운데 잘못된 자들을 규찰(糾察)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명연이 횡성현감(橫城縣監) 조운구(趙雲衢)의 파직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조운구가 파직당하였다.

『정조실록 正祖實錄』 정조 15년 12월 23일조

조지빈 (趙趾彬)

조지빈(趙趾彬)은 영조조(英祖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1725년(영조 1)에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 이의천(李倚天)이 “조지빈은 성격이 본래 광패(狂悖)하여 효경(梟獍)과 같습니다. 충량(忠良)을 장해(戕害)하는 일에 있어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담당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입을 빌어 지친(至親)에게 양갈음을 하였습니 다. 아버지의 권세를 의지하고 부옹(婦翁)의 세력을 의뢰하여 무뢰배들을 농락하여 뇌물을 받아 사복(私腹)을 채웠으며, 음모(陰謀)와 비계(秘計)가 다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일찍이 헌직(憲職)에 있었을 때 반드시 단의(緞衣)의 금령(禁令)을 내렸는데, 이를 범한 여항(閭巷)의 여인이 붙잡히면 제 집에 가두어두고 밤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거리에서 성장(盛粧)한 소녀(少女)를 만나면 말을 길가에 세우고 겸인(僉人)에게 호령하여 그로 하여금 그 소녀의 의상(衣裳)을 다 벗기게 하였으니, 백성들이 조지빈이 오는 것을 보면 반드시 ‘조대당(趙大倘)이 온다’고 하였습니 다. 횡성의 임소(任所)에 있을 때에는 출가

(出嫁)하지 않은 처녀를 본현(本縣)에 잡아두고 그 자색(姿色)이 아름다운 것을 흠모하여 잠시 다모(茶母)의 역사(役事)에 차출하고는 위협하여 간음하려는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정절을 품고 자결[自決]하게 할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패란하고 추악한 일은 종래 역적 허견(許堅)과 민장도(閔章道)가 즐겨 저지른 일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그것은 무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횡성현감의 직(職)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영조실록 英祖實錄』

최세성 (崔世省)

최세성(崔世省)은 연산군(燕山君) 시기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1502년(연산 8)에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이승로(李崇老)가 “횡성현감인 최세성은 인품이 용렬하므로 수령에 적합하지 않으니 고쳐 바로잡기를 청합니다”라는 것이 있다.

『연산군일기 燕山君日記』

최운우 (崔雲遇, 1532 ~ 160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강화(江華)이고 자는 시중(時中)이며 호는 향호(香湖) 또는 학구(學衢)이다. 아버지는 담(澹)이며, 어머니는 진주강씨(晉州姜氏)로 후지(後智)의 딸이다. 성장하여 숙부에게 입양되었다.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552년(명종 7) 사마시(司馬試)에 생원(生員)으로 합격한 뒤 천거(薦舉)로 입사(入仕), 여러 관직을 거쳐 횡성현감(橫城縣監)에 이르렀다. 이이(李珣)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일찍이 도의(道義)의 사권을 나누며 증유하였고, 영남에는 서원이 많으나 강화에는 없다 하여 1556년 함헌(咸軒)과 함께 강화에 오봉서원(五峰書院)을 창건하였다. 여러 문인들과 오대산·금강산 등

명승지를 돌며 「유산록 遊山錄」을 남기는 등 풍류적 일면도 있었다. 특히, 이이와는 각별한 교분을 가져 문집에는 그와 연관된 글들이 많이 있다. 저서로 『香湖文集』 2권 1책이 있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 『사마방목 司馬榜目』 /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 『국조인물고 國朝人物考』 / 『국조인물지 國朝人物志』 / 『청선고 淸選考』

『향호문집 香湖文集』: 최운우(崔雲遇)의 시문집으로 2권 1책이고 목판본이다. 이 책은 1905년 후손 대수(大洙)가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김기만(金箕晩)·윤정현(尹定鉉)이 쓴 연보가 있고, 권말에 이만규(李晩奎)·김소락(金紹洛)·김대수의 발문이 있다. 권1은 시 17수, 소(疏) 1편, 도산문현록(陶山門賢錄)·가장(家狀)·묘표 각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몇 수 되지 않으나 「호정망해 湖亭望海」·「호정조어 湖亭釣漁」 등 서정적 취향이 짙은 작품이 많다. 그의 시에 대하여는 이항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書)에는 이이·성혼(成渾)·정탁(鄭琢) 등과 주고받은 것이 각 1편씩 수록되어 있다. 그 중 특히 이이에게 보낸 편지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 어지러운 국가정세를 염려하는 우국개세(憂國慨世)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잡저에는 오대산과 금강산 기행을 적은 「오대산록 五臺山錄」과 「금강산록 金剛山錄」이 있다. 「금강산록 金剛山錄」은 유점사(楡岾寺)·원통암(圓通庵)·청련암(靑蓮庵)·비로봉(毗盧峰) 등의 명승지를 돌아보며 느낀 경관의 아름다움과 저자의 학자로서의 마음가짐이 묘사되어 있다. 보록에는 저자와 종유하던 문인들이 그에게 보낸 시와 서(書)를 실고 있는데, 앞에 거론된 인물 외에 황여일(黃汝一)·박지화(朴枝華)·양사언(楊士彦) 등의 이름이 보인다.

최효달 (崔孝達)

1782년(정조 6)에 이조판서(吏曹判書) 이명식(李命植)이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있던 최효달(崔孝達)이 불법 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여 파직시키기를 요청하여 최효달은 파직당하였다.

『정조실록 正祖實錄』 정조 6년 5월 10일조

한 담 (韓 潭)

한담(韓潭)은 중종조(中宗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있던 인물이다. 그는 1520년(중종 15)에 인물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헌부(司憲府)에 의해서 탄핵을 받았다.

『중종실록 中宗實錄』

홍계원 (洪繼元)

광해군(光海君)때 횡성현감(橫城縣監)으로 있던 홍계원(洪繼元)은 많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온 경내에 원망이 자자했으며, 백성들은 편히 살지 못하였음이 보고되어 1611년(광해군 3)에 양사(兩司)가 그의 파직을 청하게 되었다.

『광해군일기 光海君日記』 광해군 3년 9월 3일조

홍 영 (洪 泳)

홍영(洪泳)은 선조조(宣祖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전 병조판서(兵曹判書) 홍여순의 족척(族戚)으로써 그의 힘을 얻어 횡성현감이 되었다.

『선조실록 宣祖實錄』

홍흥조 (洪興祖)

홍흥조(洪興祖)는 효종조(孝宗朝)에 횡성현감(橫城縣監)을 지낸 인물이다. 그가 횡성현감으로 있을때 관내에서 남편을 살해하는 변이

일어났는데 이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간원(諫院)에서 그를
치죄하기를 청하였다.

『효종실록 孝宗實錄』

이외 군선생안에 포함된 인물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극선 (康克善) 강문성 (姜文星) 고흥운 (高興雲) 구시민 (具時敏)
 구존연 (具存淵) 김 도 (金 道) 김만억 (金萬億) 김미성 (金彌性)
 김병흥 (金炳興) 김양정 (金養正) 김용려 (金用礪) 김의권 (金義權)
 김이의 (金以義) 김익열 (金益烈) 김일좌 (金日佐) 김 학 (金 謫)
 남대하 (南大夏) 남 읊 (南 揖) 노경춘 (盧敬春) 민 소 (閔 沼)
 박 림 (朴 琳) 박세필 (林世弼) 박지형 (朴之衡) 박 형 (朴 亨)
 박혼원 (朴混元) 박휘등 (朴彙登) 박희무 (朴希茂) 박희열 (朴希說)
 배 숙 (裴 橨) 백봉린 (白鳳麟) 변계운 (邊季胤) 서필수 (徐必修)
 선국형 (宣國衡) 선후덕 (宣厚德) 성하창 (成夏昌) 신백주 (申伯周)
 신성시 (愼聖時) 신영균 (申英均) 심 관 (沈 鑰) 심 광 (沈 鐫)
 심 옥 (沈 郁) 심응록 (沈應祿) 심익진 (沈益晉) 심 준 (沈 竣)
 심흥택 (沈興澤) 오시익 (吳時益) 오정상 (吳挺相) 유광택 (柳光宅)
 유동모 (柳東模) 유 상 (兪 桑) 유언이 (兪彦適) 윤 거 (尹 珺)
 윤동준 (尹東浚) 윤득상 (尹得商) 윤학동 (尹學東) 이 고 (李 稠)
 이덕형 (李德衡) 이도원 (李度遠) 이범용 (李範用) 이어익 (李汝益)
 이연희 (李延璿) 이은경 (李殷卿) 이 저 (李 著) 이 침 (李 瞻)
 이한창 (李漢昌) 이희중 (李喜中) 임 발 (任 鏞) 임익원 (任翊元)
 장덕소 (張德紹) 장활세 (張活世) 정도휘 (丁道徽) 정래승 (鄭來升)
 정수기 (鄭壽耆) 정수주 (鄭守柱) 정시대 (鄭始大) 정 유 (鄭 楙)
 정익수 (鄭益壽) 조공빈 (趙孔賓) 조기풍 (趙基豐) 조무훈 (曹武勳)
 조정하 (曹挺夏) 주 격 (朱 格) 최세금 (崔洗金) 최 송 (崔 嵩)
 하일청 (河一淸) 한 개 (韓 槩) 현광우 (玄光宇) 홍상직 (洪相直)
 홍시범 (洪時範) 홍 표 (洪 彪) 홍하상 (洪夏相) 황익중 (黃益中)
 황치중 (黃致中)

(7) 寓居·謫居

<高麗時代>

고민후 (高旻厚)

<朝鮮時代>

김재로 (金在魯, 1682 ~ 1759)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풍(淸風)이고 자는 중례(仲禮)이다. 호는 청사(淸沙) 또는 허주자(虛舟子)이고 우의정 구(構)의 아들이다. 1702년(숙종 28)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710년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설서·검열·지평·수찬 등을 지냈다. 1716년 부수찬으로 선현(先賢)을 무고한 소론의 유봉휘(柳鳳輝)·정식(鄭弼)을 탄핵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1718년 헌남·동부승지·대사간을 지내고, 이듬해 전라도관찰사·대사성·승지를 거쳤으며, 전라도균전사(全羅道均田使)로 양안(量案 : 농민층의 토지대장)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1720년 경종(景宗)이 즉위하자 호조참의(戶曹參議)·승지(承旨)·부제학(副提學)·이조참의(吏曹參議) 등을 지내고, 이듬해 대사간을 거쳐 병조참판(兵曹參判)과 예조참판(禮曹參判)을 지내고, 개성유수가 되었다. 1721 신축사화(申丑士禍)로 말미암아 파직되고 울산으로 귀양갔으나 1724년 영조(英祖)가 즉위하자 풀려나 이듬해 대사간에 기용되었다.

부제학으로 있을 때 양사(兩司)와 더불어 소론측의 유봉휘·이광좌(李光佐) 등 5인을 죄줄 것을 청하고, 소론의 김일경(金一鏡)의 무고 사실을 상소하여 사형하게 하였다. 이어 이조참판(吏曹參判)·좌빈객(佐賓客)·예조참판(禮曹參判)을 역임했다. 1727년에는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재등장하게 되자 다시 파직되었다가 이듬해인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충주목사로 호서안무사(湖西安撫使)를 겸

하여 난의 수습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어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기용되었으나 당쟁을 조성한다하여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되어 지돈녕부사 겸 수어사(知敦寧府使兼守禦使)를 지내고,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 실록도청당상(實錄都廳堂上)을 겸직하여 『경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731년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있으면서 신임사화로 죽은 노론의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의 복관(復官)을 상소하여 이를 달성시켰다. 그 뒤 우의정(右議政)을 거쳐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다. 1737년에도 당파싸움을 벌여 탕평책을 어긴 죄로 다시 파직되었다가 곧 복직되었고, 이듬해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주청사가 되어 청나라에 가서 새로 간행된 『명사 明史』를 얻어왔다. 1740년 영의정(領議政)에 올라 1758년 관직을 떠나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여년간 영의정(領議政)을 지냈고, 그밖에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역임함으로써 그 세도가 매우 컸다. 1741년 신유대훈(辛酉大訓)이라 하여 임인옥안(壬寅獄案)을 불사르고 특사하도록 하고, 5인의 역안(逆案)을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한 박문수와 이종성(李宗城) 등을 파직하게 하였다. 이후 소론은 관직이 추탈되는 반면 노론의 권력기반은 더욱 확고해졌다. 신임사화로 희생된 노론 4대신에게 시호를 내리고 홍계적(洪啓迪)·김운택(金雲澤)·조성복(趙聖復)·이홍술(李弘述) 등은 증관(贈官)하였다. 영조 초기에 탕평론을 주장한 바 있으나, 결국 노론의 선봉에서 영구적인 구실을 하였다. 또한, 영의정 재임기간 중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를 겸하여 한천이혁절목(翰薦釐革節目) 10조의 제정과 과거의 의정절목(議定節目) 8조를 제정하고 왕실의 상복제를 바로 잡는 등 치밀하게 정사를 폈다.

50여년을 관직에 있으면서 거의 절반을 상신(相臣)으로 지냈으며, 결백하고 검소한 성품으로 박식하며 예학에 깊었으며, 상하가 신망하는 재상으로서의 풍모를 지녔었다. 그리고 벼슬을 그만둔 뒤 집에 있으면서도 국사를 잊지 않았다. 영조(英祖)는 숙종(肅宗)의 뜻에 따라 그를 기용하여 아꼈으며, 수서(手書)를 내려 그의 공로를 치하하였다.

봉조하(奉朝賀)로 78세에 죽으니 영조는 그 집에 직접 조문하고 제문도 친히 지어보냈다. 죽은 이듬해 기사대신(耆社大臣)이 되고, 영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천의소감언해 闡義昭鑑諺解』와 『난여 爛餘』가 있고, 편저로는 『예기보주 禮記補註』·『청풍김씨세보』·『좌씨집선속 左氏輯選續』·『금석록 金石錄』 등이 있다.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숙종실록 肅宗實錄』 / 『경종실록 景宗實錄』 / 『영조실록 英祖實錄』 / 『뇌연집 雷淵集』

『예기보주 禮記補註』 :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인 김재로(金在魯)가 원나라의 진호(陳澹)가 지은 『예기집설 禮記集說』에서 빠진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곳은 고증을 통하여 밝힌 책이다. 30권 5책으로 목판본이고 1758년(영조 34)에 간행되었다. 권1-2는 곡례(曲禮) 상하, 권3-4는 단궁(檀弓) 상하, 권5는 왕제(王制), 권6은 월령(月令), 권7은 증자문(曾子問), 권8은 문왕세자(文王世子), 권9는 예운(禮運), 권10은 예기(禮器), 권11은 교특생(郊特牲), 권12는 내칙(內則), 권13은 옥조(玉藻), 권14는 명당위(明堂位), 권15는 상복소기(喪服小記), 권16은 대전(大傳)·소의(小儀), 권17은 학기(學記), 권18은 악기(樂記), 권19-20은 잡기(雜記), 권21은 상대기(喪大記), 권22는 제법(祭法)·제의(祭儀), 권23은 제통(祭統)·경해(經解), 권24는 애공문(哀公問)·중니연거(仲尼燕居)·공자한거(孔子閒居), 권25는 방기(坊記), 권26은 표기(表記), 권27은 치의(緇衣)·분상(奔喪)·문상(聞喪), 권28은 복문(服問)·간전(間傳)·삼년문(三年問)·심의(深衣)·투호(投壺), 권29는 유행(儒行)·관의(冠義)·혼의(昏儀)·향음주례(鄉飲酒禮)로 모두 49편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규모는 『심경석의 心經釋疑』·『근사록석의 近思錄釋義』의 예를 모방하여 경문(經文)과 본주(本註)에 의심나거나 분명하지 못한 것을 밝혔고, 본주 이외의 다른 풀이를 덧붙였다. 그리고 본주의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으며 의심이 없는 경문과 잘

못이 없는 주(註)는 보충하지 않았다. 인용된 옛날 주소(註疏)에 어떤 것은 자구를 고쳐 간명하게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자통해 朱子通解』에서 나온 것이다. 조선 초기의 권근(權近)의 『예기천견록』과 김장생(金長生)의 예설, 그리고 최석정(崔錫鼎)의 『예기유편』도 참고하여 만든 것이므로 『예기』에 대한 주석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 國朝喪禮補編①』: 홍계희(洪啓禧)의 『상례보편 喪禮補編』보다 5년 전에 간행된 책으로 김철보(金喆輔)가 쓴 소식(小識)에서는 김재로(金在魯)가 주로 봉교찬(奉教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의 열명(列名)에는 이사관(李思觀), 윤동성(尹東星), 이석희(李錫禧), 윤득우(尹得雨), 조명이(趙明履), 이철보(李喆輔), 홍계희(洪啓禧), 김재로(金在魯) 등의 이름이 보인다. 영조(英祖) 때 수교(受教)한 것만을 기록하였고 그전의 성교(聖教)는 일체 생략되었으며 1~3권은 상례보편(喪禮補編)과 대개 같고 4권에서는 주로 수교(受教)만을 편찬하였다. 5권에는 의소세손상예시(懿昭世孫喪禮時)의 수교(受教)가 주로 되었다.

『상례보편 喪禮補編』은 의소세자(懿昭世孫)의 상(喪)을 예(例)로 남기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다. 영조(英祖)때는 복상(服喪)이 많았으므로 경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되므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어 후일에 참조케 한 것이다. 특히 상례(喪禮)에 대하여 경전(經傳)의 것은 일종의 참고밖에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 더구나 왕(王)의 희노(喜怒)에 의하여 행해지므로 상례(喪禮)도 그때 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다. 현빈(賢嬪)에 대한 상사(喪事)도 정중하게 치렀으며 3세 된 의소세자(懿昭世孫)에 대하여도 이미 세손(世孫)이라는 호(號)를 내리었으므로 다른 세손(世孫)과는 달리 치상(治喪)하게 한 것을 보아도 호화롭게 행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金在魯(朝鮮)等 奉教撰, 『國朝喪禮補編①』

『금석록 金石錄①』: 영조(英祖)때에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청사(淸沙) 김재로(金在魯)가 고려조(高麗朝)로부터 조선조(朝鮮朝)에 걸친 역대(歷代)의 비문(碑文)들을 탁본(拓本)하여 모아 엮은 책이다. 원래 원편(原編) 226책, 속편(續編) 20책 합계 246책이었던 것인데 현재는 대부분이 없어지고 39책만이 남아 있다.

金在魯(朝鮮)編, 『金石錄①』

『속대전 續大典』: 1744년(영조 20) 영조(英祖)의 명(命)에 따라 찬집청(纂輯廳)을 두어 서종옥(徐宗玉), 김약로(金若魯),李宗성(李宗城), 이일제(李日躋), 김상성(金尙星), 구택규(具宅奎) 등이 주관하고 삼의정(三議政)의 총지휘아래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실리지 않은 『대전속록 大典續錄』·『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수교집록 受教輯錄』을 『경국대전 經國大典』의 서차(序次), 목록(目錄)에 따라 분휘합류(分彙合類)하여 만든 법전으로 구택규(具宅奎) 등의 교정을 거쳐 1746년에 인반(印頒)되었다.

본서의 편찬은 『속오예의 續五禮儀』·『대훈 大訓』과 함께 중흥(中興)을 꾀하던 영조(英祖)의 웅략(雄略)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본서 편찬의 작업은 찬집청(纂輯廳)이 두어지기 전인 1740년경부터 진행되었다. 본서의 체제는 『경국대전 經國大典』을 따랐다.

金在魯(朝鮮)等受命編, 『續大典』

『청풍김씨세보 淸風金氏世譜』: 1750년(영조 26) 김재로(金在魯) 등이 편찬 간행한 청풍김씨족보(淸風金氏族譜)로 세 번째 수보(修譜)이다. 1638년 김욱(金旭), 김인(金寅) 등에 의해 처음으로 족보가 편찬되었고, 1715년 김두명(金斗明), 김유(金樑), 김고(金槲) 등에 의해 수보(修譜)된 이후 본서는 김성응(金聖應)이 중심이 되어 김재로가 수보(修譜)한 것이다. 권수(卷首)에 구서말(舊序跋)과 신간서(新刊序), 범례, 총목록, 천자문 목록이 있고 권1-4가 세계도(世系圖)이다. 구서(舊序)는 1637년 김욱(金

堉)이 쓰고 구발(舊跋)은 1638년 김인(金寅)이 썼으며, 중수서(重修序)는 1715년 김유(金樸)이 썼고, 신간서(新刊序)는 1750년 김재로(金在魯)가 쓴 것이다.

金在魯(朝鮮)編, 『淸風金氏世譜』

심지한 (沈之漢, 1596 ~ 1657)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자장(子章)이며, 호는 창주(滄洲)이다. 탁(倬)의 아들이며, 정엽(鄭曄)의 문인이다. 광해군(光海君) 때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자 아버지와 함께 이를 반대하고, 1618년(광해군 10) 동학유생(東學儒生)으로 조경기(趙慶起) 등 8인과 함께 폐모론(廢母論)을 주도하는 이위경(李偉卿)·정조(鄭造)·윤인(尹認) 등을 극형에 처하도록 상소하였다가 아버지와 함께 문외출송(門外黜送)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뒤 횡성(橫城)으로 낙향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풀려나 1624년(인조 2)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고, 1629년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를 지내고, 뒤에 한림(翰林)에 들어갔다. 그 뒤 사서·정언·부수찬·지평 등의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1636년의 병자호란(丙子胡亂) 전에 청나라와 절교하고 자강책(自強策)을 강구하여 대비하자고 주장하였으며, 태인현감으로 있을 때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만났다. 호란(胡亂) 후에는 종묘령(宗廟令)을 거쳐 1640년 평창군수가 되었으나, 태인현감 때 왕명 사신을 쫓아버렸다는 혐의를 입어 체직되었다. 1647년 다시 부교리·교리·겸찬독(兼贊讀) 등의 요직을 거쳤다. 1650년(효종 1)에 응교로서 『인조실록 仁祖實錄』 편찬에 참여하고, 이어 집의로 억울하게 귀양간 유계(兪槩)의 무죄를 상소하였다. 1653년 홍처후(洪處厚)와 함께 「무일편 無逸篇」과 「칠월편 七月篇」을 베껴 병풍으로 만들어 왕에게 바쳐 효종의 충애를 입었으며, 이어 승지(承旨)가 되었다. 호조(戶曹)·병조(兵曹)·공조(工曹)의 참의(參議)를 역임하고 연안부사로 있다가 고향에 돌아가

죽었다. 특히 『주역』 등을 즐겼으며 『시전』·『서전』·『대학』·『주례』의 골자를 따서 『사도 四圖』를 편찬하여 효종에게 바쳐 호피(虎皮)를 하사받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창주집』이 있다.

『인조실록 仁祖實錄』 / 『효종실록 孝宗實錄』 / 『국조인물고 國朝人物考』 /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창주집 滄洲集』: 조선 중기의 문신 심지한(沈之漢)의 시문집으로 4권이고 별집 합 3책이며 활자본이다. 6대손 낙청(樂淸)이 편집하였고, 7대손 노삼(魯三)이 1863년(철종 14)에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4 끝에 신응조(申應朝)의 발문이 있으며, 별집 책머리에 1720년(경종 즉위년)에 쓴 정호(鄭澍)의 서문이, 끝에 1706년(숙종 32)에 권상하(權尙夏)가 쓴 발문이 있다. 권1은 부(賦) 6편, 사(辭) 2편, 시 210수, 권2는 소차(疏筭) 9편, 권3은 소차 9편, 계(啓) 3편, 서(書) 3편, 서(序) 3편, 제발(題拔) 2편, 권4는 표전(表箋) 6편, 응제록(應製錄) 18편, 잡저 8편, 묘지·행장·제문 각 1편, 고문(告文) 편, 부록에 저자의 행장과 묘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집은 월괘도설(月卦圖說)이다. 부 6편과 사 2편에서 문장 솜씨를 볼 수 있으며, 시 200여수는 「대전춘첩 大殿春帖」·「대전단오첩 大殿端午帖」등 궁내와 관련된 시 5, 6수 외에는 감회·자연·차운·행려(行旅)·이별 등의 주제가 대부분이다. 소의 「계축소 癸丑疏」는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유폐를 주장한 이위경(李偉卿) 등의 처벌을 주장한 것이고, 「진사계도겸진민막소 進四戒圖兼陳民瘼疏」는 1653년(효종 4)에 올린 소인데, 왕명에 의하여 제진(製進)한 「빈풍칠월지도 鬮風七月之圖」·「주서무일지도 周書無逸之圖」·「숭경외지도 崇敬畏之圖」·「십이황정지도 十二荒政之圖」·「자사육조지도 刺史六條之圖」등이 함께 실려 있다. 권4의 글은 왕을 대신하여 지은 표전·불윤비답(不允批答)·기우제문 등 관각문(館閣文)이 대부분이다. 별집의 「월괘도설」은 『주역 周易』에 대한 연구서로서, 12개월을 태(泰)·대장(大壯)·쾌(

夫)·건(乾)·구(垢)·둔(遯)·비(否)·관(觀)·박(剝)·곤(坤)·복(復)·임(臨)의 순으로 기술하였으며, 괘사(卦辭)·단사(象辭)·효사(爻辭)에 주자(朱子)의 본의(本義)와 정자(程子)의 전(傳), 호씨(胡氏)·서씨(徐氏) 등 제가의 주를 덧붙이고 자신의 견해도 간혹 붙였다. 권상하(權尙夏)는 「월례도설」을 평하기를 “견해가 정밀하고 설명이 해박하다. 『주역 周易』에 깊은 연구가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저술이다.”라고 극찬하였다.

안삼교 (安響橋, 1718 ~ 1774)

둔내면(屯內面) 삼교(響橋) 3리 해발 800고지에 자리하고 살았다. 이 마을 이름을 삼교로 정할 정도로 존경과 추앙을 받았다. 그는 1718년 충주(忠州) 가흥(可興)에서 안중관(安重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본 이름이 안석경(安錫敬)이다. 순흥 안씨(順興安氏)이고 자(字)는 숙화(淑華)이며 호(號)는 완양(完陽), 響橋(삼교), 탁이(卓異), 산인 등으로 4개인 바 그중 가장 애호하던 호가 삼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살까지는 서울, 홍천(洪川), 제천(堤川), 원주(原州) 등지로 부친을 따라 다녔다. 이후 아버지 안씨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가흥으로 하향한 후 8년간을 서울에서 살았다. 서울 살림은 가난했으며 이인좌의 난을 피할때까지 고난을 겪었다.

1736년에 아버지 안씨가 공조좌랑(工曹佐郎)이 되어 상경한 후 16년간 즉 그가 34살이 될 때까지 안정되고 평탄한 생활을 서울에서 보낼 수가 있었다. 그 후 3년간 아버지의 상을 치루는 역막생활을 끝내고 원주 손곡리(蓀谷里)에서 잠깐 살다가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로 이사온 후 여생을 끝마쳤다. 1767년인 49세에 그는 유림으로 천거받지만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1768년에 둔내면 삼교리에서 은거생활을 시작하여 전답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공부를 했고 뚜렷하게 수학한 스승은 없었으며

이병연(李秉淵), 김준(金俊)과 같은 선배들과 강론했다. 학파로는 노론파에 소속했으나 독자적으로 학문을 수립했으며 벼슬을 포기할 정도로 파벌이나 당론(黨論)을 싫어했다.

특히 그는 힘이 장사여서 호랑이의 힘을 제압할만 했다고 전해진다. 거주하는 곳이 산골이어서 호랑이가 종종 나타나 마을의 개를 잡아먹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람까지 해를 입을까 걱정할 정도였다. 그는 해를 두려워하는 산 마을사람들에게 “호랑이는 짐승 중에도 영특한 동물이니 먼저 사람쪽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조금도 두려울게 없다.”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그의 말은 상당히 주효해서 호랑이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지어준 주문을 외워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전해진다. 이로 인해 호환(虎患)이 없었는데 어느 날 밤 그가 변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호랑이가 변소로 들어와 안장사의 엉덩이를 핥았다고 한다. 그는 겁싸게 호랑이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무릎에 끼고 앉아 불일을 보았고 힘에 눌린 호랑이는 꼼짝 못하고 용을 쓰는데 안장사의 나막신이 달각 달각 소리를 냈을 정도였다고 한다. 용변이 끝났을 때 거의 질식상태의 호랑이를 변소에서 끌어내어 숲 속으로 쫓아버렸다고 전해진다.

그는 영조(英祖)의 아들인 장현세자(莊顯世子)와 북벌의 대계(大計)를 가져보았으리 만큼 뜻과 힘이 컸다. 그러나 영조의 미움을 샀던 세자가 뒤주 속에서의 억울하게 죽은 이후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초야에 묻혀 세상을 마쳤다.

그는 이태백(李太白)의 시와 두보(杜甫)의 시를 좋아했고 「손오병가지서(孫吳兵家之書)」에도 능통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삼교를 찾아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백과사전과 같은 두뇌의 소유자였다.

그는 또한 축지법(縮地法)을 쓰는 사람으로 횡성에서 서울을 하루에 갔다 왔다는 전설도 전해진다. 어느날 아침 그의 부인이 점심걱정을 하니 “오늘은 한양에 가서 먹게 될터이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은 즉 “한양을 당일치기하는 판에 어느 틈

에 집에 와서 점심을 먹겠느냐?”고 하더니 쓴살같이 사립문을 나서
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저녁때가 되어 찬바
람을 몰고 돌아온 안삼교는 이마에 땀이 축축이 나 있었다. “정말 서
울에 다녀 오신거요”하니 그의 손에는 부인에게 줄 신발 선물이 들려
있었다 한다.

어느 해 합천 해인사(海印寺)에서 큰 불이 났는데 이때 그는 봉복
사에 놀러와 주승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저런 불이 났군
큰 불이 났어” 하는 것이었다. 주지는 안삼교가 보통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어디서 불이 났단 말이요?” “이 근처와 다른 곳
이요.” “합천 해인사 본당(本堂)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 말이 끝나
자 마자 봉복사 뒤안으로 가더니 물 한 동이를 퍼서 남쪽을 향해서
뿌리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다. 한참후에 자리에 돌아온
그는 “이젠 진화가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비관천지법(悲觀天地法)과
천리안(天里眼)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효성이 지극한 인간이기도 했던 그는 아버지가 눈동자에 항상 핏
줄이 서서 고생을 하는데 누가 말하기를 뱀해에 난 분이라 호랑이
눈썹을 구해다가 태워서 바르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넌지시 알려
주었다. 물론 자기를 골려주기 위한 영똥한 소리인줄 알면서도 그럴
듯한 처방이라고 해서 당장 산으로 가 호랑이 눈썹을 뽑아왔다고 전
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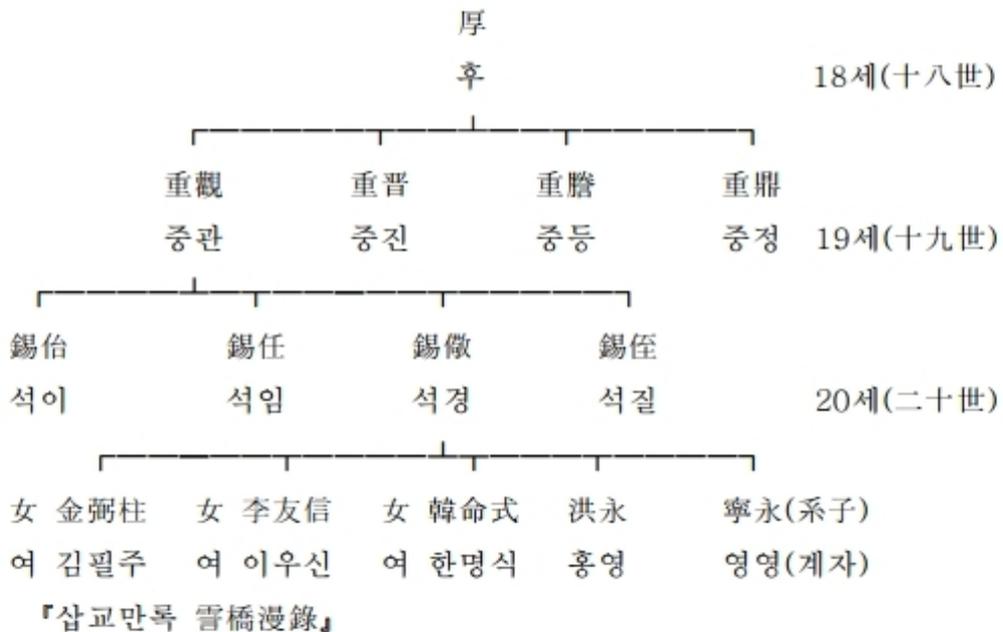
만년에는 지방 농토 개발과 산업부흥에 힘을 썼으므로 죽은 후에
부락민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
다.

그의 인생관은 선비라면 당행지도(當行之道)가 있어야 되며 어떤
곤궁한 처지라도 자득지책(自得之策)을 가지고 천지간(天地間)에 부
조리 없는 정도(正道)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저술한 만록(漫錄) 18편이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성을 긍
정하면서도 인간의 치부와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그는 북벌론

을 통해 민족의 자주의식(自主意識)과 주체의식(主體意識)을 강조하였으며 중국 주자학(朱子學)의 명분론을 부인하는 서술을 남겼다. 그의 저작 속에는 도시 거지들의 생활상과 상인들의 삶 그리고 벼슬하다가 낙향한 선비들의 생활상 등에 대해 비판의식을 가지고 서술되고 있다.

* 안삼교선생의 인물론은 『횡성의 맥』, 『강원도지』, 『횡성군지』 등에 안삼교(安雪橋)와 안운교(安雲橋)로 나누어 다른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같은 사람임을 밝힌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삼교만록 雪橋漫錄』에 기록된 안삼교선생의 족보를 수록해 둔다.



양성지 (梁誠之, 1415 ~ 1482)

1415년(태종 15)에 태어나 1482년(성종 13)에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다. 본관은 남원이고 자는 순부(純夫)이며, 놀재 외에 송파(松坡)라 자호(自號)했으며, 고려(高麗) 현종(顯宗)때 양능양(梁能讓)의 12대손이다. 양능양(梁能讓)은 고려 현종대의 종실(宗室)인 좌복야(佐僕射) 왕림(王林)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그의 관직은 병부시랑(兵部侍郎)에 이르렀다. 양성지의 10대조 양득황(梁得黃)은 병부의랑(兵部議郎)을 지냈고, 양성지의 고조(高祖) 양준(梁俊)은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계주(成均祭酒)를 지냈다. 양성지의 증조(曾祖) 양우(梁祐)는 벼슬이 판도판서(版圖判書)에 이르렀으나 고려(高麗)가 망하자 은둔하여 동방의 백이(伯夷)·숙제(叔齊)라는 세칭(世稱)을 얻었다고 한다. 양성지는 6세 때 글을 배우기 시작해 9세에 이르러 글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총명하였다. 1441년(세종 23) 26세때 진사·생원 양시(兩試)에 합격했고, 이어 문과에 제2인으로 급제해 첫 벼슬을 경창부승(慶昌府丞)이 되었으며, 곧 집현전으로 뽑혀 들어갔고, 이어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한 때 사간원좌정언(司諫院左正言)이 되었으나, 다시 집현전으로 돌아가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세종의 총애가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출근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기주관(記注官)·고려사수사관(高麗史修史官)을 겸직해 고려사수찬(高麗史修撰)에 참여했다. 집현전 부교리(副校理) 시절인 1449년(세종 31)에 평안도(平安道)·함길도(咸吉道)에 걸치는 변경개척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축성(築城)을 중지하라는 「청파행성겸비남방 請罷行城兼備南方」 상소문을 올려 당시의 중신인 황보인(皇甫仁) 등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 방면에 일가견이 있음을 과시했고, 이듬해에는 「비변십책 備邊十策」을 건의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1451년(문종 1)에는 「동국양계일체비어 東國兩界一體備禦」 소(疏)를 올려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방어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있다. 단종(端宗)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논군도 論君道」 소를 올렸다. 문

종이 일찍이 “양성지가 나라일을 걱정하는 것은 변계량(卞季良)의 사람 됨과 같다”고 피력한 것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국충정을 담은 상소를 서슴치 않고 올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1453년 왕명(단종 1)에 의해 조선도도(朝鮮都圖)를 작성했고, 이듬해 황극치평도(皇極治平圖)를 찬진(撰進)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자 「논군도십이사 論君道十二事」 소를 올렸다.

이 해(1455)에 「팔도지리지 八道地理志」를 편찬했고, 평안도 경차관(敬差官)이 되어 여연(閔延)·무창(茂昌)·우예(虞芮) 등 3읍의 백성을 철거시키는 일을 맡아 했으며, 이에 따라 「평안도편의십팔사 平安道便宜十八事」를 상소했다. 왕은 가납(嘉納)했고 원종공신이등(原從功臣二等)에 책정되었다. 이듬해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올린 「편의이십사사 便宜二十四事」는 춘추대사(春秋大射 : 춘추에 대사례를 행해 사기를 진작시킬 것), 증치오경(增置五京 : 경도(京都)를 상경(上京)으로 하고 한성부(漢城府)·개성부(開城府)를 중경(中京), 경주를 동경(東京), 전주를 남경(南京), 평양을 서경(西京), 함흥을 북경(北京)으로 하자는 안) 외에 의행관례(議行冠禮 : 관례를 행하자는 것), 정복색(定服色 : 복색을 정하자는 것), 문묘종사(文廟從祀 : 우리나라 선현을 더 많이 문묘에 종사하자는 안), 문취입사(文崔立祀 : 우리나라에 목면 씨앗을 가져온 문익점과 화포법(火砲法)을 원(元)에서 배워 온 최무선의 사당을 지어 그 공에 보답하자는 것) 등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구상이 다양하게 개진되어 있다.

1456년(세조 2) 6월에 집현전이 폐지되고 놀재(訥齋)는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으로 옮겼다. 이보다 앞서 놀재(訥齋)는 임금의 대신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일, 자주 대신의 집에 다니는 일, 그리고 세자와 훈신들이 어울려 밤중에 대신의 집을 드나드는 일 등을 충간(忠諫)하고 있는데, 이는 세조(世祖)의 왕위찬탈과 사육신사건 등으로 진행된 당시 정국의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어서 흥미롭다. 놀재(訥齋)는 숙위금병(宿衛琴兵)이나 변진장사(邊鎭將士)에 이르기까지 왕이 술을 내리는

일·잔치를 베푸는 일 같은 것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명나라에서 조선에 국서(國書)를 보낼 때 왕이라 일컫기도 하고 경(卿)이라 일컫기도 하더니 문중 때부터 이여(爾汝 : 너)라고 부르니 통분스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하면서 명에 항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457년(세조 3) 3월에 판서운관사(判書雲觀事)·직보문관(直寶文館)·지제교(知製敎)로서 「편의십이사」를 상소했다. 어경연(御經筵 : 임금의 경연에 나와 성학공부를 열심히 할 것), 장국서(藏國書 : 서적을 알뜰히 보관할 것), 후풍속(厚風俗 : 윤리도덕을 중히 여겨 양속을 진작시킬 것), 명호적(明戶籍 : 호적을 확실히 할 것), 실의창(實義倉 : 흉황에 대비한 곡식 비축을 충실히 할 것), 태용관(汰冗官 : 쓸데없는 벼슬아치는 도태시킬 것) 등이었다. 이어 10월에도 「편의사사 便宜四事」를 상소했다. 대행둔전의창수식(大行屯田義倉收息 : 군사에 있어 둔전법을 확대 실시하고 의창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장리(長利)를 본받아 수식(收息)하되 5년 한도로 할 것), 구처총통위가정변상군사(區處銃筒衛加定番上軍士 : 총통위의 변상군사를 늘일 것), 습견습방패(習杖習防牌 : 군사훈련을 엄히 할 것) 등 주로 군사에 관한 것이었다. 세조는 눌재(訥齋)의 이러한 빈번한 건의에 대해 “네가 나라일에 마음을 두고 있어 알게 되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내가 심히 가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했고, 또 “양성지는 비상한 사람이다.”라 했다. 세조 5년(44세)에 『명황계감 明皇戒鑑』을 번역하고 『의문류취 醫文類聚』를 교열했으며, 이듬해 가선대부로 동지춘추관이 되어 『손자주해 孫子注解』를 교정하고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1463년(세조 9)에 최항(崔恒) 등과 함께 왕명으로 『동국통감 東國通鑑』을 찬진했고, 동국지도도 만들었다.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서 홍문관(弘文館)의 설치를 건의해 받아들여졌고, 눌재(訥齋)는 제학(提學)이 되었다. 이듬해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서 「청과방납 請罷防納」소를 올렸다. 방납이란 공물 납부를 대행함으로써 중간 이윤을 취하는 행위이다.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이점도 있지만 폐단이 많았던 것 같

다. 눌재는 이러한 방납제를 폐지하기를 건의했다. 그는 또 「청전강겸강사학 請殿講兼講史學」 소를 올려 전강(殿講)에 경학만 할 것이 아니라, 사학도 하자는 건의를 했다. 이듬해에는 「군정십책 軍政十策」을 상소했다. 엄군법(嚴軍法 : 군법을 엄히 할 것), 홀군호(恤軍戶 : 군호를 돌볼 것), 심군정(審軍情 : 군의 정보를 살필 것), 실군액(實軍額 : 군대의 정원을 충실히 할 것), 간군령(簡軍令 : 군의 명령계통을 간략하게 할 것), 정군제(定軍制 : 군제를 정비할 것) 등이다. 이 해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세조는 몹시 신임을 두었던 모양으로 사정전(思政殿)에서 “양성지는 나의 제갈량이다. 다만 아직 공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이다.”라 했다고 괴에 김수온(乖厓 金守溫)은 「남원군정안 南原君政案」에서 증언하고 있다.

1465년(세조 11)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가 되고 「권농사사 勸農四事」 소를 올렸으며, 이 해에 “헌부(憲府)는 나라의 귀와 눈이다.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백관(百官)의 기강이 무너진다. 내가 내 경(卿)을 그 자리에 등용하는 것은 백관의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해서이다.”라는 세조의 격려와 함께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오륜록 五倫錄」을 찬수(撰修)했고, 「군국편의십사 軍國便宜十事」를 상주(上奏)했다. 의순장(議巡將 : 순장을 문무이원(文武二員)으로 함께 보낼 것), 견종친어육읍(遣宗親於六邑 : 종친을 경주·전주·평양 등 6읍에 파견할 것), 서용양계급제주자제(叙用兩界及濟州子弟 : 평안·함길 양도와 제주도의 젊은이를 등용할 것) 등이다. 이 해에 올린 「제서찬집시청병찬사기병서지도 諸書撰輯時請并撰史記兵書地圖」 소는 서적 간행 때 『사기 史記』와 병서·지도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건의이고, 「서적십사 書籍十事」는 국가에서 발간하는 실록 등 서적에 관해 간행·장관·장서 등을 논하고 있다.

1466년(세조 12)에 발영시(拔英試)에 급제하였으며, 이듬해인 1467년(세조 13)에 「해동성씨록 海東姓氏錄」을 찬진했고, 북방의 방어책을 개진한 「북방비어십팔책 北方備禦十八策」을 상소했고, 이시에(李施愛)난의 평정을 칭송하는 「평삭방서 平朔方序」를 썼다. 1469년(예종 1)에

지충추부사·홍문관제학·춘추관사를 겸직하여 한명회(韓明會)·최항 등과 『세조실록 世祖實錄』 편찬을 시작했다. 이어 성종이 즉위하자 「편의십육사 便宜十六事」를 상소했다. 근성학(勤聖學 : 성학을 부지런히 닦을 것), 근정인(近正人 : 올바른 사람을 가까이 할 것), 명상벌(明賞罰 : 상주고 벌주는 것을 밝게 할 것), 신용인(慎用人 : 사람 쓰는 것을 신중히 할 것), 납간쟁(納諫諍 : 충간을 받아들일 것) 등 새 임금이 지켜야 할 일·펴야 할 정치를 논하고 있다.

성종 2년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가 되고 순성명량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으로 책훈되어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편의삼십이사 便宜三十二事」, 「변방사책 邊防四策」, 「편의사사 便宜四事」는 그간의 정론을 다시 상소해 신왕(新王)의 정치를 일깨운 것이고, 「교정대전사십오사 校正大典四十五事」는 세조 때 시작해서 이때(성종 2년, 1491)완성된 『경국대전 經國大典』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곳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예종실록 睿宗實錄』을 찬진했고, 삼강사략(三綱史略)도 편찬했다. 성종 5년에 「군정사사 軍政四事」를 상소했고, 연변방술도(沿邊防戍圖)를 작성했으며, 이어 양계방술도(兩界防戍圖)도 만들었다. 「병사사책 兵事四策」을 상소한 것도 이 무렵이다.

1476년(성종 7)에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이 되고, 다음해에 「사대국척원인 事大國斥遠人」소를 올려 유구국인(琉球國人)이 분에 넘치게 물자를 많이 요구하는 것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임금이 문묘에 납시어 알성(謁聖)과 아울러 친시(親試)를 베풀자 「친사문묘 송 親祀文廟頌」을 지어 바쳤다. 이어 공조판서로 제수되고 대사헌에 재배(再拜)되었으며, 다시 공조판서가 되었다.

1477년 대사헌에 재임하다가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가 되었으며, 1478년(성종 9) 임금이 성균관에 납시어 명륜당에서 경사(經史)를 강론했고 놀재(訥齋)는 「풍속학교십이사 風俗學校十二事」를 지어 올렸다. 조무예속(朝無禮俗 : 나라에 예속이 없다), 시가용귀(市價踴貴 : 물가가 뛰고 있다), 외리릉력수령(外吏陵轢守令 : 외방의 벼슬아치들이 지방수령

을 능멸한다), 여복불준화제(女服不遵華制 : 부녀자의 의복이 중국제도를 따르지 않는다), 연음사치(宴飲奢侈 : 술 마시고 사치에 흐른다), 거사참람(居舍僭濫 : 집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 문묘배향(文廟配享 : 고려의 최충·이제현·정몽주, 조선의 권근 등을 문묘에 배향해야 한다) 등이다.

1481년(성종 12) 문신 정시(庭試)에 장원을 해 송정대부(崇政大夫)로 초승(超陞)했다. 세조만년에 발영시(拔英試)에서 2등을 한 후로 두 번째의 영광이었다. 이 해에 지나간 환로(宦路)의 역정을 마감했고, 이듬해(성종 13, 1482)에 영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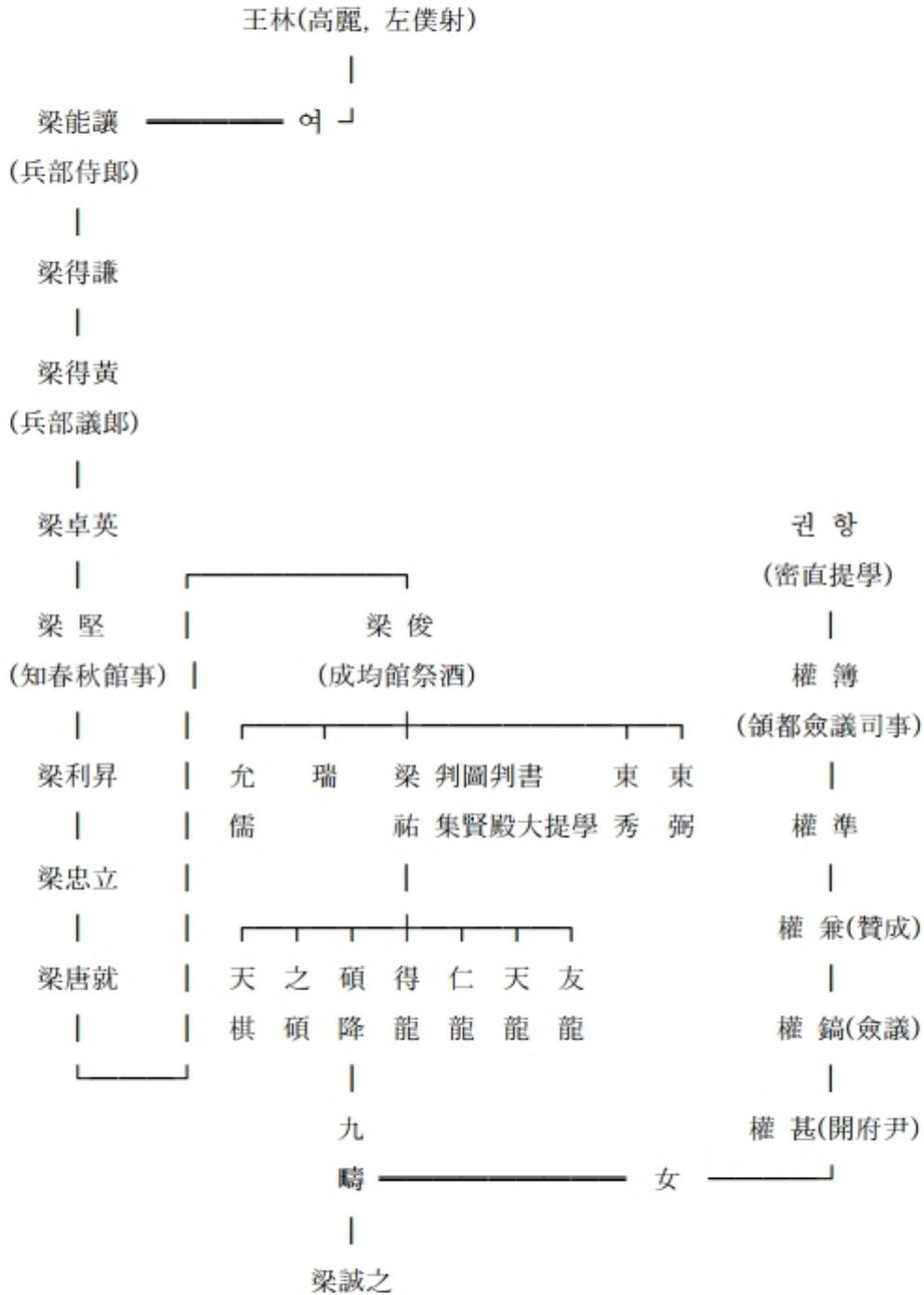
중국 고대의 요순(堯舜)만을 유일한 이상적 군주로 떠받드는 시절에 단군을 국조로 모셔 받들기를 주장하였으며, 중국의 역사만을 일반 교과서로 사용하던 시절에 우리의 동국사(東國史)를 배울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온 세상이 중국의 풍속에 휩쓸리는 때에 나라의 고유한 풍속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뿐 아니라 문신이면서도 군비에 관하여 관심이 또한 컸다. 우리 나라에는 문묘는 있으나 무묘(武廟)는 없으니 마땅히 무묘를 세워 역대의 명장을 모시자고 주장하였다. 고구려 유숙을 본받아 봄에는 3월 3일, 가을에는 9월 9일에 교외에서 사격대회를 열어 사기를 드높이고 무풍(武風)을 장려하자고 하였으니, 확실히 그 당시 사회로 보아 일대 경종이 아닐 수 없었다. 군정10책(軍政十策) 가운데서도 특히 군호(軍戶)의 중요함을 역설하여 말하기를 “신라의 풍속에는 전쟁에서 사망한 자는 벼슬을 한등 올려주어 명예롭게 하고, 그 유가족들은 관록으로써 부양하여 우대하였으니 위국진충(爲國盡忠)의 용사들이 생겨남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전사자에게는 특별한 은전이 없고 마땅히 주는 부미(賻米) 까지도 받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르고서야 어찌 군졸들의 모험심을 고취시킬 수 있으랴.”라고 하였다. 이것은 당시 군정의 여러 가지 결함을 명석하게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견도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무인을 멸시하는 폐풍은 교정되지 못한 채로 500년간을 내려왔다. 정병주의(精兵主義)를 주장하여 양보다 질에 더

옥 치중하여 군사를 뽑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험을 치러 우수한 군사를 뽑도록 하였고, 또 병역의 토대가 되는 호적의 정확성을 기할 것, 독자의 군복무면제 등을 징병에 있어 3대원칙으로 삼은 것은 그의 탁월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그중에서 비변10책(備邊十策) 같은 것은 국방에 관한 근본방침을 상술한 것이니, 이 또한 그의 대표적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의 명에 의하여 편찬한 『팔도지리지』와 『연변방수도 沿邊放戍圖』는 정확한 것으로 실제 측량한 지도가 없던 그 당시로서는 매우 위대한 공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또 농정에도 힘을 써서 국가에 건의하기를, 농사의 근본은 지력(地力)을 잘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개간사업을 일으켜서 해변과 강·육지에도 방축을 세워 수전(水田)을 만들자고 주장하였으며, 직업이 없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밖에 여가가 있을 때는 무예를 익히게 하면 일거양득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여러 가지 일이 너무나 이상에 치우친 듯 하더라도 전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민생을 위하여 소극적으로는 민폐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는 백성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여러 가지 건의를 하였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각 도·군·현에 의료기관의 설치를 주장한 것은 참으로 감탄할 만하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질병은 백성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바이니 서울에는 비록 의원들이 있어서 병을 진단하고 약을 주기도 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촌의 백성들이 한 번 질병에 걸리면 그 괴로워함은 차마 볼 수가 없으므로, 지방의 크기에 따라 의원수를 정하여 전의감에 와서 의술을 연구한 후 각 지방에 돌아가 병을 돌보게 하고, 감사로 하여금 그 성적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상벌을 주면 이처럼 좋은 방법은 없겠다고 하였다. 사회정책에 대해서도 한층 진보적인 의견을 가졌으니 예를 들면, 백정(白丁)이 양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자고 한 것과 노비에게만 노역을 치중하지 말고 균등하게 하자고 주장한 것 등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노비의

폐지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은 당시 시대로 보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풍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혁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혼례에 있어서 간단하게 하고 연찬(宴饌)에 있어서도 절약하고 검소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과거시험에 대하여도 과목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여러 번 제의하였으며, 예술방면에도 특히 깊은 이해를 가져 아악을 잘 보호하자고 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악부(樂部)와 중국 악부 외에도 번악부(蕃樂部)란 것을 따로 설치하여 일본악과 여진악을 아울러 채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또 그의 「서적12사상소문 書籍十二事上疏文」을 보면 현대적 의의를 함축한 주장으로서 도서의 보존 및 간행에 실효를 꾀하자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겠지만, 문화가 담겨 있는 서적의 보존은 사회문화의 존속을 위한 중대사명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서적은 비록 흩어져 없어진다 하여도 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문사(文史)는 한 번 유실되면 다시는 얻을 수 없으니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은 반드시 여러 권을 만들어 여러 사고(史庫)에 보관하여두자고 말하였다. 사실 조선조 500년을 통하여 학자와 문인이 허다하였고 정략가(政略家)와 모신(謀臣)도 적지 아니하였으나 대개는 정주(程朱)의 학설과 반마(班馬 : 班固와 司馬遷)의 문장을 모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의명분을 구실삼아 강경외교를 부르짖거나 인의(仁義)만으로 국방의 근본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자국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백년대계는 세우지 못할망정 일국의 정치를 마음 굳게 먹고 잘 해가자는 실제적 경륜가는 매우 드물었다. 그는 조선왕조가 한창 번성할 때에 배출한 인물 중 하나의 현실적 경륜가로서 색다른 존재라 하겠다. 저서로는 『눌재집 訥齋集』이 있다.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梁誠之의 家系表



양성지의 저술사업을 표로써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책 명	년 대	비 고
史 書	五朝實錄日記	端宗元年 착수	參 修
	高麗史地理志		集 撰
	高麗史節要	世祖 9년 착수	·
	東國通鑑		·
	治平要覽		·
明皇戒鑑	世祖 7년 命	譯 進	
地理書 地 圖	東國與地勝覽	成宗 9년	集 撰
	八道地理志		獨 撰
	沿邊放戍圖		·
	沿邊城子圖		·
	兩界沿邊放戍圖	世祖 즉위년	·
	八道圖		·
	閔延茂昌虞芮三邑圖		·
濟州三邑圖		·	
文 學	東文選	成宗 10년 命	集 撰
	列聖御製詩	世祖 14년 命	
	龍飛御天圖	世祖 3년	
政 治	皇極治平圖	端宗 2년	獨 撰
	諭善書	世祖 12년	
倫 理	五倫錄	世祖 11년	集 撰
	三綱史略		
醫 學 農 牧 兵 學	醫方類聚	世祖 5년 命	校 進
	農蠶書	世祖 5년	
	畜牧書	世祖 6년 命	注 解
孫子注解			
기 타	海東姓氏錄		
	東國圖經		
	奏議(10권)		奏議集 詩文集
	家集(6권)		

『눌재집 訥齋集』: 양성지(梁誠之)의 시문집으로 본집 6권, 속집 4권 합 4책이고 석인본이다. 1938년 그의 14대손 주겸(柱謙)과 재규(在奎) 등이 속집과 함께 중간하였다. 이에 앞서 그의 문집은 원래 가본(家本) 6권이 있어서 김휴(金休)의 『해동문헌총록 海東文獻總錄』에도 등재되어 있는데, 1791년(정조 15) 정조의 명에 의하여 각신(閣臣)들이 정유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 뒤 이것을 대본으로 그의 출신지인 남원에서 목판본으로 중간되었음이 서유구(徐有渠)의 『누판고 鑿板考』에 나타나 있다. 권두에 이병모(李秉模)의 봉교서문(奉教序文)과 권말에 이복원(李福源)의 봉교발문 및 속집에 주겸의 발문이 있다. 본집은 권1~4에 주의(奏議) 34편, 시 14수, 권6은 부록으로 어사시(御賜時)·교서·서(序)·기·명·화상찬(畫像贊)·신도비명·유사·묵적(墨蹟), 속집은 권1에 주의 21편, 권2에 잡저 4편, 권3·4는 부록으로 전지(傳旨)·묘비명·유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의는 주로 소(疏)·책(策)·차(筵)·사(事) 등으로 구분된다. 「비변십책 備邊十策」은 1405년(세종 32) 국방에 관한 근본방침을 주의한 것이다. 장수와 사졸의 선택, 무기의 비치, 성보(城堡)의 보수 등 변방을 방비하는 방책 10조를 각 조목별로 체계 있게 해설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군사를 뽑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험을 치러 우수한 군사를 선발하도록 주장하였고, 또한 병력의 토대가 되는 호적에 정확성을 기할 것과, 독자(獨子)의 군복무 면제를 군정의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논군도십이사 論君道十二事」는 1455년(세조 1) 직제학(直提學)으로 있을 때 주의한 것이다. 득민심(得民心)·정제도(定制度)·지대체(知大體) 등 12조를 열거하였는데, 특히 문관과 무관을 동일하게 대우할 것과 서정쇄신책을 주장하였다. 「군정십책 軍政十策」에서는 군법을 엄하게 할 것, 군호(軍戶)를 구제할 것 등 군정에 관한 10조의 방책을 제의하였는데, 특히 군정의 여러 가지 결함을 지적하고, 신라의 풍속을 예로 들어 전쟁에서 사망한 자는 벼슬을 한 등 올려주어 영예롭게 하고 그 유가족들은 관록으로 부양할

것을 강조하여 군호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권농사사 勸農四事」에서는 농사의 근본은 지력(地力)을 잘 이용함에 있으므로 개간사업을 일으켜서 해변과 강 유역에는 방축을 시설하여 논을 만들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부역을 시켜 농업을 힘쓰게 하고 여가가 있을 때는 무예를 익히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속집의 잡저 중 「용비어천도서 龍飛御天圖序」는 그가 「용비어천가 龍飛御天歌」를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임금들의 업적·성덕(成德)·대공(大功)·천명(天命)·민심 등의 내용을 서술한 서문이다. 부록에는 김수온(金守溫)·서거정(徐居正)·김안국(金安國) 등이 저자에 관하여 쓴 서(序)·기찬(贊)·비명 등이 등재되어 있다. 이 문집의 주의들은 저자가 세종에서 성종까지 6대 왕조를 거치는 기간에 올린 330여조의 상소문으로, 주로 조선 초기 문물제도의 창립 및 정비에 관계되는 자료들이다.

양성지(梁誠之)의 주의(奏議)들은 조선조(朝鮮朝)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모두 문물제도(文物制度)의 창립 및 정비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조선조 초기의 한 유능한 관료·사상가의 경국(經國)의 이념, 대외문제(對外問題) 해결의 기본방향,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는 물론, 당시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역사·도덕·문화·지리·문교·국방·무략(武略)·농잠(農蠶)·목축(牧畜)·의방(醫方)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편 목록에 제목만 있고 내용이 누락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속집(續集)에 수록되어 있다. 속집은 1938년 저자의 14대손 양주겸(梁柱謙)과 양재규(梁在奎)에 의해 4권1책으로 원집(原集)과 함께 간행된 것으로 본집(本集)에 누락된 그의 글을 모은 것이다. 규장각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세종실록 世宗實錄』 / 『문종실록 文宗實錄』 / 『단종실록 端宗實錄』 / 『세조실록 世祖實錄』 / 『성종실록 成宗實錄』 / 『눌재집 訥齋集』

『동국지도 東國地圖』: 1463년(세조 9) 정척(鄭陟)·양성지(梁誠之)가 만들어 조정에 바친 지도. 1455년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에게 지리지(地理志)와 지도를 같이 작성할 것을 명한 지 8년 뒤에 만들어졌다. 정척(鄭陟)과 양성지(梁誠之)가 만든 「동국지도 東國地圖」가 정확히 어느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와 일본 도요문고(東洋文庫) 소장의 「조선회도 朝鮮繪圖」도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 東國地圖」로 추정된다. 이회(李薺)의 「팔도지도 八道地圖」로 추정되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混一疆理歷代國都地圖」의 우리 나라 부분과 비교하면 두만강과 압록강부분이 개선되어 있고 하계망과 산계(山系)가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다. 산계에서는 이회의 「팔도지도 八道地圖」에서와 같이 개별적인 산보다도 산맥을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도로(道路)·부(府)·군(郡)·현(縣)·병영(兵營)·수영(水營) 등 인문현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각 부·군·현에서 수도까지의 일정과 이수(里數)가 일본문고본(內閣文庫本)에는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흑룡강이 동서로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도 이 지도의 특징이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은 세로 140cm, 가로 97cm의 채색사본이고 장지바탕에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영조대(英祖代)에 만들어진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 東國地圖」의 바탕이 된다.

韓國古地圖의 發達(李燦, 韓國古地圖,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7) / 李朝に於ける二三の朝鮮全圖について(青山定雄, 東京, 東方學報 9, 1939).

『팔도지리지 八道地理志』: 조선 초기 세조(世祖)가 즉위하자 그해(1455) 8월 12일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양성지(梁誠之)에게 우리 나라의 지리서(地理書)를 만들고, 아울러 지도를 그릴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양성지는 『신찬팔도지리지 新撰八道地理志』 편찬의 경우와 같

이 우선 각 도별 지리지(地理志)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 뒤 약 20년의 세월이 경과한 1478년(성종 9) 정월 6일 양성지가 『팔도지리지』를 성종에게 바쳤다. 아마도 세조가 명령한 지리서의 완성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지리지는 인각(印刻)이 되지 못하여서인지 현존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志』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팔도지리지』의 내용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상도속찬지리지 慶尙道續撰地理志』로써 짐작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통하여 보면, 이 『경상도속찬지리지』는 『팔도지리지』의 저본(低本)이 되었고, 또한 『팔도지리지』는 『동국여지승람 東國輿地勝覽』 전 50권의 저본이 되었다. 이 지리지에 우리 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인 동국시문(東國時文)을 모아 첨재하여 완성한 것이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이다.

『세종실록 世祖實錄』 / 『성종실록 成宗實錄』 /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동문선 東文選』: 성종(成宗)의 명(命)으로 1478년(성종 9)에 편찬된 우리 나라 역대 시문선집(詩文選集)으로 130권, 목록 3권, 합45책이고 활자본·목판본이다. 당시 대제학(大提學)이었던 서거정(徐居正)이 중심이 되어 노사신(盧思愼)·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 등을 포함한 찬집관(纂集官) 23인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동문선 東文選』은 이 책 이외에 또 신용개(申用漑) 등에 의하여 편찬된 것과 송상기(宋相琦) 등에 의하여 편찬된 것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서거정의 것을 정편 『동문선』, 신용개의 것을 『속동문선 續東文選』, 송상기의 것은 신찬 『동문선』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신라의 김인문(金仁問)·설총(薛聰)·최치원(崔致遠)을 비롯, 편찬 당시의 인물까지 약 500인에 달하는 작가의 작품 4,302편을 수록하였다. 목록 상권 첫머리에 서거정의 서문과 양성지의 「진동문선전 進東文選箋」이 실려 있다. 서거정은 취사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서 ‘사리(詞理)가 순정(醇正)하고 치교(治教)에 도움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의 시문(詩文)이 삼국시대(三國

時代)에 시작되어 고려시대(高麗時代)를 거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극성해졌다고 보고, 역대의 빛나는 시문이 중국의 것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 우리의 글임을 강조하고 이를 집대성하여 후세에 길이 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내용을 보면, 권1~3은 사(辭)·부(賦), 권4-5는 오언고시, 권6~8은 칠언고시, 권9-10은 오언율시, 권11은 오언배율, 권12~17은 칠언율시, 권18은 칠언배율, 권19~22는 오언절구·칠언절구·육언절구, 권23~30은 조칙(詔勅)·교서(敎書)·제고(制誥)·책문(冊文)·비답(批答), 권31~45는 표전(表箋)·비답, 권46~48은 계(啓)·장(狀), 권49~51은 노포(露布)·격서(檄書)·잠(箴)·명(銘)·송(頌)·찬(贊), 권52~56은 주의(奏議)·차자(筭子)·잡문, 권57~63은 서독(書牘), 권64~95는 기와 서(序), 권96~98은 설(說), 권99는 논(論), 권100-101은 전(傳), 권102-103은 발(拔), 권104는 치어(致語), 권105는 변(辯)·대(對)·지(志)·원(原), 권106은 첩(牒)·의(議), 권107은 잡저, 권108은 책제(策題)·상량문, 권109~113은 제문·축문·소문(疏文), 권114는 도량문(道場文)·제사(齋詞), 권115는 청사(靑詞), 권116~121은 애사(哀詞)·뇌(誄)·행장·비명(碑銘), 권122~130은 묘지(墓誌) 등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급적 많은 문체를 망라하여 많은 작품을 수록하려 하였다. 문체의 종류로 보면 55종에 걸쳐 있어 중국 『문선 文選』의 39종보다도 많으며, 뒤의 『속동문선』의 37종보다 많다. 그 가운데는 단1편의 작품만 있는 노포(露布)와 같은 것도 설정되어 있어 당시로서 자료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다량을 선취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작가의 경우에도 최치원·김부식(金富軾)·이인로(李仁老)·이규보(李奎報)·이제현(李齊賢)·이곡(李穀)·이색(李穡)·이첨(李詹)·정도전(鄭道傳)·권근(權近) 등 이 책의 편찬 직전까지의 인물들을 차례로 실고 있다. 29인의 승려와 약간의 무명씨를 포함, 500인 가까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하나의 작품만 가지고 등장한 작가가 220여인에 이른다. 이는 당시 문헌의 인멸로 그들 작품의 전부가 전해지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우리 문학의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인식 아래

한 두 편의 작품도 포괄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시는 약 4분의 1정도에 그칠 뿐이고 나머지는 문(文)이다. 문 가운데에도 조칙·교서·제고·비답·주의·차자·첩·책제 등 정교(政敎) 관계 문장과 표전·축문·소·도장문 등 의례성(儀禮性)이 강한 문장에 해당되는 것이 1130편 가량 된다. 특히, '표전' 하나만 460여편으로 전체 작품수의 10%를 넘어서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전의 내용은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로서 주로 임금에게 축하나 감사를 올리는 경우나 사양할 경우, 진상할 때에 올리는 의례성이 강한 글이다. 이를 통하여 『동문선』의 선문(選文) 방향이 지배층의 봉건적 상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통치층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전형적인 관각적(館閣的) 문학관의 산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교국가의 관찬서(官撰書)이면서 도량문·제사·청사 등 도교와 불교 관계의 의례문(儀禮文)을 195편이나 실고 있는데, 이는 당시 지배층의 이념이 철저하게 유교적이지는 않았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그 내용이 대부분 국가와 임금, 귀족의 복을 빌어주는 의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와 같은 통치층의 권위를 장식하는 효용에서 실려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들 작품의 대개가 사육변려체(四六駢儷體)로 된 화려한 문장이어서 전체적으로 형식미를 추구하고 있는 선정 기준을 엿보게 한다. 작품의 선정에 있어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로 최충헌(崔忠獻) 부자를 미화하고 찬양한 시문이 많이 실려 있고, 승려의 비명이나 탑명(塔銘), 그리고 불교의 교리를 설파한 원효(元曉)의 일련의 불서(佛書)의 서문이 승려의 시 82편과 함께 실려 있다. 그러나 혜심(慧諶)·일연(一然)·보우(普愚) 등 쟁쟁한 선승(禪僧)들의 선시(禪詩)는 거의 실려 있지 않은데, 이는 작품 선정자의 미의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동문선』은 관료 귀족의 미의식에 맞는 화려하고 호부(豪富)·숭엄(崇嚴)한 미, 우아·온유의 미에 지배되어 있으며, 비장미(悲壯美)나 골계미(滑稽美)의 범주에 드는 것은 드물다. 철저하게 상층 지배층 중심의 시문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이 완성되어 유포되자 성현(成俔)은 “이것은 정선(精選)한 것이 아니고 유취(類聚)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수광(李睟光)도 “『동문선』의 채선(採選)은 범위는 넓으나 주선자(主選者)의 좋아하고 싫어함에 따라 취사(取捨)되었다.”며 공평성이 부족함을 비난하였다. 후대의 이러한 비난은 정치적인 안정에 만족하는 관학적인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동문선』의 전집적(全集的)인 성격을 못 마땅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풍부한 양을 남겨 당시의 문학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후세에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 이래 조선초까지의 우리 나라의 문학 자료를 나름대로 집대성하였다는 의의와 함께 우리의 문학전통을 중국의 그것과 병행하는 독자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후대에 주자학적 문학관에 의해 경직된 선집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신라(新羅)·고려시대(高麗時代)의 기록과 도교(道敎)·불교(佛敎) 관계자료의 중요성은 지대한 것이다. 1478년에 을해자(乙亥字)로 펴낸 초간본이 있고, 1482년 갑인자(甲寅字)로 찍은 재인본이 있다. 연대는 미상이나 임진왜란 이전으로 추측되는 을해자본(乙亥字本) 번각본(飜刻本)이 전하고 있으며, 1615년(광해군 7)에 임진왜란으로 거의 인멸되었으므로 서적교인도감(書籍校印都監)에서 재인하였다고 한다. 규장각도서에 있는 목판본은 어느 때의 간본(刊本)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이미 간행되었던 활자본을 대본으로 해서 판각(板刻)한 것으로 보인다. 1915년에 고서간행회에서 번인본을 간행하였으며, 1966년 경희출판사에서 영인본을 내었고 1968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국역본을 내었다.

李佑成, 『동문선해제』 (慶熙出版社), 1966. / 金斗鍾, 『국역동문선해제』 (민족문화추진회), 1968. / 李慶善, 『한국의名著』 (玄岩社), 1969. / 金奎聲, 『韓國의 古典百選』 (東亞日報社), 1969. / 許興植, 『東文選의 編纂動機와 史料價値』 『震檀學報』 56, 1983. / 李東歡, 『東文選의 選文方向과 그 意味』 『震檀學報』 56, 1983.

『여사대전 麗史大全』: 양성지(梁誠之)와 권람(權擘)이 펴낸 편년체의 역사책이다. 1457년(세조 3)에 『고려사전문 高麗史全文』의 불공정한 서술을 수정한 것으로 현재 전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1482년(성종 13) 양성지가 올린 상소문(上疏文)에 1457년에 그와 권람이 『고려사전문』을 개정한 『여사대전 麗史大全』의 인출을 요청하는 기록이 있다. 이 상소문에서 양성지는 기전체인 『고려사 高麗史』, 편년체인 『고려사절요 高麗史節要』와 함께 『고려사전문』을 개정한 『여사대전』의 보존도 요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사대전』은 『고려사』·『고려사절요』 등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사서였으며, 그 분량도 적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성종실록 成宗實錄』 / 韓永愚, 『朝鮮前記史學史研究』(서울大學校出版部), 1981. / 邊太燮, 『高麗史의 研究』(三英社), 1982.

이 당 (李 塘)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우봉(牛峯)이고 자는 지방(止方)이며 승회(承禧)의 아들이다. 진사시(進士試)를 거쳐 1528년(중종 23) 여주에서 실시한 문과별시(文科別試)에 2등으로 급제하였다. 뒤에 병조좌랑(兵曹佐郎)·정언(正言)·경기도도사(京畿道都事) 등을 역임하였다.

충청북도 청주시 분평동에 있는 구계서원(龜溪書院)에 이당(李塘)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중종실록 中宗實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 淸州市, 『淸州市誌』, 1976.

이인거 (李仁居, ? ~ 1672)

이인거는 본관이 영천이며, 교리를 지낸 추(樞)의 손자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북관(北關)을 떠돌다가 부모가 모두 죽자 그 곳에 매장하였는데, 고향으로 반장(返葬)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스스로 죄인이라 비탄하면서 횡성 산골짜기에 은거하였다. 은거하면서도 행실이 괴벽

하고 거짓을 꾸며 여러 차례 조정에 방자한 글을 투서하고 남몰래 반역할 뜻을 가졌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정에서는 그가 은일자중한다고 오히려 그 현명함을 칭찬하고, 1623년 인조반정 뒤에는 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衛司翊贊)으로 발탁할 정도였다. 그러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에 숨은 선비로 자처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의 재주를 높이 평가하면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는 듯이 하였다. 특히 인조반정 뒤 반정공신들이 정권을 잡고 정책을 펴는 일들이 여러 사람들의 불만을 사게 되자 마침내 불측한 뜻을 품었다. 유희분(柳希奮)의 형의 아들인 효립(孝立)이 제천에 귀향 가 있으면서 대북과 중에 남아 있는 자들과 함께 광해군을 다시 복위시킬 음모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효립 일파와 서로 내통하고 있었다. 1627년 2월 28일에 “신에게 정예한 군사 수천명이 있으니 우선 청나라와 화친을 주장하는 간신들을 죽이고 전하의 측근에 있는 악한 무리들을 숙청하여 전하의 뜻을 받들어 오랑캐소굴을 정벌, 국가의 수치를 씻게 해주십시오.”라는 소를 강원감사 최현(崔峴)에게 올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감사는 이를 패려한 잘못된 생각이라 여기고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10여명을 이끌고 횡성현에 와서 군사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창의중흥대장(倡義中興大將)이라 자칭하였다. 이에 현감 이탁남(李擢男)이 현을 버리고 원주목(原州牧)으로 도망쳐 달러가니, 목사 홍보(洪寶)가 놀라 고변을 조정에 알리고 군사를 동원하여 요새를 지키게 하는 한편, 삼남지방의 병사들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각 도 경계에서 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10월 2일 홍보가 원주의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서 진군하여 치니, 인거와 세 아들이 사로잡혀 서울로 압송된 뒤 저자에서 참형되었고, 동조자들은 빨빨이 흩어졌다. 이 난이 평정된 뒤에 신흙(申欽)의 건의에 의하여 홍보 등 4인이 소무공신(昭武功臣)에 책록되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횡성은 현(縣)이 폐지되고 원주목(原州牧)에 통합되게 되었다. 그후 1636년에 횡성현으로 복구되었다. 아울러 이때 안흥면(安興面) 소사(所思) 4리 봉화산에 봉화대가 있었는데 이인거의 무리

가 지나가며 당시 통신망이던 봉화대를 부수고 봉화지기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폐쇄되고 그 후 영원히 폐지되었다.

『인조실록 仁祖實錄』 / 『국조방목 國朝榜目』 / 『대동야승 大東野乘』
/ 『연려실기술 鍊藜室記述』 / 『이헌집 怡軒集』

이택 (李澤, 1565~?)

1565년(乙丑)생으로 본관은 원주(原州)이고 자는 자심(子深)이다. 부친은 이세헌(李世獻)이고 1588년(선조 21)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이해도 (李惠道, 1742~?)

1742년(壬戌)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공산(公山)이고 자는 경행(景行)이다. 부친은 이형기(李馨基)이고 1795년(정조 19)에 생원(生員) 식년(式年)에서 3등으로 합격하였다.

『사마방목 司馬榜目』

그밖의 우거자(寓居者)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종길 (權宗吉) 김동순 (金東舜) 김여민 (金汝民) 김영만 (金永萬)
김요현 (金窯鉉) 김용구 (金溶九) 김종남 (金鍾男) 김 지 (金 址)
김춘희 (金春喜) 도수선 (都壽善) 박송환 (朴松煥) 변희석 (卞希錫)
서계현 (徐繼賢) 신의복 (辛義復) 안대송 (安大松) 원 림 (元 琳)
이경회 (李慶會) 이 둔 (李 遁) 이언우 (李彦祐) 이유경 (李惟景)
정 술 (鄭 述) 한계신 (韓繼愼) 허희온 (許希溫) 한이겸 (韓履謙)

(8) 기타인물

횡성조씨 (橫城趙氏, 1598 ~ 1683)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 1625 ~ 1707)이 직접 쓴 어머니 횡성 조씨 세계이다.

어머님 성은 조씨(趙氏)이니 그 선조는 강원도 횡성인(橫城人)이다. 고려 초엽에 이름이 옥(昱)이라는 분이 있었으니 광종(光宗) 때에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설치하고, 중국 사람인 한림학사(翰林學士) 쌍기(雙冀)를 지공거(知貢舉 : 시험관)로 임명하여 인재를 뽑도록 하였다. 공(公)이 맨 먼저 그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귀한 벼슬이 쭉 이어져 대대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다. 한림이 시중(侍中) 승린(承蔭)을 낳았고, 시중이 태학사(太學士) 윤익(閔益)을 낳았으며, 태학사가 중서승(中書丞) 주조(周祚)를 낳았고, 중서승이 합문지후(閣門祗候) 정신(正臣)을 낳았다. 합문이 북야(僕射) 시연(時彦)을 낳았으며, 북야가 문정공(文景公) 영인(永仁)을 낳았으니 벼슬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서 삼중대광개부의·동삼사수태위·문하시중평장사·수문전태학사·감수국사상주국·관이부사·태자태부(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守太尉門下侍中平章事修文殿太學士監修國史上柱國判吏部事太子太傅)를 역임하고 치사(致仕)하였으며, 신종 묘정(神宗廟庭)에 배향되었다. 이분이 태위(太尉)로서, 문정공(文正公)인 충(冲)을 낳았으니, 밖으로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었던 분으로 조야에서 무겁게 의지하였으니 그분의 공업과 문장이 뛰어나고 고려의 역사책에 명확히 실려 있어 고찰할 수 있으며 돌아가시고 나서는 고종 묘정(高宗廟庭)에 배향되었다. 이분이 광정공(光定公) 계순(季珣)을 낳아 벼슬이 금자광록대부수태위·참지정사(參知政事)·태자소사(太子少師)·문하시랑(門下侍郎)·평장사(平章事)·상장군(上將軍)·관예부사(判禮府事)를 역임하였고, 이분이 밀직사(密直事) 변(拊)을 낳아 벼슬이 봉익대부(奉翊大夫)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전리판서(典理判書)·상호군(上護軍)·세자원빈(世子原賓)에 이르렀다. 이분이 참지정사 문근(文瑾)을 낳아 벼슬이 금자광록대부에 참지정사·집현전태학사(集賢殿太學士)·동수국사(同修國史)에

이르고 치사하였으며, 이분이 횡성군(橫城君) 무(茂)를 낳았으니 벼슬이 봉익대부에 개성부윤 상호군이였다.

횡성군 이상으로 12대 동안 대대로 위인(偉人)을 낳아 고려 시대에 공적이 뚜렷하였으니 고려의 대족으로는 그 성씨보다 더 큰 성씨가 없었다. 횡성군이 홍도(弘道)를 낳았으니, 우리 조선왕조에 들어와 벼슬이 가선대부(嘉善大夫)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이였다. 이분이 호군(護軍) 형(荊)을 낳고, 호군이 절도사(節度使) 효례(孝禮)를 낳았으며, 절도사가 사과(司果) 철수(哲守)를 낳고 사과가 서윤(庶尹)을 낳았으니, 공(公)의 이름은 준(俊)으로 어머니에게는 고조할아버지가 된다.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은 응세(應世)로 통훈대부(通訓大夫) 제용감(濟用監) 부정(副正)이었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진(進)이니 선교랑(宣敎郎) 사포서(司圃署) 별제(別提)였으며, 아버지의 이름은 정립(正立)이니 통훈대부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에 지제교(知提敎) 겸 경연시강관(慶筵侍講官)·춘수관 편수관이었는데 선조(宣祖) 말엽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질병을 이유로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채 교하(交河)로 퇴거하여 스스로 호를 송호(松湖)라고 하였다. 나이 53세에 돌아가셨다. 공은 일찍부터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뜻이 있어 집에서 지내면서는 효제하고 조정에 나가서는 충성스럽고 말았으나 40세에 명예와 이복에서 몸을 빼내어 책을 읽으며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도(道)를 자신의 임무로 여겼으니, 세사의 때가 묻은 사람들은 감히 근접을 못하였다. 당시의 독실한 논의를 펴던 선비들이 모두 앞장서서 가는 행실이 명철(明哲)하다고 했었다.

두 번 올린 상소문이 있으니, 학문이 정고(貞固)하여 명나라 때 경헌(敬軒) 설선(薛瑄)이나 강재(康齋) 오여필(吳與弼)과 비견된다고 했었다.

배위(配位)는 문화 유씨니 창녕현감(昌寧縣監)을 지낸 경(炯)의 손녀요 선공감(繕工監)인 영서(永緒)의 따님이였다. 어머니는 선조 31년(1598) 2월 5일 술시에 태어나셨다. 직제학공이 벼슬하지 않고 집에 계시면서 날마다 모부인 김씨(金氏)를 모시고 계시며 슬하에서 하시는 말씀마다 시서(詩書)와 예의(禮儀)의 교훈과 고금의 사람들에 대한 훌륭한 말씀과

착한 행실의 내용이었다. 어머니는 익숙하게 그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어긋나지 않게 행동으로 실행하였고 지식과 생각이 사군자(士君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리 아버님께 시집 오시게 되자, 안방 여자들의 범절을 더욱 닦아나갔다. 아버님께서 인조 23년(1645)에 통정대부의 위계에 오르고 인조 24년에 어머니는 비로소 숙부인(淑夫人)의 호칭을 얻었다. 효종 6년(1655)에 아버님께서 관찰사가 되셔서 2품의 예에 따라 정부인(貞夫人)의 호칭으로 올랐다. 그 뒤 19년째인 현종 13년(1672)에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또 12년째인 숙종 9년(1683) 6월 19일 미시에 원주(原州)의 법천리(法泉里) 본택에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누린 나이는 86세였다. 그해 7월 27일 아버님 묘소까지 옮겨다가 집의 산 동남쪽의 산줄기 자(子)의 좌향(坐向) 오(午)의 방향 언덕에 합장(合葬)하였다.

어머니는 천성이 정(貞)·정(靜)·단숙(端淑)하시고, 겸공(謙恭)하고 자혜(慈惠)하셔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정성된 마음과 독실한 효성으로 하여 사람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내셨다. 그분이 시어머니 초상을 당해서는 손톱을 자르고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목욕시키는 엄습의 일도 몸소 자신이 해내며 비복들을 시키지 않으셨다. 슬픔이 지나쳐 거의 목숨이 끊어질 듯했으니 마을 사람들이나 종족·친척 등이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청백한 정신을 전해 오느라 재화가 균색하고 급박하였다. 어머니는 각고한 자신의 노력으로 근검하게 집안을 다스렸다. 길쌈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면서 이른 아침에서 늦은 밤까지 조금도 게으르게 하신 적이 없었으며, 음식은 손수 요리하고 의복도 손수 만드셨다.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면서도 반드시 정교하게 반드시 청결하게 하셨으며, 70 이후의 연세에도 오히려 바느질을 쉬지 않으시면서 아버님에게 의복을 바치시고 자신의 옷을 해입으셨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미리 조치를 하셨기에 일을 당해 갑자기 하시다가 균색하고 급박함을 당하는

걱정이 없으셨다.

아버님께서 여러 고을의 현(縣)이나 부(府)의 원님을 지내서 어머니는 따라가 지내셨다. 그러나 밖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신 적이 없었고 바깥의 말을 집안으로 들어오게도 않으시고 안의 말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게 하셨다. 오직 아버님의 뜻만 따르고 법식으로 삼아 맑고 소박한 것을 보배로 여기셨다. 가난하고 박복함을 달게 참으시고 넉넉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도(常道)를 바꾸지 않으시며 몸 닦는 일에만 마음을 쏟으셨다.

여러 자식들을 낳았으나 키워내지를 못하고 다만 불초한 아들 하나가 있으나, 또 질병이 많아 거의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 여러 번이었다. 길러 주심에 온갖 노력을 다하시고 마음과 힘을 다 바치셨다. 다 커서도 착한 일 하나도 못하였고 스스로 몸을 삼가지 못하여 펜스레 어버이에게 근심만 끼쳐 드렸다.

숙종 4년(1678)의 무렵에 과분하게 6품의 벼슬에 임명되는 은혜를 입자, 들이시고는 즐겁게 여기지 않으시고 벼슬에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 여러 손자들에게 훈계하시기를 학업에만 열심히 힘쓰고 과거에의 합격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개의치 말라고 하셨다. 또 요란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서 부녀자들이 더러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면 마음으로 매우 잘못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자손들은 감히 그러한 물건으로 세속에 따라서 하는 일은 하지 못했다.

평상시에 남녀 종들을 부리면서 꾸짖는 말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사람을 대하면서 귀천을 가리지 않으셨고, 정성된 뜻을 한결같이 하셨다. 80 이후에 기력이 점점 쇠약하셨으나 정신이나 의식은 더욱 밝으셨다. 숙종 8년(1682) 겨울부터 체증이 있으셨는데, 그 다음해 봄에 더욱 병이 무거워져서 6월에 이르러서는 위독한 가운데 심한 이질까지 겹쳐 마침내 실날같이 숨을 이으셨지만 정신은 총총하셔 임종에도 오히려 자력으로 몸을 바르게 하시고 단정히 누워서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니, 삶과 죽음의 순간에도 평상시처럼 조용하셨으니, 『주역(周易)』에서 이른바 “군자(君子)에게는 끝맺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닐는지.

오호라! 어머니는 이미 수를 누리시며 강녕하셨고 덕을 좋아하시다가 세상을 마치셨으니, 어찌 하늘이 도와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닐 것이라.

『선비정부인횡성조씨사적기 先妣貞夫人橫城趙氏世系行蹟記』 우담 정시한 (愚潭 丁時翰)

3) 近·現代의 人物

(1) 韓末의 義兵運動

강도영 (姜道永)

원주시(原州市)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 출신으로 횡성의 대표적인 의병장 중의 한사람으로서 횡성 천도교회의 수령이었다. 횡성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청일면 춘당고개에서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그의 애국정신은 그의 가족에게 이어져 그의 막내 삼촌인 강달회와 아들 만형(萬馨)은 1919년 4월 1일 횡성의 3·1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횡성 장날에 만세를 부르며 일본 헌병에게 항거하다가 현장에서 총을 맞아 쓰러졌고, 그의 아들 강만형은 체포되어 감옥에서도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다가 옥사하였다.

『어사매 於斯買』(橫城文化院, 5号 25쪽)

권대형 (權大亨)

횡성(橫城) 출신의 의병장이다. 대형(大衡)이라는 이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강릉에서 창의한 민용호(閔龍鎬)휘하에서 활동하였는데 그가 의병에 가담한 시기에 있어서 민용호가 1896년 1월 강릉에서 관동9군도창의소(關東九郡都倡義所)를 설치하였을 당시 횡성에서 의병을 모아 가담하였는지, 혹은 민용호의 의병진이 원산(元山)공격을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강릉으로 돌아와 전열을 수습할 당시에 참여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1896년 6월 고성(高城)·양양(襄陽)등지를 점령하고 군수를 처형하기도 하였으며, 관군의 공세가 점차 심화되어 탄환·화약·양곡 등 군용물자가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자 양곡운반의 임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8월초에는 민용호의 지휘 아래 민동식·성익현·차윤옥 등과 함께 의병을 거느리고 회양(淮陽)·금성(金城) 방면으로 나와 일대 소탕전을 전개하고 산협을 따라 황해도 곡산(谷山)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민용호 의병진은 양덕·맹산을 거쳐 함흥까지 이동하였다가 다시 만주로 들어갔는데 그의 행적은 알 수 없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1卷 170-299-302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1, 11쪽)

김명서 (金明瑞)

횡성군(橫城郡) 둔내면(屯內面) 화연동(花硯洞)에 살았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907년 군대해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자 그는 음력 7월 17일 의병을 모집하는 최인순(崔仁順 : 仁舜)의 휘하에 들어가 원주군(原州郡)·횡성군(橫城郡)일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동년 음력 10월에는 평창(平昌)일대에서 활약하던 정병화(鄭炳和)의 휘하에 들어가 의병활동을 계속하였다. 그후 체포되어 1909년 2월 20일 경성 지방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언도받았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1, 253쪽)

김용원 (金溶源)

횡성군 갑천면(甲川面) 상금대리(上琴垞里)에 살았으며 일명 김성천(金

聖天)이라고도 하였다. 1915년, 일찍이 1907년부터 의병장이 되어 활동해 온 김종철(金鍾哲 : 일명 金鍾桓·金老玉)의 휘하에 들어가 장명수(張命壽)·김종근(金鍾根)·김원실(金元實)·정대성(鄭大成) 등과 함께 횡성군(橫城郡)·홍천군(洪川郡)·강릉군(江陵郡)·평창군(平昌郡) 등지를 이동하면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1, 290-300쪽)

김현국 (金顯國)

원주시 소초면(所草面) 일실리(日實里) 출신으로 일명 치영(致榮)이라고도 한다. 1907년 8월 지역에서 인망이 있었던 그는 원주에서 민공호(閔肯鎬)가 의거하자 그 휘하에서 소모장(召募將)을 담당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의병부대를 편성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1907년 음력 7월 약 70여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여주군(驪州郡) 우편취급소를 습격하였으며, 계속 원주(原州)·횡성(橫城)·홍천(洪川)·영월(寧越)·평창(平昌)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1908년 2월 민공호가 사망하자 분개하여 이름을 김현국(金顯國)이라 고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일군을 공격하였다. 김치영은 횡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한상열(韓相烈), 양양(襄陽)·강릉(江陵)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던 금기철(琴基哲) 의병진과 연합하여 동년 4월 횡성수비대를 대거 공격하였다. 또한 동년 9월 8일에는 부하 33명을 거느리고 신탄현병분견소를 습격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고, 동년 10월 24일에는 횡성군 둔내면(屯內面) 영랑리(永浪里)에서 일군과 교전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횡성·원주·홍천 등지에서 일군과 도합 30여회의 전투를 벌였다. 1909년 체포되어 동년 6월 8일 경성 지방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당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3卷 599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 257-258-259-260쪽)

박내원 (朴來元, 1855 ~ 미상)

강원도 횡성 사람이다. 이교영(李敎永) 의병진에 가담하여 경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일제는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 을사특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국가존망의 위기에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박내원은 이같은 시기에 이교영 의진에 가담하여 의병활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의병활동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수단으로 1909년 8월 경 경북 풍기군(豊基郡) 소룡산리(小籠山里), 안동군(安東郡) 풍산면(豊山面) 서미곡리(西尾谷里), 영주군(榮州郡) 등지에서 군자금을 징수하였다. 그러다가 피체되어 1910년 1월 7일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유형 7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1월 27일 경성공소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集 第1輯 541쪽)

박성묵/권대형/홍재구 (朴性默/權大亨/洪在龜)

1895년 민비시해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크게 일어났으며, 박성묵은 이 당시 권대형(權大亨), 홍재구(洪在龜) 등과 함께 횡성 등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박영묵 (朴永默, 1845. 8. 10 ~ 1918. 12. 21)

대한제국 때의 의병장으로 횡성출신이다. 이명으로 성묵(性默), 영묵

(永默), 혹은 치회(致會)라고도 한다. 일찍이 관계에 진출하였으나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발생하고 곧 이어 단발령이 내려지자 일제의 내정간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충청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충청도·강원도 등지에서 활약하였으며, 한때는 5백여명의 의병을 거느린 대부대의 통솔자이기도 하였다. 1896년 3월 홍천(洪川) 삼물치(三勿峙)에서 적군과 교전하여 적 8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동년 4월에는 횡성에서 반년간 성을 지키면서 포고문(布告文)·격고문(檄告文) 등으로 항일의식을 고취시켰다. 1907년 황해도 구월산(九月山)에서 일군 및 관군과 대치하였으며, 1910년 일제의 강점으로 일본군이 급격히 증강되자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류인석(柳麟錫) 의병장의 문인들과 제휴하여 독립운동을 위한 활약을 하다가 1918년 그곳에서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박영묵선생집 朴永默先生集』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 (國家報勳處, 1卷, 170쪽)

박정수 (朴正洙)

박정수는 횡성군 청일면(淸日面) 고시리(古時里) 사람으로 가난한 농부로 생활하면서도 남달리 동리에서 발생하는 길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은 물론 정의감과 공명심이 강하여 사리와 윤리도덕에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타이르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가 젊은 장정일 때 동학혁명(東學革命)이 일어났는데 동학군이 일군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의거 출병하여 동학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투를 벌이다가 일군에게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아 불구자가 되고 말았다.

그 후 석방되어 고향에 돌아와 생계유지를 위해 불구의 몸으로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다 조국광복을 보지 못하고 한많은 생을 마쳤다.

서용인 (徐用仁)

횡성군 군내면(郡內面) 상동리(上洞里) 출신이다.

그의 재판기록에 의하면 그의 직업은 광부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7년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에서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거하였을 당시 서용인이 원주진위대에 근무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의병활동을 한 정시중(鄭時鍾)등이 '원주진위대 동지관계'라고 발언하였고, 그의 조서내에 '원주진위대가 해산된 후 폭도 괴수 정병화의 부하가 되어 수일 동안 각처를 배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이전에 원주진위대에서 근무하였던 것만은 확실하다.

1907년 서용인은 평창군 일대를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한 정병화(鄭炳和 : 鄭秉煥이라고도 함)의 휘하에 들어가 평창·영월·횡성등지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재판기록에 의하면 1907년 8월에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大和面 大和里)에서 김명조(金明祚)·정시중(鄭時鍾)·이태경(李泰京)·안석조(安錫祚) 등과 함께 일본인 우편 체송부를 체포하여 살해하였다고 한다.

그 후 계속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1912년 5월 30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언도받았으나 동년 7월 17일 경성 복심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언도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1, 280~283쪽)

오정묵 (吳正默)

오정묵은 횡성군 청룡면(靑龍面) 갈풍리(葛豐里) 출신으로 횡성군의 서기(書記)로 근무하고 있었다.

1905년 일제에 의해 한일협약이 체결되자 전국에서 이에 항거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운동은 더욱 활기를 갖게 되었다. 이에 오정묵은 횡성군에 있는 많은 산포수들과 사환(使喚)·노동자 등을 규합하여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민금호(閔肯鎬)와 이강년(李康年)이 연합작전으로 제천·충

주를 공격하는데 참여하였고, 1907년 9월 횡성군 갑천면(甲川面) 봉복사(鳳腹寺)에서 민공호 의병진과 더불어 일군과 격전을 벌여 큰 타격을 주었다.

그 후의 오정묵에 대한 행적은 자세치 않으나 「폭도사 편집자료」에 의하면 “횡성군 청일면(晴日面) 울실리(栗實里)에 잠복 중, 때마침 귀순자 면죄조칙(免罪詔勅)의 발포를 듣고 1908 4월 3일 마침내 회오(悔悟) 귀순한 자이다. 그리고 그의 폭거 중 인솔하였던 부하인 포수 등은 그의 권유에 의하여 전부 귀순케 하였다. 그 인원은 약 60명에 이르렀다.” 고 하여 그가 의병활동을 하다가 은신중 귀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 (國家報勳處, 3卷 598面 ~ 599쪽)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 (國家報勳處, 第1卷 492쪽)

용해준 (龍海俊)

용해준은 횡성군 청일면(晴日面) 병지방리(兵之坊里) 출신으로 농사에 종사하였으며 일명 용경수(龍敬守)라고 한다.

그는 일찍이 후기의 의병 봉기때 인제(麟蹄)·강릉(江陵) 등 강원도 각지에서 활약하였던 김종철(金鍾哲 : 일명 金鍾桓, 金鍾煥, 金光玉)의 휘하에서 김종근(金鍾根 : 일명 金成日, 許中國)을 중간 통솔자로 하여 이낙여(李洛汝)·오중수(吳重守)·정태용(鄭泰用)·김원실(金元實)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후에 체포되어 1916년 7월 31일 경성 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소위 ‘강도죄’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 (國家報勳處, 別輯1, 290 ~ 295쪽)

원용팔 (元容八, 1862 ~ 1907)

한말의 의병장으로 일명 용석(容錫)이라 불리었고, 자는 복여(福汝), 호는 삼계(三戒)·서암(恕庵)이었다. 충청북도 제천출신이다.

1895년 여주 의병장 심상희(沈相禧)의 후군장으로 임명되어 여주

의진의 전세를 크게 뒷받침해주었다. 1896년 음력 2월 장호원의 병참소를 공격하였으나 실패, 원주를 거쳐 청풍으로 패퇴하였다. 뒤에 안승우(安承禹)를 잃은 제천 의진의 부름을 받고 중군장으로 유인석(柳麟錫)을 보좌하였다.

제천전투 이래 전세를 크게 상실한 의진을 위하여 그해 5월의 긴장마에도 불구하고 흩어졌던 군사를 다시 모으는 등 중군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였다. 그러나 전 중군이었던 이완하(李完夏)가 되돌아오고 서상렬(徐相烈) 등이 들어와 의진이 활기를 되찾자 보름간 중군하던 제천 의진을 떠났다.

1905년 8월 박정주(朴貞珠) 등과 함께 재차 거사를 도모하여 각처에 격문을 보내어서 1천여 명의 의병을 집결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와해공작으로 의진이 흩어지고, 그 와중에 횡성에서 붙잡혔다.

1977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황성신문 皇城新聞』 / 『매천야록 梅泉野錄』 / 『매당집 梅堂集』 (朴貞珠) / 『한국독립사 韓國獨立史』 (金承學, 獨立文化社, 1965)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 1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0)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0)

여용단/이인영/심상희 (余龍端/李麟榮/沈相熙)

여용단, 이인영, 심상희는 한갑복(韓甲復), 민궁호(閔肯鎬) 등과 함께 횡성지방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했던 의병대장들이다. 1907년 10월 31일부터 8천명을 거느리고 고모곡면(古毛谷面, 현재 書院面)에 진을 치고 일본군과 대항하면서 횡성·원주는 물론 충북 제천, 충주 등지와 경기도의 양근과 지평(현재 楊平)지역에서 대대적인 의병을 모으며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인영 (李麟榮, 1867 ~ 1909)

대한제국시기의 의병장이고 일명 준영(竣榮)이라고 불리었다. 경기도

여주 출신이다. 정동현(鄭東鉉)의 문인으로 일찍이 학문에 전념하여 대성전재임(大成殿齋任)을 지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가 시해되고 이어서 단발령이 내려지자, 유인석(柳麟錫)·이강년(李康年) 등의 의거에 호응하여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유인석의 제천전투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가 경상북도 문경으로 이주하여 은둔생활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5년(광무 9)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날 때, 의병을 일으킬 결심을 하였으나 때마침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었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을 재기하여 일부 해산군인과 제휴하였는데, 강원도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이은찬(李殷贊)·이구재(李九載, 본명은 九采)가 해산군인 80명을 포함한 500명의 의병을 소모한 뒤 그를 찾아와 의병총대장으로 추대하니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어 망설였으나, 사사(私事)로써 공사를 미룰 수 있겠느냐는 그들의 간곡한 권유에 이를 수락하고 원주로 출전하여 관동창의대장(關東倡義大將)에 오른 뒤 사방으로 격문을 발하여 의병을 소모하였다. 의병의 수가 수천명에 이르자 식량과 자금의 조달이 큰 문제였는데, 반역배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이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9월에는 서울주재 각국영사관으로 사람을 밀파하여 일본의 불의를 성토하고, 의병은 순수한 애국단체이니 열강은 이를 국제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하여 적극 성원해줄 것을 바란다는 ‘관동창의대장’ 명의의 격문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원주는 교통이 불편하여 대사를 도모할만한 곳이 못 된다고 판단, 횡성·지평·춘천 등지를 전전하며 의병규합에 노력하면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각 도에 격문을 발하여 경기도 양주로 집합할 것을 촉구하였다. 격문에 호응하여 11월에는 각 도의 의병장들이 속속 양주로 집결하였으니 경기도의 허위(許蔭), 황해도의 권중희(權重熙, 일명 義熙), 충청도의 이강년, 강원도의 민공호(閔肯鎬), 경상도의 신돌석(申堧石), 전라도의 문태수(文泰洙, 일명 泰鉉), 평안도의 방인

관(方仁寬), 함경도의 정봉준(鄭鳳俊) 등이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격문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방인관이 평안도에서 80여명, 정봉준이 함경도에서 70여명을 거느리고 자진 참여하였다. 이때 양주에 집결한 의병의 수는 약 1만명(또는 8천명)에 달하였는데, 그 중에 근대식 무기를 가진 진위대 출신의 병사와 기타 훈련 받은 군인이 약 3천명이었다. 의병장들의 연합전략회의 결과 13도창의대장에 이인영을 추대하고, 곧이어 각 군의 칭호를 정하고 전국연합부대 편성에 착수하였다.

이때 편성된 13도 연합의병부대(十三道倡義軍)의 진호(陳號)와 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도의병 총대장 이인영 그 배하에 황해도의 권중희(權重熙, 일명 義熙), 전라유진소 전라창의대장 문태수(文泰洙, 일명 泰鉉) 호서유진대장 이강년, 교남유진소 교남유진대장 신돌석(申堧石), 진동유진소 진동창의대장 허위, 아장 박정빈(朴正斌), 관동유진소 관동창의대장 민공호(閔肯鎬), 관서유진소 관서창의대장 방인관(方仁寬), 관북유진소 관북창의대장 정봉준(鄭鳳俊)이었다. 그 뒤 원수부 13도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관동의병대장 민공호, 호서의병대장 이강년, 교남의병대장 박정빈, 경기·황해·진동의병대장 권중희, 관서의병대장 방인관, 관북의병대장 정봉준, 호남의병대장 문태수로 개편되었다. 개편 후의 의병장은 모두 양반 유생신분으로서 천민출신의 용장인 신돌석이 배제되었고, 홍범도(洪範圖)·김수민(金秀民) 등 평민출신 의병장이 연합전선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 13도연합의군이 폭넓은 대중적인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1월부터 서울 진격을 목표로 설정하고 진격을 개시하여 경기일대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서울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 집결하여 대오를 정비한 뒤 일거에 서울을 공략할 작전계획을 세우고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기에 아버지의 별세가 전해 오니 뒷일을 軍師將 許蔭에게 맡기고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의병들이 찾아가 재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친 뒤 다시 13도의 창의군을 일으켜 소탕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뒤

노모와 두 아들을 데리고 상주군에 숨어살다가 다시 충청북도 黃澗郡 금계동으로 옮겼는데, 1909년 6월 7일 일본헌병에게 잡혀 경성감옥에서 순국했다.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기려수필 騎驪隨筆』 / 『매천야록 梅泉野錄』 / 『한국독립운동지혈사 韓國獨立運動之血史』(朴殷植, 維新社 1920) / 『한국독립운동사 韓國獨立運動史』 1 (國史編纂委員會, 1965)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 1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1972) / 『義兵과 獨立軍』(윤병석, 世宗大王紀念事業會, 1977) / 『의병전 義兵傳』(尹炳奭, 韓國近代史料論, 一朝閣, 1979).

장명수 (張命壽)

장명수는 황성군 청일면(晴日面) 춘당리(春堂里) 출신으로 일명 조원배(趙元培)라고도 한다.

1907년 8월경부터 인제·황성·영월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해온 김광옥(金光玉 : 金鍾鐵·鍾煥)의 휘하에 들어가 김종근(金鍾根 : 金成日, 또는 許仲國·姜大將)을 중간 통솔자로 하여 용해준(龍海俊 : 龍敬守)·정태용(鄭泰用 : 鄭白文·鄭泰龍)·최순실(崔順實)·장재선(張在善 : 張洪連)·이낙여(李洛汝) 등과 함께 강원도 각지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16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소위 강도상인죄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 결정되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1, 290~295쪽)

장재선 (張在善)

황성군 갑천면(甲川面) 상금대리(上琴垞里) 출신으로 일명 장홍련(張洪連)이라고 한다.

1907년부터 의병활동을 해온 김광옥(金光玉 : 金鍾鐵·鍾煥)의 휘하에 들어가 김종근(金鍾根 : 金成日, 또는 許仲國·姜大將이라고도 함)을 중간 통솔자로 하여 용해준(龍海俊 : 龍敬守)·정태용(鄭泰用 : 鄭白文·鄭

泰龍)·최순실(崔順實)·이낙여(李洛汝)·정대성(鄭大成) : 鄭日永·一永) 등과 함께 강원도 각지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1916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강도상인죄로 재판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1, 290~295쪽)

정대성 (鄭大成)

횡성군 청일면(晴日面) 병지방리(兵之坊里) 출신으로 일명 일영(日永), 혹은 일영(一永)이라고도 하였다.

1907년 8월경부터 인제(麟蹄)·횡성(橫城)·영월(寧越)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해온 김광옥(金光玉 : 金鍾鐵·鍾煥)의 휘하에 들어가 김종근(金鍾根 : 金成日·許仲國, 또는 姜大將)을 중간 통솔자로 하여 용해준(龍海俊 : 龍敬守)·정태용(鄭泰用)·최순실(崔順實)·장재선(張在善 : 張洪連)·이낙여(李洛汝)·장명수(張命壽) 등과 함께 홍천(洪川)·강릉(江陵) 등 강원도 각지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16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소위 '강도상인죄'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 결정되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1, 290~295쪽)

정문재 (鄭文在)

청일면(晴日面) 신대리(新垆里) 속칭 새터에서 살고 있던 그는 27세의 젊은 장사로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였으나 그 성격이 활달하고 무용(武勇)을 즐겨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화포술에 능통하여 농한기만 되면 동리 청년들과 어울려 사냥하기를 즐겨했다.

조선 말엽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왜병이 쳐들어와 동학군을 진압한다는 소문을 들은 정문재는 왜병과 싸우기 위해 화포(火砲)를 들고 출병하였다. 화포에 명사수였던 그는 횡성(橫城), 원주(原州), 홍천(洪川) 등지에서 의병의 선봉대장이 되어 수많은 싸움터에서 승리

를 거둬들이며 왜병을 물리치다가 불행하게도 하복부(下腹部)에 관통상을 입고 귀가하였다. 가족들의 정성으로 건강은 회복하였으나 몸이 자유롭지 못하여 농사일도 지난날처럼 못하고 즐기던 사냥도 하지 못하며 조국의 앞날의 일을 마음으로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81세에 별세하였다.

그의 묘소는 「새터마을」 동산에 있으며 지금도 신대리 사람들은 그의 화포술과 용맹스러웠던 무용담을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정시종 (鄭時鍾)

원주(原州)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7년 8월에 평창(平昌) 일대에서 의거한 정병화(鄭炳和 : 鄭炳化, 鄭秉煥)의 휘하에 들어가 이태경(李泰京)·안석조(安錫祚)·서용인(徐用仁) 등과 함께 평창·영월(寧越)·횡성(橫城)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였다.

1912년에 체포되어 평창군 대화면(大和面) 대화리(大和里)에서 김명조(金明祚)·안석조 등과 함께 일본인 우편배달부를 살해했다는 죄로 기소되어 동년 5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동년 7월 1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언도받았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1, 280~283쪽)

정욱영 (鄭旭永)

횡성군 청일면(淸日面) 병지방리(兵之坊里)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7년 8월경부터 인제(麟蹄)·횡성(橫城)·영월(寧越) 등지에서 활동하던 김광옥(金光玉 : 金鍾鐵·鍾煥)의 휘하에 들어가 김종근(金鍾根 : 金成日·許仲國, 또는 姜大將)을 중간 통솔자로 하여 용해준(龍海俊 : 龍敬守)·정대성(鄭大成) 등과 함께 홍천(洪川)·강릉(江陵) 등 강원도 각지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1916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소위 '강도상인죄'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 결정되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1, 290~295쪽)

정태용 (鄭泰用)

홍천군(洪川郡) 영귀미면(泳歸美面) 좌운리(坐雲里) 출신으로 일명 정백문(鄭白文)이라고도 한다.

그의 재판기록에 의하면 1914년 9월경 김종근(金鍾根 : 金成日·許仲國)의 휘하에 들어가 용해준(龍海俊)·김원실(金元實)·이낙여(李洛汝) 등과 함께 홍천·인제·횡성 등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나, 특히 1915년 3월경에는 일찍이 1907년 8월경부터 인제군 일대에서 의병을 소모하여 활동을 하였던 김종환(金鍾煥 : 金鍾鐵·金光玉)을 만나 그를 통솔자로 추대하고 그의 인솔하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정태용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전후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1907년부터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가 1910년을 전후하여 일본군의 의병에 대한 대탄압으로 국내의 의병진이 대부분 와해될 때, 은거하였다가 다시 김종근의 휘하에 모여 활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정태용은 1916년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재판에 회부할 것이 결정되었으나 형량(刑量)은 알 수 없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1, 290~295쪽)

조광보 (趙光補, 1878. 5. 9~1935. 6. 12)

강원도 횡성출신으로 최초로 의병에 참가한 시기와 장소는 자세하게 전하지 않으나 강원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영월·삼척·봉화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911년 11월 19일 경상북도 봉화(奉花)군 소천(小川)면 석포리(石浦里)에서 권윤수(權胤洙)에게 자신의 신분이 의병임을 밝히고 군자금 턱냥을 요구하여 모두 6원 두냥을 모금하였다.

그 후 김진청(金鎭淸)의 집에서 4원을 모금하다가 1912년 5월 왜경에게 체포되었으며, 5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10년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대구지법 판결문 大邱地法 判決文』(1912. 5. 17) / 『독립유공자공훈록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第1卷 923, 924쪽)

최순실 (崔順實)

횡성군 갑천면(甲川面) 상금대리(上琴垞里)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의 재판기록에 의하면 1915년 1월경 김종근(金鍾根 : 金成日·許仲國)의 휘하에 들어가 장명수(張命壽)·용해준(龍海俊)·장재선(張在善) 등과 함께 홍천(洪川)·인제(麟蹄)·횡성 등 강원도 각지에서 활동하였으며, 특히 1915년 3월경에는 일찍이 1907년 8월경부터 인제군 일대에서 의병을 소모하여 활동을 하였던 김종환(金鍾煥 : 金鍾鐵·金光玉)을 만나 그를 통솔자로 추대하고 그의 인솔하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최순실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전후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1907년부터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가 1910년을 전후하여 일본군의 의병에 대한 대탄압으로 국내의 의병진이 대부분 와해될 때, 은거하였다가 다시 김종근의 휘하에 모여 활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순실은 1916년경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 예심계에서 공판에 회부할 것이 결정되었으나 형량(刑量)을 알 수 없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別輯1, 290~295쪽)

최인순 (崔仁舜, 1865~1909)

횡성출신의 한말 의병장으로 일명 인순(仁淳)이라 불리었다.

1894년 갑오경장부터 청일전쟁에 참여하였으며, 원주진위대(原州鎭衛隊)에서 이참령(李斬領) 대대의 소모대장(召募隊長)으로 활약하였다.

1907년 일본군이 원주를 침입하려고 하자 이참령이 8백여 명의 군대를 해산하고 도피하려는 것을 만류하고, 해산 직전의 군사를 정비하고 무기고를 부수고 무기를 꺼내 무장시키는 한편, 의병을 모집하여 스스로 의병장이 되어 적군과 교전하였다. 같은해 7월 이후 횡

성·안악·강림·평창·대화·문주 등지에서 교전하였고, 진부에서 교전 후 강릉 배다리에서 전사하였다.

1968년에 대통령 표창, 1977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강원일보』(1963. 7. 14.) / 『한국독립사』(독립문화사, 김승학, 1965)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 於斯買(橫城文化院) 第5號 27, 28面 / 『독립유공자공훈록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第1卷 954쪽)

한갑복 (韓甲復)

한기석과 함께 민공호 휘하의 원주진위대에 있다가 한국군 해산으로 의병에 참여하여 횡성, 홍천, 인제 등지에서 활동하였으며 1907년 12월 28일 청룡면(靑龍面 : 現 橫城邑) 추동리(楸洞里)에서 약 30여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순절하였다.

1991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횡성군지 橫城郡誌』 120쪽 /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6쪽 /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第1卷 140, 160, 175쪽)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1卷 474, 533, 710쪽) / 『독립유공자공훈록 獨立有功者功勳錄』(國家報勳處, 9卷 765쪽)

한기석 (韓基錫, ? - 1907. 12. 14)

횡성출신의 의병대장으로 진위대 해산과 함께 유명한 민공호의병진 술하의 의병장으로 횡성지방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07년 12월 14일 청일면(淸日面) 유동리(柳洞里)에서 약 3백여 명의 부대원과 함께 치열한 전투를 벌여 많은 적을 섬멸하였으나 그 자신은 이 전투에서 피살되었다.

1991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6쪽 / 『明治百年史叢書』 (金正明, 第1卷 140, 159쪽)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 (國家報勳處, 第1卷 474, 533, 718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 (國家報勳處, 第3輯 687, 716, 717쪽) / 『橫城郡誌』 120쪽 / 『독립유공자공훈록 獨立有功者功勳錄』 (國家報勳處, 9卷 766, 767쪽)

한상열 (韓相烈, 1876 ~ 1926)

횡성군 우천면(隅川面) 문암리(文岩里) 출신으로 자(字)는 문극(文極)이며 이명으로 상열(相說)이라고도 한다.

그는 일제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토적할 것을 결심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1907년 8월 향리인 횡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병 2백명(가장 왕성하였을 때는 1천2백명에 달하였음)을 영솔하고 지평(砥平), 홍천(洪川), 원주(原州), 평창(平昌), 영월(寧越) 등지를 전전하며 일군과 교전하기 무려 500여회에 의병을 다수 도륙하고 무기, 탄약 등을 노획하였으며 1908년 2월에는 홍천에서 일군 대부대와 대회전을 하여 격퇴시켰다. 심기가 상한 횡성의 일본군 수비대에서는 이해 4월 2일 홍천군 월운면(月雲面) 서북후동(西北後洞)에 거주하는 선생의 처자를 납치해다 놓고 선생에게 귀순하라고 유인, 협박 등 가진 수단을 다 썼다. 그러나 그는 끝내 굴하지 않고 4월 20일은 횡성읍을 습격하여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와같이 한상열은 항일투쟁을 맹렬히 계속하였으나 일군이 병력을 대거 증강하고 소위 '대토벌작전'을 전개하자 각 의진이 해산 내지 폐산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는 더 이상 국내에서의 항일투쟁이 곤란함을 느끼고 1920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결합하고 대한의용부(大韓義勇府)에 가담하여 參謀의 중책을 맡아 활약하였으며 1926년 2월에는 대한독립단(大韓獨立黨) 참모로 취임하여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그해 9월 19일 민족진영의 분열 및 몰락을 야기시켰던 주중(駐中) 청년총사맹(靑年總社盟)원의 흉탄에 맞아 51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매천야록 梅泉野錄』 452쪽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 (國家報勳處, 1卷 483, 533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 (國家報勳處, 3

卷 585, 599, 734쪽) /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 (한국민족운동연구소, 김후경·신재홍, 1971)

함재실 (咸在實)

횡성군 고모곡면(古毛谷面) 대산(大山)출신으로 농업에 종사였다.

의병에 참여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정미의병(丁未義兵)때 이영숙(李永肅)의 휘하에 들어가 원주군(原州郡)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특히 1907년 8월(음력)에는 이원오(李元五)와 함께 원주군 정지안면(正之安面)의 채성구(蔡聖九) 집에서 군자금 12원을 모금하는 등 주로 군자금조달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1912년 체포되어 동년 5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 (國家報勳處, 別輯1, 278쪽)

(2) 獨立運動

강달회 (姜達會, 1868 ~ 1919)

일명 사문(士文)이라고도 한다. 그는 원주시(原州市)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 사람으로 횡성 천도교회에 다녔으며 당시 51세의 나이로 횡성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19년 4월 1일의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일본 헌병의 총탄에 피살되어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강만형 (姜萬馨, 1887 ~ 1920. 2. 28)

강원도 원주군(원주시)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 사람이다. 그는 전 횡성교구장 강도영(姜道永)의 아들인데, 강도영이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횡성군 청일면(晴日面) 당고개에서 전사한 뒤 그를 계승하여

천도교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1919년 3월 27일 황성읍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인물로, 최종하(崔宗河) 등의 동지 4명과 함께 60여 매의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제작하여 시장에 모인 300여명의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며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결국 일본 헌병에게 붙잡혀 이해 6월 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8월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 중, 모진 고문으로 옥중에서 1920년 2월 28일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에 대통령표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551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36~942쪽)

강승문 (姜勝文, 1893.9.3. - 1919.4.1)

강원도(江原道) 횡성군(橫城郡) 우천면(隅川面) 법주리(法住里) 사람으로 천도교인(天道敎人)이다. 1919년 4월 1일의 횡성 장날을 기하여 천도교인들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대규모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장에 가서 만세운동에 합류하였는데 주의에서 만류하자 “죽음이 겁나 만세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찾겠느냐”며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 이날 밤 일본 헌병들의 발포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향리에 있는 그의 묘소가 정화되어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기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578쪽)

김명기 (金明起)

김명기는 우천면(隅川面) 주곡리(柱谷里)에 살았고 일명 사극(士極)이라고도 하며 유학자이다. 김진대(金振大)의 아들로 횡성의 3·1 만세운동의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만세운동의 추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일본 헌병을 피하고 독립투쟁을 계속하고자 그 뒤 만주(滿洲)로 망명하였다.

김순서 (金順瑞)

횡성군 정곡면(井谷面) 가좌곡리(佳佐谷里)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정해경(鄭海璟)과 김성서(金聖西)가 주동한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1천 3백여 군중에 앞장서서 만세를 불렀다. 군중은 천도교 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태극기나 몽둥이 아니면 장작을 들고 일본 관헌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물론 군청 건물들을 파괴하였으며 일본 헌병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위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55쪽)

김성서 (金聖西)

영원군(寧越郡) 양변면 주천리에 살고 있던 김성서는 당시 나이 68세의 천도교인으로 장사꾼을 가장하여 횡성군 내의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만세운동을 추진하였으며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의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김연의 (金演儀)

일명 순서(順瑞라고도 하는데 안흥면(安興面) 상가좌곡리(上佳佐谷里, 현 佳川里)에 살고 있던 당시 나이 21세의 천도교인으로 1919년 4월 1일 횡성 만세운동의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6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김옥봉 (金玉鳳)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송병기(宋秉基) 등 4명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협의한 뒤 주민을 동원하여 밤 9시경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부르자, 김옥봉은 그의 집에 와있던 유정근(柳定根)·이두연(李斗淵)·이종우(李鍾禹)와 함께 다시 군중을 모아 합세하였다. 군중은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순회하며 만세를 불렀고 참가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 문을 부수기도하며 새벽 1시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해 5월 15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었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624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14輯 984쪽)

김윤배 (金允培)

횡성군 갑천면(甲川面) 매일리(梅日里) 사람으로 횡성 천도교인이었다.

최종하(崔宗河)·정해경(鄭海璟)·탁영재(卓英才) 등이 주동한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매일리 주민을 동원하고 술선하여 만세를 불렀다. 이날 만세 운동은 오후에 폭발하였는데 1천 3백여 명의 군중이 모여 천도교 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손에는 태극기나 몽둥이 아니면 장작을 들고 일본 관헌이 만들어 놓은 것, 문을 닫지 않은 상점, 군청 건물 등을 파괴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1919년 5월 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겪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54-955쪽)

김윤신 (金允信)

인제군 서화면(瑞和面) 천도리(天桃里) 사람으로 천도교인이다.

3·1운동 때 장사꾼으로 가장하여 붓짐을 지고 물건을 파는 척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만세운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격려하는 등 활

약을 하다가 최종하(崔宗河)·정해경(鄭海璟)·탁영재(卓英才)등이 주동한 1919년 4월 1일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이날 만세운동은 횡성읍 장터에서 오후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1919년 5월 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54-955쪽)

김인경 (金麟卿)

횡성군 정곡면(井谷面) 상안흥리(上安興里) 사람으로 서당 훈도였다.

천도교 횡성대교구장이던 최종하(崔宗河)와 감리교지도자 정해경(鄭海璟)·탁영재(卓英才)가 주동한 1919년 4월 1일 횡성장날을 기한 만세운동에 참여한 안흥리 사람들을 동원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여러사람이 인원 모으기에 힘쓴 결과 1천 3백여 명의 군중이 모였으며 천도교 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5월 1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575-597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50쪽)

김인즙 (金仁湑, 1890. 1. 15 ~ 1950. 9. 27)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公根面) 유담리(唯潭里)에서 태어났다. 1905년 11월 18일 일제가 무력으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김인즙은 서울 상동교회(尙洞敎會)에 동지들과 함께 모여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인즙 등은 도끼를 메고 5명씩 연명으로 1회, 2회로 나누어 죽든지 잡혀갈 때까지 상소하기로 결의하고 1905년 11월 27일 제 1 회로 이준(李儁)이 지은 상소를 최재학(崔在學)이 소두가 되어 대한문 앞에 나아가 바치고 을사조약의 파기와 을사 5적의 처형을 요구하였다. 일제 경찰이 출동하여 상소에 연명한 5명을 체포해 가자 김인즙 등은 시민들에게 일제를

규탄하고 국권회복에 쫓기할 것을 호소하는 가두연설을 한 다음 시민들과 함께 일제 헌병대에 대항하여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한 시위운동을 전개하여 한 때 일제 헌병대에 체포되었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기려수필 騎驢隨筆』 82쪽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 (國家報勳處, 7卷 114·115쪽)

김준경 (金駿卿, 1924. 4. 22 ~ 1973. 5. 5)

김준경은 강원도 횡성(橫城) 출신으로 1944년 11월 중국 하북성 포기현(蒲淩縣)에서 일본군 제3702부대를 탈출하여 중국군 왕륙기(王陸基)장군 휘하의 신편 제15사 유격대에 가담하였다.

그 후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되어 활동하다 광복을 맞이하였다.

1982년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 (國家報勳處, 6卷 450·451·621쪽)

김진대/최동수 (金振大/崔東壽)

최동수(崔東壽)는 청년회원으로 횡성군 읍하리(邑上里)에 살면서 1919년 4월 1일 횡성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만세군중을 해산시키려던 코지마 료(小島了) 헌병 상등병을, 우천면(隅川面) 두곡리(杜谷里)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김진대(金振大)노인과 함께 합세하여 말에서 끌어내려 구타하고 담뱃대로 때리며 호령하였고 운동이 끝난 후에 일본 헌병의 눈을 피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만주를 드나들기도 하였다.

김치정 (金治正)

기미년 만세사건 때 김치정씨는 갑천면(甲川面) 매일3리(梅日3里)

속칭 잔골마을에서 50대의 장년으로 한문서당을 마련해 놓고 10여명의 문하생을 두고 한학(漢學)을 가르치고 있었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유생이었다.

3·1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강원도내에서는 횡성에서 제일 먼저 3월 27일에 군민이 자연 발생적으로 참여하여 3·1 만세를 불렀고 이어서 대규모 운동으로 전개된 4월 1일 장날과 2일을 계속해서 만세를 불렀다. 이때 군내 각지에서 스스로 참가하는 수 많은 군민들이 횡성 읍내 장터로 모여들 때 김치정씨도 잔골에서 제자 신건수씨를 대동하고 횡성으로 와서 만세를 부르는 군중과 함께 독립 만세를 불렀다.

만세를 부르는 군중의 기세가 도도해지자 경찰서에 근무하는 일경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됨을 판단한 경찰서장은 원주에 있는 일본 헌병 파견대에 연락을 취하여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원주 헌병 파견대에서 급파된 일본 헌병들은 횡성 앞내 다리(現 前川橋)를 건너서면서부터 전투태세를 갖추고 횡성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의 동향을 살피며 서서히 접근하여 왔다. 횡성 군민들의 만세소리는 점점 고조되어 갔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만세를 부르는 군중의 수는 점점 많아졌고 열기는 거세어 졌다. 만세를 부르는 군중의 선두가 일본인 경찰들이 근무하는 경찰서로 향해 움직이는 것을 본 일본 헌병들은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만세를 부르다 일본 헌병이 쏜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포들을 본 군중은 대노하기 시작했고, 격렬해지면서 맨 주먹을 움켜쥐고 혹은 돌과 몽둥이를 집어 들고 왜병을 향해 물려가기 시작했다. 사태가 위급하여진 일본 헌병들은 거세게 무차별 사격으로 독립을 외치는 군민들에게 대항하였다. 김치정씨는 무차별 난사하는 총탄에 맞아 만세 부르던 현장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드디어 총소리가 멈추고 피신했던 군중들이 만세 현장에 나와 총탄에 맞은 사람들의 생사를 확인했다.

이때 신건수씨는 총소리에 놀라 어떻게 피신을 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만세사건 후 갑천면 잔골마을로 김치정씨의 사망한 소식이 전달되어 잔골부락민들이 횡성까지 나와서 시신을 운구하여 오고 부락민들의 정성된 협력으로 그나마 일경의 눈을 피해 가며 매일 2리 박해운씨 자택 옆에 있는 동산에 장사를 지냈다. 묘가 현재도 친척들의 보살핌으로 보존되어 오고 있다.

김치정씨가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또 순국한 사실은 당시에 일본 헌병과 경찰이 두려워 오히려 남들에게 숨겨야 했으며 아직까지 그 업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신건수씨의 증언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졌다.

박민희 (朴民喜, 1879. 9. 25 ~ 1945. 2. 2)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송병기(宋秉基)·성태현(成泰鉉)·이정헌(李正憲) 등과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고 주민을 동원하였다. 9시경 주민을 모아 뒷산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부르니 마을에서도 화답하여 만세를 부르며 올라와 이들과 합세한 뒤 다시 마을을 순회하며 밤늦도록 만세를 불렀다.

1919년 5월 15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580쪽)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5輯 950 ~ 952쪽)

박봉수 (朴鳳洙, 1898. 3. 14 ~ 1974. 12. 8), 이명 : 봉수 (鳳秀)

횡성(橫城) 사람이다.

1932년 9월 국민부(國民府) 산하 조선혁명군(朝鮮革命軍)의 일원으로 평남 덕천(德川)에서 폭탄사건을 일으켰던 변낙규(邊洛奎)·김병수(金炳洙) 등이 국내에 잠입하자 이들을 도와 연락기관을 설치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폈다.

그는 이들과 함께 평북 구성(龜城) 소재 거부인 최창학(崔昌學)을 납치하여 군자금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 1932년 12월 27일에는 동지인 장인준(張仁濬)·김일봉(金一鳳)과 함께 영변(寧邊)의 도박장(賭博場)을 습격하여 군자금 모집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1933년 3월 29일에 그는 변낙규와 함께 삭주군(朔州郡)의 이봉주(李鳳柱)로부터 군자금 42원을 모집하고 위조지폐(偽造紙幣)의 발행을 계획하던 중 일경에 체포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는 1933년 8월 9일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소의 치안유지법 및 제령(制令) 제 7호, 폭발물취체규칙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루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기려수필 騎驢隨筆』(國史編纂委員會, 427, 428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14集 912쪽) / 『동아일보 東亞日報』(1933. 4. 14 ; 7. 19 ; 8. 11) / 『독립유공자공훈록 獨立有功者功勳錄』 9, 168쪽

백흥기 (白興基, 1920. 5. 18 ~ 1940)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安興面) 사람이다.

춘천고등보통학교(春川高等普通學校) 재학 중인 1937년 3월에 동교생 남궁태(南宮珪)·이찬우(李燦雨)·조규석(曹圭奭)·문세현(文世鉉) 등과 함께 일제의 민족차별교육에 반대하여 항일학생결사 상록회(常綠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강령 및 부서를 정하였는데 그는 서적부장의 일을 맡았다.

그후 상록회는 신입회원을 가입시키며 회세를 확장하여 전교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록회의 주요활동은 월례회·토론회·독후감발표회 및 귀농운동 등으로서 주로 독서활동을 통한 항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 회원은 졸업후에도 그러한 상록회의 활동을 계속하여 각기의 정착지에서 새롭게 상록회 조직을 결성하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8년 3월 졸업후 그는 문세현·이찬우 등과 만주(滿洲)로 건너가 재만독립운동가 이동산(李東山)·오종태(吳鍾泰)·석일경(石一慶) 등과 합세하여 길림(吉林)에 상록회를 조직하는 등 문세현과 함께 간도(間島)지방에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1938년 가을, 춘천에서 상록회의 조직과 활동이 일경에 발각됨으로 그도 이에 연루되어 만주에서 피체되었다. 피체후 춘천으로 이송된 그는 1년여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39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형을 언도 받고 옥고를 치루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판결문 判決文」(1939. 12. 27 京城地方法院)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12卷 370쪽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9卷 731·732·733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12卷 1434~1444쪽) / 「태백항일사 太白抗日史」(趙東杰, 298~302쪽)

성태현 (成泰鉉)

황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송병기(宋秉箕)·박민희(朴民喜)·이정헌(李正憲)과 함께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밤 9시경 주민 70여명을 모아 분일리내 향산(香山)과 수동(水洞) 사이의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그 후 산에서 내려와 4월 13일 오전 1시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년 5월 2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8년경 신간회(新幹會) 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19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여 우리의 민족혼 찾기운동에 앞장서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판결문 判決文」(1919. . 15. 京城地方法院)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579~581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50~952쪽)

송병기 (宋秉箕, 1891. 4. 30 ~ 1930. 5. 18)

강원도 횡성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성태현(成泰鉉)·박민희(朴民喜)·이정헌(李正憲)과 함께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협의하고 주민 70여 명을 규합하여 뒷산에 올라가 봉화(烽火)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만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들어 다시 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산에서 내려와서 마을을 순회하며 밤새도록 시위를 하다가 날이 샅 무렵에야 해산하였는데 그는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580쪽) / 『독립운동사자료

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50~952쪽)

신재근(申在根)

횡성군 횡성면(橫城面) 영영포리(永永浦里) 사람이다.

1919년 3월 10일경 장도훈(張道勳)과 함께 그의 집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장도훈으로 하여금 서울 이동구(李東九)에게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구입해오도록 하여 3월 13일 횡성군내에 배포하였다. 그 후 3월 27일 횡성읍 장날을 맞이하여 모든 상점을 닫게하고 3백여 명의 주민을 모아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6일 경성 북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574-575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252~254쪽)

안승훈(安承勳, 1900. 11. 26~1975. 7. 20), 이명 : 경춘(敬春)

강원도 횡성 사람이다.

1919년 당시 횡성군 안흥면(安興面) 상안리(上安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천도교인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일제식민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3월 1일 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서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1919년 3월 27일 횡성장터에서 신재근(申在根) 등 천도교인 다수와 주민을 규합하여 신재근과 장도훈(張道勳)을 중심으로 미리 준비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교부받아 장터에 모인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5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6일 경성북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52~954쪽)

원후정 (元厚貞, 1922. 5. 27 ~)

강원도 횡성 사람이다.

1938년 가을에 춘천중학교의 항일학생결사 상록회(常綠會)가 일경에 발각되어 전회원이 검거된 후 춘천중학생들은 민족적인 서적을 구독하고 독후감교환 및 토론을 통하여 항일의식을 제고하면서 민족의 진로를 찾고자 독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독서운동의 활동 내용과 성격은 상록회와 거의 같은 것이었으나 이들은 조직체의 이름을 내어걸고 활동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이미 상록회가 발각되었으므로 다시 조직체를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활동에 불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의 형식은 없었지만 이들은 독서운동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심화시켜 갔다.

그러던 중 1941년 3월에 심재진(沈在震)·고제훈(高濟勳)·김영근(金榮根)·박영한(朴泳漢)·권혁민(權赫民) 등과 함께 민족차별에 분개하고 춘천중학교 교정에서 일인 학생들과 무력 충돌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싸움의 규모가 컸으므로 일경이 개입하게 되었고, 이때 한국학생들을 탄압했던 것은 물론이고 춘천중학생의 독서활동도 발각되었다.

그리하여 그도 일경에 피체되었고, 피체후 1년여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2년 5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3년형을 언도받았으며, 또 소위 '폭행죄'로는 징역 단기 6월, 장기 2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9卷 734쪽)

유정근 (柳定根, 1882. 7. 24 ~ 1946. 11. 20)

횡성군 갈원면(葛院面) 분일리(分一里)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밤 9시경 송병기(宋秉基)·성태현(成泰鉉)·박민희(朴民喜)·이정헌(李定憲) 등은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려 만세를 부르고 그는 이두연(李斗淵)·이종우(李鍾禹)·김옥봉(金玉鳳)과 함께 다시 군중을 모아 합세하였다. 군중과 함께 밤 늦도록 만세를 부르고 참가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폭력을 가하고 문을 부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판결문 判決文」(1919. 5. 15. 京城地方法院) / 『橫城과 3·1운동』(趙東杰, 1977, 83·102·104쪽)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579~581面쪽) / 『독립운동사연구자료집 獨立運動史研究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50~952쪽)

운동선 (尹東先)

횡성읍(橫城邑) 영영포리(永永浦里)에 살고 있던 그는 당시 25세로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총상으로 부상을 당하였다.

윤석환 (尹錫煥)

횡성읍(橫城邑) 읍하리(邑下里)에 살던 그는 배후에서 횡성의 3·1 만세운동을 계획하는데 지도하고 3월 27일 운동과 4월 1일 운동 등 횡성의 3·1 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고 지원하였다.

윤태환 (尹泰煥)

횡성군 횡성면(橫城面) 읍하리(邑下里) 사람이다.

신재근(申在根)·장도훈(張道勳)이 계획하여 추진한 1919년 3월 27일

의 홍천읍 장날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27일 횡성시장에서 신재근이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자 승낙하였다. 그는 다른 주동인물들과 함께 시장내의 모든 상점을 닫게 하고 사람들을 집합하여 300여명의 군중에 앞장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6일 경성 북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輯 576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53, 954쪽)

위창래 (魏昌來)

당시 횡성읍(橫城邑) 영영포리(永永浦里) 구장(區長)이었던 그는 당시 많은 친일 구장들과는 달리 이 마을에서 있는 3·1 만세운동의 계획·추진의 비밀을 일본 헌병들로부터 발각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며 만세운동의 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기순 (李奇順)

그는 둔내면(屯內面) 자포곡리(自浦谷里)에 살고 있었으며 횡성의 3·1 만세운동 때에 만세운동을 주동한 혐의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8개월의 옥고를 겪었다.

이동구 (李東九)

공근면(公根面) 매곡리(梅谷里)에 살던 그는 태극기를 만들어 돌리며 공근면민의 참여를 독려했고, 면민들과 함께 1919년 4월 1일 횡성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두연 (李斗淵, 1881. 8. 4 ~ 1946. 11. 18) 이명 : 공진 (公進)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송병창(宋秉昌) 집에 모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였다. 밤 9시경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부르자 그는 김옥봉(金玉鳳)의 집에 와있던 유정근(柳定根)·이종우(李鍾禹)와 함께 다시 군중을 모아 합세하였다. 그 후 그는 군중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순회하며 만세를 부르고, 참가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문을 부수기도하며 새벽 1시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판결문 判決文」(1919. 5. 15. 京城地方法院)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579~581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50~952쪽)

이유태 (李裕泰)

공근면(公根面) 하갈마곡리(下葛麻谷里, 현 梧山里)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 당시 횡성의 3·1 만세운동을 맞아 만세를 선동한 혐의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8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정헌 (李定憲)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송병기(宋秉基)·박민희(朴民喜)·성태현(成泰鉉)과 함께 송병창(宋秉昌)의 집에 모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밤 9시경 주민 70여명을 모아 뒷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불렀다. 그 후 산에서 내려와 4월 13일 오전 1시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 후 체포되어 1919년 5월 15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 (國家報勳處, 2卷 580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 (國家報勳處, 5輯 950~952쪽)

이종우 (李鍾禹, 1880. 6. 8~1951. 11. 24)

강원도 횡성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분일리(分一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여 주민 50여 명을 규합, 봉화를 올린 후 만세를 부르자 그는 김옥봉(金玉鳳)의 집에 와있던 유정근(柳定根)·이두연(李斗淵)과 함께 다시 군중을 모아 합세하였다. 그 후 그는 군중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순회하며 태극기와 '대한독립만세'라고 대서특필한 깃발을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참가하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문을 부수기도 하며 새벽 1시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일경의 무력탄압에 의해 시위가 중단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경에 피체되었다.

같은 해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판결문 判決文」 (1919. 5. 15. 京城地方法院)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 (國家報勳處, 第2卷 579~581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 (國家報勳處, 第5輯 950~952쪽)

이채일/이동구 (李采一/李東求)

이채일과 의사원이었던 이동구는 횡성 천도교 출신으로 서울 천도교 본부에 근무하면서 횡성의 3·1 운동에 독립선언서 알선 등 지원을 하였고 서울의 만세운동 정보를 제공하였다.

장도훈 (張道勳)

횡성 천도교회 대교구 봉훈이었던 그는 당시 49세로 안흥면(安興面) 안흥리(安興里) 속칭 울일골에 살았다. 횡성의 3·1 운동을 계기로 이 운동의 주동자의 한 사람이 되어 만세운동에 앞장서다가 1919년 3월 27일 만세운동시에 체포되어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만세운동에 필요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서울에서 비밀리에 구입하여 오는데도 공헌하였다.

2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고향에 돌아와 1935년 2월 8일 작고하였다. 그의 아들들은 지금도 안흥면(安興面) 월현리(月峴里)에서 살고 있다.

전성수 (全聖洙)

횡성군 횡성면(橫城面) 읍상리(邑上里)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최종하(崔宗河)·정해경(鄭海璟)·탁영재(卓英才) 등이 주동한 횡성읍 장날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이날 만세운동은 횡성읍 장터에서 오후에 시작되었는데 1천 3백여명의 군중이 모여 천도교 교구실에 태극기를 높이 올리고, 만세시위를 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해 5월 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54-955쪽)

전한국 (全漢國)

횡성읍(橫城邑) 읍하리(邑下里)에 살고 있던 그는 3·1 운동 당시에 수로공부(水路工夫)로 일하고 있었으며 횡성의 만세운동에 참가,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에 앞장서 독립을 외치다가 일본 헌병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 순국하였다.

정두철 (鄭斗澈)

횡성읍(橫城邑) 읍하리(邑下里)에 살던 그는 1919년 4월 1일 횡성

의 만세운동의 선봉에 서서 ‘조선 독립만세’를 가장 먼저 외치며 이 운동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정해경 (鄭海璟)

황성군 황성면(橫城面) 내지리(奈之里)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황성읍 장날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는 감리교인들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1천 3백 여명의 군중에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이해 5월 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576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54-955쪽)

조상렬 (趙常烈)

황성군 정곡면(井谷面) 하산전리(下山田里) 사람이다.

최종하(崔宗河)·정해경(鄭海璟)·윤태환(尹泰煥)·탁영재(卓英才)등이 주동한 1919년 4월 1일 황성읍 장날의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크게 활약하였다. 이날 만세운동은 황성읍 장터에서 오후에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시위하다 헌병들의 발포로 해산하였다.

그 후 체포되어 이해 5월 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8월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54-955쪽)

조흥열 (趙興烈)

황성읍(橫城邑) 읍하리(邑上里)에서 쌀가게를 하고 있던 그는 1919년 4월 1일 황성 만세운동 때에 쌀가게를 수리하려고 준비하였던 석가래 등 목재를 군중들에게 나누어주며 만세운동을 독려하고 탁영재(卓英才), 정두산(鄭斗澈) 등과 선봉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천선재 (千善在)

횡성군 정곡면(井谷面) 안흥리(安興里)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그가 거주하던 영월군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자 여러마을을 순회하며 힘을 모으려고 하였다. 4월 11일 주천장날을 거사일로 계획하고 4월 8일에는 법흥리의 최춘일(崔春日)의 집에서 그리고 9일에는 양변면(兩邊面) 신일리(新日里) 최성오(崔成五)의 집에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해 선동하였다. 또 10일에는 수주면(水周面) 무능리(武陵里)에서 현성준(玄聖俊)에게 만세운동을 권고하며 추진하다가 체포되었다.

이해 5월 2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었다.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2卷 594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5輯 955-956쪽)

최양옥 (崔養玉, 1893. 12. 5 ~ ?)

자는 길준(吉俊)이고, 호는 추강(秋岡)이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甲川面) 화출리(花出里)에서 출생하고 1913년 4월 원주보통학교(原州普通學校)에 입학하여 1917년 동교를 졸업하였다. 동년 3월에 서울 중동중학교(中東中學校)에 입학하였다.

1917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민족정신과 항일사상이 투철한 그는 독립투쟁에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인 강원도 횡성으로 내려가서 동지를 규합한 뒤 천도교인(天道敎人)들과 합세하여 동월 11일 횡성을 장날에 만세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후 그는 일경(日警)의 추적을 피하여 가진 고생을 겪다가 상경한 후 만주(滿洲)에서 이동녕(李東寧), 박은식(朴殷植)으로부터 군자금 모집의 지령을 받고 서울에 와서 표면상으로 만주농림 주식회사(滿洲農林株式會社)를 창립하던 신덕영(申德永)을 만나 1920년 7월 서울 소격동(昭格洞) 신덕영의 집에서 신덕영, 노형규(盧衡奎) 등과 부한청년단(扶韓靑年團)을 조직하였고 그는 농림주식회사의 주식 모집원으로 가장하고 전남 각지에

서 많은 군자금을 모집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었다.

그는 다시 신덕영 노기준(盧基準)과 같이 전남(全南) 담양군(潭陽郡) 및 곡성군(谷城郡)에서 군자금모집에 진력하던 중 동년 11월 5일 노기준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광주(光州)로 가던 도중에 일경에게 피체되어 1921년 5월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언도를 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26년 출감하였다.

출감한 뒤 고향을 찾아가니 부친은 이미 4개월 전에 별세하였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그 형편은 말할 수 없었으나, 새롭게 독립운동에 투신할 각오를 하고 다시 고국을 떠나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는 중국 산서성(山西省) 태원부(太原府)에서 안창남(安昌男), 이용화(李容華), 김정련(金正連) 등 여러 동지와 더불어 공명단(共鳴團)을 조직한 후 단장에 피선되었다.

1927년 안창남, 신덕영, 김정련 등과 북만(北滿)에서 독립군 비행사들 양성을 목적으로 비행학교(飛行學校)설립을 계획하고 그 기금 모음과 서울에 공명단 지부를 설치하고자 김정련, 이선구(李善九) 등과 같이 1929년 4월 서울에 잠입하였다. 첫 번째 행동으로 동월 20일 그는 김정련, 이선구와 함께 서울 교외 망우리(忘憂里)에서 강원도 춘천(春川)으로 가는 일본 우편물 수송차를 권총으로 습격하여 정차시켰다. 이때 일행은 차속에 실었던 우편낭을 뒤져 많은 돈을 빼앗은 뒤 일인의 우편물은 전부 불태워 버리고 동포의 우편물만 남겨 두었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자동차를 모조리 정지시킨 후 운전수와 승객들의 눈을 가리고 산골 속으로 끌고 가서 열좌시키니 그 수효 70여명이었다.

이같이 산 밖으로 정보가 새지 않게 한 후 지사의 일행은 행장을 수습하고 강원도 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급보를 받은 일경은 경기(京畿), 황해(黃海), 강원(江原), 충북(忠北), 충남(忠南) 등 5도의 일경과 일군(日軍) 제 19사단의 지원을 얻어 천마산(天摩山, 楊州)을 포위하매 지사의 일행은 이를 상대로 전투를 시작하여 망우리고개와 마치고개를 넘나들면서 1주야를 악전고투하였으나 탄환

은 떨어지고 세궁진력하여 결국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그후 경기지방법원에서 1년간의 예심을 거쳐 징역 10년의 언도를 받았으며, 심정련은 징역 9년, 이선구는 징역 6년의 언도를 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이선구는 옥중에서 병사하고 그는 10년이란 긴 세월을 복역하다가 만기 출옥하였다.

1945년 8·15 광복후에는 서울형무소 서무과장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인천형무소장에 승진되어 근무하였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한국독립운동사 韓國獨立運動史』(애국동지원호회, 1956) / 『한국독립운동사 韓國獨立運動史』3(國史編纂委員會, 1969) / 『대한민국 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신재홍 1971)

최종하(崔宗河, 1877. 1. 24 ~ 1922. 7. 25)

강원도 횡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2월 당시 횡성군 횡성읍(橫城邑)에서 천도교 대구교장으로 있으면서 서울에 가서 손병희(孫秉熙)와 회동한 후 독립선언서 10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독립선언서를 김인경(金麟卿)에게 건네주어 갑천리(甲川里)·둔둔리(屯屯里)·정곡면(井谷面) 등지에 배부하도록 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

이 해 6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언도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25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판결문 判決文』(1919. 6. 9, 6. 25, 8. 14, 京城地方法院)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574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50쪽)

추병륜 (秋秉倫)

원주시 소초면(所草面) 교항리(橋項里) 사람인 그는 당시 45세로 횡성 천도교 교인으로 횡성의 3·1 만세운동에 가담, 연락 책임자로 활약하다가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탁영의 (卓英儀, 1922. 4. 4 ~)

강원도 횡성(橫城) 사람으로 운엽(雲燁)이란 이름으로도 불린다.

1943년 10월 일제에게 강제로 징집당하여 중국 남경지구(南京地區) 주둔 일본군부대에 배속되어 있으면서 중국 중경(中慶)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光復軍)이 있다는 정보를 일본군 병사로부터 전해 듣고 광복군에 입대할 것을 결심하여 1944년 5월 일본군을 탈출한 후 중국군 유격대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1945년 4월 중국 중경에 도착한 그는 토교대(土橋隊)에 입대하고 광복군총사령부(光復軍總司令部) 경위대(警衛隊)에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동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寫眞」(1945. 6 光復軍總司令部 警衛隊 幕舍(中國 土橋)에서 訓練光景)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6卷 509쪽) / 「韓國獨立史」(金永學, 上卷 305쪽) / 「독립유공자공훈록 獨立有功者功勳錄」9, (510-511쪽)

탁영재 (卓英在, 1867 ~ 1941. 12. 23)

강원도 횡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27일 강원도 횡성 장날을 이용한 만세시위에 참가한 후 항일비밀결사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철원에국단은 1919년 5월 서울에서 결성한 대한독립애국단(大韓獨立愛國團)의 강원도단의 속칭으로, 대한독립애국단의 활동이 강원도에서 가장 활발했고 또한 철원은 강원도단의 중심지였으므로 흔히 철원에국단이라 불리운다.

대한독립애국단의 강원도단이 설치된 것은 1919년 8월 중순경으로, 처음에는 철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이후 강원도단은 양양강릉평창 등지에 군단을 설치하며 강원도의 각처에 조직을 발달시켜 나갔다.

이러한 철원에국단은 임시정부의 국내조직인 연통부(聯通府)의 체계는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시정부에 대한 선전 및 군자금 모집 등을 통하여 임시정부의 국내 조직인 연통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철원에국단에서는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을 촉하하는 만세시위를 독자적으로 추진했는가 하면, 단원을 임시정부에 파견하면서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철원에국단은 1920년 초에 발각됨으로써 조직이 파괴당하였는데, 탁영재는 이 일로 일정에 피체되어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3·1記念表彰狀』(강원도 경찰국장, 1954) / 『橫城과 3·1運動』(趙東杰, 1972, 65~195쪽)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166쪽) / 『독립운동사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574~581쪽) / 『독립운동사자료집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9輯 990~1001쪽)

하영현 (河永賢)

일명 하돌림(河芑林)이라고도 하는 그는 원주시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 사람이다.

횡성 천도교회의 교인의 한 사람으로써 횡성의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현장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순국하였으며 그의 묘소가 횡성읍(橫城邑) 모평리에 소재해있다.

황소아줌마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황성 옥동리(玉洞里)와 갑천면(甲川面) 중금리(中金里)의 경계인 '한치고개'에서 주막을 경영하던 황소 아줌마(황소 아줌마 또는 황소 갈보)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주막을 3·1 만세운동의 모의장소로 제공하였고 1919년 4월 1일 만세운동 때에는 여자의 몸으로 앞장서 군중을 격려하였다.

4) 효자(孝子)·효부(孝婦)·열녀(烈女)·기타

*효자(孝子)

강대열 (姜大烈)

둔내면(屯內面) 조항(鳥項) 2리 1반에 살았던 그는 효자로서 이름이 났었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부친 강기수씨가 92세로 사망할때까지 항상 곁상하여 반찬을 챙겨드렸고, 모친의 죽음으로 홀로 되시자 두 번째 걸쳐 새 어머니를 모셔드렸다.

그래서 77년도에 황성 향교에서 내신을 받아 성균관에서 효자로 표창 받았다.

고 숙 (高 肅)

조선초기의 인물로 효행이 매우 뛰어났다. 『세종실록 世宗實錄』 세종 13년 6월 25일의 기록을 보면 황성(橫城)에 거주하는 전 교도(敎導) 고숙(高肅)은 아버가 죽자 3년을 여묘(廬墓)를 하고 일체의 가례를 좇아 행하여 복을 마치니 어미의 나이가 89세인데 숙이 통천

교도(通川敎導)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효도하고 봉양하였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의 효행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세종실록 世宗實錄』

곽채상 (郭采象)

그는 갑천면(甲川面) 추동리(楸洞里)에서 농사를 지으며 넉넉치 못한 생활 중에도 평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한 효자이다.

아침 저녁으로 끼니 때가 되면 부모의 진지는 쌀밥으로 따로 떠서 부모님이 드시게 하고 남은 가족은 잡곡밥을 먹으면서도 누구 한 사람 불평이 없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대관대리 입구에 큰 못(沼)이 있는데, 낮에는 틈을 내어 나가서 낚시를 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같이 쏘가리가 두 마리 밖에는 안 잡혔으며, 이 두 마리의 쏘가리로 저녁과 아침식사 때 반찬을 만들어 부모를 모셨다. 또한沼의 물은 아무리 비가와도 늘거나 흐리지 않았고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에게 쏘가리는 아예 잡히지 조차 않았다.

80세가 되어 작고하신 부모의 묘소에서 3년 시묘를 마치는 동안 집안은 그의 처 김씨가 맡아 남편 못지 않게 농사일이며 아이들 양육에 정성을 드렸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유림에서 곽채상의 효행을 추천하여 효자 교지를 하사 받았다.

그의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쏘가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하며 그가 낚시질 하던 바위를 쏘가리바위(鰈魚岩)라고 하는데 6·25 동란 중에 파괴되어 없어졌다고 전한다.

권엽 (權燁)

둔내면(屯內面) 우용리(右用里) 양촌(陽村)에 살고 있던 그는 효자

로 소문이 나있었다.

뜻하지 않게 집에 불이나 늙은 어머니를 구하려고 불길 속에 뛰어 들었으나 모친은 심한 화상으로 죽고 아내마저 모친을 구하다 함께 변을 당하자, 열 네살난 아들과 열 한살 난 딸과 함께 어머니와 아내를 불 속에 소사케 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불길 속에 뛰어 들어 불효를 사죄하였다.

이같은 효행이 알려져 후에 효자 정여(旌閔)를 내렸다. 그 정려각이 둔내면 우용리 문탄마을에 있었으나 6·25 동란시에 없어졌다.

권태명 (權泰明)

안동 권씨(安東權氏)인 그는 부모 공양에 그 효성이 지극한지라 맛있는 음식을 다하여 공양하며 천수를 기원하였으며, 부모의 상을 당하여 여묘(慮墓)의 예를 향하고 상복을 벗은 뒤에도 그 전향(奠香)을 하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길도연 (吉道淵)

황성읍 묵계리(墨溪里)에 살았던 그는 매우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맛있는 음식은 결코 먹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드렸으며 아침 저녁으로 어버이께 안부를 물어 살피기를 옛 예의대로 하여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였다.

김계원 (金啓源)

그는 강릉 김씨(江陵金氏)로써 효행이 지극하여 효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892년에 조정에서 동몽교관(童蒙教官)을 제수하였다.

김군경 (金君經)

경주 김씨(慶州金氏)로 아버지의 성품이 엄준(嚴峻)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밤마다 벌레를 잡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편히 주무시게 하는 등 부모의 봉양에 정성을 다하니 향리(鄉里)에서 추천 표창하였고 만년에는 타지방으로 이사하여 살면서도 경사스러운 날을 만날 때마다 산에 올라가 선산을 향하여 배례를 늘 올리니 보는 이마다 이르기를 효자라 하였다.

김노례 (金魯禮)

경주 김씨(慶州金氏)로써 부모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조상(弔喪)을 당하여 식소(食素)하기를 3년이었고 삭망(朔望) 때마다 비바람을 피하지 아니하고 제를 올리며 어찌나 슬피 눈물을 흘렸던지 묘소의 마른나무가 눈물로서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이르기를 효자나무라 칭송하였다.

아들 차선(次善) 때에 효려(孝閭)를 내리고 관직으로 충훈부(忠勳府) 도사(都事)를 내렸다.

김동식 (金東植)

그는 경주 김씨(慶州金氏)이며 부모에 효성을 다하여 섬겼을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였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자며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항상 어른들과 상의하여 하였다.

김명식 (金明植)

김해 김씨(金海金氏)로 가세가 빈약함에도 정성으로 효성을 다하였는 바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였고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미꾸라지를 먹기를 원하므로 즉시 강에 나가 얼음위에서 미꾸라지를 얻기를 울면서 원하니 미꾸라지가 나와 가져다가 드리니 효험이 있었다. 만년에 부모의 상을 당한 뒤 100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삭망(朔望) 때마다 성묘(省墓)를 하였다.

김병섭 (金炳燮)

경주 김씨(慶州金氏)로 가세가 빈약하여 노동일로 생계를 이어 가면서도 맛있고 기름진 음식으로 봉양하였고 부친상을 당하여 연지할고(研脂割股)를 무소부지(無所不至)로 하였다. 득몽정전(得蒙旌典)을 하였다.

김보경 (金寶慶)

부부가 합심하여 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자주 기름진 주안상을 준비하여 여러 친구분들과 함께 즐기도록 하였다.

김석진 (金錫振)

강릉 김씨(江陵金氏)로 어려서부터 효성이 뛰어 났으며, 아버지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워 신음하는지라 걸은 떠나지 아니하고 시중을 들었으며 대변을 맛보아 병의 차도를 알아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슬퍼하는 예의가 남들과 달랐고 3년간 거려(居慮)하였다.

김영해 (金榮海)

김해 김씨(金海金氏)인 그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연이어 양친상을 당하여 어찌나 애달프고 서럽게 우는지 끝내는 울다가 지쳐 쓰러졌으니 가상스러운 일이다 하여 사람들이 효자라 불렀다.

김인구 (金寅九)

부모님을 효로서 받들어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를 드리매 있어 정중하게 물음에 답하여 공경을 다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를 공양하였다.

김재희 (金載熙)

경주 김씨(慶州金氏)로 부호군(副護軍)을 지낸 김종남(金鍾男)의 아

들이다.

천성이 순박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고 사후에 묘소에 눈, 비,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삭망(朔望)에 찾아가 읍조려 제를 올리는데 정성을 다하였다.

이같은 효성이 조정에 알려져 통정관(通政官)을 제수하였다.

김정율 (金正律)

둔내면(屯內面) 궁종리(弓宗里) 마을에 살았던 그는 남의 땅을 얻어 농사를 짓고, 품도 팔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나이 많은 모친을 모심에 있어서, 남의 집일을 하면서 음식을 얻게 되면 꼭 한 몫을 더 얻거나 자기 몫을 가져다 모친에게 드렸다. 어머니가 노환으로 사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입으로 꿰어서 피를 흘려 목에 부어 드렸으나 효험이 없어 사망하게 되었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장사를 지냈다.

김종운 (金鍾雲)

김해 김씨(金海金氏)이며 일명 한갑(漢甲)이라고도 한다. 가세가 빈약하였으나 효성이 지극하였고 부모의 상(喪)을 당하여 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였고 삭망(朔望) 때마다 성묘를 하였으며 만년에 중수교관(重修敎官)을 하였고 이원식(李元植)과 함께 운암정(雲巖亭)을 건립하였다.

김종일 (金鍾一)

김해 김씨(金海金氏)이며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를 정성을 다하여 섬겼으며 어머니의 병환에 정성껏 하늘을 향하여 만수무강을 기원하였고, 그 상을 당하여 지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렀으며 매 삭망(朔望) 때마다 비오고 바람이 불거나 눈이 내리고 춥거나 덥거나 오로지 성묘하였다.

김준백 (金俊伯)

경주 김씨(慶州金氏)의 후손으로, 가세가 빈약함에도 노인을 공경하였고 정성을 다해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하였다. 아버지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여 병든지 7년만에 회생케 하였다. 다시 병이 재발하자 온갖 약을 구하여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공양하기를 더 하였다.

마침내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자 3년을 하루 같이 묘소를 떠나지 않고 시묘살이를 하니 호랑이가 효성에 탄복하여 찾아와 호위를 해주었다고 한다.

김택굉 (金宅鎧)

연안 김씨(延安金氏)로 친족과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효가 지극하여, 겨울은 항상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스럽게 어른을 대하였고 양친상을 당해서는 3년간 이를 닦지 아니하며 부모를 애도하니, 멀고 가까운 곳에서 그의 효성을 숭양하였다.

김현모 (金顯模)

김광규(金光奎)의 손자로 가세가 빈약하나 노인들에게 효성을 다하였고 밤에는 글을 읽고 낮에는 일을 하며 부모 공양이 극진하였으니 세상에 더 없는 효성이라 하였다.

박병묵 (朴丙默)

밀양 박씨(密陽朴氏)이며 어릴 때에 일찍 부모를 여의어 믿고 의지할 곳이 없었으며, 믿고 의지할데란 오직 할아버지뿐이었으므로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할아버지를 모셨으나 노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하고 또 두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 것도 볼 수 없게 되었으나 끼니마다 친히 수저를 들어 음식을 권하여 드시게 하였으니 그의 효성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박성우 (朴星祐)

밀성(密城)인이다. 부모에 효성을 다하였고 양친이 돌아가시매 3식을 재(載)하였고 이를 닦지 않았다.

박성혁 (朴性爨)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민물고기를 자시고 싶어하므로 때가 엄동설한인지라 강에 나가 얼음판 위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며 슬피 곡(哭)을 하니 얼음을 헤치고 잉어가 뛰어 나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드리니 효과가 있었다. 또한 상(喪)을 당하여 3년간을 옷을 벗지 아니하고 비바람을 피하지 아니하고 매일 같이 성묘를 하였다.

박수형

밀양 박씨(密陽朴氏)로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생각이 없어서 관직에 나가지 아니 하였으며, 풍류를 아는 문장가로 소문난 효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흠로를 받았다.

그의 효성은 하늘도 알았는지라, 그가 바위에 앉아서 낚시를 드리우면, 어느 때이고 쏘가리 등 많은 물고기가 물려 부모님께 맛있는 물고기 요리를 해 드릴 수 있었다.

그의 부친이 중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그의 꿈에 현몽하여 약방문을 내려 주었는데, 글(글떡)과 당화(목화 꽃)를 달여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일이 되느라고 이러한 때에 그의 제자이었던 이조판서인 정판서가 글과 당화를 보내 왔는지라, 그것을 달여 드렸더니 중병이 쾌차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의 시는 횡성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는데 횡성천(橫城川)을 시로 쓴 전천구곡가(前川九曲歌)와 가담리 수류암을 시로 읊는 유암팔경가(流岩八景歌)가 전해지고 있다.

박순영 (朴淳永)

기동이 불능한 나이 드신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며 항상 곁을 떠나지 않으며 시중을 들었고, 식사 때마다 친히 수저를 들어 음식을 드시도록 권하기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웃어른의 뜻을 따르는데 조금도 굽힘이 없었다.

박양혁 (朴陽燦)

어머니 김씨가 난치의 질병이 걸려 치료가 어려우므로 손수 어머니의 대변을 받아 맛을 보아 병의 증세를 살피고 하늘과 신령께 빌고 축원하였으나 그 병이 더해가매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니 희생하여 세상을 더 살았다고 한다.

백대봉 (白大奉)

횡성읍(橫城邑) 갈풍리(葛豐里)에 살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인사를 드리는 예절을 다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니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다. 1913년 성균관(成均館)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백문현 (白文鉉)

횡성읍(橫城邑) 갈풍리(葛豐里)에 살았으며 천성이 인자하여서 부모님께 아침 저녁 문안인사 드리기를 항상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나가고 들어올 때에 역시 인사를 고하였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아뢰었으며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였으므로 모두들 효자라 하였으며 1972년 성균관(成均館)에서 표창하였다.

서진영 (徐振鏞)

이천 서씨(利川徐氏)로 삼조공신(三朝功臣) 이원윤(利原尹) 서유(徐愈)의 13대 손(孫)이며 진주목사(晉州牧使)를 지낸 서풍원(徐禮元)의

방손(傍孫)이며 효자 서애천(徐導天)의 후손이다.

그는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여 온갖 약을 다 구하여다 처방을 하여도 효과가 없어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아 병세의 차도를 알아보고 또 아버지가 잉어와 죽순을 먹기를 원함으로 눈이 쌓인 엄동설한에 하늘을 향하여 기원하니 하늘에서 잉어가 떨어 졌고 또 하늘을 향하여 죽순을 구하지 못함을 통곡하니 홀연히 죽순이 솟아나 이를 가져다가 정성을 다해 다려 드리니 효과가 있었다.

또 임종 때에는 손가락을 잘라 아버지에게 수혈하니 연 4일을 더 연명하였고 사후에도 피눈물이 나도록 3년을 울며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1904년(광무 8) 11월 9일에 장예원(掌禮院)의 경신(卿臣)이던 조정희(趙定熙)와 강원도의 유생들이 임금께 상장(上狀)을 하니 정려(旌閭)를 명하였고 그 정문(旌門)은 안흥면(安興面) 강림(講林) 4리에 있다.

손용찬 (孫容瓚)

본관이 경주(慶州)이며 이름난 효자로서 부친이 돌아가시자 그 슬퍼하고 애도하는 예의가 남달리 컸고, 모친에 대한 효성 또한 지극하여 모친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스스로 칼을 들어 약을 만들며 시중 들기를 마치 임금을 섬기는 듯 한 정성으로 하여 게을리하지 않았고 모친의 변의 활아 병세를 확인하는 등 정성을 다했다. 모친의 상을 다하매 그 예의가 부친상 못지 않았다.

그는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문필에도 뛰어났었다.

신태준 (申泰俊)

평산 신씨(平山申氏)가 본관인 그는 성품이 효성을 타고난지라 어렸을 때에는 특별한 음식을 대할 때에는 항상 어른부터 드시게 하였고, 매사에 겸양하였으며 마음으로 우러나 어버이 공양을 다 하였다.

상(喪)을 당하여서는 3년을 하루 같이 읍혈(泣血)하기를 스스로 실

천하였으며 또한 성품이 후덕하여 예의를 다하고 어른의 공양에 게으름이 없었다. 또 상을 당함으로써 시묘 3년을 하니 도신(道臣)이 임금께 청하여 고종 때에 문 백성의 계(啓)로 삼고자 정려(旌閭)를 명하고 동몽교관(童蒙教官)을 증직하였다.

심지영 (沈志英)

삼척 심씨(三陟沈氏)인 그는 뛰어난 효자로써 아버지가 물고기를 좋아하시매 항상 잡아다 올렸고, 아버지가 한겨울에 병을 얻어 췌를 먹고 싶어하심으로 눈썹인 산 속을 찾아 헤매던 중, 하늘의 도움을 얻어 췌를 구해다 드렸고 어머니가 또 병을 얻어 산삼을 원하시매 때가 겨울인지라 엄동설한 속을 수일을 찾아다니던 중 모치산(毛峙山)에서 눈 속을 헤치고 자란 산삼을 구하여 어머니에게 다려 드려 소생케 하였다.

안광근 (安光瑾)

둔내면(屯內面) 화동리(禾洞里)출신으로 순천 안씨(順興安氏)이다. 성품이 순박하고 인정이 많았으며 불쌍한 이웃을 보면 그냥 있지 못하고 도와주는 착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행실의 근본을 선(善)과 효(孝)에 두고 부모 고양하기를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 온 마을은 물론 이웃 마을에까지 알려졌다. 연로하신 부모님께 근심을 끼쳐 드리지 않았으며 부모님이 즐거워하실 일에는 온갖 곳은 일도 마다 않고 하였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부모님 식성에 맞는 반찬을 해드리도록 아내에게 늘 당부하였고,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면 정성을 드려 모셨다.

험한 대관령(大關嶺)고개를 넘어 동해 바닷가에 가서 싱싱한 바다 생선을 구해다가 공양하였으며, 깊은 둔내(屯內) 산속에 노환에 좋다는 희귀한 약초며 산짐승 고기를 구하여 드리곤 하였다.

노환으로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가슴 아파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

여금 더욱 부모의 소중함과 자식의 지극한 효심을 가지게 하였다.

장례를 치른 후, 집에서 6km가 넘는 묘소를 3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묘했다. 그는 자식으로서의 못다한 효도를 뉘우치고 살아계실 때 더욱 잘 모시지 못했음을 후회하면서 부친의 명복을 빌었다.

어떤 때는 몸이 아파 불덩이 같이 달아오르는 아픈 몸으로 성묘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이 근심하여 말렸지만 개의치 않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그럴 때는, 아버지의 생전의 말씀 “인(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를 되새기며 선행의 덕을 쌓겠다고 다짐하고는 하였다.

이러한 일도 있었다 몹시도 추웠고 눈발이 심하게 날리며 매서운 북풍이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님 묘소를 향했다. 매서운 추위도 그의 효심 앞에서는 위력을 잃었는지 묘소에 도착했을 때는 좀 수그러져 있었다. 오한과 기침과 어지러움 때문에 워낙 허약하고 아픈 몸이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에는 그만 의식을 잃고 어느 소나무 밑에 쓰러지고 말았다. 웅장하던 산의 모습도 쏟아지는 눈발 속에 파묻혀 가고 있었고, 까마득한 마을의 집들도 분간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져 갔는데, 희미한 의식 속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 왔다. “광근아! 예서 쓰러져 있으면 어찌냐?” 그것은 또렷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광근아! 애비께 불효할테냐, 어서 정신 차리거라.” 그는 불효(不孝)라는 말에 그만 깜짝 놀라 정신이 들었다.

이윽고 근심스럽게 기다리던 가족들이 찾아 나서기에 이르렀고, 누렁이의 울부짖음으로 그를 발견하게 되었다. 목소리를 통해 그를 동사 직전에 구해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모친이 사망했을 때에도 부친이 돌아가신 때와 똑같이 극진한 정성으로 묘소를 찾아가 아들의 도리를 다하였다.

이같은 효행은 널리 알려져 당시 원주(原州) 원(員)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원주의 원은 그의 지극한 효행에 크게 감동을 받아, 효행

을 조정(朝廷)에 상소하였다.

조정에서는 안광근의 가특한 효성을 모든 백성들의 귀감이 된다고 칭찬하고 光武 26년 6월 3일 효자문을 명정(銘旌)하였고 호조참판(戶曹參判) 겸 동리의 금부사에 명하고 효자문을 내리게 하였다.

지금도 이곳 화동리(禾洞里)에 효자각이 보존되어 그의 효행을 더욱 빛내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이 효자문 앞을 경건히 지나고 있으며 그의 손(孫)인 안덕순(案德純), 안명준(安明俊)이 유적을 관리하고 있다.

윤기혁 (尹起赫)

과평 윤씨(坡平尹氏)로 어려서부터 효성과 공양에 뜻을 두고 『효학(孝學)』을 교훈으로 삼아 행하기를 다하니 그의 아들 역시 효를 다하였다.

이규병 (李圭炳)

경주 이씨(慶州李氏)이며 호는 송학(松石)이다. 이규병은 가세가 빈한함에도 윗 어른 섬김이 극진하였다. 항상 정성을 다해 봉양을 게을리하지 않던 중, 부친이 득병함에 갖은 정성과 효심으로 병시중 들기를 즐기 하였고 부친의 병 증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을 받아 맛을 보아 시험하였으니 이 어찌 효자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두용 (李斗容)

원주 이씨(原州李氏)로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효성이 깊어서 아버지가 외출 중에 이웃에서 별식이나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면 먼저 먹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버지에게 먼저 드시도록 하였다. 커서는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약초를 캐고 약수를 구하여다 맛있게 드시도록 하였으나 항상 효가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겼고, 어머니가 병이 들어 여러

해 누웠으나 계속하여 지성을 다하여 약을 다려 드렸음으로 효자라 하여 그 뜻에 감탄하고 향토(鄕土)에서 표창하였다.

이시영 (李時永)

갑천면(甲川面) 매일리(梅日里) 전주 이씨(全州李氏) 문중 이봉의(李鳳儀)의 4대조 이시영 할아버지 때의 일이다.

홍천군(洪川郡) 남면(南面) 유치리(楡峙里)에서 살고 있을 때인 경진년(庚辰年) 음력 12월 부친의 병환이 위급하여 병을 고치고자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약을 구하던 중, 엄동철한 설달에 자기 집 대문 앞에 때아닌, 검은 점이 있는 백사(白蛇)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시영 씨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며 예사롭게 생각할 일이 아님을 깨닫고, 그 백사를 잡아 다려서 부친께 올렸더니 이를 복용하신 후, 병세가 차차 차도가 있고 건강을 회복하여 무병하신 몸으로 94세까지 살았으며 당시의 사람들은 주석대효(主釋大孝)라 불렀고, 효행정려(孝行旌閭)의 하사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 효자(孝子) 정려문(旌閭門)은 갑천면(甲川面) 매일(梅日) 1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영직 (李榮植)

경주 이씨(慶州李氏)의 후예인 이영직은 어려서부터 천성이, 효성이 지극한지라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필히 부모님께 먼저 드렸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모를 공양하였다. 철종조(哲宗朝)에 효자로서 이름이 높았다.

이원빈/이풍용/이재학 (李園彬/李豊容/李在鶴)

갑천면(甲川面) 중금리(中金里) 마당재 등산에는 원주 이씨(原州李氏) 문중의 효자각(孝子閣)이 있어 오고 가는 뭇 사람들이 바라보며, 자기를 반성해 보게 한다.

효자각은 이원빈(李園彬)과 이풍용(李豊容)까지 이어 2대에 걸친 효자 선문의 교지를 받은 분의 효자각이다.

이풍용은 원주 원씨(原州李氏)의 후손으로 부친은 이원빈씨이고 모친은 남양 홍씨로 7식구였고, 4남매 중 장남이었다. 이씨 문중은 대대로 유학을 전념하던 가문으로 학문이 높았다. 그는 40세 때 중금리 마당재에서 살면서 가족은 농사를 짓고 이풍용씨는 횡성군청에 서기(유사)로 다녔다. 마침 군수(郡守)가 영전하여 춘천(春川)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를 함께 데려가기를 원하므로 춘천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다.

춘천에서 관청에 근무하는 3년 동안은 봉급만 가지고 생활하게 되었다. 객지인데다 농사를 지을만한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남 재학(在鶴)씨만 농사 품 일을 해서 좀 도왔을 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그는 청렴결백한 관원(官員)이라 부정한 일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생활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군수가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 군수는 또 함께 가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군수의 청을 거절하고 관직을 사퇴하려고 사표를 냈다. 그것은 효자 문중에 태어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관직으로 인해 조석으로 인사를 못드리는 불성 실함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적은 봉급만으로는 부모님 공양과 가족들의 의·식·주를 넉넉하게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래서 관직을 떠나 농사라도 지으려는 생각에서였다.

이런 생각에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중금리 당재로 향하던 중, 홍천(洪川)에서 여독을 푸는 동안 홍천군 동면 속초리(뇌동마을)에 정착하기로 했다.

농토나 자본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퇴직할 때 받은 약간의 돈으로 거처할 방을 얻은 후, 뜻이 통할만한 사람에게 협조를 구했다. 첫눈에 그의 인품과 학식을 직감한 마을 사람들은 전답을 소작으로 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식량이었다.

장리곡식(長利穀食)을 얻어먹으면서도, 부모님을 모심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었고, 하루 중 한 끼는 죽을 먹고 두 끼는,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잡곡밥을 먹었다.

점심때가 되면 전답에 나가 일을 하다가도 남들은 음식을 둘러앉아 먹어도, 그는 집에 돌아와 손수 진지상을 올리고 많이 드실 것을 권한 후에야 일한 곳에 와서 밥을 먹었고, 어디엔가 출타하는 일이 있으면 행선지와 기일, 목적 등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떠났다. 또한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없도록 가족들에게 훈도하였으며, 부모님이 마을에 가시면 만사를 제쳐놓고 모시고 가서, 모시고 왔다. 이렇게 그는 매사에 부모님을 모시는 일부터 가정 화목을 기울이는 일까지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겨울의 농한기에는 마을에 빈 사랑방을 얻어 동네 젊은이들을 모아 박식한 학식으로 한학을 가르치며 충효(忠孝)의 길과 예절을 가르치며 훈도했다.

장남 이재학(李在鶴)이 장성하여 가사와 농사일을 맡으면서부터 힘든 일은 하지 않았으나 부모 공양과 학문을 가르치는 생활로 가사를 도왔다. 뇌동마을에서 10여년을 사는 동안 차차 의·식·주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되었으나 워낙 가진 것이 없는 형편이라 농토 한평 마련하지 못하고 남의 전답을 소작하는 생활이었다.

이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3년 시묘와 3년 상을 탈상하게 되자, 그의 효행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각 유림에서 효행 행적을 조사하고 이 조사한 기록문을 토대로 효자포상을 추천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1913년 7월에 도내 각 고을 유림들과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효자교지를 하사 받으니 이풍용의 나이 67세 때였다.

장남 이재학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고 난 후에 가지 재산은 없으나 형편에 맞도록 정성과 성의를 다 바쳐 뇌동마을에다 아버지의 효자정문을 건립하여 아버지의 효행을 기리고, 뇌동마을에서 살았다. 그 후 이재학이 가족과 함께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선 곳이 갑천면

(甲川面) 병지방리(정제리, 셋말)이었으며 그때 나이 75세였다. 이곳에 도착한 가족은 힘을 합쳐 열심히 화전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다. 뇌동마을 보다 수확이 좋아, 몇 해 가지 않아 집도 크게 증축하고 소(牛)도 살 수 있었다. 이재학의 장남 이인형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정성들인 보람이 있어 근심 걱정없이 살다가 이재학은 82세 때 사망하였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이인형은 식구와 함께 중금리 짝마우 마을로 이사를 왔다. 이때는 가산이 늘어 우차에 가재와 곡식을 싣고 왔다. 이사를 와서 화전을 일구며 살던 첫 해 해방이 되었고, 논 값이 떨어지고 소 값이 올라가서, 황소를 판 돈으로 논 20마지기를 살 수 있었다. 수확이 많아서 차차 가정이 융성하는 기세이었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성장해 갔다.

중금리로 이사 온지 3년만에 가정 형편이 나아지자 홍천군(洪川郡) 동면(東面) 속초리(束草里) 뇌동마을에 있던 조부님의 효자정문을 횡성군(橫城郡) 갑천면(甲川面) 중금리(中金里) 마당재 선산밑에 옮겨 이인형 자신이 직접 정문을 짓고 지붕을 짚으로이었다. 그 후에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수차 개수하였으며 1984년 군의 효열유적 정비사업으로 마당재 선산마루에 전통 건축양식에 맞게 정비하였다.

이유동 (李裕東)

경주 이씨(慶州李氏)로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친상을 당하여 여묘(慮墓)하였다. 계자손(戒子孫)이 말하기를 팔도육정(八道六正)이 고외무타(考外無他)라 하고 '효가(孝家)에 필유충(必有忠)'이라 가르쳤다.

이정채 (李鼎采)

원주 이씨(原州李氏)로 효행이 남달라 부모에 대한 사랑에 절도가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어버이에게 문안인사를 드리며 배우지 못하였음에도 그 예의를 능히 해 냈다. 그의 계모가 병들어 눕자 3년간 정

성을 다하여 병간호를 하며 약 그릇에서 잠시도 손을 떼지 아니하였다. 한겨울 차가운 달밤에 얼어붙은 강물을 깨고 목욕을 하고 하늘을 향해 빌었으나 별 차도가 없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니 효과가 있어 장수하였다. 이로써 조봉대부동몽교관(朝奉大夫童蒙教官)을 증직하고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그의 계수(季嫂) 임씨 역시 효열로서 향리에서 칭송과 승모를 받았다.

이종하 (李鍾夏)

영천 이씨(永川李氏)로 6세가 되었을 때 이미 예절을 알아 아버지가 집을 나갈 때나 돌아올 때에나 문안인사를 드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효성을 기울였으니 그를 일컬어 효자라 하여 인근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이태국 (李泰國)

원주 이씨(原州李氏)로 횡성읍(橫城邑) 개전리(介田里) 산수동(山水洞)에 살았다. 5세 된 아이와 함께 와병 중인 노모가 있는 집에 불이 나 이씨의 처 변씨부인이 화염 속에 뛰어들어 구하고자 하였으나 심하게 바람이 일고 불길의 무섭게 타올라 빠져나오지 못하고, 노모와 아이와 함께 불에 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뒤늦게 돌아온 이태국은 하늘을 향해 통곡하며 역시 가족을 구하고자 사나운 불길 속에 뛰어 들었으나 불길에 싸여 함께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종(高宗)은 1864년에 여(閭)를 명하시어 건립케 하였다.

이 여(閭)는 횡성군(橫城郡) 횡성읍(橫城邑) 개전리(介田里) 산수동(山水洞) 마을에 있었으나 6·25 동란으로 소실되어 지금은 자취가 없다.

임채기 (林采起)

나주 임씨(羅州林氏)로 그 아버지가 해수(咳嗽)로 여러 해 병석에 누웠으나 가세가 빈곤하여 근심속에 하루하루 품을 팔아 약을 사다 드리며 공양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신발을 만들고 고기를 잡아다 팔아서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해드렸다. 병이 급하여지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함으로써 회생케 하였다.

그의 처 원씨 역시 효성이 지극한 지라 시부모를 극진히 공양하였으며 살아계실 때에나 돌아가신 뒤에나 효성이 매 한가지로 칭송이 자자하였다.

장재복 (張在福)

둔내면(屯內面) 화동리(禾洞里)에 살고 있던 장재복은 아들이 없는 같은 마을 이기원 노인네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가게 되어 가난한 생활을 이어 오면서도 장인을 극진히 봉양하였는데, 이씨가 중병으로 눕자 마을에서 맛있는 음식이 눈에 띄면 이를 구해서 맛있게 대접하고 조석으로 문안을 드리는 등 효심이 지극해서 83년도에 표창을 받았다.

정재덕 (鄭在德)

청산 정씨(靑山鄭氏)로 9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우연히 집을 떠나서 30여년이 흐르도록 소식이 없자 이곳 저곳을 다니다가 마침내 찾아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다리가 불편하여 걸을 수 없으므로 정성껏 모셔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집을 깨끗하게 고치고 매일 병환을 치료하며 아버지의 친구들을 모셔다 함께 즐기도록 하여 아버지를 위로하였다. 또한 부친의 상을 당하자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3년을 여묘(慮墓)하였으니 세상에 다시없는 효성이었다.

정현구 (鄭顯九)

그는 초계인(草溪人)으로 정종영(鄭宗榮(八溪君))의 12세손으로 자(字)는 현여(鉉汝)이고, 호(號)는 만수제(晩守齋)로서 어릴때부터 천품이 온후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 섬기는 것을 본분으로 알고 행동하였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부모와 의논하여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존중하였으며 언제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철에 따라 새 옷을 지어 드리고, 겨울에는 춥지 않고, 여름에는 덥지 않게 모시며 음식도 부모님 입맛에 맞게 항상 차려 드렸고, 그 극진함에 끝이 없었다.

부모가 병들어 자리에 눕자 잠시도 옆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약을 달여 드렸으나 백약이 무효하여 세상을 떠나자 초동범절(初冬凡節, 初喪을 치르는데 관한 모든 절차)이 예에 어긋남이 없이 성의를 다하였다.

정현태 (鄭顯泰)

초계 정씨(草溪鄭氏)이며 사람됨이 순후하고 부모를 지극하게 봉양하는지라, 부모의 상을 당하여 피눈물이 나도록 울며 슬픔을 금할 줄 몰랐으며 3년간 거려(居慮)를 하며, 묘소 옆에서 찬물이 솟았다고 하며 그 거려가 끝나자 찬물이 솟던 샘이 말랐으며 정내사려(丁內侍慮)에 다시 샘일 솟았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를 정현태의 효성에 감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진성근 (陳聖根)

부친이 병에 걸려 피를 토하고 음식 들기를 거절하며 10년의 병시중을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루도 소홀히 함이 없으니 향리의 모든 사람들이 효자로 추천해 마지 않았다.

진한두 (陳漢斗)

부친이 병을 얻어 노루고기를 자시기를 원함으로 노루를 잡으러 집을 나가 산기슭에 이르니 홀연히 노루가 나타나는지라 사로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드려서 약효를 얻었다.

최상훈 (崔尙勳)

해주 최씨(海州崔氏)로 문헌공(文獻公) 충(冲)의 후예로서 아버이를 섬김이 지극하고 남달리 효성이 깊어서 5대가 한 집에 기거하면서도 효행과 우의가 좋고 상하간에 공경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도신(道臣)이 전국에啓로서 건의하니 정조(正祖)가 친히 어필(御筆)로 정려(旌閭)를 제정하여 내리고 오랫동안 정조에게 중추(中樞)인물로 여기었다.

최영옥 (崔永玉)

강릉 최씨(江陵崔氏)로 당산(堂山)에 은거하며 항상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고 양친의 만수무강을 위해 온갖 약초를 구하여 봉양하였다.

노모가 병을 얻어 눈이 어둡게 되자 스스로 칼을 들어 몸을 베어 정성스럽게 탕을 만들어 드리니 그 효험으로 5년간 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는바 인근에서 효자라 불렀다.

최영정 (崔永晶)

그는 가세가 극빈함에도 불구하고, 7대가 한 집에 살면서도 그 효성이 지극한지라 조정에서 통정계자헌(通政階資憲)을 수(壽)하였다.

허 현 (許 峴)

김해 허씨(金海許氏)로 어려서부터 홀로 된 젊은 어머니와 한 집에 살면서 청빈한 생활을 하고 어머니의 출타 중에 특별한 음식이 생기면 먼저 먹지 아니하고 먼저 드시게 하는 등 정성을 다하였고 성장

해서는 열심히 밭을 갈고 신을 삼아서 신을 내다 팔아 고기를 사다가 맛있게 잡숫도록 하였고 어머니가 병들어 자리에 눕자 정성을 다해 약을 구하여 드리는데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의 처 원씨 역시 효성과 봉양이 지극하여 대소변을 받아 내면서도 얼굴 색 한번 변하지 않기를 7년을 하루 같이 하자 사림(士林)들이 표창을 하였다.

홍봉섭 (洪琫燮)

남양 홍씨(南陽洪氏)로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병환을 얻자 그의 처 한씨로 하여금 어머니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게 함으로 효과를 얻었고, 또 병이 발생하여 자리에 눕게되자 어머니의 대변을 3일 동안 맛보아 그 병을 알아내었다고 한다.

홍순태 (洪淳泰)

남양 홍씨(南陽洪氏)로 1882년에 안흥면(安興面) 지구리(池邱里)에서 태어나 평소에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산채를 캐다 음식을 만들어 음식을 맛있게 드시게 하였고 아버지의 상(喪)을 당하여 3년을 하루같이 아침 저녁으로 묘소에 곡을 하였고 아버지의 상이 난 뒤에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3년을 또 한결 같이 곡을 하니 실로 이 사회에 다시 없는 효자가 태어났다고 하였다. 그의 후손이 현재 안흥면(安興面) 지구리(池邱里) 송내촌(松內村)에 살고 있다.

홍치윤 (洪治允)

당성 홍씨(唐城洪氏)로 이참(吏參)을 지낸 홍여기(洪汝器)의 아들인 홍치윤은 9세 때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 어머니 신씨가 장녀와 함께 피난길에 올라 도읍을 떠나 강을 건너려 하는데 성이 함락되어 호군에 어머니가 잡혀 수탈당할 지경에 이르자 장녀와 함께 몸을 물에 던져 자살하려 했다.

이로써 모친과 누이가 물에 빠지자 호적의 무리들은 이들이 물 속으로 투신한 것을 알고 모녀를 육보이고자 탐하여 물 속에서 끌어내어 데려가려고 하자 홍치윤은 모래와 돌을 집어 던지고 적을 발로 차면서 끝까지 대항하여 밀려오는 도적의 무리들을 물리침으로써 마침내 어머니와 딸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뜻을 가상히 여겨 후에 함께 정려(旌閭)하였으나 오래 전에 없어져 지금은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다.

* 효부(孝婦)·열녀(烈女)·기타

김경순 (金慶順)

둔내면(屯內面) 삼교리(雪橋里)에 있는 金龍洙의 처로서 시아버지가 장님으로 17년간 고생을 하자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여 드리는 등 시중과 문안드리며, 받들어 모시자 이웃에 알려져 78년도에 횡성군 향교에 추천되어 군에서 효부상을 수여했다.

김경자 (金敬子)

둔내면(屯內面) 화동리(禾洞里)에 사는 박원달(朴元達)와 혼인 후 시부인 박씨가 중풍병으로 20년간을 몸져 누워있는 동안 소대변을 받아 내고 빨래를 해드렸고 술이 취해서 길에 쓰러지시면 엎어서 집으로 모셔오는 효성을 보여 향교의 추천을 받아 표창을 받았다.

김복이 (金福伊)

친정은 원주시 소초면(所草面) 둔둔리(屯屯里)로 도봉근(都鳳根)의 처(妻)이다.

그녀가 14살의 어린 나이로 도씨(都氏) 문중의 도봉근(都鳳根)씨의 집에 시집 오자마자 남편이 병석에 눕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몹쓸 창병이라며 그 사람은 이미 물건너 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다.

시부모는 며느리 마음은 아랑곳 없이 며느리 잘못 들어 집안 망한다며, 남편이 병든 것과 자식 없는(딸은 하나 있었음) 모든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며 며느리에게 포탈을 부렸다. 그녀는 썩어가는 남편 가슴에 문창호지 심지를 손수 해 박고는 들기름에다 말거미를 넣어 만든 고약을 날이면 날마다 손수 갈아 붙였다.

또한 5리가 실히 되는 서낭당을 찾아가 천지신명께 매일 같이 기도를 드렸다. 그녀에겐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낭당을 찾아 정한수를 떠 놓고 빌고 또 빌었다.

지독히 눈이 많이 내린 음력 11월 25일, 남편은 바짝 마른 팔을 두어 번 내젓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을 잃은 그녀의 발길은 성황당이 아닌 무덤이 있는 뒷산으로 옮겨졌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뚫고 그녀는 산을 올랐고, 여름날 장마비를 뒤집어 쓰며 그녀는 산을 올랐다. 그녀의 가슴속엔 허허로운 찬바람만 불어대고, 굵던 손과 얼굴은 남편 대신 하는 집안땀 일에 갈퀴처럼 역세어져만 갔다.

이 즈음 건장하던 시아버지가 장터를 다녀오다 풍을 맞고 말았다. 다음 날부터 그녀에겐 대소변 시중의 고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며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시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시중을 들었다.

그렇게 하기를 3년, 그녀는 열과 성의를 다해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데, 조금도 게을리 하지를 않았다. 그녀의 시아버지가 사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했다.

이에 그녀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횡성유도회와 군민이 뜻을 모아, 그녀가 살던 집 뒤에 이미문(二美門)을 세워 후세 사람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김음전 (金音全)

안흥면(安興面) 안흥리(安興里)에 살고 있는 김음전(金音全)씨는 신재봉(辛在鳳)의 부인으로서 시부가 중풍으로 몸져 누워서 4~5년간을 환중에 있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조식을 보살피 드리며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아 인근에 알려져 횡성군수에게서 포상을 받았다.

김익삼 (金益三)

부인은 20대의 젊은 나이로 남편 정은주를 여의었다. 이때에 부인에게는 슬하에 어린 아들이 있었다. 부인은 남편의 장례를 정성껏 치른 뒤 일주일이 되는 날 밤에, 낮모르는 사람들이 담을 넘어 들어와 김씨부인을 보에 싸아서 업어 갔다.

김씨부인을 업어간 곳은 생전 처음 보는 곳이었다. 사람도 험상궂게 생겼지만 집안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사내는 김씨부인에게 애걸도 하고 사정도 하며 때로는 협박과 위협도 하였다. 그러나 죽은 남편의 사람됨과 정이 김씨부인의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다. 그리고 집에 남아서 엄마를 찾으며 울기만 할 어린 것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다. 사내는 함께 살 것을 강요했으나 김씨부인은 여기서 살자고 계속해서 위협을 한다면 차라리 죽고 말것이라고 했다. 사내는 너 같은 독한 계집은 처음 보았다고 말하며 놓아주었다. 김씨부인은 그길로 집을 찾아와서 20대의 청춘과부로 농사일을 해가며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며 어린 것을 키웠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자 유림에서 이를 추천하여 열녀 교지를 하사 받았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삼거리 큰 골에 살고 있다.

김 씨 (金 氏)

강릉 김씨(江陵金氏)로 갑천면(甲川面) 포동리(浦洞里)에 선조(宣祖)때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던 해에 남편 정준제와 함께 살고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전라도지방 곳곳에서 젊은 장정(壯丁)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의병(義兵)으로 출병했다. 이 때 정씨도 김씨부인을 타관객지에 홀로 남겨두고 출병했다. 정씨는 용감하게 싸우면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불행히도 싸움터에서 부상을 입었다.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집을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김씨부인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찾아가보니 남편의 모습과 기력은 말이 아니었다. 부상당한 팔과 다리는 치료를 하지 못해 썩어 들어갔고 입은 의복은 갈래갈래 찢겨지고 피에 찌들고 음식을 먹지를 못하여 피골(皮骨)이 상접(相接)한 가련한 모습이었다.

김씨부인을 본 정씨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김씨부인은 남편의 手足을 주물러서 정신을 차리게 한 후에 마을에서 밥을 얻고 술을 빌려다 죽을 만들어서 남편에게 권하여 먹게 하였다. 정씨는 김씨부인의 지성과 정성어린 간호의 보람도 없이 그날 밤 고열이 나고 몸이 뒤틀리며 소리를 지르고 하더니 마침내 운명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김씨부인은 비통함과 슬픔을 참을 수 없어 며칠간을 통곡하며 지내다가 남편의 시신을 마을로부터 한적한 곳으로 옮긴 다음 남편의 시체와 더불어 장기간을 동숙(同宿)하였더니 시체가 말라 가볍고 깨끗하여지자 손수 머리에 시체를 이고 며칠이 걸려 수백리 길을 걸어 고향인 갑천면 포동리 마무리마을에 돌아와서 문중 소유림(所有林)인 포동리 고래 동산에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지낸 후 남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묘소 옆에 움막을 만들고 시묘를 살면서 날마다 치마폭으로 돌을 날라다 묘소 둘레에 화담을 쌓으면서 3년 시묘를 지냈다.

그 후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유림(儒林)에서 김씨부인의 정성을 가상히 여겨 열녀로 추천하여 조정에서 정씨 문중에 교지를 하사하여 열녀정문(烈女旌門)을 건립케 하였다 한다.

이 때 건립된 정문은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 30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마다 음력 9월 9일이 되면 9일 차례를 드리고 있다.

김 씨 (金 氏)

경주 김씨(慶州金氏)로 부인은 서원면(書院面) 옥계리(沃溪里) 청주한씨(淸州韓氏) 제영(濟榮)의 처로써 남편 한제영이 병을 얻어 사경을 헤메니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여 생명을 연장케 하였고 그 뒤 남편과의 사별 후에도 시부모의 재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청상의 몸으로 시부모를 지성을 다해 모시며 일생을 보냈다.

청주한씨 문중에서 그 뜻을 기리고자 열녀비와 비각을 1962년에 건립하고 1983년에 횡성군의 협조로 정화하였다.

김 씨 (金 氏)

김씨부인은 김해 김씨(金海金氏)로 성원(聖元)의 딸이다.

경주 이씨(慶州李氏) 집안의 종옥(鍾玉)과 결혼하여 15년만에 아들을 낳았으나 남편이 병들었다. 김씨 부인은 지성껏 약을 다려 지아버의 병시중을 들고 제단을 설치하고 매일 밤마다 밤을 새워가며 하늘에 회복을 축원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수혈을 하는 등 헌신적인 간호를 하였으나 끝내 남편이 숨을 거두자 스스로 임종을 지키고 시신의 엄을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김 씨 (金 氏)

강릉 김씨(江陵金氏) 병섭(秉燮)의 딸로 전주 이씨(全州李氏) 승순(承順)의 처(妻)였다.

성품이 단정, 정숙하고 부덕을 갖추었다. 불행이도 남편을 일찍 여의어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뜻을 잃지 않고 수절하며 나이 많은 시부모를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봉양하였고 조카를 얻어 남편의 대를 이으며 또 가문의 명예를 밝히게 하니 김씨를 선실 선가(宣室 宣家)라 하여 동리에서 칭송과 감탄이 높았다.

안 씨 (安 氏)

순흥 안씨(順興安氏)로 참봉(參奉) 안묵양(安默良)의 딸이며 의성 김씨(義城金氏) 경원(慶元)의 처로 16세에 결혼하였으며 부덕이 있고 정숙하였다.

시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슬퍼하는 예의가 너무나 지극하고 사무쳤고 또 남편상을 당하여 어찌나 슬퍼하는지 젖먹이 첫아이가 젖이 나오지 않는지라 돌보지 못하여 아버지를 따라 순사(殉死)케 하였고 3년간 거로(居廬)하기는 하루 같이 흐트러짐이 없어 비봉종사(俾奉宗祀)하므로 가문에 명예를 높였다.

원 씨 (元 氏)

횡성 사인 박돈철의 처로써 순조 14년 8월 24일에 열네로써 정려할 것을 청하니 윤허를 받았다.

원 씨 (元 氏)

원주 원씨(原州元氏)로 정현(正賢)의 딸이며 초계 정씨(草溪鄭氏) 순시(順時)의 처로서 친정에 있을때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과 공경이 극진하였고 결혼 후에도 매사에 시부모는 물론 남편에게까지 도리를 극진히 다하였으며 시부모의 상을 맞아서는 절도있게 장례를 치르면서도 곡(哭)을 그칠 줄 몰랐다. 또 남편의 상을 당하여서는 함께 따라가기를 염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더 남은 여생을 살면서 근검한 생활로 가정을 꾸리며 시부모와 남편의 묘소에 나무도 심고 가꾸고 표석을 세우고 친척 중에 조카 중에 조카로서 남편의 대를 잇도록 한 후에 칠순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니 그 미덕을 온 향리에 떨쳤다.

원 씨 (元 氏)

경주 김씨(慶州金氏)인 광준(光集)의 처(妻)로써 그 남편을 섬기는

정성이 남과 달리 지극했으며 시부모를 모시는 일에 정성과 노력이 대단하여 시부모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농사일에 고달픈 남편을 위하여 그는 정성을 다해 남편을 모시고 웃음으로 남편을 격려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도 남달리 정성이 따랐다. 언제나 입은 의복은 깨끗하게 입혔고 몸가짐이 흐트러짐이 없이 단정하게 가르쳤다.

단란하고 화목했던 원씨부인 가정에 재앙이 떨어졌다. 중년인 남편이 졸지에 세상을 버리게 된 것이다.

남편의 신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남편은 사망하고 말았다. 원씨부인은 남편을 선산인 공근면(公根面) 봉우재에 장사 지내고 시묘할 아들이 없음을 부인이 3년간을 봉우재 묘소에서 시묘를 살았다. 이때에 경대(經帶)는 풀지 아니하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시묘를 마치고 3년상을 지내고 난 원씨는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집에서 사라졌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잠깐 이웃에 갔는가 하여 기다렸으나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아 불을 밝히고 갈만한 곳을 모두 찾아 보았으나 없었다. 마침 장마철이라 비는 쏟아지고 강물은 늘어 밤에 찾기에는 힘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난 가족들이 집에서 가까운 강줄기를 살펴 보던 중 원씨부인의 신발이 언덕 위에 놓여져 있고 원씨는 없었다. 온 가족이 동원되어 강물을 따라 시체를 찾아내려 갔는데 사구막이에서 흐르는 강물과 학담리에서 흘러오는 강물이 합류하는 덕촌리와 오산 합수지에서 시신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원씨부인의 시체는 물결을 따라 구즌베루쪽으로 떠내려 가지고 않고 오히려 반대로 물길을 거슬러 학담리 쪽으로 더 올라 가더라는 것이다. 이를 본 가족들과 주민들이 얼마나 평소에 남편을 따르고 사랑했으면 죽어서도 남편 곁으로 가고자 시체가 거슬러 올라 가는가 하며 모두가 애절한 눈물을 흘렸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자 유럽에서 원씨부인을 열녀로 추천하여 교지를 받게 하였다. 지금 열녀비는 신을 벗어 놓았던 장소인 갑천면(甲川面) 대관대리(大官垓里)에 소재하고 있으며 후손들은 그곳에 살고 있

지 않다.

이 씨 (李 氏)

원주 이씨(原州李氏)로 김안도(金安堵)에게 시집와서 부덕(婦德)이 있음으로 시부모를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봉양하여 왔으며 시어머니가 병석에 들어 병세가 위중하게 되니 시어머니의 대변을 맛을 보아가며 지극히 간호를 하였다.

이 씨 (李 氏)

경주 이씨(慶州李氏)는 전주 이씨(全州李氏) 기수(起秀)의 처로써 서원면 창촌리에 살고 있었다. 남편 이기수씨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정성껏 간호를 하였으나 보람도 없이 사경을 헤매자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으며 소행하여 얼마간을 더 살게하고 사후에는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루고 비록 슬하에 자식은 없었으나 청상의 몸으로 시부모를 지성으로 모셨다. 1929년 횡성향교가 중심이 되어 열녀각을 세웠으며 1983년 효열유적정화사업으로 정비했다.

이 씨 (李 氏)

원주 이씨(原州李氏) 명봉(鳴鳳)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여쁘고 성품이 곱고 단정하였다.

금령(金寧)인 인석(仁碩)에게 시집와서 시부모를 정성을 다하여 모셨으며 가정과 자식을 잘 다스리므로 가정은 물론 인척까지 화목하여 부덕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남편이 우연히 질병을 얻게 되니 정성을 다하여 병 간호를 하는 한편 남편의 병을 낫게 하여 달라고 하늘에 빌었으나 성의도 없이 남편이 숨을 거두자 엄숙히 장례를 치루고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수절하였다.

이 씨 (李 氏)

진주 목사(牧使) 서예원(徐禮元)의 처(妻)이다.

임 씨 (林 氏)

평원 임씨(平澤林氏) 수정(洙正)의 딸이며 정선 전씨(旌善全氏) 기선(基善)의 아내로서 남편이 북통과 장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니 하늘에 쾌차토록 축원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하니 생명을 3일을 더 연장하였다. 이러한 임씨부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숨을 거두자 정중히 장례를 치르고 3년을 하루 같이 머리를 빗거나 목욕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애절한 눈물과 울음으로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니 예조(禮曹)에서 표창하였다.

장 씨 (張 氏)

인동 장씨(仁同張氏)로 김사은(金思隱)에게 시집을 왔으나 남편을 일찍 잃고 다만 외아들을 데리고 시부모를 극진한 효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살았으며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시머어니의 회갑날에 차릴 음식이 없는지라 소리내어 울며 하늘에 기원하였더니 홀연히 꿩 8마리가 부엌에 나타나 잡아서 회갑연을 베풀어 드렸다. 또한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음식을 만들고자 엄동설한에 겨울 산속을 헤메다 능이버섯을 구하여 상을 차려 드렸으며 후에는 시아버지가 병석에 들어 매 끼니마다 생선을 먹고 싶어하기에 또 하늘에 소원을 비니 차가운 겨울 하늘에서 수삼(水蓼) 한 뿌리가 내려오는 지라 이것으로 탕을 끓여 드리니 효과가 있었다 한다.

정 씨 (鄭 氏)

연일 정씨(延日鄭氏)로 학흥(學興)의 딸이며 경주 이씨(慶州李氏) 규배(圭培)의 처다.

정숙하고 부덕을 겸비하여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결혼한 뒤에도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이 어린 시숙(媵叔)을 사랑으로 기르는 등 동기간에 화목하였다. 남편이 뜻을 이루도록 항상 내조의 역할을 다 하였으며 일생동안 얼굴 색을 변하며 화내는 법이 없었다. 후에 홀로된 시어머니를 한가지로 봉양하였고 친척간에 화목을 유도하니 모든 마을이 그를 효열로 칭찬하였다.

조 씨 (趙 氏)

양주 조씨(楊州趙氏)로 군수(郡守)를 지낸 조병홍(趙秉弘)의 딸이며 광산 김씨(光山金氏) 김재준(金在俊)의 처로서 시아버지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남편이 병에 걸려 앓자 지성으로 약을 다려 간호하여도 별 차도가 없자 산에 들어가 재단을 만들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니 조금 병의 차도를 보였다.

조씨부인은 청춘의 몸에서 죽을 때까지 50년의 여생을 오로지 남편의 병 간호를 위하여 다 하였으며 남편이 사별하자 마지막 보내는 순간까지 존경과 부인의 예의를 다하니 士林에서 추천하여 포상하였다.

조 씨 (趙 氏)

횡성 조씨(橫城趙氏) 정석(正錫)의 딸. 평산 신씨(平山申氏) 의균(義均)의 처(妻)이다. 본래 성품이 민첩하고 지혜로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성을 다 하였고 부덕이 뛰어났다고 한다. 남편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온갖 약을 구하여 정성껏 간호를 하고 하늘과 산에 기도하며 치성을 올렸으나 남편이 숨을 거두자 스스로 임종을 맞아 예의를 다하고, 사후에도 세 끼 식사를 올리기를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하여 매사에 이르기를 ‘청상의 모녀가 살아서 유익할 리가 없고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여부(汝父)는 고여일칭(顧汝一稱)’이라 하였다.

선사(善嗣)에 종사(宗祀)하였다.

주 씨 (朱 氏)

신안 주씨(新安朱氏) 동식(東軾)의 딸로서, 태어날때부터 자태가 고왔으며 그 품행이 정숙한지라 향리에서 소문이 높았고 양친에 대한 효성 또한 지극하였다.

원주 사람 우선(友善)에게 시집와서는 시부모에게 행하는 효성 또한 지극하였고 남편을 공경하고 받들었으나 불행히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은 시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정성껏 봉양을 하였다.

시아버지 마저 돌아가시니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묘막을 짓고 3년간 남자도 하기 어려운 시묘살이를 하니 호랑이가 항상 곁에 찾아와서 주씨부인을 호위하였다고 한다.

신안 주씨 (新安朱氏)

둔내면(屯內面) 현천 4리 120의 8번지에 사방 8척(尺)의 열녀정(烈女亭)이 수년간 서 있었다. 이 열녀정은 신안 주씨(新安朱氏)의 열녀정이었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건설로 헐려졌다.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는 임재운씨의 처인 이병옥(李秉玉)여사의 친정 할머니인 신안 주씨 이씨와 결혼하였다. 서당 훈장으로 있던 이씨가 30세에 사망하자 주씨는 남편의 무덤(현재의 열녀정에서 산 위로 200m 거리)옆에서 낮과 밤을 떠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이곳에다 초막을 지어주어서 3년상을 치르게 해주었다. 소대상(小大喪)을 다 치르고 난 후 또 다시 시부가 사망하여 다시 소대상을 시부의 묘 앞에서 치른 후 홍천(洪川)에 있는 친정예를 가보니 친아버지가 병환으로 운명 직전이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울면서 이르기를 “아버님 딸이 찾아 왔습니다.”라고 울부짖자 겨우 돌아누우시면서 눈을 감고 운명하셨다. 주씨는 “저승길에 가시더라도 이내 낭군 이서방을 보시거든 젊은 청춘 구제시켜 달라 당부하시고 어린 손자 잘 키우고 있더라고 전해달라.”며 울부짖었다.

주씨가 밤길을 걸을 때는 큰 호랑이가 태우고서 다니는 것을 그 아들이 보았다고 전하고 있으며 일정시(日政時) 이 사실을 들은 관(官)에서 상금 10원을 주어 정자를 지어주어 오늘에 이르렀고 1974년 고속도로 공사로 철거되었다.

최 씨 (崔 氏)

김홍기(金弘基)의 부인인 최씨는 남편이 병을 얻어 사경에 이르자 제단을 설치하고 정한수를 떠 놓고 정성을 다하여 남편의 쾌유를 빌었다. 남편이 병사하자 정성껏 장례를 치렀고 시부모가 아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면 괴로워하자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지극한 정성으로 위로하고 또 자기 손으로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남편의 시신을 염하였으며 깊은 감회로 시종 남편의 상을 치루었으며 또한 조카를 수양아들로 데려다 정성껏 총명하게 키우므로서 가문의 명예를 빛내게 하였다.

최 씨 (崔 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최용철(崔用哲)의 딸이고 진주 강씨(晉州姜氏) 만수(萬秀)의 처(妻)로서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성이 지극하였다. 15세에 시집을 와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역시 효성을 다하였다.

남편이 병을 얻어 괴로워하니 하늘을 향하여 기원하고 산신에게 정성껏 빌었으나 끝내 정성의 보람도 없이 남편이 쓰러지니 또 정성껏 장례를 치루고 홀로 수절하며 여생을 보냈다.

최 씨 (崔 氏)

전주 최씨(全州崔氏) 규영(奎永)의 딸이며 광산(礦山) 송박(宋樸)의 처로 성품이 정숙하고 규절(閨節)에 밝았다.

20세에 시집을 왔는데 가세는 매우 빈한하고 또 남편이 병을 얻었

는지라 약을 다려 드리며 병 간호에 정성을 다하여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니 3일간 더 생명을 연장하고 숨을 거두었다. 남편의 죽음에 통해 하면서 함께 따라가고자 자진하려 하니 주위에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하여서라도 살아갈 것”을 위로하고 권하니 그 뜻을 감추고 남편을 마지막 보내는 예의를 다하고 묘막을 짓고 남편의 묘소에서 떠나지 않고 슬퍼하니 근친들이 만류하여 반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길쌈을 삼고 밭을 갈며 아들을 의롭게 살도록 가르치는데 여생을 마쳤다.

최서옥 (崔서옥)

둔내면(屯內面) 화동(禾洞) 1리에 사는 최서옥 여인은 시아버지인 김연유씨가 중풍으로 몸져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 내는 괴로운 생활을 계속했으나 하루같이 옷을 빨아 드리고 아침 저녁상을 들어 드려 시중함으로써 83년도 사망시까지 봉양했다.

효부로 소문이 나자 향교의 추천을 받아 79년도에 성균관에서 포상했다.

한 씨 (韓氏)

청주 한씨(淸州韓氏) 한상리(韓祥履)의 딸로 남양 홍씨(南陽洪氏) 봉섭의 처(妻)이다.

천성이 정숙하고 자태가 고왔으며 지조가 굳고 지혜롭고 영민하였으며 효성 또한 지극하였다.

시집와서는 모든 예의 범절을 갖춰 시부모를 대하였고 남편을 존경하여 받들었으며 시어머니가 다리에 큰 종기가 나 고생을 하자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종기를 빨아내고 약을 쓰니 쾌유하였고 또 그의 시아버지가 이질에 걸려 앓자 그 변을 맛보아 병의 차도를 알아보며 온갖 약을 백방으로 구하여 드리니 그 질환이 완쾌하였다. 이같은 효성이 널리 소문이 나 마을 사람들이 추천하여 효부로서 표창하였다.

한 씨 (韓 氏)

청주 한씨(淸州韓氏)로 삼교 2리의 김양균(金洋均)의 조모, 한교명(韓敎明)의 딸이고 남편은 김정수(金正季)이다. 1섬지기 농사를 지었으며, 남편을 평소에 끔찍히 공양하였다.

추석을 앞두고 남편이 석간리(石間里)로 벼 베러 개를 데리고 갔다가 개만 돌아옴을 보고 뛰어가 보니 남소(南沼)에서 익사한 것을 건져 장사지냈다.

향교를 통해 성균관에서 열녀로 표창받았다. 그러나 가세가 빈곤해서 열녀각을 짓지 못했다.

* 기타 인물

강흥길 (康興吉)

둔내면(屯內面) 자포리(自浦里) 쇠스랑봉 밑에 살았는데 1950년경 여름철 장마만 지면 자포천(自浦川)이 범람하여 시장이 물에 잠기고 피해를 보게 되자 마을 주민에게 총회에 부쳐 제방을 쌓을 것을 제창하였으나 호응이 없자 자기 소 두 마리를 팔고 품을 사서 자력으로 제방 300m를 쌓아 개울이 범람하는 피해를 막은 공로자이다.

고창한 (高昌漢)

횡성읍 읍상리에 살았으며 제주고씨 후손으로 8세때 이미 부모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여 인근에 효동이라고 소문이 났으며 원래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나 상업으로 자수성가하여 가세를 크게 일으켰다.

고씨는 자신이 힘써 모은 재산을 공익사업과 육영사업에 회사하신 분으로 횡성읍 공회당에 유치원을 설치하고, 서울에는 1937년도에 당시 30만원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대동상업학교(大同商業學校)를 설립하였고 횡성의 대동여자중학교(大同女子中學校)도 설립하였으며, 그의 유산으로 학교가 운영되어 오기도 했다.

김광수 (金光洙)

안흥면(安興面) 강림리(講林里) 지금의 강림중학교(講林中學校) 부지에 연고자가 없는 묘(墓)가 한 개 있는데 이 묘비에는 독지가 김광수의 묘라고 되어 있다.

그는 6·25 전란 직후에 홀홀단신으로 이곳에 와서 자수성가하여 논 밭 수천평과 소 106마리까지, 재산을 근면 성실로서 이룩한 입지전적 인물로 후손 없이 죽었는데 평소에 육영사업에 뜻을 두어 남의 자손들이라도 훌륭히 가르쳐 달라던 유지를 받들어 그 분의 소유대지 2천평의 부지 위에 현재의 강림중학교를 세우고 장례를 훌륭히 치르는 한편 묘토(墓土) 800여평을 떼어 이 묘토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그분이 사망한 10월 6일을 택해서 제사를 마을 전체가 지내주면서 추모하고 있다.

김명준 (金明俊)

안흥면(安興面) 부곡리(釜谷里) 부곡초등학교(釜谷初等學校) 앞에 높이 1m 너비 40cm 가량의 송덕비가 서 있다. 이 비석은 17년간 이 마을 이장을 지낸 김명준씨의 비로서 김씨는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도로를 확장 개설하여 산골인 그 마을에 버스가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다.

김재선 (金在善)

그는 이 마을에 사는 독농가로서 삼척지방에서 빈손으로 이사와서 피죽과 감자로서 끼니를 이어가면서 50여년간 땀흘려 벌어들인 15,000평의 논밭을 이룩한 유지이다. 이 마을에 새마을사업이 시작되자 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72년도에 100만원을 선 듯 기부했으며 마을 엠프 시설을 위한 38만원을 기증했다.

거북바위와 학바위를 계부수고 회관 창고를 지으려 하자 성황당이

있던 자리라 불가론을 펴 회관을 15cm 옆으로 비켜서 건축하여 마을의 액질을 면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그가 81년도에 사망하자 송덕비를 1m 3cm 높이로 회관 옆자리에 세웠다.

김학준

6.25 동란 때 한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후 서울을 수복하고 계속 북진할 때 패주하는 북괴 패잔병들이 청일면(淸日面) 큰고시 지치라오(둔내면 경계 산골짜기 이름)산골에 은신하여 주민들을 해친다는 정보를 입수한 김학준씨는 10여명의 마을 자치대원과 함께 노획무기를 가지고 소탕전투를 감행하여 북괴 패잔병들의 위협으로부터 부락민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전과를 올렸다. 또한 김학준씨의 동생 김종환은 경찰 기동대원으로 근무하다가 춘당리(春堂里)전투에서 전사한 반공투사의 집안이기도 하다.

박상복 (朴尙福)

밀양 박씨(密陽朴氏)이고 호(號)를 치수(治洙)라 하며 경상도 달성 사람이다.

1910년대 일본의 침입을 맞아 의병장으로 거병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불행히도 일군에 피포되어 일본에 불모로 잡혀갔다.

일제의 갖은 학대와 압박속에서 모진 고통을 견디며 고생을 하다가 해방직전 환국하였으나 일제의 온갖 탄압과 감시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고향을 버리고 피난지로 알려진 둔내면(屯內面) 조항리(鳥項里)로 가족을 데리고 피신해왔다.

새로이 논밭을 일구며 삶의 터전을 닦았고 지금 그 후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정감록(鄭鑑錄)에 둔내면(屯內面) 조항리(鳥項里)를 십승지지(十勝之地)라 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배진환 (裵縉煥)

둔내면(屯內面) 우용리 광산촌에서 1935년까지 살던 한학자이다. 1870년 함남에서 출생하였다. 호(號)가 송와(松窩)이며 조선 말엽부터 둔내면 우용리에서 한문권학을 하여 제자로 조기탁(趙基濁), 강학길(康學吉), 김치호(金致浩) 등 훌륭한 유림(儒林)을 배출하였다.

배씨는 6척 장신으로서 가난하지만 평안을 느끼고 도를 즐겼으며 도학예문(道學禮門)한 고매한 성품을 지녔을 뿐 아니라 學行이 풍만하였고 유성제(柳成齊), 유의엄(柳宜嚴)의 문하이며 고명한 한학자로서 문하생은 물론 여러 유지에게 희망지표(善望指標)가 되었으며 현재도 당시 배씨의 문집이 둔내면 내에 있는 문하생들에게 보관 전래되고 있다.

손권근/김인덕 (孫權根/金仁德)

부곡(釜谷) 2리 이장 손권근(孫權根)씨와 새마을 지도자 김인덕(金仁德)씨의 송덕비가 높이 1m 너비 40cm로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손을 합쳐 마을회관과 도로 확장 건설에 공이 커서 75년에 정규 노선버스의 개통과 더불어 마을 입구에 송덕비를 세웠다.

신위균 (申偉均)

1936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으며 사재를 털어 교회를 세우고 마을 주민들에게 설교를 실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적을 쌓았다.

개화의 기수역할을 한 목사이다.

이용우 (李龍雨)

안흥면(安興面) 지구리(池邱里) 입구에 들어서면, 교회 후문에 이용우씨의 송덕비가 있다.

이용우씨는 구한말시대에 총독부 국내부주사 벼슬을 한 사람으로

서 노후에 고향인 이 마을에 와서 깨끗한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큰 우물 3곳을 뚫고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한 다리 5개를 가설한 공로로 송덕비가 세워졌다.

그는 어려서 안흥면(安興面) 안흥리(安興里) 소재 오모진씨가 경영하는 서당(書堂)에서 한학(漢學)공부를 하였는데 이 고을 이방(吏房)이 찾아오자 훈학하던 오진사가 모두 일어나서 절하며 인사를 드리라고 말하자 다른 학생들은 인사를 했으나 이씨만은 “나도 이 다음에 벼슬하면 되지 이방에게 무슨 절을 하느냐”고 항의한 후 그길로 서울로 상경했다. 서울 민대감택에 가서 공부를 한 후 당시의 국내부 종사벼슬을 할 정도의 쾌남아였다.

이씨는 일찍이 건강한 위생 식수를 위한 사업과 교통의 원할을 위한 마을 협동권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정도로 선구자적 역할을 함으로서 마을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바 있다.

이원우 (李元雨)

경주 이씨(慶州李氏) 대종계(大宗孫) 11대손으로 안흥면(安興面) 지구리(池邱里)에서 살았다.

조부로부터 한의학을 전수받아 한약방을 경영하면서 개화바람이 일어나 신교육이 실시되자 면내의 청소년들에 대한 신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지 7,000평을 회사하여 안흥석보통학교(安興普通學校)를 건립하니 오늘날 안흥초등학교(安興初等學校)로 횡성초등학교(橫城初等學校)에 이어 군내에서 두 번째로 개교한 학교로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또한 통신수단의 변혁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비로 안흥우체국을 설립하여 운영하니 군내 첫 사설 우체국으로서 면민들이 개화기의 신문명에 가장 신속하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용은 1930년대에 한의학의 대가로서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서울 아현동에 한약재상을 설립 중국등지에서 국내에 없

는 약재를 직수입하여 보급하니 한방치료에 기여한바 크고 한의원 3개소를 다시 개설하여 의술보급 및 질병구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전경일 (全慶日)

둔내면(屯內面) 석문리에 살던 전경일씨는 정선 전씨(旌善全氏)로서 20살에 이 마을에 데릴사위(入婿)로 들어온 후 근검 절약하여 논 500석지기와 소 300마리 등 큰 부자로 성공했으며 81세에 사망했다. 전씨는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意志)로 불타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엄연히 살아있던 시절이었고 장리쌀을 봄에 가져다 꾸어먹은 후 가을 농사를 지어서 이자를 부쳐서 갚곤 하는 사례가 많았다. 손씨는 이를 악물고 새벽이 솟아오르는 새벽 이슬을 맞으며 벼잠방이를 적셨다. 해가 서산에 지는 것을 가리지 않았다. “남이 쉬고, 잘 때 같이 쉬고, 잔다면 어떻게 남보다 잘살 수 있으랴?”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보람은 차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송아지를 한 마리 사서 기르기 시작, 3년만에 큰 소가 되었고 새끼를 낳으면서 불어났다. 40대에 접어들면서 논도 밭도 불어났고 소도 자주 불어났다. 쌍둥이 새끼를 낳으면 집안이 쇠한다는 옛 이야기는 지금처럼 옥수수 가루나, 배합사료가 나오기 전이었고, 우유도 없을 시절에 어미소를 잃을 가능성과 두 마리 새끼를 똑같이 키울 수 없다는 개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전 옛 속담도 전씨에게는 통하지 않았으며 한 해에 송아지 쌍둥이 6쌍이 태어났으나 한 마리도 실패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불어난 소는 300마리가 되었고 인근의 논밭이 팔리는 것이면 모두 샀다.

그러나 그렇게 부자가 된 후에도 잘 먹고 잘 입고 흥청대며 쓰지 않았다. 절약, 근면 두 가지를 가훈으로 삼아 반찬도 3가지 이상은 해먹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마침내 논 500석지기와 소 300마리의 둔내면 거부가 되었고 각 신문에 소개되는 인물로 등장했다.

정기성 (鄭基成)

초계인(草溪人)으로 정종영(鄭宗榮)의 둘째 손자이며 자(字)는 공백(鞏伯)이요 호(號)는 구룡산일(九龍山逸)이다.

그는 자성(資性)이 강직하고 항상 근면하고 노력하여 경사(經史)에 통달하고 학행이 훌륭하였으나 벼슬길에는 뜻이 없어 구룡산 아래 은거하면서 구룡산일(九龍山逸)이라고 스스로 호라 하였다.

만년에 음사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절충장군(折衝將軍),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이르렀으며 그의 묘소는 공근면(公根面) 공근리(公根里) 조부(鄭宗榮) 묘(何) 좌편에 있다.

정난기 (鄭蘭基)

갑천면(甲川面) 매일리(梅日里)에 추원각(追遠閣)은 갑천면 제2대 면장 정난기씨의 송덕비각 중 하나이다.

정난기씨의 추원각은 갑천면(甲川面) 매일리(梅日里)에 건립되어 있다.

정난기씨의 호(號)는 난사(蘭史)이며 연일후인(延日後人)으로서 갑천면(甲川面) 중금리(中金里)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즐겨한 까닭에 입신출세 하는데 누구보다도 빨랐다.

구한말기(舊韓末期)에 금부도사(禁府都事)로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이 일어나자 이를 토벌하고자 대의용병(代義勇兵) 소집(召集) 선전관(宣傳官)으로 활동하여 수많은 공적을 이룩했고 한일합방(韓日合併) 후에는 갑천면 제2대 면장으로 취임하여 농사 짓는 기술을 보급 지도하며 청소년들에게는 신학문을 배우도록 권장하는 일에 힘쓰시며 새 문물을 받아드려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선진국민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사숙(私塾)인 갑창학원(甲昌學院)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을 교육했다. 그 후 2년만에 갑창학원을 보통학교로 승격시키는 한편 갑천면(甲川面) 행정쇄신(行政刷新)에도

노력하면서 면민(面民) 지도 계몽에 심혈을 기울여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향토 계발에 일생을 바쳤다.

정난기씨의 공덕으로 일찍이 횡성군내에서 최우수 면(面)을 형성하게 되자 면민들의 발의(發議)로 갑천면(甲川面) 매일리(梅日里)에 송덕비를 세웠고 비각(碑閣)은 1938년에 정난기 면장의 장남 인용(仁鎔)씨가 건립하고 추원각(追遠閣)이라 하였다.

정현석 (鄭顯奭)

정현석은 초계정씨(草溪鄭氏)로 고종(高宗) 때 대대로 횡성(橫城)에 살아왔다.

그는 1876년의 개항 직후 근대학교의 설립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개항 이후 선각자들은 열강의 도전에 대처하여 나라의 독립과 발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지식을 갖춘 강건한 인재를 교육, 양성해야 한다고 보고 교육이 가장 급무라고 강조하였다. 이 근대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학교이므로 그들은 근대학교의 설립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였다. 즉, 그들은 근대학교의 설립이 자주적 근대화를 달성하는 동력기관의 창설이라고 생각하고 그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1878년에는 개항장인 동래에 무예교육을 위한 새 제도를 창설하였다.

1883년 이른봄부터 여름에 걸쳐 개항장인 원산에서는 민간인들이 개화와 관료들의 지원을 얻어 원산학사(元山學舍)를 설립하였다. 이 원산학사(元山學舍)는 종래 한국최초의 근대학교로 알려진 배재학당보다 2년 앞서 설립된 것으로 한국최초의 근대학교이다. 원산은 1880년 4월 개항과 동시에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지고, 일본상인들의 상업활동이 시작되어, 덕원·원산의 지방민들은 일본상인의 침투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을 절감하였다. 이에 그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신지식을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외국의 도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자 자발적으로 서당을 개량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1883년 1월에 새로 부임한 덕원부사 겸 원산감리 정현석(鄭顯奭)에게 학교설립기금을 모을 뜻을 밝히고

새로운 근대학교를 설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현석은 이러한 주민들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 당시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인 어윤중(魚允中)과 원산항 통상 담당의 통리기무아문 주사인 승지 정헌시(鄭憲時)의 지원을 받으면서, 관민이 합심하여 1883년부터 원산학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기금은 덕원·원산의 주민들, 원산상회소(元山商會所), 정현석·어윤중·정헌시, 원산 감리서에 고용된 외국군인 등이 참여하여 모아졌으며, 1883년 8월에 학교의 설립을 정부에 보고하여 정식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이며, 근대 최초의 민립학교인 원산학사의 설립은, 한국근대사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첫째, 최초의 근대학교가 다른 동양권국가의 경우와 같이 서양인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의 개화정책에 앞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기금을 모아서 근대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사실이다. 셋째, 외국세력과 직접 부딪히는 지방의 개항장에서 시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무예반의 병설도 외국세력의 침투를 방어하기 위한 무비자강의 요청에 대응한 것으로서 시의(時宜) 적절하고 현실주의적이며 창의적인 것이었다. 넷째, 외국의 학교를 모방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서당을 개량서당으로 발전시키고 다시 이것을 근대학교로 발전시켜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학교를 설립한 사실이다. 다섯째 교재에 있어서도 18·19세기 실학자들이 애독하였던 책들이 신서(新書)들과 병용되어 실학적 전통이 계승되고, 강의과목도 실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학교의 설립에 초기 개화파들이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방학부형의 요청에 선각적 관료가 적극 호응하여 관민이 일치 협력함으로써 학교의 설립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894년 갑오경장 무렵에 원산학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소학교와 중학교의 기능이 분화되어 원산학사는 문예반만 갖춘 원산소학교로 되고, 원산감리서에서 역학당(譯學堂)을 세워 중학교의 기능을 하면서 소학교 졸업생들에게 외국어와 고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원산소학교는

남산동의 같은 자리에 교사를 증축하고 크게 발전하다가 일제치하에서는 처음에 원산보통학교로, 나중에 원산제일국민학교가 되어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또한 정현석은 1865년(고종 2)에 노래와 춤과 관한 책으로 『교방가요 敎坊歌謠』를 엮어 썼다 이것의 원본은 송신용(宋申用)이 소장하였다고 하며, 1941년에 옮긴 그 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말에 “정현석은 초계(草溪)사람으로 벼슬이 해백(海伯)에 이르렀고, 고종 때 대대로 횡성군(橫城郡)에서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제1-16장은 우조와 계면조의 가곡을 한역(漢譯)하고 한글 원문도 아울러 실고 있다. 한글 표기 가운데 ‘창운(唱云)’이라 한 것은 남창이고, ‘화운(和云)’이라 한 것은 여창가곡을 가리킨 것이다. 제17-20장은 「권주가」의 신조(新調)와 구조(舊調)의 가사 및 「춘면곡 春眠曲」·「처사가 處士歌」·「양양가 襄陽歌」·「상사별곡 相思別曲」·「매화타령」·「행군악 行軍樂」등 현재 전하는 12가사에 드는 곡과 「관동별곡 關東別曲」·「철사금 鐵絲琴」의 순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춘면곡」·「처사가」는 전부 한역되어 있고, 「권주가」는 일부만 한역되고, 「상사별곡」·「매화타령」·「행군」은 처음 한 마루만 한역되고, 「양양가」·「관동별곡」은 그 곡조 이름만 소개되어 있다. 철사금은 구라철사금(歐邏鐵絲琴)이 준 이름으로 현재의 양금이라는 악기인데, 이 양금으로 연주되는 곡으로 「영산 靈山」 5장(현재의 상영산), 「중영산 中靈山」 4장, 「세영산 細靈山」 5장, 「가락다지 加樂多旨」 3장(현재의 가락덜이)과 「선악 宣樂」·「상현도드리」(현재의 잔도들이, 細還入)·「염불」·「타령」 및 「취타 吹打」의 곡명만이 소개되고 있다. 악기는 아악·당악·가·향악기를 구분하지 않고,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의 팔음(八音)으로 구분하여 이름만 들고 있다. 제21장은 무곡(舞曲) 「헌선도」·「오양선 五羊仙」·「포구락 拋毬樂」·「연화대 蓮花臺」·「육화대 六花隊」의 악사(樂詞)가 소개되어 있다. 제22-23장은 가품(歌品)과 매화점장단(梅花點長短), 기(妓) 4명

이 가얏고·철사금 각 1, 세피리 2, 적(笛) 1, 해금 1, 장구 1의 반주에 의하여 노래하는 그림이다. 제24-39장은 「육화대」·「연화대」·「학무」·「헌선도」·「고무 鼓舞」(일명 舞鼓)·「포구락」·「검무」·「선락 船樂」(일명 船遊樂)·「항장무 項莊舞」·「의암별제가무 義巖別祭歌舞」·「아박무 牙舞」·「향발무 響鉞舞」·「황창무 黃昌舞」·「처용무」·「승무」 및 「창가 倡歌 : 창우의 소리」·「잡요 雜謠」·「단가 短歌」 등의 순으로 그림과 함께 실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검무」는 『궁중정재무도홀기 宮中呈才舞圖笏記』를 비롯하여 다른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무보(舞譜)인 점에서 소중한고, 「항장무」는 그 춤의 절차와 더불어 무도(舞圖)와 배역(配役)이 명시되어 있으며, 「의암별제가무」의 제사절차, 가자(歌者)·무자(舞者)·악공(樂工)의 수효 및 영신(迎神)·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에서 부르는 노래는 그 악조(樂調)까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승무·창가·잡요도 승무·관소리·산타령의 연원을 찾는 데에 참고가 될만하다.

『교방가요 教坊歌謠』

[부록 1]

횡성 사건자료 발췌목록(『조선왕조실록』)

<<태종 14년 9월 29일>>

사헌부에서 횡성의 강무를 반대하다. 가뭄이 들고 곡식이 익지 않아 강무는 경기도에 한하게 하라는 상소에 춘추의 옛법에 따르겠다고하여 임금이 강무를 고집하였다. 다음날 이당이 강무의 기한을 줄이도록 청하니 해주로 향하고자 하는데 병조판서 김승주가 이미 횡성에 준비가 되어 있고 다시 해주로 향하면 양도의 백성이 다같이 고통을 받으니 불가하다고 하자, 임금이 경기도 광주로 가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임금이 사헌부를 겁주려고 한 것이지 다른 도로 향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태종 15년 8월 20일>>

강무행차에 대비하여 횡성의 조세를 수운으로 납부하지 말고 각 고을에 축적하라고 명하다.

<<태종 15년 8월 25일>>

강원도 관찰사 이귀산이 임금의 강무를 방지하려 백성에게 풀을 베게 하자 임금이 4, 5일로 줄이라고 령(令)을 내렸다. 그러자 유사들이 몇 일 더하기를 청하다.

<<태종 15년 10월 9일>>

횡성 실미원에 들러 물이꾼을 보냈다. 경상도 관찰사 안등이 술 1병을 받쳤다.

<<태종 16년 3월 9일>>

횡성의 화동과 선암 등지에 밭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게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태종 16년 7월 5일>>

강무할 곳을 횡성 등지로 정하고 사렵을 금지하다.

<<태종 17년 2월 2일>>

의정부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한상경이 횡성을 추동 강무장으로 정하자고 청하자 임금이 노하다.

<<태종 17년 2월 10일>>

사간원에서 임금이 원주의 각림사로 가려하자 중지하고 후일 강무하라고 했으나 임금은 황성에 사람을 보내어 얼음이 녹았는지를 살피게 하다.

<<태종 17년 2월 27일>>

원주 각림사로 행행하다. 봄철 강무를 겸하기로 하다. 황성에서 구군과 방패, 섭대장, 섭대부, 별군이 동원되다.

<<태종 18년 2월 23일>>

황성, 선암 등지는 거칠고 무성하여 참으로 사냥할 만한 땅이라 언급되었다.

<<세종 1년 1월 6일>>

황성의 기민에 조세를 면제해 주라고 청하자 임금이 따랐다.

<<세종 1년 1월 9일>>

봄철 흉년으로 강습을 정지하고 황성 등지로 하여금 그해 지공할 물건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다.

<<세종 1년 1월 28일>>

황성의 한외전을 도목장에서 줄여서 기록하였는데 원주도 경차관 김습을 엄히 문초하다.

<<세종 1년 10월 28일>>

상왕이 황성을 가려는 뜻을 말하다.

<<세종 1년 10월 29일>>

상왕이 유종현, 박은 등에게 황성 행행의 가부틀 묻고 계획을 짜다.

<<세종 1년 11월 5일>>

어가가 황성 사기소에 도착하여 유숙하다.

<<세종 1년 12월 19일>>

작년의 평양과 올해의 횡성에 거동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한 부사직 장월화를 문초하다.

<<세종 2년 2월 22일>>

횡성 등지가 강무장으로 결정되다.

<<세종 3년 3월 8일>>

행차가 독현을 넘어 횡성현에 머물렀다.

<<세종 3년 3월 9일>>

행차가 횡성현 남교에 머물렀다.

<<세종 4년 12월 28일>>

횡성 등지의 국마를 모두 충청도로 옮겨 기르게 하다.

<<세종 7년 8월 25일>>

횡성 현감 김종성이 순량이라는 명성이 있었다.

<<세종 7년 12월 7일>>

임금이 지금산군사 이회약과 횡성현감 오경지 등을 인견하다.

<<세종 7년 12월 15일>>

임금이 명년에 횡성 등지에 거동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알리다.

<<세종 8년 1월 16일>>

횡성 등지에 행차를 정지한다는 명령을 반복한 것에 대해 다시금 강무를 정지할 것을 청하는 사간원 좌사간 허성 등의 상소문.

<<세종 8년 2월 13일>>

강원도 횡성 등지에서 강무하다.

<<세종 8년 2월 15일>>

횡성 현감 오경지 등등이 마중 나와 뵈다.

<<세종 13년 6월 25일>>

횡성에 거주하는 전 교도 고숙은 아버가 죽자 3년을 여묘를 하고 일체의 가례를 쫓아 행하여 복을 마치니 어미의 나이가 89세인데 숙이 통천 교도에 제수 되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효도하고 봉양하였다고 보고 되었다.

<<세종 15년 8월 17일>>

강무를 횡성으로 하자는 상호군 이군실의 청이 있었다.

<<세종 15년 8월 22일>>

사간원 좌정언 우효강이 강무의 시기를 늦춰달라고 청하자 횡성 등지는 흉년들기까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를 참작하여 정한대로 하자고 하였다.

<<세종 15년 8월 23일>>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병조로 하여금 강무할 땅, 날짜를 아뢰게 할 것을 말한다. 그러자 승선이 일전에 대신이 횡성에서 강무할 것을 정지하자고 청하였으니 보류하고 다시 생각할 것을 간하니 임금이 듣지 않았다.

<<세종 15년 8월 29일>>

병오년 횡성으로 강무하려 간 사이 서울에서 불이 나다.

<<세종 15년 9월 5일>>

올 가을에는 횡성으로 가는 것은 정지하고 평강에서 7, 8일간 강무를 할 것이니 강원도와 경기도에 이르라.

<<세종 15년 9월 25일>>

이조 판서 허조가 횡성을 강무장소에서 아주 제외하여 폐단을 덜게 할 것을 아뢰다.

<<세종 21년 7월 17일>>

횡성 현감 유담이 하직하다.

<<세종 26년 9월 12일>>

강원도 횡성의 죄수 조희 등은 사람을 찢어 죽였으니, 교수의 율에 해당한다.

<<세종 27년 7월 13일>>

의정부에서 전제를 고쳐 상정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상신하다. 횡성은 소로에 해당한다.

<<세종 31년 2월 9일>>

강무장의 연고로써 영서인민들이 태반이 흩어져 울졌는데 횡성 등지가 특히 심하다.

<<세종 31년 3월 6일>>

횡성 등지는 군사들의 수렵을 훈련하는 곳으로 삼으라 명하다.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섬강은 그 근원이 횡성 덕고산에서 시작하여 횡성현을 거쳐간다.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원주목>>

각립사는 치악산 동쪽에 있는데 고을에서 40리이다. 선종사찰이고 전지가 3백결이다. 태종이 잠저때 글을 읽던 곳이다. 횡성과 홍천은 원주목 관할이다.

<<세종지리지 강원도 횡성현>>

본래 고구려의 횡천인데 어사매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황천으로 고쳐서 삭주의 영현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다시 횡천으로하여 그대로 춘주 임내로 하였다가 뒤에 원주에 붙였고, 공양왕 원년 기사에 비로서 감무를 두었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 13년 기사에 예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치고, 14년 갑오에 횡천과 홍천의 음이 비슷하므로 횡성으로 일컬었다. 별호는 화전이다.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강릉에 이르기 50리, 서남쪽은 원주에 이르는데 서쪽에 23리, 남쪽이 9리이며 북으로는 홍천에 이르기까지 29리이다. 호수가 3백 13호, 인구가 595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77명이요, 선군이 20명이다. 토성이 5이니, 추, 고, 조, 윤, 황이요 속성이 2이니 김(원주에서 왔다), 박이다. (밀양에서 왔는데 모두 향리이다.) 인물은 문하시랑 평장사문정공 조충이니, 고려 고종때의 사람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춥다. 간전이 2천 7백 37결이요 논이 10분에 1에 약하다. 토의는 오곡과 뽕나무, 삼, 배, 닥나무, 철이다. 토공은 꿀, 밀, 잣, 오배자, 주토, 느타리, 석이, 지초, 자단향, 백단향, 여우가죽, 삼괘이가죽, 토끼, 시우쇠요, 액제는 오미자, 인삼, 복령, 쥐꼬리망초뿌리, 승검초뿌리, 바다나물뿌리, 연밥, 백교향, 대왕풀, 담비슬개이다. 덕고산 석성이 현의 동북쪽 49리 50보에 있다. 둘레가 568보 5척이며, 한 내가 있는데 장류하여 마르지 아니한다. 또한 군창 5칸과 관

청 2간이 있다. 역이 4이니 오원, 안흥(옛이름은 안창이다.), 갈풍, 창봉이다.

<<문종 즉위년 9월 19일>>

의정부에서 봄 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이에 원주 임내의 주천현을 1도회로 삼아서 정선, 평창, 영월, 원주, 횡성, 홍천으로서 이에 소속시켰다.

<<문종 1년 8월 7일>>

강원도 횡성 백성들이 유망한 사람들의 貢賦를 감해 줄 것을 청하다.

<<문종 1년 11월 25일>>

집현전 교리 양성지가 횡성 등 강무장 주위에 사는 백성들의 금수에 의한 피해를 보상토록 건의하다.

<<문종 1년 11월 28일>>

간성 읍성 둘레 2709척을 본군과 홍천, 횡성 등의 군인 1천 14명으로 하여금 수축하도록 하다.

<<문종 2년 3월 3일>>

풍수학 문맹검이 각릉과 각처의 풍수에 대해 상언하다. 우리국토의 서쪽에는 영서역이 있어 횡성강이 먼데서 오니 이것 또한 천상의 태미원입니다.

<<문종 2년 3월 30일>>

횡성현 교도를 혁파하다.

<<단종 즉위년 9월 10일>>

강원도 횡성현의 강무장을 임시로 없애도록 하다.

<<단종 1년 6월 9일>>

의정부에서 여러 도의 도회소에서 만드는 군기의 일정 액수를 정하기를 청하다. 강원도 원주 도회소에서 본주와 평창, 횡성, 홍천, 영월 등 5개 고을이 갑 3부, 주 3정, 각궁 1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5부로 정하다.

<<세조 1년 9월 11일>>

병조에서 각도의 내지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에 분속 시킬 것을 청하다. 원주도는 그 중익을 원주, 횡성으로 한다.

<<세조 3년 10월 20일>>

병조의 건으로 각도의 중익, 좌익, 우익을 혁파하고 거진을 설치하다. “원주진에는 평창, 영월, 횡성을 속하게 하소서.”

<<세조 6년 11월 9일>>

하삼도인의 이사에 대해 전지하다. 횡성 등지에 옮겨사는 사람은 14년을 복호하고, 11년을 면세하게 하였다.

<<세조 7년 8월 11일>>

병조에서 함길도의 사민에 대해서 아뢰다. “함길도에 사민을 할 때 여러 준비가 어려우니 여러 고을로 미리 준비하게 하소서”. 원주 횡성 등지를 한길로 삼았다.

<<세조 8년 9월 30일>>

강원도 횡성의 관노 황의지를 놓아 보내도록 하다.

<<세조 9년 6월 14일>>

경기도 관찰사 김종순의 요청으로 경중의 군대를 경기, 강원로 파견하여 도적을 수색케 하다. 선전관 변정은 경기도 양주 등지 및 강원도 원주, 횡성 등지에 가게 하였다.

<<세조 12년 3월 19일>>

대가가 횡성의 실미원에 머무르다.

<<세조 12년 7월 12일>>

병조에서 군기를 상정하여 아뢰다. “횡성 등지에는 각각 향각궁 17장, 마전 9부, 통전 8부, 장창 7자루, 중창 10자루, 환도 17파, 궁현 34개입니다.”

<<예종 1년 1월 18일>>

횡성의 전세는 원주의 흥원창에 납입하였다.

<<성종 1년 2월 30일>>

병조에서 지금의 군역 및 분별할 수와 3도 군정의 감액할 수 등을 기록하여 아뢰다. 강원도에 있어서 제색군사가 횡성은 81이다.

<<성종 1년 7월 9일>>

병조에서 강원도의 관역 증설에 대해 말하다. 횡성 갈풍역에서 백동역에 이르기까지 90리이다.

<<성종 5년 3월 22일>>

“전 횡성 훈도 이광영은 나이 이미 노쇠하고 다른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백수로 등제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하다. 경관에 먼저 서임하게 하라.”

<<성종 11년 11월 5일>>

은찬군 이찬이 노비를 가지고 소송한 설성부수 철정을 징계하기를 청하자 횡성에 부처 하였다.

<<성종 22년 7월 4일>>

개성부 유수 유순, 경기 관찰사 김제산 등에게 하서 하여 복정 일정을 통지하다. 횡성 등의 군사는 9월 초 8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5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성종 23년 9월 29일>>

횡성 죄수 사비 개미치가 물고한 간부 최동구지와 더불어 본부 김성구를 죽이기를 꾀한 죄는 율이 능지처사에 해당한다.

<<연산 5년 10월 12일>>

횡성현에서 공납한 관목을 김효강이 내수사 소용이라 속인 후 사사로이 썼다.

<<연산 8년 1월 9일>>

횡성 현감 최세성은 인품이 용렬하므로 수령에 적합하지 않다.

<<중종 7년 8월 25일>>

고형산이 횡성에서 병을 얻었으므로 약을 내리고 육식을 허락하도록 하다.

<<중종 10년 2월 7일>>

횡성에 지진이 있었다.

<<중종 12년 4월 7일>>

횡성에 우박이 내렸다.

<<중종 12년 12월 10일>>

횡성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중종 15년 3월 22일>>

횡성에 지진이 있었다.

<<중종 15년 4월 3일>>

횡성에 3일 동안 잇따라 서리가 내렸다.

<<중종 15년 8월 4일>>

횡성 현감 한담은 인물이 합당하지 않으니 갈아야 합니다.

<<중종 16년 3월 21일>>

횡성에 우박이 내렸다.

<<중종 17년 5월 3일>>

횡성에 비바람이 불고 천둥하고 번개가 쳤다.

<<중종 19년 9월 18일>>

강원도 관찰사 권희맹이 춘천부사등이 첩보한 부정한 거자를 추문하기를 청하다.

<<중종 23년 11월 20일>>

횡성이 고향인 고흥산(관중추부사)이 죽다.

<<중종 26년 8월 27일>>

횡성에 지진이 일어났다.

<<중종 27년 4월 16일>>

횡성에 우박이 왔다.

<<중종 29년 6월 25일>>

전연사별제 정귀년은 전에 횡성현감으로 있을 때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했다.

<<중종 36년 11월 16일>>

횡성의 죄수 양녀 고읍지는 간부인 사촌 오라비 유치량과 공모하여 본남편 전 익곤을 살해한 죄로 능지처사하다.

<<명종 즉위년 7월 14일>>

강원도 횡성현에 사는 어떤 여자가 낱아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어미와 자식이 모두 살아있다 하였다.

<<명종 1년 4월 24일>>

횡성에 우박이 내려 밀과 보리가 손상되었다.

<<명종 1년 5월 23일>>

횡성에 지진이 있었는데 개울의 물이 출렁거렸다.

<<명종 1년 10월 23일>>

횡성에 지진이 일어났다.

<<명종 2년 9월 16일>>

왕자 완은 총명하였는데 을사년에 화를 만나 울진에 귀양갔는데 자살하라는 명령이 내리자 바로 죽었다. 관을 발인해서 강릉으로 옮겼다가 다시 횡성으로 옮겼다.

<<명종 8년 11월 27일>>

횡성에 지진이 일어났다.

<<선조 11년 3월 4일>>

간원이 횡성의 과부가 수절을 지킨 일과 훈도 이희연이 편일을 아뢰다.

<<선조 11년 3월 20일>>

사간원이 횡성현감 이준종이 잔인하므로 적합치 않다고 제직을 청하다.

<<선조 14년 2월 18일>>

횡성 사는 사노 존이가 어미를 독살하여 삼성교과하고 장하에 죽다.

<<선조 22년 7월 3일>>

횡성에 역질이 발생하여 앓거나 사망하는 자가 속출하고 있다.

<<선조 26년 2월 19일>>

강원 감사 강신이 원주의 왜적이 횡성현 경내에 들어가 마을을 분탕질을 하고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았다고 치계하다.

<<선조 26년 6월 5일>>

“강원도의 원주를 비롯한 횡성 등의 고을은 모두 적변을 겪었고 또한 점거도 당했습니다.”

<<선조 26년 6월 6일>>

횡성현감 이정희는 파문장 진여익 등으로 하여금 수급 23과를 배게하였고, 창의사 김천일은 전후로 참획한 22과를 받쳤습니다.

<<선조 28년 6월 25일>>

전임별좌 최운우를 횡성현감으로 제수하다.

<<선조 29년 6월 12일>>

횡성에 우박이 내리다.

<<선조 30년 6월 20일>>

횡성 현감 심대복은 일을 겪어보지 않은 연소한 사람으로 정령이 전도되고 부역이 고르지 않아 온 경내가 시끄럽게 되고 그나마도 소생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조 31년 4월 27일>>

복수청이 군량 수송 문제를 아뢰다. “횡성은 충주와 가깝습니다.”

<<선조 33년 5월 3일>>

양사가 홍여순일당을 처벌할 것을 거듭 청하다. 그중 홍영은 횡성의 수령으로 배치되었다.

<<선조 34년 11월 9일>>

이언좌를 횡성현감으로 삼았다.

<<선조 35년 6월 13일>>

횡성지역에는 5월초부터 썩늘한 바람이 계속 불었다.

<<선조 36년 3월 22일>>

강원도 암행어사 조탁이 횡성현감 이언좌가 잘 다스렸다고 서계하다.

<<선조 36년 5월 24일>>

횡성 등지에 가뭄이 몹시 심하여 논밭이 갈라지고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 뿌리가 없어졌으며 지대가 높은 곳은 모내기도 못했습니다.

<<선조 37년 6월 24일>>

횡성 등지가 큰 가뭄 끝에 또 큰 비를 만나기는 했지만 전답이 이미 모두 타버려 추수할 가망성이 없습니다.

<<선조 37년 10월 1일>>

“횡성 현감 이언좌는 자신의 처형인 최영경의 처를 데리고 와 있습니다.” 영경이 옥중에서 억울하게 죽자 언좌에게 와 앉혀 있었으니 그 정경이 눈물겨웠다.

<<선조 38년 7월 23일>>

횡성 등지에 이번 7월 17일부터 돌풍이 매일같이 크게 불더니 바다의 갈매기가 까맣게 날아왔는데 보기에 매우 놀랍고 괴이하였다. 20일 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갑자기 큰 홍수가 나서 객사와 관청, 군기, 창곡을 휩쓸어 버렸고 크게는 사찰과 작게는 촌락이 물이 지나친 곳은 모조리 떠내려 나갔으며 우마와 가재도구도 남김없이 모두 익사하거나 떠내려갔다.

<<선조 38년 8월 1일>>

횡성의 풍수의 재해가 참혹하다.

<<선수 14년 3월 1일>>

강원 감사 박민헌을 존이의 어미살해사건의 옥사에서 뇌물을 받은 일로 하옥시켰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면했다.

<<선수 22년 2월 1일>>

팔계군 정종영이 관직을 사퇴하고 횡성의 향리로 돌아갔다.

<<선수 22년 10월 1일>>

역당 박연령이 망명하다가 횡성 산골짜기에서 잡혔다.

<<선수 38년 7월 1일>>

영남과 관동에 유래가 없던 홍수가 지다. 횡성 등등은 재해가 더욱 심하였다.

<<광해 2년 3월 21일>>

강원도 관찰사가 목재를 운반하는 일로 건의하다. 횡성의 31조는 수로로 보냈음이 보고되었다.

<<광해 3년 9월 8일>>

“횡성 현감 홍계원은 위인 탐환하여 오로지 제 뱃속만 불리는 짓을 일삼는 까닭에 온 경내가 원망을 하며, 백성들이 편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직하십시오.”

<<광해 4년 10월 24일>>

“지난 선조 기축년의 역적 박연령은 바로 역모를 주동해 꾸민 자인데 횡성 현감 구효연은 박연령을 체포한 공으로 단지 당상으로만 올랐고, 녹훈되지 못했습니다.”

<<광해 4년 10월 28일>>

이항복이 박연령을 체포한 횡성 현감 구효연에 대해 아뢰다.

<<광해 10년 7월 5일>>

조귀수는 일찍이 화성군으로 봉해졌는데 간언으로 횡성으로 쫓겨가서 매양 울면서 후회하였다.

<<광해 10년 9월 8일>>

기준격을 장형에 처하고 횡성에 유배하다.

<<광해 11년 5월 1일>>

“횡성 현감 유시보는 본래 탐욕스럽고 교만한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수탈하였습니다.”

<<광해 12년 10월 2일>>

새 대궐 영건 도감이 “낭청 권육을 횡성 등등에 보내어 물과 가까운 곳에 한 달간 부역으로 벌채하여 강가에 끌어다 놔다가 얼음이 풀린 즉시 떼를 만들어 운반하소서”라고 건의하다.

<<광해 12년 10월 7일>>

“단양 횡성 홍천 등 14개 읍의 금년치 전세의 쌀과 콩 그리고 삼수량과 별수미를 무오년에 마련한 수조안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쌀과 콩이 모두 합해 2천 3백여만 석이 됩니다.”

<<인조 5년 8월 4일>>

횡성 등지에 연일 크게 바람이 쳐서 초목이 부러지고 산릉이 붕괴되었다.

<<인조 5년 10월 1일>>

횡성 유학 진극일이 전 익찬 이인거의 역모를 상변하다.

<<인조 5년 10월 1일>>

원주목사 홍보도 전 익찬 이인거의 역모를 상변하자, 그 대책을 세우다.

<<인조 5년 10월 1일>>

이인거의 변란에 대비하여 성내의 수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우다.

<<인조 5년 10월 1일>>

강원도 관찰사 홍보가 횡성 현감 이탁남과 함께 이인거를 잡았다고 장계하다.

<<인조 5년 10월 1일>>

진극일이 역모를 알게 된 이유를 묻다.

<<인조 5년 10월 5일>>

이인거 역모와 관련된 죄인을 공초하고 처벌하다.

<<인조 5년 10월 5일>>

이인거의 역모와 관련하여 전 감사 최현을 국문하다.

<<인조 6년 1월 25일>>

신경영과 이윤남의 공신책정을 다시 논의하다.

<<인조 6년 12월 2일>>

전 황성현감 이탁남이 역적의 무리라하여 악독한 일로 아뢰다.

<<인조 9년 12월 12일>>

간원에서 전 강원 감사인 형조참의 정기광이 원주와 황성 사이에 폐를 끼치고 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을 아뢰다.

<<인조 13년 4월 28일>>

황성 백성 한련의 아들인 명춘과 탁룡의 아들 옹효가 아버들의 무고를 의금부에 상소하였지만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인조 16년 10월 5일>>

황성에 많은 우박이 내렸다.

<<인조 24년 9월 18일>>

황성 등지에 우박이 내려 벼를 손상하였다.

<<효종 6년 7월 2일>>

황성현에 남편을 살해한 변을 처벌하지 않은 혐감 홍홍조의 치죄를 간원이 청하다.

<<효종 8년 3월 12일>>

황성 등지에 사나운 호랑이가 횡행하여 민간에 출몰하면서 우마와 사람을 잡아 먹었다.

<<효종 10년 3월 13일>>

형성 등지에 눈이 내렸다.

<<현종 2년 7월 17일>>

형성 현감 구일에게 4품직을 제수하도록 명하다.

<<현종 3년 11월 12일>>

유필을 형성현감으로 삼았다.

<<현종 5년 3월 19일>>

형성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손상을 입었다.

<<현종 10년 3월 21일>>

형성에는 12일에 눈이 내려 13일 오후에 멈추었다.

<<현종 11년 11월 20일>>

형성 등지에 콩 173석을 지급하여 진휼에 보태게 하였다.

<<현종 12년 9월 13일>>

형성현감 송광순 등에게 표리를 내렸다.

<<현개 2년 7월 17일>>

형성현감 구일은 수리를 잘한 공으로 4품으로 초서하였다.

<<현개 3년 11월 16일>>

유필을 형성 현감으로 삼았다.

<<현개 4년 11월 14일>>

형성에 옛 아병 3백인을 두어 사방에 주둔토록 하고, 또 1사를 만들어서 중부에 소속시키라는 청에 허락하였다.

<<현개 10년 3월 21일>>

형성에 12일에 눈이 내려 13일에 멈추었다.

<<현개 11년 11월 20일>>

형성 등 4개읍에 콩 173석을 보내어 진휼할 밀천에 보태게 하였다.

<<현개 12년 9월 13일>>

형성 현감 송광순에게 표리를 내렸다.

<<숙종 즉위년 11월 22일>>

형성땅에도 훈국의 둔전이 있으니 옮겨주는것이 어떠하느냐는 청을 하니 허락하였다.

<<숙종 1년 5월 26일>>

주강에서 김석주가 형성 등지에 수어청의 둔전을 설치하여 유민을 단속하면 군사 6백여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형성현감을 수어 파총령으로 겸임시켜서 난이 있을 때 영솔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4년 6월 12일>>

형성에서 우박이 내리고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꺾어졌다.

<<숙종 5년 1월 4일>>

형성 등의 고을 수령들이 하직인사를 하니 임금의 인견하였다.

<<숙종 14년 10월 12일>>

경기관찰사 신완이 박업귀가 형성에서 일으킬 역모에 대하여 밀계하다.

<<숙종 15년 10월 11일>>

형성 등 9개 읍을 금위 겸 파총으로 삼았다.

<<숙종 25년 3월 8일>>

주강에서 지경연 이유가 형성에 무변을 차건하여 충주 관아와 협조해서 안팎에서 기찰하여 체포하게 하였다.

<<숙종 26년 12월 22일>>

사간원에서 형성 향교 부근에 임의로 장사지낸 것을 목인한 형성 현감 박안도를 논핵하다.

<<숙종 27년 9월 14일>>

강원도사 이정규가 황성의 사인을 데리고 산을 유람한 사실을 목인한 강원감사 유이복을 죄주고 파직시키자는 장령 정유점의 청을 따르다.

<<숙종 35년 7월 23일>>

황성 등 세 고을에 양전을 실시하여 속전의 삼수량 또한 전부 감해주도록 청하다.

<<숙종 38년 7월 12일>>

황성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몸통이에 머리가 둘이었다.

<<숙종 39년 5월 2일>>

황성에 서리와 우박이 내렸다.

<<숙종 43년 9월 10일>>

황성 현감 윤식은 관직에 있는지 오래인데 수단이 교활하다하여 파직을 건의당하였다.

<<숙종 44년 5월 7일>>

황성에 서리가 내렸다.

<<숙종 45년 11월 23일>>

금성의 요적 윤풍립과 요사한 백성 신의선이 황성에 가서 북도로 가야만 근심이 없다고 백성을 현혹하자 베고 나머지는 유배하였다.

<<영조 1년 4월 27일>>

장령 이의천이 황성의 임소에서 출가하지 않은 처녀를 붙잡아다가 옥을 보인 조지빈을 탄핵하였다.

<<영조 3년 9월 2일>>

조지빈이 이의천의 유지를 논핵하면서 자신은 무함을 당했다고 아뢰다.

<<영조 19년 12월 20일>>

황성 현감 안윤복은 도살의 금법을 범하였으므로 파직하라고 청하다.

<<영조 30년 12월 28일>>

형성 현감 정존겸에게 관동의 상정을 하문하다.

<<영조 31년 7월 3일>>

도망 죄인 강몽협과 그의 동생을 형성에서 붙잡아 복주하다.

<<영조 40년 3월 16일>>

형성 현감 윤면구에게 상을 내리다.

<<영조 45년 7월 14일>>

형성에 투비한 죄인 홍수보를 풀어주었다.

<<영조 49년 12월 1일>>

강릉부사 이형달이 상소하여 환국의 폐단을 아뢰다. 대관령에서 형성까지 160리가 되고,

<<정조 즉위년 12월 25일>>

여주에서 시작하여 형성에 이른 운음을 위조한 죄인을 국문하여 내막을 밝히다.

<<정조 3년 5월 29일>>

형성등의 강원도 기민의 총수는 1만 8천 47구이고 진곡은 6천 5백 48석이다.

<<정조 3년 8월 3일>>

임금이 수어청의 문전을 묻자 서명응이 형성을 포함하여 29곳이라고 하였다.

<<정조 5년 4월 5일>>

홍국영의 줄기. 임금이 홍국영에게 주벌을 가하지 않고 형성으로 방축시켰다가 강릉으로 방축시켰는데 이때 죽었다.

<<정조 6년 5월 10일>>

불법한 일을 저지른 형성 현감 최효달을 파직시키도록 요청하다.

<<정조 7년 9월 5일>>

원주와 형성의 경계에 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사냥을 명하다.

<<정조 7년 10월 29일>>

비변사에서 올린 제도 어사의 사목 4.

<<정조 11년 6월 14일>>

호서의 김동익을 비롯한 횡성의 벽옥정의 정무중 등이 복주되다.

<<정조 15년 12월 23일>>

횡성 현감 조운구를 파직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정조 17년 4월 9일>>

춘당대에서 관동의 유생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아 책에서 횡성 생원 정원선이 1등을 하다.

<<정조 17년 5월 24일>>

횡성을 포함한 10개 읍의 기민이 총 7천 5백 9명이었다. 이를 감영과 고을에서 스스로 곡식 5천 7백 13석과 돈 8백 12냥을 준비해서 구휼하였다.

<<순조 2년 9월 12일>>

부안·고부·고성·횡성·김해·창원·홍주의 둔토는 광주에 소속시킨다.

<<순조 3년 3월 27일>>

횡성창의 아래 민가에서 실화하여 40호가 불타고 창고에 불이 번져 곡식 9백 37석이 불탔다.

<<순조 12년 3월 13일>>

예조에서 각 식년 경외의 충·효·열의 문서를 보고하다. 열녀 정려질에 횡성의 고사인 김광한의 처가 등제되었다.

<<순조 14년 8월 24일>>

열녀인 횡성 사인 박돈철의 처 원씨를 정려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순조 22년 3월 11일>>

예조에서 각 식년 경외의 충·효·열의 문서를 보고하다. 효자증직질에서 횡성 고유학 신급과 그의 아우 고 동지 신섭.

<<순조 22년 9월 12일>>

치도에 관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 장령 정원선의 상소.

<<순조 32년 4월 13일>>

예조에서 각 식년 경외의 충·효·열의 문서를 보고하다. 효자 정려지에서 황성의 고 사인 서계성.

<<철종 2년 4월 12일>>

전 황성 현감 이유룡을 포장하여 승서할 것을 서계하였다.

[부록 2] 판결문(의병항쟁 · 3·1운동 재판기록)

1) 의병항쟁재판기록

판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운교리 칠전동(屯內面雲橋里漆田洞)

동도 평창군 미탄면 두만리(美灘面斗滿里) 출생

상기 자에게 대한 강도 피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 야전병웅(野田병(革+丙) 雌)이 관여하고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최 봉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한 화승총 1정은 이를 몰수한다.

이유

제1. 피고는 명치 42년 음력 5월 20일 총기(압수 제1호)를 휴대하고 영월군 수주면 하일리(水周面河日里) 이장 박기홍(朴基洪) 집에 침입하여 휴대한 총기를 내대고 돈 15원을 제공하라 강박하여 돈 2원을 겁탈하고,

제2. 피고는 동년 음력 6월 일자 미상에 황순팔(黃順八)과 함께 총기(압수 제1호)를 휴대하고 정선군 서면 만지산리(西面萬支山里) 최동첨(崔洞添) 집에 침입하여 그를 결박하고 구타하며 돈 20원을 내라고 강박하여 무명 1필, 돈 50전을 겁탈한 자이다.

위 제1의 사실은 피고가 당 법정에서 말한 '관시한 일시에 총기(압수 제1호)를 휴대하고 관시한 박기홍 집에 침입하여 그에게서 돈 2원을 받았다'는 뜻의 공술, 검사의 피고에게 대한 신문 조서 중, 관시한 일시에 총기를 휴대하고 관시한 박기홍에게 대하여 '군수금을 내라. 만약 불응하면 발포한다'고 하며 협박하여 돈 2원을 받았다는 취지, 순사 명경무차(名頃文武)의 박기홍에게 대한 청취서중, 관시한 일시에 폭도 1명이 화승총을 휴대하고 침입, '의병 군용금 15원을 내라'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가진 돈이 없다'하였으나 듣지 않고서 '기필코 돈을 내라'고 하매 '그러면 어떻게 해 보자'고 하여 일시 도주하였다가 이튿날 아침 집에 돌아왔더니 이웃집 3명이 각각 돈을 내어 모아서 돈 2원을 주었더니, 폭도는 떠나가 버렸다는 취지의 각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며, 제2의 사실은 피고가 당 법정에서 말한, 관시한 일시에 총기(압수 제1호)를 휴대하고 황순팔이란 자와 같이 관시한 최동첨 집에 침입, 결박하고 구타한 다음 황순팔은 무명 1필과 돈 15전을 소비

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경부 대리 순사 소전유태(小田由太)의 최동철에게 대한 신문 조서중, 판시한 일시에 최(崔)모·황(黃)모란 자 2인이 무단히 방에 침입하여 곧 자기를 결박하고 또한 구타하며 ‘돈 20원을 내라’는 것이었으며, 자기는 20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나 두려운 나머지 무명 1필과 돈 50전을 강탈당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대, 그의 소위는 각각 형사령 제45조에 의거 동령 제41조 제2항, 형법 대전 제593조 제1호 기득재(既得財)에 해당하므로 동령 제42조에 의하여 각각 사형에 처할 것이며, 2죄의 병합이때 형법 제45조·제46조 제1항·제10조 제3항에 의거 무거운 제2의 죄에 따라 사형에 처할 것이나, 그 소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로 동법 제66조·제71조·제68조 제1호를 적용하여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이며, 압수한 화승총 1정은 피고의 소유인 범죄 공용물이므로 형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몰수함이 가하다고 여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 45년 5월 23일

경성 지방 법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총원우태랑(塚原友太郎)

판결

강원도 횡성군 고모곡면 대산(古毛谷面大山) 4통 2호

같은 곳에서 출생

농업 함재실(咸在實) 30세

상기 자에게 대한 강도 및 절도 피고 사건에 대하여 검사 나진(羅鎭)이 관여하고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함재실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제1. 피고는 폭도 괴수 이영숙(李永肅)의 부하에 가입하여 각처를 배회 중, 명치 40년 음력 8월 20일경 일당 이원오(李元五)와 공모하여 원주군 정지안면 구미(正之安面九尾)에 사는 채성구(蔡聖九) 집에 침입, 휴대한 끈으로 그를 결박하고 또 총으로 이를 구타하여 돈 12원을 접탈하고,

제2. 피고는 명치 43년 음력 11월 날짜 미상에 그의 고용주인 동군 부흥남면 오리동(富興南面梧里洞) 정동극(鄭東克)집 고방에 있던 동인 소유의 백미 10되를 훔친 자이다.

위의 제1 사실은 당 법정에서 피고가 말한, 폭도 괴수 이영숙의 부하가 되어 각처를 배회 중, 관시한 일시에 총을 휴대한 이원오와 같이 관시한 채 성구 집에 가서 그를 일진 회원이라하여 '대장한테 연행한다.'고 하며 이를 체포하여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그리하여 한국 이수로 10리쯤 갔을 때 그에게 대하여 '돈 1백 20원을 내라'고 강박하여 이를 받았다는 취지의 공술, 검사의 피고에게 대한 신문 조서중, 관시한 일시에 관시한 채 성구를 끈으로 묶고서 또 가지고 있던 총으로 구타하여 돈 12원을 받아가지고 6원씩 분배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및 엄소사(廉召史)의 고소장중, 고소인인 남편 채성구는 명치 40년 중 폭도에게 체포되어 그들에게 얻어 맞고서 돈 1백 20냥을 빼앗겼다는 취지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며, 제2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 피고가 관시한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 및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정동극의 청취서 중, 명치 43년 중 피고를 머슴으로 사용하였는데, 관시한 일시에 피고에게 쌀 3되를 정도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웃 장우근(張友根)의 집의 벼를 그가 절도한 일이 판명되어 '내 쌀도 네가 훔쳤을 것이라'고 그에게 강문하였더니, 그는 '3되를 훔쳤다'고 하며, 쌀 3되를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건대, 피고의 소위는 형사령 제45조에 의거 제1 소위는 동령 41조 제2항, 형법 대전 제593조 제1호 기득재(既得財)에 해당하여, 동령 제42조에 의하여 사형에 처할 것이고, 제2 소위는 형법 제235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이며, 병합죄로서 1죄는 사형에 처함이 가할 것이므로 동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의 죄에 따라 사형에 처할 것이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기로 동법 제66조·제71조 제68조 제1호를 적용하여 소정형중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택, 그 범위내에서 형을 헤아려 처단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 45년 5월 23일

경성 지방 법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총원우태랑(塚原友太郎)

판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미교동(大和面味橋洞)

동도 동군 동면 대방림동(大芳林洞) 출생

주막업 김명조(金明祚) 35세

동도 영월군 우변면 두해리(右邊面斗海里) 1통 10호

동도 원주군 읍내 상동(邑內上洞) 출생

농업 정시종(鄭時鍾) 39세
 동도 원주군 본부면 읍중동(本部面邑中洞)
 동도 동군 읍내 출생

마부 이태경(李泰京) 33세
 동도 동군 미내면 서석(彌乃面西石)
 동도 동군 읍내 상동리(上洞里) 출생

농업 안석조(安錫祚) 34세
 동도 형성군 군내면 북천리(郡內面北川里) 2통 7호
 동도 동군 동면 상동리(上東里) 출생

광부 서용인(徐用仁) 35세

주문

피고 5명을 각각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정시종·이태경·안석조·서용인 등은 폭도 괴수 정병환(鄭秉煥)의 부하에 투입하여 그들의 여당과 함께 총기 등을 휴대하고 각지를 횡행 중, 명치 40년 8월 4일 강원도 평창군(당시 강릉군) 대화면 대화리(大和里)에 침입하여 당시 이곳에서 주막을 경영하고 있던 피고 김명조와 우연히 다시 만난 바, 전에 원주(原州) 진위대 병사 동지였던 관계로 그와 이야기하다가 당시 하루 건너쯤 이곳을 통과하는 우편 체송인을 포착하여 금품을 집탈하기로 피고들 5명이 공모, 피고 김명조 집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날 오정이 가까울 무렵에 강릉(江陵) 우편국 체송인 상야음의(上野隆義)가 와서 쉬고 있던 바, 피고들은 돌연히 뛰어 나가서 그를 결박하고 휴대한 우편행낭·권총·회중시계 등을 집탈한 다음 동군 북면 주진리(北面舟津里)에 납치하여다가 다른 여당과 함께 그를 참살한 자들이다.

이상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 공판정에서 전부 이를 부인하나, 사법경찰관의 작성한 피고 김명조의 신문 조서 중, 을회 원년(명치40년) 음력 6-7월경 미상한 날짜에 당시 자기는 강릉군 대화면 대화동의 외채 집에서 주막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왕년 원주에서 병대의 동료였던 서용갑·이태경(李泰京:太京이라 쓰여있음)·정시종·안석조 외 성명 모르는 자와 함께 5명이 와서, 의병이라고 하며 일본인은 모두 죽인다고 하기에, 그때 매일 자기 집에 들리는 일본인 체송부가 있음을 알렸더니, 이를 살해하기로 되었다. 정과 다른 1명은 소 외양간에, 이·서·안의 3명은 숲에 숨겨 놓고, 또한 체송부는 허리에 단총을 차고 있기에 자기는 인사와 동시에 단총을 빼앗자마자 곧 나아가 결박하라고 통첩받고,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있노라니, 과연 위

의 체송인은 조선인 1명을 동반하고 들어 와서 자기 집에서 휴식하매, 약속한 바와 같이 그의 허리에 손을 대어 단총을 탈취하려 할 때 5명이 모두 뛰어 나와 정이 가지고 있던 삼 노끈으로 결박하고 우편물을 빼앗아서 이 마을에 있던 두목 정병화(鄭炳化:정병환<鄭秉煥>으로 인정함)에게 급보하여 '자기 집에서 죽이면 후환이 근심되므로 다른 곳에 납거하여 죽이라'고 부탁하니, 그의 부하 김태석(金太石)을 동반하고 자기 집에 와서 그 자와 같이 체송부를 일으켜 세원 자기도 우편물을 메고 동행 두목 집으로 납치하여 갔더니, 그들은 위 일본인 체송부를 대화면 방림동(芳林洞) 강 속에서 총살하였다는 것이며, 그때 이태경은 군도를, 다른 4명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동 제2회 조서 중, 위 체송부가 가졌던 우편물과 회중 시계는 두목이 탈취하고, 권총은 이태경이 탈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동 한성녀(韓姓女) 청위서 중, 자기는 김명조의 아내가 되어 대화동(大和洞)의 외채 집에서 동서 중, 음회 원년 음력 6-7월경 일본인 체송부는 하루 건너씩 자기 집을 지나가 대개 점심 식사를 하고 가는 것이 상례였는데, 어느 날 아침 10시가 지났을 즈음 남편이 군인 시절에 아는 사이였다는 자들 5명이 들어 와서 의병이라 하며 1명은 군도, 그 이외는 총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과 술 마시던 중, 남편이 '오늘은 일본인 체송부가 오는 날이다'고 알리자, '그것은 다행이다. 죽이자'고 모의하여 사람 5명은 소 외양간 혹은 숲에 숨고, 남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과연 체송부가 들어 와서 무심히 인사하자 돌연 상기 자들이 같이 뛰어 나와 그를 결박하였다. 무척 더운 때라 갈증이 생겨서 자기는 물을 먹이고서 또한 가슴팍의 단추를 벗겨 주었던니, 남편은 노하여 자기 머리에 돌을 부딪혀 부상을 입혀서 지금도 허물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교본(橋本) 검사가 작성한 한성녀에게 대한 조서 중, 앞과 동일한 취지 및 일본인 체송부를 묶은 채로 남편과 6인이서 하대화동(下大和洞)의 대장 집으로 납치하여 갔는데, 후에 사람들 말을 들으면 파치(峙)에서 죽었다고 하며, 그날 저녁 때 자기 남편은 집에 돌아왔는데, 위의 자기 집에 왔던 5명 중에서 3인은 남편의 군대 동료였다고 하며, 그들은 원주 사람 이택영(李澤榮) 당시 30세쯤, 원주 사람 안석조(安碩祚) 당시 20세(30세의 오기로 인정됨)쯤, 홍성(洪城) 사람 서용룡(徐隆龍) 당시 30세쯤, 그밖에 원주 사람으로 원주 군청의 사환이었다고 하는 정시종(鄭時鍾), 이외 1명은 성명 모르는 20세쯤으로서 모두 일본인 때문에 군대를 해산당하고 이렇게 유랑하게 되었으니 일본인을 죽이고, 특히 보발(步撥)을 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을 말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청수(淸水) 검사가 작성한 김명조의 제2회 조서 중, 6년 전 음력 7월 7일 경 거주하는 마을에 폭도 정병환의 동류가 다수 침입하여 그 여당에 원주

진위대(原州鎭衛隊)에 있던 배의 지면인 정시종·이태경·서용인의 3명이 섞여 있었으며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잠시 담화 후 그들은 이웃인 이치장(李致章) 집으로 갔는데, 그 무리 중의 4-5인 곧 위의 3명 이외에 안석조 등이 이치장 집과 자기 집 사이의 숲 속에서 일본인 우편부를 체포하는 것을 아내 한씨가 목도하였다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

동 검사가 작성한 박성녀(朴姓女) 청취서중, 왕년에 이치장의 아내로서 하대화리(下大和里)에서 살았는데, 관시한 시기경에 거주하는 마을엔 폭도가 침입하였을 때는 집 식구가 모두 뒷 동리에 피난하여 집에 있지 않았으므로 폭도들이 자기 집에서 술·식사 등을 한 일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동, 검사의 전춘단(全春端) 조서 중, 6년 이전부터 대화리(大和里) 이장인데, 명치 40년 음력 7월 7일경 폭도가 거주하는 마을에 침입하여 쫓긴 정발의 명령을 받고서 이를 모으러 나갔다가 돌아온 바, 김명조 집에서 술을 마시고 여기서 우편체송부를 붙들었다는 것이었는데 그 인원은 처음 5명이었으나 후에 15명쯤이나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동 이우형(李愚亨) 조서 중, 11년 전부터 계속 주진리(舟津里) 이장인데, 명치 40년 음력 6월 하순경 폭도가 다수 거주하는 마을에 침입하여 우편 체송부 1명이 살해되었다. 그 상황은 목격하지 않았으나, 그 이튿날 동네에서 남쪽으로 1정(町)쯤 떨어진 밭 속에 일본인 우편 체송부가 총살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동민에게 말하여 매장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상전(上田) 헌병 오장 보고서 중, 명치 40년 음력 7월 2일경 강릉(江陵) 우편소 체송부 상야용의(上野隆義: 30세쯤)는 조선인을 동반하고 강릉에서 평창(平昌)으로 가는 도중 상대화리에서 하대화리로 나가 이곳 김명조 집에서 주식중이던 원주 진위대 해산병의 폭도에게 습격당하여 단종을 빼앗긴 다음, 명조 집에서 결박되어 이날 밤은 상대화리로 가서 1박하고, 그 이튿날 평창군 북면 주진리 남쪽 끝에서 약 30간(間) 떨어진 곳에서 총살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검사의 정시종 조서 중, 명치 40년 음력 7월경 정병화(鄭秉化)라는 폭도 괴수의 부하 4명에게 납치되어 그 여당이 되어 음력 9월경까지 영월군·횡성군(寧越郡·橫城郡) 등을 횡행하였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동 이태경 조서 중, 원 원주진위대 병사가 폭도를 일으켰던 때 자기도 그 여당이 되어 원주·평창(原州·平昌) 여러 군을 횡행하여 동년 음력 7월 하순에 이탈하였는데, 음력 7월 상순에는 강릉에 가기 위하여 평창 읍내까지 갔다는 취지의 공술 기재,

동 안석조 조서 중, 앞에서와같이 원주·제천(堤川) 등을 횡행하여 동년 음력 8월 하순에 그 일당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동 서용인 조서 중, 원주 진위대가 해산된 후 폭도 괴수 정병화의 부하가 되어 수일 동안 각처

를 배회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종합 참작하여 관시함과 같이 인정할 증빙이 충분하다.

법에 비추건대, 관시한 피고들의 소위는 형사령 제45조에 의거 동 제41조 제2항, 형법 대전 제478조에 해당하여 형사령 제42조에 따라 사형에 처할 것인 바, 소범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6조·제71조 제 68조 제1호를 적용하여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이 가하다고 여겨 그 소정 법에서 각각 형량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치 45년 5월 30일

경성 지방 법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이동순길(伊東淳吉)

판결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미교동

주박업 김명조 당 35세

동도 영월군 우변면 두만리

농업 정시종 당 39세

동도 원주군 동부면 읍중동

마부 이태경 당 33세

동도 동군 미내면 서석

농업 안석조 당 34세

동도 횡성군 군내면 북천리

광부 서용인 당 35세

상기 자에게 대한 강도 피고 사건에 대하여 경성 지방 법원에서 언도한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들로부터 각각 공소(控訴) 및 검사로부터 부대(附帶) 공소를 신청하였기로 당원은 조선 총독부 검사 장미계삼(長尾戒三)의 입회로 심리를 거쳐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각 피고를 무죄로 한다.

이유

본건 공소(公訴) 사실은 피고 정시종·이태경·안석조·서용인이 적괴 정병환의 부하가 되어 각지를 횡행 중, 명치 40년 8월 4일 평창군 대화면에서 피고 김명조와 같이 강릉 우편국 체송인 상야융의(上野隆義)를 포착하여 그

의 소지품을 강탈한 다음 그를 결박하여 동면 주진리(舟津里)에서 이를 살해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이상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36조·제224조에 따라 무죄를 언도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원판결이 이상의 공소(公訴) 사실을 인정하고 형을 언도하였음은 실책으로서 본건 각 피고의 공소(控訴) 및 검사의 부대 공소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판결함이 주문과 같다.

명치 45년 7월 17일

경성 북심 법원 형사부 재판장

조선 총독부 판사

영목오삼랑(鈴木伍三郎)

예심 종결 결정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병지방리(晴日面兵之坊里) 10통 6호

농업 용해준(龍海俊) <일명: 용경수(龍敬守)> 32세

동도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泳歸美面魯川里) 3통 4호

농업 이낙여(李洛汝) 39세

동면 동군 동면 좌운리(坐雲里) 4통 9호

농업 정태용(鄭泰用) <일명:鄭白文·鄭泰龍> 27세

동도 횡성군 갑천면 상금대리(甲川面上琴垜里) 1통 6호

농업 최순실(崔順實) 36세

동도 동군 동면 동리 2통 10호의 1

농업 장재선(張在善) <일명: 장홍련(張洪連)> 39세

동도 동군 청일면 병지방리 10통 2호

농업 정옥영(鄭旭永) 48세

동도 동군 동면 춘당리(春堂里)(당현리<堂峴里>) 6통 5호

농업 장명수(張命壽) <일명: 조원배(趙元培)> 35세

동도 동군 동면 병지방리 10통 2호

농업 정대성(鄭大成) <일명:鄭日永·鄭一永> 36세

동도 원주군 귀래면 당우리(貴來面堂隅里) 2통 7호

농업 김종근(金鍾根) <일명: 金成日·許仲國> 36세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가성리(物野面佳城里) 5통 1호

농업 김종철(金鍾鐵) <일명: 金鍾桓·金鍾煥·金光玉> 37세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금대리 5통 5호 이명선(李明善) 집 동거

무직 김용원(金溶源) <일명: 김성천(金聖天)> 41세

동도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송봉(麒麟面上南里松峯) 18통 10호

농업 김원실(金元實) 43세

위 용해준·이낙여·정태용·최순실·장재선·정옥영 및 김용원에 대한 강도 피고 사건과 장명수·정대성 및 김종근에 대한 강도·강도 상인(傷人)·강도 살인 및 방화 피고 사건, 김종철에 대한 살인 방화·강도 살상인(殺傷人) 및 강도 피고사건 및 김원실에 대한 강도·강도 상인 및 살인 피고 사건에 대하여 예심을 마치고 종결 결정을 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피고 용해준·이낙여·정태용·최순실·장재선·정옥영·장명수·정대성·김종근·김용원 및 김원실에 대한 본건의 각 피고 사건을 경성 지방 법원의 공판에 붙인다.

피고 김종철에게 대한 공소(公訴) 중, 하기 살인 미수 사건을 제외하고 동 피고에게 대한 본건을 경성 지방 법원의 공판에 붙인다.

피고 김종철에게 대한 공소 중, 최돈상(崔燉相)과 양양(襄陽) 경찰서 순사 등 및 평창(平昌) 경찰서 창동(蒼洞) 주재소 순사보 등에 대한 살인 미수 피고 사건은 이를 면소한다.

사실

피고 김종철은 원래 김종환이라 하여 명치 40년 8월경 폭도 괴수 박화엄(朴化嚴)의 막하에 투입, 출생지인 강원도 인제군 지방에서 본시 관포수(官砲手)였던 자 등 백 수십 명을 소모하여 일파의 수령으로서 동군 부근을 횡행하였는데, 동년 12월경 그 무리를 해산하며 부하의 대다수는 귀순하였으나, 수령된 자는 귀순을 출원하여도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전해 듣고서 잠시 몸을 산속에 숨겼으나, 이듬해 명치 41년 2월경 양양 수비대의 일본병에게 체포되어 다시 강릉으로 압송되는 도중, 호송자의 눈치를 엿보아 탈주하여 몰래 가족을 인솔하고 동도 정선군(旌善郡) 또는 삼척군(三陟郡) 등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숨어 살다가 마침내 명치 42년 3월경 현주소인 경상 북도 봉화군(奉化郡)에 이주하여 처첩들로 하여금 주막을 경영케 한 이래로 김종철이라 개명하고, 이듬해인 명치 43년 이후 누차 강원도에 가서 본시 그의 부하였던 무퇴한들을 이끌고 여러 군을 횡행하며, 가지가 원래 폭도 수령으로 각지에 잘 알려져 남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요행으로 부호를 습격하여 재물을 강요하고 각지에서 살인·방화·강도 등 극히 흉악한 소위를 감행하고 있었던 바, 대정 2년말경 강릉군의 1농가에 기탁하여 두었던 흉기 전부를 경찰관에게 압수당하고 일시 흉포를 부릴 수 없었으나, 마침 대정 4년 3월경 인제군(麟蹄郡)에서 피고 김종근 일행을 우연히 만나서 그들의 요청으로

그 일행에 참가하여 그들의 수령이 됨에 이르러, 이후 다시 그들을 이끌고서 동년 8월 11일경까지 악행을 계속, 흉포를 부렸으며,

피고 김종근은 대정 3년 봄쯤부터 강도 전과자 기타 무죄한을 회집(懷輯)하여 스스로 수령이 되어 김성백·허중국 또는 강대장(姜大將) 등의 이명을 사용, 부하를 인솔하여 총기·군도를 휴대하고 강원도 여러 군을 횡행하며 각지에서 재물을 겁탈하고 있었는데, 대정 4년 3월경 피고 김종철과 해후하자 그를 맞이하여 일행의 수령으로 삼은 이래로 그를 따라서 여러 군을 돌아 다니며 포악을 계속하고,

피고 장명수는 명치 44년 2월 20일 경성 지방 재판소에서 강도죄로 5년 징역에 처하여졌다가 은사(恩赦)로 경감되어 대정 3년 5월경 출옥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동년 음력 12월 초순께 피고 김종근의 권유에 응한 이래로 그를 따랐으며,

피고 정육영은 대정 3년 봄께 누차 피고 김종근을 재워 주고, 피고 용해준에게 권하여 그들 도적의 무리에 투입케 하였으며, 자기도 그 후 김종근 등에게 수행하여 악행을 같이 하고 나아가 그의 아우 정태용·정대성 양인까지도 그들의 무리에 투입하게 하여 형제 3인이 모두 함께 적도가 되고,

피고 용해준은 대정 3년 4월경, 피고 김원실 및 이낙영은 동년 11월경, 피고 최순실 및 장재선은 대정 4년 1월경, 피고 정태용은 대정 3년 9월경, 피고 정대성은 대정 4년 4월경 모두 피고 김종근의 소집에 응하여 그의 부하가 되어 범행을 같이 하였으며,

피고 김용원은 몸을 불구이어서 생활의 자료를 얻을 방도가 없이 궁하여 대정 4년 8월중, 피고 장명수의 소개로 스스로 도적의 무리에 투입하 자인바,

이상 김종철 이하 12명은 명치 43년 4월경부터 대정 4년 10월 26일까지 사이에 아래에 열거하여 보이는 바와 같이 각 1개 또는 수개의 많은 죄를 범한 자들이다. 그리고 피고 김종철·김종근·장명수·용해준·김원실·최순실·장재선·정대성 및 이낙영의 수개에 걸친 강도 또는 강도 상인은 범의를 계속하여 저지른 것이다.

제1. 피고 김종철은 명치 43년 음력 3월경 강원도 인제군 내면 소한리(內面小閑里) 김시원(金時元)이 당시 이곳 면장으로서 거동이 미심한 자를 물색하여 폭도 혐의가 있는 자를 체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경찰관에 협력함을 분개하여 통렬히 그를 징치하려고 꾀하여, 동월 10일 밤 11시경 김문도(金文道)와 김종삼(金中三)을 이끌고서 각자 총을 휴대하고 김시원의 집에 갔으나 그가 없어서 면책할 수 없었으므로, 그의 집을 불태워 분로를 풀려고 결심하여 당장에 김문도와 김종삼에게 명령을 내려 그의 집에 불을 놓게 하여 그의 집과 재산 전부(가격 약 5백 원)를 불태워 버렸다.

제2. 피고 김종철은 전에 일진회(一進會) 회원이었던 인제군 기린면 거리(西里) 엄윤문(嚴允文) 아들의 위태로움을 구조하여 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윤문이 경찰관의 위엄과 권세를 빌어 피고 김종철의 친족 또는 옛 부하에게 박해를 가함을 분개하여, 엄윤문을 죽여 그 원한을 풀려고 결심하고서 명치 43년 음력 5월 30일 밤 11시경 김국서(金國瑞) 외 4인을 인솔하여 각자 총 또는 군도를 휴대하고 엄윤문 집으로 몰려 가서 그를 붙들어 이 집 문 앞에서 그의 소행을 험난한 다음 당장에 총으로 그를 쏘아서 그의 흉부를 관통시켜 즉사케 한 것이다.

제3. 피고 김종철은 대정 2년 음력 11월 15일경 밤에 강도를 할 목적으로 이종서(李鍾西) 외 2인을 이끌고 강릉군 연곡면 퇴곡리 유동(連谷面退谷里柳洞) 정현삼(鄭顯三)의 집에 돌입하여 그와 그의 장남을 결박하고 휴대한 총과 군도를 내대고서 협박하여 돈 40원 외 잡품 6점을 강탈하였다.

제4. 피고 김종근과 용해준은 오중수(吳重守) 외 2명과 함께 강도를 목적으로 각자 총 또는 군도를 휴대하고,

(1) 대정 3년 5월 5일 밤 횡성군 청일면 율실리(栗實里) 여인숙 정진옥(鄭眞玉) 집에 돌입하여 그와 숙박인을 노끈으로 결박하고 전기한 총과 군도를 내대고서 협박하여 그들에게서 백미 5두, 돈 5원의 의류·잡품 수점을 강탈하고, 이어서

(2) 이날 밤 동면 봉명리(鳳鳴里) 주막 함개동(咸介童) 집에 돌입하여 그의 모친 김(金)씨 외 1명을 노끈으로 결박하고 전기한 총과 군도를 내대고서 협박하여 그들에게서 돈 8원 60전, 배 6장(丈) 5척 외 의류·잡품 수점을 탈취하였다.

제5. 피고 김종근·용해준 및 정옥영은 공모하여 인제군 내면 행치령(內面行雉嶺) 고개에서 통행하는 여행자에게서 금품을 강탈할 목적으로 대정 3년 9월 상순 각자 총 또는 군도를 휴대하고 피고 정옥영 집을 출발하여 산속을 우회하여 이 고개로 가던 도중, 동월 10일 밤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간촌(瑞石面儉山里間村)의 빈 집 속에 충청 남도 공주군 서면 유기장대(西面有岐場垓) 한치수(韓致守) 외 4명의 행상인이 집합하여 도박을 하고 있음을 보고서 그들에게서 돈을 강탈하려고 결의하여, 피고 정옥영은 군도를 가지고서 이 집 처마 밑에서 망을 보고, 피고 김종근과 용해준은 각자 총을 휴대한 채로 이 집에 돌입하여 총을 내대고 협박한 다음 한치수 등에게서 돈 18원 외 물품 1가지를 탈취하고,

제6. 피고 김종근·용해준·정태용·김원실 및 이낙여는 공모한 후 강도를 목적으로 대정 3년 11월 22일 밤, 각자 총·군도 또는 곤봉을 휴대하고 홍천군 영귀미면 개운리(開雲里) 이희교(李熙喬) 집에 돌입하여 그의 차남 윤균(允均)을 결박하고 전기한 흉기를 내대고서 이희교 부자를 협박하여 돈

30여 원 외 물품 1가지를 강탈하였다.

제7. 피고 김종근·장명수·용해준 및 이낙여는 공모한 후 강도를 목적으로 대정 4년 1월 19일 밤 각자 총·군도 또는 곤봉을 휴대하고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瑞石面魚論里) 김춘보(金春甫) 집에 가서 이낙여는 망을 보고, 피고 3명은 이 집 속에 돌입하여 김춘보 부처를 결박하고서 아내 이성녀(李姓女)를 총으로 구타하고, 또한 김춘보의 두 다리를 묶어 그 사이에 총을 넣고 지겨서 그의 하퇴부에 찰과상을 입혀 재물을 내놓으라고 강박하며 이로써 돈 4원 90전, 명주 3필, 배 2필 이외 의류 등 수 점을 탈취하였다.

제8. 피고 김종근·장명수·용해준·최순실 및 장재선은 공모하여 강도를 할 목적으로 각자 총 또는 군도를 휴대하고,

(1) 대정 4년 2월 1일 밤 평창군 대화면 계촌리(大和面桂村里) 여인숙 박소사(朴召史) 집에 돌입하여 숙박중인 평창군 서기 이근세(李根世), 대화면 서기 김관경(金館卿), 계촌리 이장 김찬경(金瓚卿) 외 수 명을 결박하고 전기한 군도를 그들의 목에 대거나 또는 총을 내대며 그들을 협박하고, 또한 이근세를 구타한 후 그의 공용 제복·양검·망토를 빼앗았으며, 또한 그에게서 돈 10원 90전, 김찬경에게서 돈 7원 여, 김관경에게서 그가 징수하여 가지고 있던 세금 23원 여, 이외 의류 등 수 점을 강탈하고, 이어서

(2) 이날 밤 같은 이내 방의실동(芳義實洞) 김화숙(金化淑) 집에 돌입하여 그를 결박한 다음 그의 얼굴을 차고 또 전기한 흉기를 내대고 협박하여 이로써 돈 4원을 강탈하고, 또한

(3) 동년 2월 3일 밤 횡성군 정곡면 산전리(井谷面山田里) 남상진(南相鎭) 집에 돌입하여 그와 이외 2인을 결박하고 검을 휘두르며 그들을 협박하여 돈 4원 외 의류 등 수 점을 탈취하였다.

제9. 피고 김종근·장명수 및 정대성은 공모하여 강도를 목적으로 대정 4년 4월 15일 밤 각자 총·군도 또는 양검을 휴대하고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백인도(白仁道)의 집에 돌입하여 전기한 흉기를 내대고서 그를 협박하여 그가 내놓은 돈 7원 여를 탈취하고서도 '아직 금액이 적다'고 하여 그에게 폭행을 더하며 '돈을 내라'고 강박하며 백인도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서 빌려 오겠다'고 속이고 밖으로 나가 큰소리를 쳐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왔으며, 피고들은 크게 노하여 이에 대한 보복을 피하여 그의 집에 불을 지르고 떠나가 버렸던 바, 동네 사람들이 곧 이를 꺼버렸더니, 피고 3명은 다시 이곳에 되돌아 와서 재차 그의 집에 방화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대하여 '다시 꺼버리면 총살한다'고 협박하고서 부근 등성이에 올라가 3인이 함께 발포하면서 이를 감시하여 이 집의 태반이 불타버리자 물러가니, 마침내 이 집의 재물을 모두 오유(烏有)로 돌린 것이다.

제10. 피고 김종철·김종근·장명수·김원실 및 정대성은 공모하여 강도

를 목적으로 각자 총·군도 또는 양검을 휴대하고,

(1) 대정 4년 5월 8일 밤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斗村面自隱里) 하영도(河影圖) 집에 돌입하여 그의 아우 하나도(당시 32세)를 결박하고 전기한 흉기를 내대며 협박하여 ‘돈을 내라’고 강박하였던 바, ‘형이 없어서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여 불응하매, 그대로 그를 납치하여 인제군 기린면 상남리 이(李)모 집에 유치하고서 동월 10일 하영도 집에서 보내준 돈 57원을 탈취하고,

(2) 동년 6월 20일 밤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乃村面瓦野里) 박노순 집에 돌입하여 동인을 포박한 다음 총 끝으로 동인의 흉부에 부상을 입히고 그의 처 허씨를 총으로 구타하여 금전을 강요하고 또 집안을 수색하였으나 금전이 없으므로 안경 1개 외 2점을 탈취하였고,

제11. 피고 김종철·김종근·장명수·김원실·정대성·김용원(金熔源)은 공모한 다음 강도를 할 목적으로 외 2명과 함께 각자 총·군도 또는 곤봉을 휴대하고 대정 4년 8월 11일 강릉군 연곡면(連谷面) 송천리 이치령(泥峙嶺) 고개에 이르러 통행하는 여인(旅人)을 상대로 동일 오후 1시경부터 저녁 때까지의 사이에 차례차례로 약 23명의 상인 및 그 마을의 이군필(李君弼)을 붙들어 포박하고 군도를 내대어 돈을 내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동인들로부터 함께 금 64원을 강탈하였고,

제12. 피고 김종철·김종근·장명수·김원실·정대성의 5명은 강도를 목적으로 총·군도를 휴대하고서 횡행 중, 대정4년 6월 6일 미명에 강릉군 연곡면 장천리(連谷面長川里)에 가서 이 동네 본 부락에서 6-7정(町) 떨어진 산속에 있는 박군팔(朴君八)의 집에 들어가 ‘식찬을 내놓으라’고 요청하매, 박군팔은 백미를 꾸어 오고자 그의 아내 방성녀(方姓女)를 본 부락에 거주하는 형 박흥철(朴興哲) 집에 보냈던 바, 밝아 올 녘에 피고 김종철은 방성녀가 돌아 왔음을 보고서 박군팔이 피고들이 온 것을 순사 주재소에 밀고케 한 것이라고 악의로 억측하여 곧 김원실로 하여금 박군팔을 새끼로 묶게 하여 창황히 이 집을 출발하여, 박군팔을 납치하여 가지고 본 부락에 가서 밀고 사실을 확인하고자 이장을 불렀으나 없다고 하여 나타나지 않자 점점 더 밀고한 것으로 추단하여 피고 5명이 협의 후 박군팔을 총살하여 이에 대해 보복하려 결심하고서, 피고 장명수·김원실 및 정대성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 김조철과 김종근은 박군팔을 이 곳 주막 조성녀(趙姓女)의 집 앞 길가의 밭 속으로 인치하고, 피고 김종철은 총을 들고 박군팔의 배후에서 발사하여 그의 등을 관통시켜 즉사케 한 것이다.

제13. 피고 장명수와 정대성은 강도할 목적으로 각자 군도를 휴대하고 배회하다가 대정 4년 10월 26일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용정보(龍正甫) 집에 가서 군도를 내대고 그의 집 시구를 협박하여 식찬을 제공하게 하고, 이 날 저녁 이것을 먹던 중 이 동네 정대영(鄭大楹)·용정익(龍正益)·허관필(許觀

必) 외 십수명이 몰려 와서 피고들을 체포하려고 하며 피고 장명수는 휴대한 군도를 휘두르며 이에 저항하여 투쟁 중, 위 3명의 왼쪽 어깨 또는 손가락에 각각 1개의 상처를 입힌 자이다.

이상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충분한 것으로서, 위 제1 및 제9의 방화한 소위는 모두 형법 제108조에, 제2의 살인한 소위는 형법 대전 제473조에, 제3내지 제6 및 제8내지 제11의 강도한 소위는 모두 형법 대전 제593조 제1호에, 제7 및 제13의 강도 살인 소위는 모두 형법 대전 제516조에, 제12의 상인 소위는 형법 대전 제477조에 해당하고, 피고 김종철·김종근·장명수·용해준·김원실·최순실·장재선 및 정대성의 소위 중, 각 강도 또는 강도 상인과 피고 이낙여의 각 소위는 연속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형법 제551조를 적용하고, 피고 장명수는 재범이므로 형법 '누범(累犯)'의 규정을 적용하고, 또한 피고 김종근·장명수·용해준·김원실·최순실·장재선 및 정대성은 수개의 죄이므로 형법 병합죄(併合罪)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할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167조 1항에 의거 처분함이 가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피고 김종철에게 대한 공소(公訴) 중, 동 피고가 (1) 대정 4년 5월 23일 양양군 서면 갈천리 여인숙 강기석 집에서 숙박 중인 최돈상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 동월 28일 양양군 현북면 하면옥치리(下綿玉峙里)에서 피고들의 종적을 탐색하고 있던 양양 경찰서 순사들 3인에게 대하여 발포하여 이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3) 동년 8월 1일 평창군 봉편면 홍정리 불발(佛發) 산속에서 피고들을 추적하여 온 평창 경찰서 창동(蒼洞) 주재소 순사보들에게 발포하여 이들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은 모두 그 증빙이 불충분하며, 형사 소송법 제 165조에 따라 면소를 언도함이 가하다고 여겨진다.

위에 서술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정 5년 7월 31일

경성 지방 법원 예심계 조선 총독부
판사 야촌명태랑(野村明太郎)

2) 3·1운동 재판기록

판결

횡성군 정곡면 상안흥리(井谷面 上安興里)

서당교사 김인향(金麟鄉) 38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 총독부 검사 산택좌일랑(山澤佐一郎)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을 한다.

주문

피고를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천도교 교령인데 대정 8년 음력 2월 13일 횡성군 횡성면 영영포리(永永浦里) 천도교 순회 교사 신재근(申在根)집에서 횡성 대교구장 최종하(崔宗河)라는 자로부터 《선언서》라 제한 ‘조선은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실려져 있는 문서 12매를 교부 받아서 일반 인민에게 배포하여 인심의 동요를 초래하라는 내용의 의뢰를 받아 피고는 이를 응낙하고 동월 20일 경 피고 자택에서 천도교도인 이인영(李麟榮)이라는 자에게 위 선언서 3매를 교부하여 치안상 방해를 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의 당 법정에서 그 사실 내용의 자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취 보니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 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는 처분을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9일

경성 지방법원 조선 총독부 판사 신정반(新井胖)

판결

횡성군 갈원면 분일리(葛院面 分一里)

농업 송병기(宋秉箕) 28세

동소

농업 성태현(成泰鉉) 29세

동소

농업 박민희(朴民喜) 41세

동소

농업 유정근(柳定根) 40세

동소

농업 이정현(李正憲) 26세
동소
농업 이두연(李斗淵) 39세
동소
농업 이종우(李鍾禹) 40세
동소
농업 김옥봉(金玉鳳) 40세

위 자 등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천면영륙(千綿榮六)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을 한다.

주문

피고 송병기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성태현·박민회를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피고 유정근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 이정현·이두연·이종우·김옥봉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 송병기·성태현·이정현·박민회는 대정 8년 4월 12일 피고 송병기와 같은 마을에 사는 종형 송병창(宋秉昌) 집에서 회담 중 동인의 수창에 의하여 조선 각지에서 조선독립 운동에 찬동하고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피고 등의 주소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기도하고 그날 밤 오후 9시경 이민(里民) 약 50명을 규합하여 이 마을 뒤쪽 산 마루에 이르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다시 동 산쪽에서 피고 유정근 등의 일단과 합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면서 동리내를 횡행하였다.

피고 유정근·이두연·이종우·김옥봉은 이 날 밤 피고 김옥봉 집에서 잡담 중 판시와 같이 많은 이민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을 듣고 이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의 목적으로 피고 유정근의 발의에 의하여 많은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마을을 광분하여서, 피고 등은 모두 정치상의 불온한 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 성태현은 대정 4년 12월 17일 경성 지방법원 원주 지청에서 절도죄에 의하여 징역 4월에 처하게 되어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위 사실은,

1. 당 공정에서 피고 송병기의 '자기 종형의 수창에 의하여 조선 독립운동에 찬동한 것이 아니고 다만 동인이 산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등산하였었다'고 변해한 외에 판시와 같은 공술, 당 공정에서 피고 성태현의 '송병창 집에서 상담에 참여한 일이 없다'고 한 외에 판시와 같은 취지 및 '피고 이정현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는 공술, 당공정에서 피고 이정현의 '만세를 부르지 않았다'는 변해를 하는 외에 판시와 같은 취지의 공술, 검사의 피고 박민

회·유정근·이두연·이종우·김우봉의 각 심문조서 중에 그 소위에 대하여 각 판시와 같은 내용의 자백,

1. 검사의 피고 송병기에 대한 심문조서 중에 ‘집합한 군중은 25명에 불과하였다’고 변해하는 외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공술,

1. 사법경찰관의 피고 성태현에 대한 심문조서 중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자공 기재,

1. 사법경찰관의 피고 이정현에 대한 심문조서 중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자공 기재,

1.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상열(李相悅)에 대한 심문조서 중에 ‘대정8년 4월 12일 밤 황성군 당원면 분일리 안의 점산(店山)·수동(水洞)·상촌(上村)·조항(鳥項)의 각 동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른 사실로부터 이날 밤 송병창 등은 자기집 앞까지 와서 만세를 불렀는데 자기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문을 파괴하는 자까지 있으므로 둘째 아들을 내보냈더니 문을 파괴하여도 나오지 않는 자는 뒤에 처분해야 된다고 말하므로 둘째 아들을 조항(鳥項)까지 따라서가게 하였다’는 공술 기재가 있으므로 그 증빙이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 성태현의 전과에 대해서는 동 피고가 당 공정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진술로 인정한다.

법률에 비취 보니 본 건은 범죄 후에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 형법 시행법 제3조에 의하여 신·구 양법을 대조하니 신법에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 1조에 해당하고 그리고 피고 성태현에 대해서는 누범이 되므로 형법 제56조·제57조에 좇아 경·중을 고려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기로 하여 보안법 제7조에,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그리고 피고 성태현에 대하여는 누범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56조·제57조에 좇아 법정의 각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하고,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보안법 제7조에 좇아 조선형사령 제42조에 의하여 형명을 변경한 소정현 중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 성태현에 관해서는 형법 제56조·제57조에 의하여 누범의 법정가중을 하고 각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15일

경성 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금좌진(金佐鎭)

판결

황성군 황성면 영영포리(永永浦里)

농업 신재근(申在根) 64세

동군 정곡면 상안흥리(井谷面上安興里)
농업 장도훈(張道勳) 49세
원주군 소초면 둔둔리(所草面屯屯里)
농업 강만형(姜萬馨) 28세
횡성군 횡성면 읍하리(邑下里)
잡화상 윤태환(尹泰煥) 22세
횡성군 횡성면 영영포리 641번지
안경춘(安敬春) 20세

위 보안법 위반피고사건에 대하여 대정 8년 5월 1일 경성 지방 법원에서 언도한 각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 5명으로부터 공소를 신청하였으므로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삼곡유부(澁谷有孚)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을 한다.

주문

본건 공소는 각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신재근은 30년 전부터, 피고 장도훈은 10년 전부터 각 천도교도가 되어 일찍 일한 병합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고 있던 차에 대정 8년 3월 1일 교주 손병희등이 조선 독립선언을 한 다음부터 조선내 각지에서 조선독립의 시위운동이 행해져서 그 방법으로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고 또 태극기를 휘두르며 조선독립 만세를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서 각기 취지에 찬동하여 사는 마을에서도 또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여 조선독립의 기운을 조장할 것을 기도하고 동년 3월 10일 경 신재근 집에서 양인이 회합 모의한결과 피고 신재근은 태극기 및 《독립선언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으로 장도훈에게 금3원을 교부하고 피고 장도훈은 이를가지고 4월 11,12일경 경성에 들어서 태극기를 한 폭, 조선 종이로 만든 태극기 20매 및 《독립선언서》 40매를 구입하여 4월 26일 이것을 휴대하고 마을로 돌아오므로 피고 양인은 다음 27일 횡성 장날을 이용하여, 기사하러 하고 그날 함께 동 시장으로 달려가 동소 입구에서 마침 맞부딪친 피고 윤태환(尹泰煥)에 대하여 찬동을 요구하여 전기 태극기를 교부하고 이를 휘두르며 장 보러온 장꾼 300여 명에게 전시 종이로 만든 태극기 및 《독립선언서》를 배포 선동하고 위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시위운동의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었다.

피고 안경춘·강만형은 천도교도로서의 일찍 일한 병합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대정 8년 3월 1일 교주 손병희 등이 조

선독립선언을 발표한 이후 조선내 각지에서 조선독립 시위 운동이 전개되어, 그 방법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할 것을 기도하고 동년 3월 27일 전시 형성 시장에서 피고 신재근·장도훈 등이 주창하는 독립시위 운동에 참가하고 전기 대중과 함께 조선독립 시위 운동의 방법으로 조선독립 만세를 외쳐 치안을 방해하고, 피고 윤태환은 대정 8년 3월 1일 천교도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 선언을 발표한 이후 조선내 각지에서 조선독립 시위 운동이 전개되어 그 방법으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마침 대정 8년 3월 27일 전시 형성 시장으로 달려갔을 무렵 동소 입구에서 피고 신재근으로부터 전기 동인 등이 기도한 독립시위운동에 참가하여 태극기를 휘두르고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자는 취지의 권고를 받고 태극기 한 폭(증 제1호)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승낙하고 동일 장소에서 태극기 기수가 되어서 이 기를 휘두르고 전시 대중과 함께 조선독립 시위 운동의 방법으로 조선독립 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하였다.

이상 사실은 당 공정에서 피고 신재근·장도훈·안경춘·강만형의 각 판시와 동일한 취지 및 피고 윤태환의 조선독립 시위운동의 취지에 찬동한 점을 제외한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각 자백, 사법경찰관의 피고 윤태환 심문조서 중 ‘대정 8년 3월 27일 오전 11시 경 신재근은 자기에 대해서 “오늘 신 시장쪽에서 독립운동을 하므로 너도 함께 만세를 부르자”고 권하고 또 이 말을 번복하여도 내가 주저한 즉 “너는 청년인데 그다지도 정신이 없고 썩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된 의무심으로 크게 찬성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므로, 자기는 받은 것을 열어 보니 태극기이므로, 이러한 것을 하면 헌병에 체포된다고 말한 즉 동인은 또한 앞서와 같이 “정신이 빠졌다. 의무심이 없다”고 번복하므로 그렇다면 해보자고 결심하였는데 그리고 약 1시간 후에 신도로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였으므로 자기도 시장으로 갔었는데 신재근과 장도훈이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므로 자기도 가졌던 태극기를 휘두르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사실의 공술 기재,

압수된 증 제1호 태극기의 현존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 비취보니 피고 등의 소위는 각 범죄 후의 법률에서 형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8조, 제6조에 의하여 신·구 양법의 형을 대조하고 그 가벼운 법조에 따르도록 하여, 구법에 의하면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의하여 형명을 변경한 보안법 제7조에, 신법에 의하면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형법 제10조·제9조에 의하여 대조하니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전시 보안법을 적용하고 각 소정형 중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피고 신재근을 징역 2년에, 피고 장도훈을 징역 2년에, 피고 안경춘을 징

역 10월에, 피고 강만형을 징역 8월에, 피고 윤태환을 징역 6월에 처하고 압수물건은 형법 제19조에 의하여 몰수하기로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 판결은 상당하여 피고로부터의 공소는 각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6월 6일

경성 복심 법원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총원우태랑(塚原友太郎)

판결

황성군 황성면 내지리(橫城面 奈之里)

무직 정해경(鄭海璟) 43세

동군 정곡면 하산전리(井谷面 下山田里)

농업 조상렬(趙常烈) 49세

주소부정

날품팔이 김성서(金聖西) 68세

인제군 서환면 천도리(瑞環面 天桃里)

행상 김윤신(金允信) 31세

황성군 황성면 읍상리(邑上里)

고용인 전성수(全聖洙) 34세

동군 갑천면 매일리(甲川面 梅日里)

농업 김윤배(金允培) 56세

동군 정곡면 가좌곡리(井谷面 佳佐谷里)

농업 김순서(金順瑞) 21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산택좌일랑(山澤佐一郎)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을 한다.

주문

피고 정해경·김성서를 각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 조상렬·김윤신·전성수·김윤배·김순서를 각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 정해경은 예수교도이고, 피고 김성서는 천도교도로서 일찍부터 일한 병합을 심각하게 개탄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 손병희 등이 조선의 독립을 주창하게 되자 크게 이를 찬동하고 대정 8년 4월 1일 오후 5시경 황성 읍내 시장에서 다수 군중과 함께 피고 정해경의 발성으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그때 피고 조상렬·김윤신·전성수·김윤배·김순서는 이에 호응하여 함께 만세를 외쳐 치안을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 정해경의 발성 및

에서라는 부분을 제외한 각 당해 피고의 당 공정에서의 그 뜻의 자백 및 사법 경찰관의 피고 정해경 심문조서 중 ‘동 피고 발생 밑에 다수 민중이 여기 호응하고 조선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사실의 공술 기재에 정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취 보니 피고 등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범죄 후에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신·구 양법을 대조하고 가벼운 보안법 제 7조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9일

경성 지방법원 조선 총독부 판사 신정반(新井勝)

판결

횡성군 정곡면 안흥리(井谷面 安興里)

농업 천선재(千善在) 78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 총독부 검사 대리 사법관 시보태재명(太宰明)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는 일찍부터 일한 병합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대정 8년 3월 1일 천도교주 손병희 등 일파에서 발표한 《독립선언서》에 찬동하고, 다수 민중이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시위 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알고서 크게 그 거사에 찬동하여 정치상 변혁을 목적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시위 운동을 전개하려고 기도하여, 범의 계속하여 동년 4월 8일 영월군 □□면 법흥리(法興里) 최춘일(崔春日)의 집에서 동인에 대하여, 또 다음 9일 동군 남변면 신일리(南邊面新日里) 최성오(崔成五) 집에서 동인에 대하여, 또 다음 10일에는 동군 □□면 무릉리(武陵里) 부근의 밭에서 동리 현성준(玄聖俊)에 대하여 “근래 조선 각지에서 애국의 지사가 번갈아 일어나서 조선독립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전번 횡성군 읍내 시장에서 군중이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수비대에게 사격되어 5명이 죽고 8명의 부상자를 내기까지 하였는데,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독립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실로 유감되는 일이다. 한국 국민된 자 애국심을 분발하여 오는 주천리(酒泉里) 장날 아침에 이

시장에서 나를 위시해서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려고 하니 이에 참가하라”고 권고하고 선동하여 안녕 질서를 방해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은 피고가 당 법정에서 한 판사와 부합되는 공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취 보니 피고의 소위는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데 범죄 후에 발포된 대정 8년 4월 15일 제령 제7호에 의하면 동제령 제1조 제2항, 형법 제55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6조·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신·구 양법의 경중을 대조하니 구법인 보안법 제7조의 형이 가벼우므로 동 법조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일

경성 지방 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유택작치(有澤作治)

參 考 文 獻

1. 資料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太宗實錄』
- 『世宗實錄』
- 『文宗實錄』
- 『端宗實錄』
- 『世祖實錄』
- 『成宗實錄』
- 『燕山君日記』
- 『中宗實錄』
- 『明宗實錄』
- 『宣祖實錄』
- 『宣祖修正實錄』
- 『光海君日記』
- 『仁祖實錄』
- 『孝宗實錄』
- 『顯宗實錄』
- 『顯宗改修實錄』
- 『肅宗實錄』
- 『景宗實錄』
- 『英祖實錄』
- 『正祖實錄』
- 『哲宗實錄』
- 『承政院日記』
- 『備邊司騰錄』
- 『日省錄』
- 『續大典』
-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文科榜目』
『司馬榜目』
『國朝榜名錄』
『國朝故事』
『國朝人物志』
『大東野乘』
『書院騰錄』
『典故大方』
『朝鮮名臣錄』
『怡軒集』
『增補文獻備考』
『新增東國輿地勝覽』
『懲忿錄』
『瑣尾錄』
『大東韻府群玉』
『華海師全』
『國朝人物考』
『國朝名臣錄』
『耘谷詩史』
『栢谷集』
『寒岡集』
『東山日記』
『龍湖閒錄』
『月川集』
『筆苑雜記』
『記言』
『栢谷集』
『宋子大全』
『定齋集』
『崧陽耆舊傳』
『草窩逸稿』

- 「楓溪集」
「野老堂文集」
李端夏「北關誌」
「疏齋集」
「清選考」
「雷淵集」
「雪橋漫錄」
「訥齋集」
「朴永默先生集」
「梅泉野錄」
「梅堂集」
「騎驪隨筆」
「朝鮮金石總覽」
「草溪鄭氏宗史」
「趙冲墓地銘」
「高荊山の 상소문」
「咸州誌」
「太學志」
「雲谿書院誌」
「少雲未定稿」
「終南叢志」
「先輩手束」
「朝鮮儒教淵源」
「原州元氏世譜」
「朝鮮圖書解題」
「教坊歌謠」
「國朝喪禮補編」
金在魯「金石錄」
「相臣考略錄」
「清風金氏世譜」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判決文』 (1912. 5. 17 大邱地方法院)
『判決文』 (1919. 5. 15. 京城地方法院)
『判決文』 (1919. 6. 9, 6. 25, 8. 14, 京城地方法院)
『判決文』 (1939. 12. 27 京城地方法院)
『皇城新聞』
『東亞日報』 (1933. 4. 14 ; 7. 19 ; 8. 11)
『江原日報』

2. 單行本

- 李燦, 『韓國古地圖의 發達』 (韓國圖書館學研究會), 1977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金光淳譯註, 『愁城誌·天君本紀』 (螢雪出版社), 1979
金光淳, 『天君小說研究』 (螢雪出版社), 1980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 (一志社), 1982
金斗鍾, 『韓國醫學史』, (探求堂), 1966.
李佑成, 『동문선해제』 (慶熙出版社), 1966
金斗鍾, 『국역동문선해제』 (민족문화추진회), 1968
李慶善, 『한국의名著』 (玄岩社), 1969
金奎聲, 『韓國의 古典百選』 (東亞日報社), 1969
韓永愚, 『朝鮮前記史學史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1
邊太燮,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1982
趙東杰, 『橫城과 3·1운동』, 1977
金正明, 『明治百年史叢書』 제1권
金永學, 『韓國獨立史』
文一民, 『韓國獨立運動史』
趙東杰, 『太白抗日史』
김후경·신재홍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 (한국민족운동연구소), 1971
尹炳旼, 『義兵과 獨立軍』 (世宗大王紀念事業會), 1977
尹炳旼, 『義兵傳』 (韓國近代史料論, 一朝閣), 1979
金承學, 『韓國獨立史』 (獨立文化社), 1965

-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獨立運動史』1, 1970
 白斗鏞編,『天君演義 附心史』(翰南書林), 1917
 『韓國史』-中世篇-(乙酉文化社),1961
 『朝鮮前期畿湖士林派研究』(一潮閣), 1984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韓國獨立運動之血史』(朴殷植, 維新社), 1920
 『韓國獨立運動史』1(國史編纂委員會), 1965
 『獨立有功者功勳錄』제1권(國家報勳處)
 『韓國獨立運動史』(에국동지원호회), 1956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12卷
 『橫城郡誌』
 『於斯買』(橫城文化院)
 『江原道史』

3. 論文

- 朴敬子,「高麗 鄉吏制度的 成立」,『歷史學報』63, 1974
 柳浩錫,「高麗時代 進士의 개념에 대한 檢討」,『歷史學報』121, 1989
 梁銀容,「元天錫의 三教一理論에 대하여」,『韓國宗教』11·12집, 1987
 崔 喆,「기행문학의 한 고찰」,『人文科學』42輯(延世大 人文科學研究所), 1979.
 朴智弘,「蓬萊別曲의 研究」,『港都釜山』4(釜山市史編纂委員會), 1964
 許興植,「東文選의 編纂動機와 史料價値」,『震檀學報』56, 1983
 李東歡,「東文選의 選文方向과 그 意味」,『震檀學報』56, 1983
 裴永煥,「寒岡 鄭述의 教育實踐」(영남대학교육대학원 석사), 1992
 柳柱姬,「元天錫의 生涯와 現實意識」(中央大大學院 碩士), 1990
 林鍾旭,「耘谷 元天錫의 詩文學 研究」(동국대대학원 박사), 1997
 金鉉龍,「李朝天君關係小説의 研究」,『상명여자사범대학 논문집』4, 1975.
 張浩重,「月川 趙穆의 現實認識과 詩世界」(안동대대학원 석사학위), 1993

李美亨, 『栢谷 金得臣의 詩世界 研究』 (고려대대학원 석사), 1991

林明德編, 「心史」, 『韓國漢文小說全集』 6 (中國文化大學·韓國精神文化
研究院), 1980.

青山定雄, 『李朝に於ける二三の朝鮮全圖について』, 『東方學報 9』 (東京),
1939.